다시 보는

명성황후

1

여주문화원

다시 보는 명성황후

여주문화원

명성황후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여주문화원은 명성황후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여주를 명성황후 연구의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2002년의 제1회 명성황후 재조명 심포지엄에서는 「명성황후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북한에서의 명성황후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 2003년의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정치속에서의 명성황후」를 주제로 개항이후 조선을 둘러싸고 세력다툼을 벌이던 청과 일본정계의 실력자들, 그리고 당시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서양인들은 명성황후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004년 제3회 심포지엄에서는 「명성황후와 항일의병운동」을 주제로 하여 한말 항일의병운동의 전개양상과 여흥민씨의 의병운동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의 제4회 심포지엄은 「명성황후와 개화기의 인물들」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말과 개화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다시 보는 명성황후』은 우리 여주문화원이 지난 4년간 개최하였던 네 차례의 명성황후 재조명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학계의 연구성과를 새롭게 수정 · 보완하여 한 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책이 명성황후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새롭게 활성화시키고 당시의 시대상을 재조명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의 명성황후 재조명 심포지엄 행사와 이번의 단행본 발간작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주군과 경기문화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집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명성황후재조명 심포지엄의 기획과 단행본 발간작업에 노고가 크신 오영섭 · 장영숙 두 분 교수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12월

여주문화원장 원용문

간행사

여한말의 격변기를 살다간 명성황후는 남편 고종과 더불어 조선의 자주와 독립 을 걱정하며 일제의 침략야욕에 맞섰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다. 그녀가 16세의 나이에 왕비에 오른 후 시해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조선의 정국은 임오 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등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격변기에 명성황후는 누구보다도 국제정세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국익을 위한 외교다변화를 위해 고종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베풀었다. 따라서 우리는 명성황후가 고종의 정치적 파트너이자 동반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평할 수 있을것이다.

명성황후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유약하고 어리석은 군주' 로 비춰진 고종을 자칫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여흥민씨 일족의 중심인물로서 여흥민씨들이 광범위하게 정계에 등장하도록 하는 구심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역할은 명성황후를 고종의 최대의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명성황후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는 곧 고종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의 상대적 실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둘러싼 한말의 정치적 구도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써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의 정치적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명성황후의 생가가 있는 경기도 여주군과 여주문화원에서는 그동안 명성황후에 대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그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체계를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명성황후 재조명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심포지엄은 2002년 부터 2005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회와 제2회심포지엄은 장영숙의 주관 하에 각각 「명성황후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국제정치 속에서의 명성황 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3회와 제4회 심포지엄은 오영섭의 주관 하에 각 각 「명성황후와 항일의병운동」, 「명성황후와 개화기의 인물들」이라는 주제로 개 최되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동원된 총 4회에 걸친 심포지엄에서는 명성황후와 관련

하여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현황과 연구성과가 검토되었고,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었으며, 명성황후를 비롯한 여흥민씨 일족의 항일의병운동이 검토되었고, 명성황후와 개화기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서 명성황후의 정치적 감각과 정세파악 능력이 남달랐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번에 여주군과 여주문화원의 후원으로 출간하는 『다시 보는 명성황후』는 그동안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수정 · 보완하여 수록한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명성황후의 명칭을 왕후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 책에서는 그녀의 시호를 기준하여 일관되게 황후로 표기하였다. 이 책이 명성황후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한말의 복잡한 정국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더러 미진한 부분들은 차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정을 기다린다.

끝으로 심포지엄을 후원해 주신 여주군과 여주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린다. 여주군은 명성황후를 배출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문화를 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가꿔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주문화원 역시 해마다 명성황후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명성황후 추모제를 지내는 등 여주군민과 일반인들에게 명성황후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명성황후 관련 행사가 여주의 특화된 지역 문화로 널리 인식되고 평가되기를 바란다. 또한 여러 모로 부족한 원고를 번듯한 책으로 만들어 주신 도서출판 역사만들기의 이기만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6년 12월

오영섭 · 장영숙

차례

발간사 • 3
간행사 • 4

1부 명성황후 연구의 동향과 과제

- 명성황후 연구동향과 역사적 재평가 / 서영희 • 11
- 명성황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평가 / 장영숙 • 39
- 일본에서의 명성황후 연구동향과 과제 / 서민교 • 59

2부 국내외 정세의 변동과 명성황후

- 명성황후와 중국과의 관계 / 구선희 • 77
- 일본의 조선침략과 명성황후 / 강창일 • 103
- 서양인의 견문기를 통해 본 명성황후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장영숙 • 125

3부 명성황후와 항일의병운동

- 개항 전후 여흥 민씨 세력의 동향과 명성황후 / 연갑수 • 151
- 경기 남부 지역의 을미의병투쟁과 그 성격 / 박민영 • 173
- 여흥 민씨 척족과 한말 의병운동 / 오영섭 • 195

4부 명성황후와 개화기의 인물들

-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 / 강상규 • 231
- 명성황후와 박영효 / 오연숙 • 259
- 명성황후와 이범진 / 오영섭 • 273

필자소개 • 299

1부 명성황후 연구의 동향과 과제

명성황후 연구동향과 역사적 재평가

서 영 희*

1. 머리말
2.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사 정리
3. 명성황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 근대사에서 명성황후만큼 역사의 파고에 따라 변화무쌍한 삶을 영위하고 사후까지 인구에 회자된 인물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생의 드라마틱함과 비극적 종말로 인해 소설이나 드라마의 단골소재가 되기도 했다. 1962년 영화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를 비롯하여 TV 드라마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고, 1995년 뮤지컬 "명성황후"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뒤로는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교수

하지만 명성황후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달리 학계의 연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을미사변의 진상도 아직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았음은 물론, 명성황후를 직접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을 조명한 논문도 거의 없었다. 남북한 역사학계 모두 조선왕조 말기의 역사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 평가로 일관했기 때문에 망국의 책임 한 가운데 서있는 왕실 구성원들이 연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근래에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고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1],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다 할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가 이렇듯 부진한 데는 자료의 문제도 한 몫 하였는데, 왕조시대 사료의 특성상 공식적인 통치사료에서 왕비의 정치적 언행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과 같은 자료가 기록하고 있는 전문(傳聞) 기록, 일제시기에 나온 한말 궁중 바사(秘史)류의 자료 혹은 명성황후를 직접 만나본 서양인들이 남긴 인상기 등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이들 자료들은 모두 어느 정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단편적인 사실의 과대해석 등으로 인한 왜곡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에 의해 악의적인 이미지 왜곡이 더하여진 결과 명성황후는 총명하나 부덕하고 간악한 왕비상을, 고종은 무능하고 유약한 군주상을 가지고 대중에게 다가왔다. 최근에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영향 탓인지 명성황후를 개화의 선각자로 보는 시각도 생겨났지만, 또한 지나친 미화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의 변천사를 일별해보고, 나아가 명성황후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 것인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이 시해를 결정할 만큼 한말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도 밝혀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대원군 및 고종과 명성황후의 관계를 단순히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틀로 보아왔기 때문에 한 역사적 인물로서 명성황후가 개화정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외교 책략가로서의 면모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

[1] 고종에 대한 재평가는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참조. 최근까지 이루어진 대한제국 논쟁의 성과와 쟁점에 대해서는 한영우 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2006 참조

명성황후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고종과의 관계에서 그녀의 역할과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두 사람을 정치적 동반자로 보거나 고종의 충실한 참모로서 명성황후를 위치지울 경우, 이러한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가 곧 고종의 무능을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 즉 고종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와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상치된다고 인식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개화정책이나 외교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명성황후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 고종을 허수아비로 보거나 저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한다. 아이디어를 누가 냈든 최고 통치권자인 고종이 동의해서 추진한 것이라면 최종 책임은 왕에게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오히려 명성황후에게 더 많은 망국의 책임이 들씌워져왔고,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이라는 시대의 엄혹함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될 만큼 준엄한 심판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다음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그녀가 과연 사치와 부패의 중심인 수구론자였는지 아니면 개항 이후 조선을 근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 개화의 선각자였는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친청(親淸)에서 친러(親露)로 외세를 바꾸어가며 끌어들인 사대주의자였는지 아니면 조선의 독립유지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외교 책략가였는지 판단하는 문제일 것이다. 사실상 명성황후가 외교를 주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고종이 명성황후의 조언을 받아 실시한 각국과의 수교는 균세외교론(均勢外交論)에 입각해 각국의 세력균형 하에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명성황후의 외교책략은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고 민씨척족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외세를 끌어들이다가 조선을 외세의 각축장으로 만들고 자신의 운명마저 재촉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날조한 간악한 왕비상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한 결과는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간의 연구사들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명성황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그녀의 개화정책과 외교책략은 현실적으로 성공가능한 것이었는지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사 정리

명성황후에 대한 당대인의 인물평은 황현의『매천야록』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된다. 황현은 전형적인 유교지식인의 시각에서 명성황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능력은 인정해주는 편이었다. 즉 명산 사찰에 세자를 위한 기도 비용을 낭비하고 진령군(眞靈君) 등 무속인에 의존한 것 등을 비판한 것은 평범한 한 아낙으로서 명성황후의 모습을 평가한 것이라면, 황후가 총민하고 정략도 풍부하여 언제나 고종의 좌우를 떠나지 않고 고종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었으나, 20년동안 정치에 간섭하면서 나라를 망치게 하고 천고에 없는 변을 당한 것' 이라는 평가는 황후로서 국정에 간여한 월권행위로 인해 변 을 자초했다는 유교지식인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명성황후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당색의 원파(源派) 및 문벌의 고하를 모두 암기하여 사람을 기용하였고, 제가문(諸家文)과 사기에 통달하여 백관의 장주(章奏)를 친히 보고 팔가문초(八家文沙)도 읽기 좋아해서 북경에서 산본을 구해다 읽을 정도로 지력이 있었다는 평가는[2] 황후의 국정 간여가 자신의 능력에 의거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사실 이러한 황현의 평가는 현재까지도 명성황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 일제시대에 접어들면, 일본인들이 쓴 명성황후에 대한 저서들이 나오는데, 기쿠치 겐죠(菊池謙讓)의『朝鮮最近外交史』(1910),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女王 閔妃』(1931) 등은 왜곡된 민비상(閔妃像)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저서들이다. 그밖에 비숍 언더우드, 로제티, 헐버트 등 서양인들의 기록은[3]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민비상을 남김으로써 명성황후의 이미지에 혼란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학계가 눈부시게 발전해 온 와중에도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 명성황후의 필적, 한글 밀서, 장례시 유물, 임오군란시 피난처 등을 소재로 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2] 황현, 「매천야록」 권1, 갑오이전'

[3] 서양인들의 한말 기록에 대해서는 정연태, 「광무년간 서양인의 고종관」「한국사연구」 115, 2001 참조.

있었고[4], 최근에는 명성황후의 사진 진위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5], 명성황후에 대해 전반적으로 역사적 재평가를 시도한 논문들은 아니었다. 대중적 출판계에서는 일본인 쓰노다 후사코(僚田房子)가 쓴 『민비암살』(1988)이 번역되어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명성황후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한 나홍주의 저작들도 있었으니,[6]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는 아니었다. 명성황후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가 가장 진척된 부분은 바로 을미사변의 진상 규명을 둘러싼 정치외교사 분야의 연구이다. 1992년에 발간된 『명성황후 시해사건』(최문형 外, 민음사)은 을미사변의 진상과 배경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규명한 대표적인 연구인데, 이때부터 명성황후의 외교정책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강창일[7], 이민원,[8] 김상수[9], 최문형[10], 유영익[11] 등은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아 을미사변은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즉각 전쟁을 감행할 형편이 못되었던 일본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차선의 대응책으로서, 기존의 대원군·훈련대 주모설이나, 미우라 주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적어도 일본정부의 핵심인물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계획이었다는 점, 궁극적 으로는 일본정부의 개입을 증명해 내기 위한 여러 논구들이 이 책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명성황후에 대한 개인 연구는 여전히 앞 시기의 상투적인 명성황후관을 그대로 답습한 채 "8세에 양친을 잃고…" 등으로 사실 관계에서조차 오류를 범하고 있고[12], 대원군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이미지만을 재생산하고 있다. 을

---

4 이겸로「명성황후의 친필 일편단충」『고고미술』38. 서울, 1963;「명성황후의 친필 한글밀서」『문학사상』, 1974년(年) 10월; 이호영 · 최근영,「명성황후의 피난처와 행궁조영」『사학연구』55 · 56 합집, 한국사학회,1998; 장경회,「대한제국기 명성황후의 국장유물 연구」『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1999 등

5 은정태「명성왕후 사진 진위논쟁」『역사비평』57, 2001년 겨울호 참조. 올해 2006년 7월에도 새로운 명성황후 사진이 발굴되었다는 기사가 각종 신문지상을 장식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6 나홍주「명성황후(1851~1895)재평가」r동북아』1,동북아문화연구원, 1995;『민비암살바판』, 미래문화사, 1990.

7 강창일 「三浦格樓공사와 민비시해사건」『명성황후시해사건』, 민음사, 1992.

8 이민원 「민비시해의 배경과 구도」, 위 책 .

9 김상수 「민비시해사건의 국제적 배경-일본정부의 개입과 관련하여」, 위 책.

10 최문형 「민비시해 이후의 열강과 한국-引假担日과 그후의 정황변화를 중심으로」, 위 책.

11 유영익 「청일전쟁 및 삼국간섭기 井上馨 공사의 대한정략-민비시해 원인론」, 위 책

12 이광린 「민비와 대원군」, 위 책.『매천야록』

미사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외교사적 연구는 이후에도 계속 되어서 최문형의 일련의 연구로 발표된 바 있다.[13]

한편 국사학계에서도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재평가를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니 바로 이배용의 연구이다.[14] 이 논문에서 명성황후는 비로소 1880년대 개화정국이라는 정치사적 배경 하에서 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명성황후의 위상이 여전히 대원군과 고종 사이에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식으로 가족관계의 틀 속에서 설정되고 있고, 사료의 제약 때문인지 명성황후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다.

명성황후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내놓은 것은 한영우의 저작이다. 한영우는 규장각 소장『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를 해제, 간행하는 과정에서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이 직접적으로 을미지변의 소산으로서, 고종은 황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무려 3년여 동안이나 국장을 연기해가면서 관료, 시민, 유생층의 중지를 모아 반일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대한제국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였다.[15] 대한제국의 수립과 을미사변을 연결시킨 설명 방식도 학계 최초의 시도이지만, 무엇보다도 명성황후의 가계와 성장과정에 대해 세밀한 논증을 가하고 그녀의 정책적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명성황후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다.

서영희는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진 명성황후의 이미지와 실제 사실의 부합 여부를 가리고, 나아가 개화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였는데,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열성황후왕비세보(列聖皇后王紀世譜)』,『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등 원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원군 및 고종과의 관계를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 내에서 분석하고, 개화정책 및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서 명성황후의 역할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명

[13] 최문형,「로일의 대립과 민비 시해사건」『역사학보』 168, 역사학회, 2000;『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1 등.

[14] 이배용,「개화기 명성황후 민비의 정치적 역할」『국사관논총』 66, 국사편찬위원회, 1995.

[15] 한영우,「을미지변, 대한제국 성립과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한국학보』 100, 일지사, 2000;『대한제국과 명성황후』, 효형출판, 2001.

성황후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16] 이하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명성황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명성황후에 대한 본격적인 학계의 연구를 촉발해 보고자 한다.

[16] 서영희, 「명성왕후연구」, 『역사비평』 57, 2001 및 「명성왕후재평가」 『역사비평』 60, 2002. 이하 이 글은 위 두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3. 명성황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1) 출생 및 집안배경

명성황후의 출생과 집안배경에 대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에는 잘못된 기록들이 매우 많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계모에 의해 길러졌다거나 몰락한 가문의 고아소녀가 일약 중전마마가 되었다는 식으로 소설 등에서 그려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열성황후왕비세보』와『선원계보기략』에 의하면 명성황후는 여흥(驪興) 민씨 민치록(閔致祿, 1799~1858)의 외동딸로 철종 2년(1851) 9월 25일(음력) 경기도 여주 근동면 섬락리에서 태어났다.[17]

여흥 민씨는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조에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와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배출한 노론 명문이다. 장희빈 때문에 매우 유명한 인현왕후의 아버지로서 노론 척신이었던 민유중(閔維重)이 명성황후의 6대조이고 좌참찬과 홍문관 제학을 지낸 민진후(閔鎭厚)가 5대조이다. 명성황후의 고조 익수(翼洙)는 학문이 높아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사헌부 장령을 지낸 숙야재(夙夜齋) 선생이고, 증조 백분(百奮)과 할아버지 기현(耆顯)은 대를 이어 문과에 합격하여 각각 성균관 대사성과 이조참판을 역임했다. 이러한 집안배경을 바탕으로 명성황후의 아버지 치록은 문음으로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탓으로 장릉 참봉을 시작으로 종 6품의 제용감 주부, 사복시 주부, 사옹원 주부 등을 역임하고 과천현감, 임피현령, 덕천군수, 영천군수 등 지방 외직을 전전하다가 병을 얻어 철종 9년(1858)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최고 관직은 종4품의 장악원 첨정이었다.

양자 민승호가 찬술한 민치록의 행장에 의하면 첫 부인은 그가 스승으로 모셨던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의 딸로서 36세로 요절했고 한 점 혈육도 남기지 못했다. 오희상은 세도정국에 대한 불만으로 관직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은일

[17] 현재 여주시 여주읍 능현리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로 알려져 있는 집은 원래 6대조 민유중의 墓幕이 있었던 곳이라 하며, 집 앞에 순종의 친필로 明成皇后誕陸舊里陣가 세워져 있다.

로 자처했지만, 정조의 지우(知愚)를 받은 19세기 노론 닥론 학맥의 정통 산림이었다. 그의 문하인 유신환(兪莘煥)의 제자 중에는 온건 개화파인 김윤식을 비롯하여 민태호, 민규호, 민영목 등 고종 시대를 이끌어 간 개화 인맥들이 나왔다. 오희상은 자신이 칭찬해마지 않던 제자이자 사위인 민치록의 부탁으로 자기보다 먼저 죽은 딸의 묘지명을 지어 애도하기도 했는데, 민치록이 오희상과 사승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집안이 19세기 세도정국을 이끌어가던 경화사족(京華士族)즉 서울과 서울 인근에 세거하는 노론계열의 관료 · 지식인집단의 범주에 들어감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18]

민치록의 두 번째 부인은 한산 이씨로 1남 3녀를 두었으나 모두 일찍 죽고 막내딸 하나만 남았는데, 그가 바로 명성황후였다. 이에 민치록 생전에 대를 잇기 위해 민치구(閔致久〕의 아들 승호(升鎬, 1830~1847)를 양자로 삼았는데[19] 고종친정 초기에 세도가를 자임하다가 대원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폭약상자를 받고 명성황후의 생모 이씨(당시 57세)와 함께 폭사한 인물이다. 전체적으로 명성황후의 집안은 왕비로 간택되기에 가격(家格)에 전혀 하자는 없었으나, 아버지 치록의 벼슬이 높지 못했고 더구나 명성황후가 어려서 사망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곤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후예라는 자부심은 대단해서 명성황후의 중전 간택은 곧 인현왕후 집안에서 다시 왕비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또한 명성황후의 어릴 때 이름은 자영(紫英 혹은 茲暎)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정비석의 소설에 나온 이름이고 사료적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아마도 명성황

후가 태어날 때 집안에 붉은 빛이 비치면서 이상한 향기가 났다는 전문을 토대로 창작된 이름인 것 같다. 호(鎬)자 항렬을 따른 이름 정호(貞鎬)라고도 알려져 있으나[20] 역시 사료에는나타나지 않는다. 명성황후가 고향인 여주를 떠나 서울에 올라온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오라버니 민승호를 통해 대원가와 연결된 시점에는 이미 서울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명성황후의 출세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민승호는 대원군의 부인인

18 민치록의 선대인 민유증, 민진후, 민기현의 묘는 경기도 여주에, 민익수는 경기도 광주, 민백분의 묘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걸로 봐도 이 집안이 대대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세거하며 활동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19 『列聖皇后王妃世譜』, 閔致祿 行狀

20 윤정란, 『조선의 왕비』 차림, 1999, 237쪽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의 친동생으로서 명성황후와 대원군 가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여흥 민씨 계보도에 의하면 민승호는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의 고조인 민진후의 동생 민진영(閔鎭永)의 후손 민치구의 아들로서, 두 집안은 5대조 민유중에게서 갈려나온 한 집안 간이었다. 민치구에게는 대원군 부인 민씨와 태호(泰鎬), 승호(升鎬), 겸호(謙鎬)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 승호가 명성황후의 친정으로 양자를 감으로써 대원군가와 명성황후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명성황후가 서울에서 생활했다고 알려져 있는 안국동의 감고당(感古堂)은 현재 덕성여고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대원군의 사저 운현궁은 바로 길 하나 건너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었다. 감고당은 옛날 인현왕후가 태어나고 또 살았던 집으로, 민유중의 5대 장손인 민치록대에까지 대대로 물려받아 서울 집으로 사용된 것 같다. 고향인 여주에서도 민유중의 묘막터에 집을 짓고 살았듯이 명성황후 집안은 민유중, 인현왕후의 직계로서 재산과 가문의 명성 등을 모두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종이 친히 지은 명성황후 행록(行錄)에 의하면, 1865년 감고당에서 명성황후와 어머니 이씨가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인현왕후가 나타나 "나의 뒤를 이어 중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21]

어쨌거나 감고당의 주인으로서 현재는 낙척했지만 인현왕후 계보의 직계 장손인 민치록가와 한동네에 살면서 역시 몰락한 종친 대원군의 부인 민씨는 비록 촌수는 멀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승호의 양자 입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민승호 역시 친누님의 배경을 믿고 출세를 꿈꾸게 되었고, 고종의 왕비감으로 자신의 누이동생을 적극 추천했을 것이다. 흔히 명성황후를 대원군에게 추천한 것은 부대부인 민씨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 과정에서 그녀의 친동생인 민승호가 적극 개입했을 것임은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명성황후와 부대부인 민씨는 민승호를 각각 양오라버니와 친남동생으로둔 관계이고 민씨 일가 내에서 촌수로 보아도 12촌 자매지간이면서 다시 며느리와 시어머니 인연을 맺은 매우 특이한 관계였다. 요즘의 통념으로는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우나, 왕실의 혼사는 여염집의 그것과 달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적 고려가 우선

21 『고종실록』 권 36, 광무 원년 11월 22일 御製行錄.

되어서 맺어진 결혼이었다.

2) 대원군 및 고종과의 관계

처음에 대궐에 들어간 명성황후의 일상은 역대 여느 왕비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웃어른인 대왕대비 조씨를 비롯하여 헌종비 철종비 등 대비들을 모시는 일에서부터 각종 제사의례 등에 참석하고 주관하는 일을 수행했다 고종이 익종의 후사를 잇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으므로 조대비는 황후의 시어머니격이었는데, 조대비는 자신을 지성으로 섬기는 명성황후에 대해 그 효성을 칭찬하고 궁중 내 대소사를 모두 중전에게 맡긴다는 전교를 내릴 정도로 신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명성황후가 평범한 왕비의 일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국정에 간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또 어떤 연유에서였는가? 왜 그는 자신을 발탁한 대원군을 저버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인륜관계를 넘어 영원한 정치적 맞수로 변신하게 되었는가? 일반적으로 얘기되기로는 세자책봉 문제를 둘러싼 대원군과의 갈등이 그 시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세에 결혼한 명성황후는 결혼한 지 다섯 해에 접어들도록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해, 고종의 사랑을 받던 궁인 이씨에게서 1868년 4월 완화군(完和君) 선(墡)이 태어났고, 손자를 기다리던 대원군이 완화군을 귀여워하면서 세자로 책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황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대원군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후사를 보지 못해 애를태우던 명성황후가 고종 8년(1871) 11월 드디어 첫 왕자를 낳았는데, 쇄항증(鎖肛症)이라는 선천적 기형으로 5일 만에 죽게 되자, 그 원인이 대원군이 보낸 산삼에 있다고 믿은 황후의 적개심이 더욱 고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원자의 죽음에 얽힌 비사와 후궁인 이씨, 장씨와 명성황후 사이에 얽힌 처첩간 투기 등은 야사의 단골메뉴가 되어 세간의 흥미를 집중시키지만, 과연 이러한한 여인으로서의 한이 명성황후의 국정참여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동인이었을지는 의문이다.

『선원계보기략』에 의하면 명성황후는 총 4남 1녀를 생산했다. 태어난 지 5일 만에 죽은 원자의 뒤로 딸(1873년생)이 하나 있었으나 역시 222일 만에 사망하

고, 1874년 2월 두 번째 왕자가 태어났는데, 바로 나중에 순종이 된 세자(황태자) 이척(李坧)이다. 3남(1875년생, 14일 만에 사망)과 4남(1878년생, 105 일 만에 사망)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22] 순종은 어려서 천연두를 앓았고 옆구리 담증으로 고생하는 등 잔병치레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세자빈 민씨(閔台鎬의 딸로 1882년 세자와 가례 1904년 33세로 사망)와 계비 윤씨(尹澤榮의 딸로 1906년 가례)에게서 한 점 혈육도 얻지 못한 걸로 보아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인 세자마저 병약하여 어머니로서 명성황후는 매우불행했다. 그것이 황후로하여금 무당에 의존하게 하고 명산대천에 수만 냥 거금을 써가며 기도를 드리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명성황후는 세자의 훈육에도 열심이어서 겨우 젖니를 갈 무렵부터 서연(書筵)을 열어 공부를 가르치게 하고 매번 강론한 내용을 질문하며 확인했다고 전해진다.

고종의 자녀는 명성황후 소생 외에도 귀인 이씨와의 사이에 완회군 선(墡)과 두 딸이 있었는데, 완화군은 13세에, 두 딸은 어려서 사망했고, 귀인 장씨가 낳은 의화군(堈)이 있었으며, 대한제국기에 정비로 책봉된 엄비 소생으로는 영친왕은(垠)이 순종의 뒤를 이어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또 다른 귀인 이씨 소생의 육(堉)과 귀인 정씨 소생 우(堣)도 어려서 사망했다고 한다. 대한제국 마지막 옹주로 알려져 있는 덕혜옹주는 귀인 양씨(福寧堂) 소생이다.[23] 이상 정비와 후궁 소생을 모두 합쳐 총 9남 4녀 중 3남 1녀가 살아남았으니, 당시 민간의 높은 영아사망률 못지않게 조선왕실의 영아사망률도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후사가 없었던 철종의 경우도 정비와 여러 후궁들 사이에서 총 5남 6녀를 두었으나 나중에 금릉위 박영효의 부인이 된 영혜옹주(숙의 범씨 소생)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는 모두 일찍 사망하여 후사를 이을 수 없었다. 명성황후의 친정만 해도 많은 자녀들 중 그 자신만이 살아남은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의 의료수준으로 보아 명성황후가 생산한 자녀의 단명과 불행은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더욱이 대원군의 저주 때문도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계기로 며느리와 시아버지간의 관계가 그토록 뒤틀렸다고 보는 것은 일반 사가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최고 권력층 내부의 갈등을 재단하는 넌센스에 해당될 것이다.

---

22 한영우, 『대한제국과 명성황후』, 효형출판, 2001 참조.

23 『선원세보기략』(장서각 소장, 1931年刊)),

그보다는 10년에 걸친 대원군의 철권통치가 성년이 된 국왕 고종에게 큰 불만으로 다가왔고, 고종 자신이 생부인 대원군에게서 빼앗긴 왕권을 탈환해오려고 친정의지를 다지는 과정에 명성황후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대원군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고 봄이 옳을 듯하다. 이 점에 대해 명성황후가 대원군과 고종이라는 부자지간의 권력 갈등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24] 즉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해보면 아버지인 대원군에 대해 정면도전하기 어려웠던 고종이 명성황후를 내세워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은 뒤에 숨어 불효자의 이름을 벗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고종이 아내를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이든 혹은 명성황후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종 친정을 권유한 것이든,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관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권력암투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왕비간택이라는 선연(善緣)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고종 10년(1873) 11월 친정선언을 계기로 정적 관계로 변모한 것이다.

권력을 빼앗긴 대원군 측에서는 곧 반격을 시작했다. 고종의 친정선언 직후인 1873년 12월 명성황후의 침전에 폭약을 설치하여 경복궁에 대화재를 일으킨 것도 운현궁의 소행이라고 알려져 있고, 1874년 11월 황후의 양오라버니 민승호와 생모 이씨를 폭사시킨 폭약상자도 대원군이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원군은 또한 임오군란 당시에 재집권했을 때 중전의 시신이 없는데도 '중전 승하를 발표하여 국상을 진행시킴으로써 명성황후의 정치적 매장을 시도했다. 장호원까지 도망했던 황후는 결국 생환했지만, 대원군은 다시 청에 납치되어 3년여의 유폐생활 끝에 귀국할 수 있었다. 목숨을 건 두 사람의 혈투는 결국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후 끝이 났다 하지만 이날 일본낭인들과 함께 입궐한 75세의 노인 대원군 역시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어 며느리의 죽음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양자의 갈등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면 자칫 국정운영의 주체였던 고종의 역할을 폄하하게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간의 권력다툼이 망국의 원인이었다는 식민사관의 논리를 뒤따르게 될 위험성이 있지만, 어쨌건 두 강한 캐릭터의 잘못된 만남이 한말 궁정비극의 씨앗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

[24] 이배용, 「개화기 명성황후 민비의 정치적 역할」 『국사관논총』 66, 1995.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명성황후와 남편 고종의 관계이다. 명성황후는 과연 고종의 왕권을 유린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는가? 또 아버지 대원군에게서 천신만고 끝에 왕권을 되찾아온 고종은 또 다시 황후와 그 일족에게 국정을 위임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성황후는 고종의 왕권을 압도하기보다 그의 충실한 참모이자 정치적 반려자였다고 생각된다. 즉 남편인 고종이 황후의 국정간여를 용인하지 않았다면 강력한 친정가문의 배경도 없는 명성황후는 그 월권행위로 인해 당장 폐비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비 자리에 올랐다가 이러저러한 사소한 이유로 혹은 당파싸움의 와중에 휘말려 폐비된 여러 왕비의 운명에서 보여지듯이, 황후의 자리는 결코 확고부동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명성황후의 국정간여와 정치적 역할이 계속되었다면 그것은 곧 최고권력자인 고종의 의지가 아니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고종은 대원군과 조대비에 의해 갑자기 만들어진 왕이다. 안동 김씨 세도를 종식시키고 풍양 조씨 가문의 위세를 세워보려던 조대비가 몰락한 종친 이하응과 결탁하여 그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앉힌 후 3년간은 수렴첨정을 실시했다. 다옴에는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세도가 이어졌다. 즉위한 지 10년 만에 이제 성년이 된 고종이 중전과 힘을 합쳐 겨우 왕권을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친위 기반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별다른 정치적 기반을 갖지 못한 고종이 조야에 편만한 대원군세력을 제압하고 스스로 통치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정치적 조언과 민씨 일족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고종에게 여흥 민씨는 처족일 뿐 아니라 외가이기도 하고 또 진외가 즉 할머니의 친정가문이기도 하니 오히려 종친보다 더 안전한 친위기반일 수 있었다. 대원군의 서자인 이재선(李載先)이나 장손자 이준용(李埈鎔)[25]이 자주 역모사건에 휩쓸리는 예에서 보이듯이, 종친은 자칫하면 왕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친정 초기에 흥선대원군의 형인 흥인군 이최응(李最應)과 고종의 형 이재면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대원군으로부터 떼어놓았지만, 대원군 10년 세도의 기반은 쉽사리 해체

[25] 대원군의 장자인 李載冕 아들(필자 註).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자신들만을 위해 충성을 다할 친위세력이 필요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민씨 세력의 등용으로 이어졌다. 즉 명성황후의 국정간여와 민씨 일족의 정계진출은 고종의 동조 내지는 유도에 의한 것이었고, 안동 김씨의 세도나 대원군의 집정처럼 왕권을 압도하는 형태가 아닌 보좌하는 형식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인마저 돌아간 상태였으므로 처족인 민씨들이 집결한다고 해서 19세기 세도정권기처럼 왕의 권위마저 누르고 국정을 농단할 세도가가 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는 점도 고종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민씨 세력을 중용케 한 한 원인이었을것이다.

고종이 명성황후의 내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명성황후 국장시에 편찬된 어제행록에 잘 나타나 있다. "집안이 대대로 의리를 강구하니 황후도 어려서부터 이를 전수받아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데 있어서 마치 못과 쇠를 쪼개듯이 날카로웠다. 예지가 타고난 천성이어서 귀선과 같았다. 어려운 때를 만나니 더욱 살뜰히 나를 도와서, 내가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앉아있었고, 근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풀어주었다. 특히 외국과 교섭하는 문제에서도 수원정책(綏遠政策)[26]을 권하여 사신으로 각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국인들도 모두 감복한다고 했다. 황후가 일찍이 나에게 말한 것들이 지나고 보니 모두 그 말 대로이니 황후의 통달한 지식과 원려(遠慮), 미래에 대한 요량이 고금에 미칠 바 없이 탁월하다. 훌륭한 공덕으로 나를 곁에서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정사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30년간 대궐에서 정사를 도외주고도 간고하고 험난한 일만 당하다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45세라는 중년의 나이에 돌아간 아내에 대한 고종의 회한이 절절이 묻어나는 어제행록을 읽어보면, 명성황후의 죽음에 대한 고종의 애도가 결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인재등용에 대해서도 황후가 괜찮은 인물은 전적으로 신뢰하되 그렇지 않은 인물은 빨리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김홍집, 유길준, 조희연, 정병하 같은 인물을

[26] 먼 나라를 끌어들여 가까이 하는 정책 (필자 註).

키워서 을미지변을 당하게 했다고 후회 또 후회하고 있는 고종은 명성황후 장례 때는 직접 무덤 속에 들어가는 관의 명정(銘旌)을 쓰기도 했다. 황태자가 작성한 예제행록(睿製行錄)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은 밤에도 불빛이 환히 비치고 말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고 회고했듯이, 고종과 명성황후는 금슬 좋은 부부이자 여러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동지애로 다져진 정치적 반려자였다.

3) 여흥민씨 일족과의 관계

명성황후의 정치적 기반 중 첫째가 고종의 전폭적 신뢰였다면, 다음은 친정가문인 여흥 민씨 일족이었다. 여흥 민씨 일족의 정계 등장을 19세기 세도정권과 같이 보는 사람들은 흔히 민씨척족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그들의 정치적 위상은 세도정권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앞서 지적했듯이 민씨 척족은 세도가문이라기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위집단이었다. 세도정권하에서는 원래 세력있는 가문의 딸이 왕비가 되고 그 친정아버지나 오빠가 유약한 왕 대신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정조의 유지를 이어 순조의 국구가 된 안동 김씨 김조순과 그 자손들의 세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김조순의 직계와 7촌 이내에서 순종비, 헌종비, 철종비가 연이어 나왔고, 그 아버지나 오빠 등이 세도재상이 되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김조순 가문은 김상헌, 김창집을 잇는 조선 후기 노론 계보 중 최대 명문으로서 서울의 북촌 자하동에 세거하여 장동장(壯洞) 김문(金門)이라고도 불리던 경화거족이었다. 아들 김유근과 김좌근, 손자 김병기로 이어지는 김조순 가문의 세도는 1863년 대원군과 조대비 연합세력이 고종을 즉위시킬 때까지 약 60년간 계속되었다. 가히 김조순 가문 3대가 천하를 요리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흥 민씨 일족은 우선 김조순에 비견될 만한 구심점이 없었다. 고종이 아버지 대원군세력에 맞서 처족을 친위세력으로 양성해가는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민씨 일족을 끌어 모았을 뿐, 그녀에게는 친정아버지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었다. 장동 김문에 비하면 여흥 민씨는 세력이 미미한 수준이었음은 물론이고 대부분 명성황후와 같은 항렬 혹은 조카빨에 해당되

는 인물들이어서 국왕권을 압도할 세도재상은 나올 수가 없었다.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1873년 11월부터 갑오 개화정권의 수립으로 잠시 뒤로 물러나는 1894년 6월까지 의정, 판서 , 참판, 참의, 승지 등 고위관직을 역임한 민씨 일족은 모두 51명이고, 그중 대다수인 47명은 민종묵(閔種默), 민철훈(閔哲勳) 부자 등 4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치(致) 호(鎬), 영(泳), 식(植), 병(丙)자 항렬에 속했다. 이 시기에 활약한 민씨들은 대부분 17세기 후반의 민시중(閔著重), 민정중(閔鼎重), 민유중(閔維重) 3형제의 자손으로서 소위 삼방파(三房派)라 불리었다.

여흥 민씨들은 갑신정변 직후인 1885년 이후 세력을 더욱 확대하여 한때 전체 의정부 당상직의 15%를 차지하기도 했다. 철종 연간 안동 김씨가 한때 비변사 당상직을 30%까지 차지한 것에 비하면 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권획득 이후 십수 년에 지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급속하게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었다. 특히 요직인 이조 · 병조판서와 선혜청 당상직을 독점하고 청요직으로서 왕을 알현할 기회가 많은 규장각의 상위관직, 각 군영의 우두머리, 신설아문 당상직 등에 포진함으로써 세간에 민씨 척족정권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 민씨 일족에 대한 민중의 반감도 그만큼 컸던 것이다.

하지만 역시 민씨 일족은 세도재상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안동 김씨에 비하면 매우 취약한 세력이었다. 처음에는 명성황후의 양오라버니 민승호가 세도를 자임했으나, 고종 친정 1년여 만인 1874년 대원군에 의해 제거되었고, 이후에 등장한 민규호(閔奎鎬)는 개화에 앞장서서 민씨 일족 중 가장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되나, 1878년에 병으로 급서했다. 그는 또한 명성황후와 계보상으로 먼 친척(12촌)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세도재상이 될 가능성은 적었다. 소위 권력을 휘두르기로는 민승호의 친동생이자 대원군의 둘째 처남인 민겸호(閔謙鎬)가 세력이 있었으나, 선혜청 당상직에 오래 있으면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임오군란에서 살해되었다. 1882년 딸이 세자빈에 책봉된 민태호(閔台鎬)는 민규호의 친가 동생으로서 그 아들 민영익(閔泳翊)을 명성황후의 양오라버니 민승호의 양자로 입적시킴으로써 황후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그마저 갑신정변의 와중에서 살해당하자, 이제 명성황후와 가까운 호(鎬)자 항렬 민씨는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민태호 사망 이후에는 황후의 친정조카인 민영익과 민겸호의 아들 민영환(閔泳煥) 정도가 가까운 친정붙이인데, 그들은 아직 연소하여 정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없었다. 고종과 황후는 겨우 18세인 민영익을 위해 의정부 부유사당상직까지 신설하면서 총애했지만, 그는 개화정책 추진과 대청관계 등에서 황후와 의견충돌을 빚다가 해외로 망명해버렸다. 1880년대 후반에 활약한 민응식(閔應植)이나 민영준(閔泳駿)[27]은 계보상으로 명성황후와 매우 멀어서 척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인물들로서, 민씨 일족은 척족세도를 유지하기에는 사실상인물난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동 김씨 세도정권에 비하면 민씨 일족은 안팎의 도전에 매우 취약한, 명성황후라는 구심점이 없으면 바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있었다. 명성황후가 사망한 이후 대한제국기에는 고종이 민씨 일족보다 오히려 이용익(李容翊) 등 측근 친위세력과 젊은 궁내관(宮內官)들에 의존하여 정국을 운영했다. 결국 이처럼 취약한 정치적 기반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명성황후는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 국정운영에 간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세간에 권력을 탐한 여인으로 황후의 정치적 역할을부각시키게 한 한 원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4) 수구본당인가, 개화당의 영수인가

흔히 민씨 척족정권을 수구(守舊) 사대(事大)) 정권이라 평가하고 그 중심에 명성황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명성황후는 처음엔 오히려 개화당의 영수격이었다. 명성황후가 개화와 서양문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사실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개항 교섭 당시 신헌(申櫶)이 '중궁(中宮)'의 교지를 받고 교섭에 임했다는『매천야록』의 기록은 좀 과장된 것일지는 몰라도 명성황후가 개항과 개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항간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명성황후는 왜 개화를 추진하게 되었는가. 명성황후가 개화로 방향을 튼 것은 단지 시아버지 대원군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서였는가? 그보다는 기본

[27] 후에 泳徽로 개명(필자 註).

적으로 명성황후의 친정인 여흥민씨 일족의 학풍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이 노론 산림(山林) 오희상의 애제자였고, 오희상의 문하였던 유신환의 제자 중에서 개화인맥이 쏟아져 나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일족은 기본적으로 북학풍의 전통을 이어받은 동도서기론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개화는 이미 대세였고 다만 방법론이 문제가 될 따름이었던 것이다.

고종 역시 비록 청의 권고가 있기는 했지만 스스로 이미 개항을 결심한 상태였고, 또한 상당한 개화의지를 가지고 서양사정을 탐문하고 있었던 점은 여러 기록들에서 확인된다. 『해국도지(海國圖志)』, 『영환지략(瀛環之略)』, 『이언(易言)』 등의 양무서적들을 읽고 있었음을 미루어 볼 때 아직은 동도서기론적 한계에 갇혀있기는 해도 당시 조야에 편만한 위정척사 세력들에 비하면 대단히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종의 개화의지에 불을탱기고 옆에서 북돋운 인물은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개화정책의 추진세력을 밝히는 작업이다. 개화파 연구에 따르면, 1872년 제2차 사행 이후 본격적으로 개국통상론을 주장하며 북촌의 양반자제들을 계몽하기 시작한 박규수의 사랑방에 드나들던 일군의 청년 개화파, 즉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홍영식(洪英植) 등 노론 명문의 자제들은 이미 과거 합격 이전부터 왕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권력핵심에 접근하여 고종과 명성황후가 개화를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고종이 김옥균, 박영효 등을 총애한 반면, 명성황후는 자신의 친정조카인 민영익을 후원하여 개화정권의 핵심으로 삼으려 하였다. 민씨척족의 젊은 세도가로 떠오른 민영익(1860년생)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기로 소문이 나서 명성황후의 친정에 양자로 입적된 인물이었다. 즉 1874년 아들과 함께 폭사한 명성황후의 친정오빠 민승호의 대를 이을 인물로 민영익이 발탁된 것이다. 명성황후에게 그를 추천한 사람은 민승호 사후 일시적으로 세도를 자임한 민규호(閔奎鎬)로서, 그의 친형 민태호(閔台鎬)의 아들인 민영익을 황후의 친정에 양자 보냄으로써 자신의 세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명성황후로서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친정을 지켜줄 조카인 민영익에게 매우 절실한 지원의지를 가졌을 것임은 누가 봐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젊고 총명한 민영익을 민씨척족의 핵심으로 삼고 그밖에 신진기예인 개화세력들을 모아 개화정권을 구축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사실 대원군 및 기존의 안동김씨 세도가문에 비해 세력이 미미한 여흥 민씨 일족만으로는 고종도 명성황후도 확실한 정권기반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시의 불가피한 시무였던 개화를 추진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최선책이기도 하였다.

명성황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영익을 해외에 보내서 직접 문명개화의 실상을 보게 하고 싶어 했다. 1881년 12월, 이동인의 일본행 이후 일본의 내외정세에 더욱 호기심을 가지게 된 김옥균 등이 어윤중의 일본 · 중국 여행기인 「중동기(中東記)」를 읽고 드디어 도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명성황후는 민영익에게도 함께 도일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여러 여건상 김옥균, 서광범만 도일에 성공하여, 이듬해인 1882년 6월 귀국하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일본의 문명개화의 실상과 고종의 관심사인 일본 조야의 대한(對韓) 정책 등을 탐문하고 돌아오지만, 명성황후는 내심 김옥균 등 보다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민영익이 직접 일본의 서기수용 실상을 보고 오기를 바랐을 만큼 개화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1881년 영남만인소 사건 및 1882년 6월의 임오군란에서 보여지듯 개화에 대한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이재선 사건' 으로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대원군세력의 정치적 야심도 여전하였고, 무엇보다 민중의 지지가 전혀 없는 것이 명성황후와 개화정권의 최대 약점이었다. 특히 임오군란은 민씨척족들을 앞세워 개화를 추진해 온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군란의 와중에서 당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던 주요 인물 즉, 이최응, 민겸호, 김보현 등이 살해되었는데, 이최응은 고종의 중부(仲父)로서 종친세력을 대표하여 고종 친정체제에 힘을 실어왔고, 민겸호는 민규호 사후 민씨 척족의 세도를 자임해 왔으며, 김보현은 민영익의 처조부였다. 민영익을 비롯해 살아남은 민씨 일족들은 모두 지방으로 피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봉기에 참여한 난민들의 최종 목표는 개화의 상징이자 민씨척족세력의 근원인 명성황후였다. 난민들은 대궐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명성황후를 처단하기 전에는 물러가지 않겠다고 버렸으므로 봉기군에 의해 옹립되어 입궐한 대원군은 할 수 없이 황후가 살해되었다고 국상을 반포하였다. 사실 시체를 찾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혹 황후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다시 대궐에 돌아올 수 없도록 정치적 사망신고를 낸 것이다. 궁녀의 가마로 변장하고 도성을 탈출하여 장호원에 있는 민응식의 향제에 피신해 있던 명성황후는 자신의 최대 정적이자 시아버지인 대원군에게서 사망선고를 당하는 수모를 맛보아야 했다. 그런데도 명성황후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사그러들지 않아서 국상을 치르기 위해 설치된 망곡(望哭))처소에 분향하려는 양반관료들을 길에서 가로막고 봉욕을 주며 가마를 부수는 행위까지 있었다 한다.

이 같은 명성황후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과연 정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개항 이후 물가 폭등으로 인한 하층민의 생활고가 누군가 그 화풀이 대상을 찾아야할 만큼 혹독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고가 개화비용의 증대와 명성황후가 세자를 위한 기도에 쓰는 국고 낭비 때문이라는 풍설을 믿었다. 게다가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기구에 주요 요직은 모조리 민씨척족들이 차지했으니 개화는 오로지 민씨척족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라는 불신과 오해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궁궐에 난입한 봉기민들은 궁중 소유의 서적들을 모두 서교서(西敎書)라고 해서 불태워 버리고 새로이 들여놓은 각종 기기나 물건들을 부서버리는 반개화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 개화정책의 추진은 당시의 시무였고, 명성황후가 봉기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친일적인 것도 아니었으나, 민씨척족의 폐쇄적인 권력 독점과 부패는 정치권의 소외 계층을 양산함과 아울러 개화에 대한 민중의 불신을 조장하는 근본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난리를 치른 후 실로 50여 일만에 환궁한 명성황후는 권력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더욱더 민씨 일족에게 의존하며 적극적으로 근왕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대궐에서 떠나 있는 동안 고종과의 사이에서 연락병 노릇을 했던 함경도출신 이용익이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출세가도를 걷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김옥균 등 개화파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뢰를 보내는 고종과는 달리 점점 의구심을가지게 되었다. 명성황후에 있어서 개화는 정권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인 만큼 다른 누가 아니라 민영익을 비롯한 자신의 친정세력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명성황후와 민씨척족세력이 점차 자신들을 소외시키는데 대해 불안을 느낀 개

화파는 서둘러 정변을 일으키고 말았다. 정변 당시 민영익이 개화파에 의해 중상을 입고, 민태호, 민영목등 민씨척족과 조영하(趙寧夏), 이조연(李祖淵), 한규직(韓圭稷), 윤태준(尹泰駿) 등 왕실의 친위관료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본 명성황후는 개화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도전세력으로부터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법하다. 따라서 1885년 5월 근대화 추진 기구로 설치된 내무부(內務府)는 대궐 내에 두고 왕실이 직접 개화자강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청의 간섭과 재정부족으로 개화정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였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개화파 대신 외국인 고문관과 일부 신진 개화파에게 의지하였으나 이미 개화정책의 추진기반은 상당히 협소화 된 상태였다. 친청 쪽으로 기울어진 민영익이 황후와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886년 해외로 망명한 이후에는 척족 내에서 명성황후를 직접 보좌해 줄 인물도 부재한 상태였고, 민영준(閔泳駿), 민병석(閔丙奭), 민응식(閔應植)등 나머지 민씨 일족들은 명성황후와 가까운 촌수가 아니었으므로 민씨척족정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뚜렷한 구심점도 없는 형편이었다. 개화가 아무리 시대적 과제라지만 절대 다수인 민중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명성황후가 차지하고 있는 국모의 자리란 허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5) 친청인가, 반청인가

명성황후가 국제정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를 주지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명성황후의 시의(侍醫)였던 언더우드 여사는 명성황후가 세계 각국의 사정에 대해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할 정도로 관심이 깊었으며, 황후 자신이 직접 기민하고 유능한 외교관으로서 반대자들도 그 기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가 난군들에 의해 봉변을 당한 원인도 첫째가 외교를 주지하며 개화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김윤식의 주장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고종도 황후의 외교정책을 '수원정책' 이라고까지 명명하면서 외국인도 그 탁월함을 인정할 정도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평가의 초점은 명성황후가 과연 조선의 외교정책을 주도했는가라는

것 보다는 그녀가 구사한 외교 책략이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이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을 것이다.

우선 항간에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명성황후가 민씨 척족과 함께 친청사대주의자였다는 오해이다. 물론 개항 초기 고종과 황후의 외교정책은 철저하게 청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876년 조일 수교와 1882년의 조미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개항과정은 청의 이홍장이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에 따라 조선에 여러 열강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상호 견제 하에 세력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청은 러시아의 침략 위협을 과장하여 조선의 집권층에게 과도한 공러(恐露)의식을 불어넣는데 열심이었다. 개항 초기 고종도 이러한 청의 의도대로 1880년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금과옥조로 삼아 청의 외교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청의 속방화 정책이 가시화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명성황후와 민씨척족들이 임오군란 이후 친청 수구로 돌아섰으므로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해왔다. 명성황후는 과연 친청 사대주의자였는가? 기존 연구에서 명성황후가 친청파로 낙인찍힌 결정적인 계기는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나 민씨척족이 청에 파병을 요청하여 정적인 대원군을 납치하게 하고 이후 정권 유지를 위해 친청 사대로 일관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청군의 파병은 어디까지나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정책 차원에서 청이 결정한 것이지 명성황후나 고종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측의 파병요청이 있었다면 당시 천진에 체류 중이던 김윤식과 어윤중이 청측의 자문에 응해 파병과 대원군 제거만이 조선의 혼란을 평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의견을 개진한 정도이다. 청측에서는 출병을 요청하는 고종의 친서라도 얻으려 했으나 유폐중이라 불가하다는 어윤중의 말을 듣고 고종의 뜻과 상관없이 청군의 출병을 결정했던 것이다. 또한 고종과 사전 상의 없이 파병 전에 이미 대원군을 납치할 계획도 세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원군 납치가 민씨척족정권의 지속과 명성황후의 복권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청군 출병은 명성황후나 민

씨 척족의 요청에 의해서였고, 이후 청의 후견 아래 친청 수구 사대정권을 유지했다는 식의 인식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난민을 피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해 시골에 도망가 있는 처지의 명성황후가 어떻게 청나라에 구원병까지 요청할 수 있었을지, 또 당시 민씨척족의 핵심세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피난가있는 와중에 어떤 민씨일족이 나서서 청나라에 밀사를 보냈을지 하는 점만을 생각해보아도 명성황후 측의 청군 요청설은 거의 소설에 가까운 얘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임오군란 이후 청이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해 감에 따라 고종과 명성황후는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이조연, 조영하 등 친청세력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갑신정변마저 청군이 진압한 이후에는 1885년 10월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誼)라는 직함으로 부임한 원세개(袁世凱)가 조선의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게다가 민씨척족의 구심점으로 황후가 자신의 분신처럼 믿었던 민영익마저 원세개의 적극적인 포섭으로 친청파에 가담하자 명성황후는 거청(拒淸)의 방도로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1885년과 1886년 두 차례의 조러밀약이 그것이다.

하지만 원세개 및 친청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밀약은 무산되었고, 오히려 고종이 원세개의 폐위 협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청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견제하기 위해 보정부(保定府)에 연금되어 있던 대원군을 환국시키는 등 압력을 강화하였다. 명성황후와 고종의 반청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 서울에 부임한 러시아 공사 웨베르(Karl Waeber) 부처와 그 가족 손탁(Antoinette Sontag)양의 친절은 황후를 더욱 친러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문제는 제정 러시아 정부의 인식이 조선왕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데 있었다. 러시아 정부 외무성은 조선 왕실의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기에는 기본적으로 조선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청 · 일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엄격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불간섭정책을 고수하였다. 즉 조선이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다른 열강에 병합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나 이를 위해 러시아가 직접 군사적 동맹국이 되어 과다한 방위비를 지불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886년 러청협정을 청이 준수하도록 설득하여 조선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이 이 시기 러시아가 조선에 해줄 수 있는 최대치였다. 『황준헌의 조선책략』 이래 러시아

의 남하정책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어 왔으나 사실 19세기 후반 러시아정부는 본토에서 너무나 먼 태평양 진출은 계획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적극적으로 조선 정책을 추진할만한 국력이나 재정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28]

결국 러시아측 사정으로 볼 때 명성황후의 '인아거청(引俄拒淸)' 은 청의 압력이나 국내 정치세력의 반대가 없어도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패자로 군림해온 청이 제시한 『조선책략』적 사고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인아거청' 을 시도한 명성황후의 외교적 책략은 그 담대함만으로도 일정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명성황후의 대러의존책은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보호국화를 기도하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시도되었다. 즉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파견하여 보호국화 정책을 강화하자 이에 반발한 명성황후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왕권을 회복하고 개화정권과 일본세력을 동시에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의 신속한 3국간섭 주도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되돌려주는 것을 본 명성황후는 친러책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은밀히 교섭하면서 일본에 정면 도전을 시도하였다. 명성황후는 3국간섭 당사국 중 독일이 이탈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가 불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을 끌어들여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웨베르나 알렌 등 현지 외교관의 개인적 친절과는 달리 러시아 정부와 미국 정부가 조선 문제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만주가 침해당하지 않는 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음을 명성황후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은 국제정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틈타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장차 조선침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명성황후를 시해하기에 이르렀다.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몸에서 러시아 황제에게 웨베르의 연임을 요청하는 친서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은 그 사실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명성황후가 얼마나 웨베르에게 매달렸는지를 웅변으로 대변하고

[28] 씸비르쩨바 따찌아나, 「19세기 후반 조러간 국교수립과정과 그 성격–러시아의 조선 침략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참조.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명성황후의 외교책략은 자신의 죽음을 가져왔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청나라와 일본은 각각 '속방화' 와 '보호국화' 라는 명목으로 조선을 병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멀리하고, 영토적 야심이 없는 먼 나라인 미국이나 러시아 등에 기대어 독립을 보전하고자 한 그녀의 책략은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나라 전체는커녕 자기 한 몸의 목숨마저도 지킬 수 없는 허망한 것이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해 야심이 없는 만큼 관심도 없었고, 러시아의 경우도 조선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군대를 동원할 만큼 적극적인 것이 아니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명성황후가 매달리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것이었다.

4. 맺음말

이상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한학계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는 연구사 정리를 할 필요를 못 느낄 만큼 일천하다. 을미사변의 당사자로서 언제라도 한 · 일간의 민족감정을 건드리는 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가 정작 이처럼 소략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국사학계의 무기력과 나태함을 반성하면서 , 동시에 최근 대중문화계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가 과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아니 할 수 없다. 명성황후를 개화의 선각자나 반일저항의 기수[29]로 숭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조용히 일고 있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가 전통적인 가족윤리나 유교 도덕에 입각한 평가보다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정치인으로서, 그 정치적 역량과 역사적 공과를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본다.

더불어 명성황후와 관련하여 학계의 합의를 이루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명성황후에 대한 호칭의 문제이다.

[29] 뮤지컬 명성황후의 피날레 "일어나라 백성이여"를 보라.

현재 학계와 일반대중사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호칭으로 ① 민비 ② 민황후 ③ 명성황후 ④ 명성왕후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명성황후 민씨를 민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인들에 의해서였고 암암리에 그녀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생각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대 다른 왕이나 왕비에 대한 호칭의 관례대로 죽은 뒤에 내린 묘호에 따라 명성황후라고 지칭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고 본다. 하지만 명성황후라는 호칭을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전, 즉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기 이전 시기에 대한 서술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고종과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즉 명성황후가 역사적 기술의 대상이 되는 살아생전에는 '왕후' 의 지위였다가 사후에 황후로 추존된 것이므로 1880년대 정치사 서술에서 그 명칭을 '왕후' 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황후'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명성황후 사진에 대한 진위 논쟁인데, 문제의 사진들이 과연 명성황후의 것인지 아니면, 궁녀나 기생의 사진을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인지에 대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 일반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명성황후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진이 없다면 그 객관적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 현재까지 발굴된 여러 종의 사진 중 어느 하나가 진실이라면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역사학계만의 숙제는 아니고 복식사 전문가, 사진 전문가들도 모두 참여하여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본격적인 명성황후 연구의 첫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명성황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평가

장 영 숙*

1. 머리말
2. 황후의 시대적 대외인식
3. 대원군과의 적대적 관계
4. 황후의 권력의지
5 맺음말

1. 머리말

개화기를 통해 역사의 전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명성황후만큼 일반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드물 것이다. 명성황후는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 속에서 비극적으로 죽어간 비운의 왕비로서 널리 각인되어 있는데다가 뮤지컬이나 TV 등 방송매체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잘 알려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에 대한 본격적 학술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왕조시대 역사자료의 특성상 국왕의 언행이나 정

*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는 면밀히 서술하면서도 왕비는공식적인 정치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에 관한 기록은 소략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명성황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녀의 일생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없다. 대개 개인의 경험이나 인맥을 통한 자료조사 결과 남긴 기록물로서[1] 정사(正史))로 보기 어렵거나 언론인이나 외교관 및 그들의 부인 등이 남긴 사적인 기록물에 국한된다.[2] 이러한 상황은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명성황후는 민씨척족과 더불어 정치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고종을 무기력하게 만든 인물, 대원군과 끝없는 정쟁을 벌여 한말의 나라 상황을 위기로 내몰게 한 인물, 구중 궁궐 속에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던 인물이라는 식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3] 반면 타고난 총명함과 예지력으로 고종을 보필하면서 외교수완을 발휘하여 고종으로 하여금 균세외교를 펼치게끔 조언을 함으로써 조선의 독립과 자주에 큰 기여를 했다는 등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오기도 하였다.[4]

최근 남한에서는 황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어느 정도 불식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재평가해 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황후는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걱정하며 일제의 침략야욕에 맞서 싸운 왕비로, 당시의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외교다변화를 위해 고종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정치적 파트너로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남한에서의 명성황후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전하여 공식적 명칭도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용어인 '민비'에서 '명성황후'로 정식 호칭되고 있다.

---

[1] 대표적인 경우가 黃玹 著, 金澹 譯, 『梅泉野錄』, 敎文社, 1994; 尹孝定, 『韓末秘史』(原題:最近六十年의 秘錄, 敎文社, 1995; 鄭喬, 『大韓季年史』, 국사편찬위원회, 1957; 윤치호, 『윤치호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989.

[2] 묄렌도르프 부부 著 申福龍 金雲卿 譯, 『묄렌도르프 문서』, 평민사, 1987; F. A. 맥켄지 著, 신복룡 譯, 『한국의 독립운동』, 평민사, 1986; F, A. 맥켄지 著, 신복룡 譯, 『대한제국의 비극』, 평민사, 1985; W. E. 그리피스 著, 신복룡 譯, 『隱者의 나라 韓國』, 평민사, 1985.

[3]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명가 일변도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표적인 저작은 林泰輔, 『朝鮮近世史』(上 · 下), 1901을 들 수 있다.

[4]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는 논저는 이배용, 「개화기 명성황후 민비의 정치적 역할」『국사관논총』 66, 국사편찬위원회, 1995; 서영희, 「명성왕후 연구」『역사비평』 57, 2001; 서영희 「명성왕후 재평가」『역사비평』 58, 2002; 이민원,「근대 궁중여성과 명성황후」『사학연구』 77, 2005; 장영숙, 「서양인의 견문기를 통해 본 명성황후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한국 근현대사연구』 제35집, 2005 등이 있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의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평가가 있다 해도 다른 역사적 사실들을 연구 검토하면서 당시 지배세력 기운데 하나였던 민씨척족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특히 민비[5]에 대해서는 외세를 끌어들여 굴종적 개화정책을 실시케 한 당사자로, 고종의 권력을 농단하고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끝없는 정쟁을 벌여 정치를 혼란케 한 장본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가 부정일변도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물론 황후가 당시 직접적 정치담당자가 아니라는 점 외에도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주장하는 계급투쟁설에 입각해서 볼 때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을 끌어들여 민중을 핍박한,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 봉건왕조세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민비에 대한 무관심은 북한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한국사 개설서인『조선통사』(하)(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에서 민비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인 을미사변을 전혀 다루지 않는 등 그녀에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있다.『조선통사』(하) 이외에 북한의 방대한 연구서로 출판된 책인『조선전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1980) 역시 민비를 직접적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조선전사』는 전 16권으로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집필, 편찬한 북한의 공식 출판물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관점과 견해가 비교적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료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민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일반적인 시각과 평가를 살펴보려 하는 것은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축적되면 하나의 역사 속에서 이질적인 역사관이 만들어지는 모순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북한이 민비에 대해 내리고 있는 세 가지 평가, 이를테면 민비의 사대주의적 외세관과 흥선대원군과의 정치적 경쟁자라는 시각, 국정을 농단한 인물이라는 시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5] 북한에서는 명성황후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민비라 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민비로 호칭한다. 아울러 민비에 대한 북한측 평가를 살펴보는 글이긴 하나 북한에서는 민비를 비롯한 민씨일파의 정치적 성향 시장적 성향 등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연구하지 않고 있으며 민비는 어디까지나 민씨일파의 구심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경우에 따라 민비를 특별히 민씨일파와 구분해서 해석하지는 않았음을 밝혀둔다.

이를 위해『조선전사』를 주 자료로 하고 1880년대에서 1890년대의 정치상황과 관련된 북한학자들의 논문[6]을 보충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 외에 당시의 사회상을 그린 문학작품으로서 북한의 역사사화집인『인왕산의 불길』(평양출판사, 2001)도 공식 연구논문은 아니지만 북한의 민비에 대한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유효한 자료이므로 이 역시 참고로 활용하려 한다.

2. 황후의 사대적 대외인식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항 이후 근대사의 전개를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탈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의 개방정책은 외세에 아부 굴종하는 사대주의 정책으로, 쇄국정책은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기 위한 영도력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종을 비롯하여 민씨일파가 앞장서서 개국을 주도했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사대투항주의적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민씨일파들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적 통치집단으로[7] 평가하는 비판적 시각의 편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기에 조선민중이 끝까지 항전한 것에 대해 "민족적 힘을 단합하여 구미자본주의 무력침공을 타승함으로써 조국을 구미자본주의에 의한 식민지화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존엄을 지켜낸 것"[8]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즉 북한에서는 조선 민중이 두 차례의 양요를 물리친 것은 근대민족해방운동 투쟁의 첫 시작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외래자본주의로부터 국

---

6 정창규「1894년(갑오)농민전쟁의 력사적 의의와 교훈-갑오농민전쟁 100돐에 즈음하여」『력사과학』, 1994-2; 박영해,「갑오농민전쟁의 력사적경험과 교훈」『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론문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김은주,「갑오농민군의 거족적항쟁호소와 정부의 대응」『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론문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리유백,「1894년(갑오개혁안)의 채택에 대하여」『력사과학』, 1961-6; 김석형,「김옥균의 생애와활동」,『김옥균』, 북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64; 오길보,「개화파의 형성과 그의 초기 활동」『김옥균』, 북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64; 이국순,「임오군인폭동 이후의 개혁파 활동」『김옥균』, 북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64; 이나영,「갑신정변」『김옥균』, 북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64; 김영숙,「개화파 정강에 대하여」『김옥균』, 북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64.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조선전사』13 근대편 I, 1980, 120쪽

8 『조선전사』13, 116쪽

내시장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부르주아적 정치운동으로서의 개화파들의 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전개되면서 그 투쟁발전에 고무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았다.[9] 그런데 민씨일파의 사대적인 대외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민중항거의 기운이 퇴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건을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이 민중의 대외 항거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일제치하 김일성 일가의 반일 민족해방운동이 곧 민중 항거의 총화라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낸 빛나는 투쟁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애국적 전통이 계승되어 김일성을 중심으로 반일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서는 민중의 항거사실이 김일성의 민족해방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교시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침략지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어나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쳤으며 조국을 영웅적으로 방위하면서 반만년의 슬기로운 력사를 창조하였습니다.『김일성 저작집』1228쪽)

교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차례의 양요에 맞서 조국을 방위해 낸 민중의 역량은 훌륭했고 이러한 결집된 민중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민의 항전과 투쟁정신이 뛰어나므로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은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침략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봉건지배층과 결탁하여 침략목적을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략에 빠진 것이 민비일파라는 설명이다. 즉 민비일파는 민중의 역량을 도모하여 서구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방어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외래 침략자들과 결탁하여 조선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개항과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도 남한에서는 집권층의 대외인식 전환으로 시대적 조류를 수용한 결과물로서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10]

---

9 『조선전사』13, 117쪽

10 韓治劤,「開港當時의危機意識과 開化思想」『韓國史硏究』2집,1968; 이광린,『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朴贊殖,「申櫶의 國防論」『역사학보』제117집,1988;주진오,「개화파의 성립과정과 정치·사상적 동향」『1894년 농민전쟁연구 3』,역사바평사,1993; 李憲柱,「姜瑋의 開國論 硏究」,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05; 張暎淑「高宗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연구」, 상명대박사 학위논문, 2005.

반면 북한에서는 민비일파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반대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적에게 아부하는 차원에서 개항을 시도한 것[11]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항 자체를 민씨일파의 대외노선이 사대주의적이며 외세투항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비일파의 이러한 대외노선은 임오군란 이후 장호원에 도주한 상태에서도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한다든지[12] 갑오농민전쟁 당시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하는 민족반역행위를 주저 없이 감행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13]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갑오농민항쟁을 외세와 결탁한 봉건정부에 대항해 씨운 민중의 계급투쟁과 조국방위운동으로 높이 위치지우는 반면 민씨를 비롯한 봉건정부는 민중의 결집된 힘을 와해시킨 적대세력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임오군란 이후 고종이 앞으로의 정책일반을 동도서기(東道西器)[14]노선에 입각해 추진할 것을 천명하면서 우리의 전통은 존중히는 가운데 서양의 우수한 농사 · 의약 · 무기 · 배 · 수레 등의 제조기술은 수용한다는 교서와[15] 함께 척화비를 뽑아버린 사건을 보는 시각에서도 큰 차이를 드러낸다. 남한에서는 고종이 내린 교서는 당시 개화냐, 수구냐의 갈림길에서 여러 세력들의 주장이 난립해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동도서기에 입각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으로써 동도서기적 정책과 사고가 사회일반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16] 반면 북한에서는 인민의 반침략투쟁을 상정해 온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서 모조리 뽑아버린 것에 대해 침략자에 투항하는 반동 통치배들의 매국적 본성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17]으로 기술하고 있다.

---

11 오길보, 앞의 글, 111쪽

12 오길보, 앞의 글, 130쪽

13 정창규, 앞의 글, 35쪽.

14 동도서기는 서구 제국주의 침략이 증대됨에 따라 그동안의 위정척사적 사고의 틀로서는 서양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한 집권층 일부가 서양에 대한 빙써책을 논의히는과정에서 제시하였던 방략이라 볼수 있다 그 기본방책은우리의 정신문명을 바탕으로 하면서 서양의 우수한 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라의 부국강병을 도모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정신문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서양의 종교를 비롯한 정신문명은 제외되어 있고 철저하게 서양의 기기와 기술적인 면의 도입에만 치중되어 있다–장영숙, 「동도서기론의 연구동향과 과제」『역사와 현실』 제50호, 2003.

15 『高宗實錄』 고종 19년(1882) 8월 5일.

16 권오영, 「동도서기론의 구조와 그 전개」 『한국사시민강좌 7집』, 1990; 김문용, 「통도서기론의 논리와 전개」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1998.

17 『조선전사』 13, 172쪽.

이러한 해석은 북한이 당시의 역사적 과제를 반봉건과 반침략에 두고 민중이 힘을 모아 부르주아혁명을 달성해가는 시기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고종과 민비, 나아가 민비일파는 역사흐름을 역류하는 대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이 같은 민비일파의 외교정책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 시장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음은 물론 인민들에게 봉건적 억압착취와 함께 자본주의 약탈까지 가중되게 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개항을 위시하여 임오군란기 갑오농민전쟁기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외세의존정책을 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망국과 예속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오늘의 남한을 숭미사대주의자들로 간주하고 미국의 '보호' 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추악한 매국노들[18]이라는 비판의식이 함께 투영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그들과 달리 보는 시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잘 다듬고 손질하여 민족주의 사상으로까지 승화시켜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은 남한 특유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색깔을 만들어 내기는커녕 미국사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는 바로 개항 당시 민비일파의 외세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본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민비일파가 개항 직후부터라도 일본의 침략야망을 꿰뚫어 보고 자강 자수책을 제 때에 강구하였더라면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전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민비일파는 조선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고 청나라의 무장간섭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침략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더욱 헤어날 수 없는 파국적인 위기에 빠뜨리었다리조통치배들의 외세의존정책의 엄중한 후과는 조선을 청일양국의 전쟁마당으로 전변시켜 아름다운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운 것이다.[19]

이렇듯 북한이 보는 민비일파의 외세굴종적 대외관과 거기서 비롯된 폐해라고

[18] 박영해, 앞의 글, 196쪽.
[19] 박영해, 앞의 글, 189쪽.

하는 것은 다음의 김일성 교시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뼈저리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며 또 오늘 미제 강점 밑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김일성 저작집』 27권, 398쪽)

결국 북한은 민비일파의 대외관에 대해 서구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반침략을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저버린 채 외세의존성을 드러낸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의 남한과 미국의 관계를 연결해서 남한을 숭미사대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3. 대원군과의 적대적 관계

북한이 민비를 평가하는 요소 중의 또 하나는 바로 그녀가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끝없는 정쟁을 벌여나갔다고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민비로 하여금 다소 투쟁적인 인상을 가지게 하며 민비가 중심이 된 민씨세력과 대원군 세력 간에 일정한 알력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흥선대원군은 철종 사후에 궁궐의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대비인 조대비와 연계해 고종을 왕위에 즉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시 고종은 12살에 불과한 어린 소년으로써 학문을 수학한 정도나 정세판단이 미숙한 상태였다.[20] 이에 따라 고종이 즉위한 1863년부터 1873년까지의 10년 동안 아버지인 대원군이 정치를 주도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대원군은 섭정을 시작하면서 탐관오리들을 견제하여 최대한 농민들을 보호해 나갔고 양인신분만 부담하던 군포를 양반층에게도 부담지우는 호포제를 실시해 양반층의 특권을 줄여나갔다. 이외에도 환정(還政)을 통한 관리들의 농간을 막기 위하여 사창제 (社倉制)를 실시함으로써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저장미를 관

[20] 고종은 즉위 후 『小學』을 교재로 강학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고종은 立身의 개념과 三經, 五經 등의 경서제목을 익혀야 할 정도로 학문수준이 日淺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1년(1864) 1월 14일.

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으로서는 의복제도를 간소화하고 실용화하는 방향에서 개량하게 하여 사치스러운 풍조를 없애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대원군의 개혁정책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대원군의 '개혁' 은 인민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고 부르주아적 개혁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극도로 쇠약해진 왕권과 문란하여진 봉건국가의 법과 행정규율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헝클어진 삼정 착취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봉건적 '개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져가는 봉건제도를 재수습하고 국력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민족적 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막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는데 일정한 긍정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21]

이처럼 대원군의 개혁적 정치에 대해 북한의 기본적인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하게 긍정적인 의의를 찾고자 하는 요소도 보이고 있다. 왕정자체를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이 대원군의 집권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국내정책에서 그가 개혁성을 발휘해서뿐만이 아니라 대외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쇄국정책을 견지했다는 사실에 있다.

> 대원군의 봉건적 '개혁' 과 대외 정 책은 부르주아혁명을 수행하지 못한 봉건국가가 자본주의 침략에 부딪친 력사적 환경 속에서 당연한 외래 침략을 막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다.[22]

이처럼 북한은 대원군의 쇄국정책 하에 민족이 하나로 모여 서구 제국주의를 물리친 것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대원군의 대외정책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각성을 크게 일깨워 역사적 의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민비가 대원군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조선으로서는 커다란 손실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민비와 대원군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종의 친정(親政)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정권을 가로채 사사건건 대원군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즉 민비는 그의 척족들과 함께 대원군과 정치적 알력 내지는 정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

21 『조선전사』 13, 45쪽.
22 『조선전사』 13, 45쪽.

우선 첫 번째로 두 사람이 정쟁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는 대원군 하야가 민비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는 일이다. 그런데 대원군의 하야가 민비와 그 일파의 모략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북한의 시각에 비해[23] 남한학계에서는 이 점에 대해 다소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당시 대표적 위정 척사론자였던 최익현이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림에 따라 이미 성년이 된 고종은 친정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친정을 주도한 결과 대원군의 하야가 이뤄진 것[24]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25] 결국 이는 당시 정권의 주체를 밝히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어서 조심스런 접근을 요한다.

두 번째로 북한은 두 사람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대표적인 예를 그들의 대외관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이를테면 대원군의 대외노선은 강경한 쇄국주의였고 민비일파의 외교노선은 이를 반대로 뒤집는 개국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곧 사대적 외교노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원군의 강경한 쇄국주의 정책이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적 각성을 촉발시킨 동력이 되었다면 민비일파의 사대적 외교노선은 그들의 봉건적 권력유지를 위해 취해진 것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와 외세추종적이고 외세의존적인 경향의 바탕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의 정적관계를 알 수 있는 예는 그녀가 대원군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축이 된 가운데 집안 식구를 등용하면서 대원군의 권력기반을 와해시켰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종은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정의 관료들 중 대원군 계열인 홍순목(洪淳穆), 강노(姜佬), 한계원(韓啓源) 등의 대신들을 멀리하고 새로이 이유원(李裕元)) 박규수(朴珪壽) 등의 실무관료들을 중심으로 권력집

---

23 림종상, 「상전의 각본대로」 『인왕산의불길』, 평양출판사, 2001, 64쪽.

24 『高宗時代史 I, 고종 10년(1873) 10월 25일조에는 왕이 이미 성년이 되어 國事를 親裁하려 하고 대원군의 時描에 따르기를 싫어하였으며 閔升鎬, 李載冕, 趙寧夏 등도 대원군에 대하여 私怨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策謀하여최익현으로 하여금 대원군 배척의 상소를 올리게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高宗時代史』는 일제치하에서 편찬된 책으로 다분히 대원군과 민비를 정적관계로 확대해서 묘사하는 일제의 식민사관이 개입되어 있다고 여겨지므로 객관적인 사료로 보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고종이 친정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 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5 송병기, 「고종 초기의 외교」 r한국독립운동사』 I, 국사편찬위원회, 1987; 연갑수, 「개항기 권력집의 정세인식과 정책」『1894년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 장영숙, 「고종의 대외인식 전환 연구(1863~1881년)」 『상명사학』 제5집, 1997.

단을 소폭 이동시키기도 하였다.[26] 또한 고종이 각종 개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만든 통리기무아문과 통리군국사무아문 등에 민씨일족을 대거 등용시키고 있는 모습에서도[27] 민비 등장 이후 권력의 중심을 구성하는 인물군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서 민비일파가 의도적으로 대원군 세력을 배척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민씨일파의 세도정치는 지배층 내의 세력분쟁의 새로운 화근이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28]

네 번째로 정적관계를 알려주는 요소는 대원군 은퇴 이후 정가의 분위기와 이재선(李載先) 역모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된 두 사람의 긴장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원군이 하야한 후 직곡산장에 내려가자 재야 유생층은 정부의 개화시책에 반발하며 상소문을 올렸는데[29] 이러한 분위기는 조야(朝野)에 잔존해 있던 대원군 세력과 제휴할 가능성마저 있어서 고종을 비롯한 민씨일파에게 부담이 되는것이었다. 여기에 1881년에는 안기영(安驥泳), 권정호(權鼎鎬)등이 대원군의 서장자(庶長子) 이재선을 왕위에 올리고자 히는 역모를[30] 꾀하기도 했기 때문에 민비와 대원군을 둘러싸고 팽팽한 정쟁의 기운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오군란 당시 장호원으로 도주한 상태에 있던 민비를 두고 대원군이 국상(國喪)을 선포한 사실은 두 사람이 정쟁관계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임오군란 이후 정권을 잡은 대원군이 오랫동안 권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26] 고종은 대원군의 실정과 섭정에 대해 비난의 疏를 올린 최익현을 가벼이 치죄하였고 홍순목, 강노, 한계원 등의 대신들은 국왕의 사천의 효를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중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홍순목,강노, 한계원 등을 처벌하고 이유원, 박규수 등의 대신들을 등용하는 새로운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다. –『高宗官錄』고종10년(1873)11월 13일, 12월 10일

[27] 민씨일족은 당시 개화정책 추진 기구에 독판과 협판 등으로 참여하면서 활약하였다. 또한 당상관에 임명된 자들은 고종의 親政이 시작되는 187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1880년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진출한 민씨척족들은 약 260여명을 헤아릴 정도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金淑淵「1880년대 민씨척족정권의 정치적 성격」,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24~29쪽.

[28] 오길보, 앞의 글, 107쪽

[29] 집권층의 개국에 반대하면서 직곡산장에 은퇴한 대원군을 임금이 직접 모셔오도록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는 副司果 李彙林의 상소와 경상도 유생들의 상소가 있다.–『高宗實錄』고종 11년(1874) 10월 20일, 고종 12년(1875) 3월 5일

[30] 『高宗實錄』고종 18년(1881) 9월 12일조에는 홍순목, 김병국 등의 대신들이 이재선 등의 역적들을 고문할 것을 청하는 차자(箚子)를 올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 충주 장호원에 도주한 민비는 비밀리에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여 다시 정권을 장악하려고 외세에 의존하는 추악한 매국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었다.[31]
>
> 임오년에 군란이 일어나서 정권을 다시 쥐였다가… 천진의 보정부에 끌려가 3년간이나 갇혀있었던 지도 어느덧 십년이 되어온다. 이 십년간에 나라의 운명도 운명이려니와 물어 찢어도 시원치 않을 저 민비일파를 깔고 앉으려는 생각으로 어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32]

결국 군란 이후 대원군이 서둘러 왕비의 국상을 선포한 사실이나 왕비일파가 청나라 원군을 요청한 것에 의해 한 달여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대원군의 입장에서 보면 민비에 대한 원성이 자연스레 쌓여갔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일본에서조차도 두 사람의 정쟁관계에 대해서는 환히 알고 있는 정도였다. 1894년 7월 23일, 일본은 경복궁을 무단 점거하면서 일으킨 갑오개혁의 정부수반으로 대원군을 불러들였다. 이때의 일본의 의도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일본침략자들은 대원군이 장기간 중국에 잡혀 가 있었으므로 청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으리라는 것과 민비와 그 일파에 대한 원한이 깊으리라는 것 등을 노리고 교활하게 달라붙었던 것이다.[33]

이처럼 민비와 대원군이 서로 정적의 관계에서 치열한 정권다툼을 벌인 결과 조선이 국망(國亡)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일제 식민사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34] 그런데 두 사람의 정쟁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석하는 북한의 경우는 자본주의로의 발전과정상 해결되어야 할 반봉건, 반침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대원군의 경우 반봉건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반외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쇄국정책을 견지함으로 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의 동력을 이끌어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31 오길보, 앞의 글, 130쪽.

32 리성덕, 「갑오년의 이야기」 『인왕산의 불길』, 평양출판사, 2001, 164~165쪽.

33 리유백, 앞의 글, 66쪽.

34 식민사관의 기본 틀을 제공했던 林泰輔는 그의 저술 『조선근세사』(상 · 하)에서 임오군란을 대원군의 란으로 표기할 정도로 대원군이 주동이 되어 란을 일으킨 뒤 민비일파를 공격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 민비를 비롯한 민씨일파의 경우에는 반봉건과 반외세의 어느 것 하나도 수행하지 못한, 외세를 끌어들인 장본인임과 동시에 민중의 역량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역사의 발전을 뒷걸음치게 한 원인제공자로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쟁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민비보다 반외세의 입장에 있었던 대원군의 치적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4. 황후의 권력의지

북한이 민비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 중의 마지막 한 가지는 민비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정치적 주도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북한은 민비가 역대 그 어느 왕비보다도 권력의지가 강했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려 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써 우선 척족을 동원하여 대원군으로부터 고종에게 권력을 이관시켰던 사실을 들고 있다.

> 1870년대 중엽 국내정세의 중요한 변동은 대원군이 정권에서 몰려나고 국왕의 친정이라는 이름 밑에 민비일당이 정권을 가로챈 것이었다.[35]
>
> 민가일파는 고종의 친정이라는 미명하에 대원군을 정권에서 내몰고 정권을 장악하고 부패타락한 세도정치를 실시하였다.[36]
>
> …흥선대원군은…민비와 그 일파의 모략으로 정권에서 쫓겨나고 실권은 왕이 아니라 민씨일파가 틀어 쥐였다.[37]

그러나 고종의 친정선포는 성년이 된 고종이 정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서 고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 볼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이 점에 대해 이미 서술하였듯이 최익현이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자 고종이 적극적으로 그 형세를 이용하여 친정선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민비가 정치를 주도적으로 장악해 나간 증거로서 북한은 그녀가 중심이 된 민비일파가 정부조직을 새로이 개편하여 개화자강정책을 실시한 것을

---

35 조선전사』 13, 118쪽.
36 오길보, 앞의 글, 106쪽.
37 림종상, 앞의 글, 64쪽.

들고 있다. 그러나 개화자강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고종 17년 12월 41일)은 고종이 명을 내려 창설을 논의한 지 보름 만에 탄생한 것으로 고종의 개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대궐안에 설치했던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과 내무부(內務府) 등도 고종이 직접 정국을 주도한다는 적극성을 띠고 설치한 것이어서 남한에서는 개화에 대한 고종의 열의와 의지를 반영하는 정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엄연히 존재했던 고종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개화파들은 봉건정부로 하여금 불철저하나마 근대적 개혁을 지향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국가기구 개편사업이 시도되게 되었다. 1880년 12월부터 1881년 2월까지의 기간에 정부기구의 일부를 통리기무아문으로 개편하였는바 이것은 정부기구의 근대적 개편의 첫 출발로 되었다. 이것은 개화파인 김홍집과 어윤중 등에 의하여 발기되었으며 개화파의 주동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졌다. 민가일파가 기무아문의 요직을 장악하고 김홍집은 통상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보조역을 담당한 조건에서 신기구의 창설은 개화파가 의도한 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38]

이처럼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개화자강정책 추진 기구의 창설에 있어서 고종의 의사와 역할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비를 중심으로 결집한 민씨일파가 정국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 번째, 민비의 정치적 주도권과 관련해서 북한은 이 시기의 핵심 정치세력을 수구파로 규정하고 민비가 수구파의 중심에서 각종 정치적 현안을 결정해 나간 점을 들고 있다.

> 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는 자도 수구파요, 재정을 맡은 자도, 병권을 잡은 자도 수구파의 중심인물이었고 게다가 밖에는 수구파의 후원자 원세개가 있고 안에는 수구파를 조종하고 있는 민비가 있어 국왕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당시의 정국을 바로 잡기에는 개화파의 힘이 너무나 약하였다.[39]

---

[38] 오길보, 앞의 글, 124쪽

[39] 리헌환, 「갑신정변과김옥균」 『인왕산의 불길』, 평양출판사, 2001, 102쪽.

민가일당은 1882년 군인폭동 이후 극도에 달한 재정난을 타개하며 끝없는 사리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재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전원국(典圓局)을 설치하고 당오전을 비롯한 악화t(惡貨)를 주조하여 강제 통용시키었다. 이 주전사업에 대한 독점권은 민가일당의 두목 민태호가 장악하였다.[40]

19세기 70년대 이래 민비를 두목으로 한 수구파 반동통치집단이 국가권력을 독단하는 시기에는 이 권리가 국왕의 일가보다 오히려 민비일가에 특권이 독점되었던 것이 특정이다.[4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당시 정국의 주도권이 민비를 비롯한 민씨척족에게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맺고 고종을 허수아비적 존재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남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화추진기구 내에서 민씨일족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국왕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서 정계는 민씨일족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시기를 '민씨척족정권기'로 규정하기도 한다.[42] 그러나 학계의 일부분에서는 개화자강정책 추진기구를 고종이 주체적으로 설치했으며 고종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마련을 위해 특지(特旨) 등의 형식을 통해 민씨들을 등용하고 그들과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면도 있어[43] 이 점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네 번째로 민비의 정권의지와 관련해서 북한은 고종과 민비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면서 민비가 위기관리 능력 변에서 뛰어났고 정치정세에 밝아 충분히 정치주도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으리라 보고 있다. 그 실례로 민씨척족이 추진한 개화시책의 결과가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민중들이 억압받고 수탈받는 상황이 되어 발생한 임오군란을 맞아 고종과 민비가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두 사람을 서로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

[40] 이국순, 앞의 글, 139쪽.

[41] 김영숙, 앞의 글, 258쪽.

[42] 金達中 「880年代 韓國國內政治와 外交政策- 閔氏政治指導力 및 外交政策再評價」 『韓國政治學會報』 10집, 1976; 「李培鎔 開化期 明成皇后 閔妃의 政治的 役割」 『國史館論叢』 제6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5; 韓哲昊 「閔氏滅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組織과 機能」『한국사연구』 90,1995; 韓哲昊「閔氏滅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 官僚 硏究」 『아시아문화』 제12호, 1996.

[43] 연갑수,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 殷丁泰 「高宗親政 이후 政治體制 改革과 政治勢力의 動向」 『한국사론』 40, 1998; 장영숙, 「내무부 존속년간(1885년~1894년) 고종의 역할과 정국운영」 『상명사학』 8 · 9합집호, 2003.

> 궁중에서는 아래우가 불안에 싸여 있었다. 누구보다도 왕이 심했다. 누가 앞에 얼씬만 해도 무슨 소식 못 들었느냐 또 그놈들이 무슨 짓을 할 모양이라더냐 하고 애가 타서 묻곤 하였다.…그러나 정작 민비는 털끝만치도 불안해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오직 어디까지나 차갑고 매서운 표정이다. 아침에 들은 소식에 오늘 새벽부터 남대문 밖에서 수구문 앞에서 천하 막된 것들이 꾸역꾸역 문안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형세가 아주 험하다 했다. 그래서 상감은 또 벌벌 떨고 있다.[44]

이처럼 민비의 경우 분노한 백성들이 민씨일족의 중추라고 판단한 민비를 찾아 처단하고자 할 때 바로 눈앞의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이 차갑고 매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당찬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종은 당면한 현실을 해결할 의지를 상실한 채 대원군에게 사태수습을 맡기려 한다거나 분노한 군중들의 기세에 눌려 떨고 있는 가련한 군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결국 이렇듯 나약하게 형상화된 고종의 상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정권의 최상위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마땅히 정국을 주도할 수 없는 인물이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수구파가 청의 정치적 간섭을 허용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45]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켰을 때 두 사람이 취한 행동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계동궁은 경우궁에 비해서 좀 넓은 곳이어서 편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청병의 공격을 받아도 소수의 병력으로 방어와 경비하기가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김옥균은 이곳에서 2~3일간 머무르면서 정국을 수습하여 신정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비와 대왕대비, 왕세자 등이…창덕궁 환궁을 재촉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민비의 책동으로 국왕까지도 대왕대비의 분부이므로 할 수 없이 환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김옥균은 국왕에게…소수의 병력으로 방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김옥균의 요구에 못 이겨 국왕은 일시 짐짓하였으나 민비는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46]

---

[44] 저자 미상, 「들끓는 만호장안」 『인왕산의 불길』, 평양출판사, 2001, 90쪽.
[45] 김영숙, 앞의 글, 235쪽.
[46] 이나영, 앞의 글, 178쪽.

여기서도 국왕은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민비에 대해서는 정세판단이 재빠르고 국왕을 움직여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인물상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 분석을 통해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고종이 가히 주체적으로 정국을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민비일파가 독단적으로 정권을 유지, 장악하면서 수구성을 더해갔기 때문에 나라의 자주도 부강발전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고 사회적 진보를 위한 개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47] 갑신정변의 발발 원인과 의의에 대해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갑신정변의 평가를 높이 위치지우는[48] 반면 민비일파가 수구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북한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민씨일파가 부르주아 혁명세력을 억압하고 전근대적인 기존체제와 봉건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항도 이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며 그들이 고종과 합심하여 개화정책을 단행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정책에 한정지어서 추진한 것으로 설정한다. 어디까지나 개화정책 혹은 개화파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권유지를 위한 개화시책을 실시해 나갔다는 입장이다.[49] 특히 북한이 이들을 친청사대정권이요 수구적 정권이라 파악하고 있는 근거는 임오군란 이후 민영준(閔泳駿)이 청에 원군을요청하는 등 외세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50]

즉, 민비일파의 요청에 의해 청이 진주한 결과 대원군은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후 민씨일족은 정권유지를 위해 청에 사대를 더하게 되었으며 청은 조선에 대한 간섭과 속방화 작업의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논리다. 그러니까 개항 이후부터 청의 속방화 작업이 노골화하기까지 민씨일족의 정치적 성향은 외세에 의

47 『조선전사」 13, 257쪽

48 북한에서는 갑신정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발전한데 기초하여 합법칙적으로 일어난 부르주아혁명투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 시기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가속화 시켜온 중국에 대해서는 갑신정변의 승리를 가로막고 보수세력을 되살리는 반혁명세력으로 보고 있다.

49 임오군란이 발생한 후 조선 정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개화파와 민태호, 민영익 등 민씨일파로 대표되는 수구파와의 관계가 기본적인 대립관계로 설정되어 있다.—『조선전 사』 13, 221쪽.

50 오길보, 앞의 글,130쪽.

존하면서 자신들의 정권창출과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정치를 주도하고자 하는 민비가 민씨세력의 구심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민비를 비롯한 민씨일파에 대해 밑으로부터 일어나는 농민대중의 반봉건과 반침략의 요구를 묵살하고 수구성과 외세의존성을 더해 간 집단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청군파병은 청이 -조선에 대해서 속방화를가속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었으며 현실적으로 피난 중에 있는 민비가 청에 원군을 요청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민씨일파의 정치성향이 민비의 권력의지와 연계되어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북한에서의 민비에 대한 평가와 시각이 어떠한가를 대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시각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그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 민비일파의 외교노선에 대해 외세의존적이며 사대주의적이라 평가내린 것은 현대사를 장식하고 있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찬양하기 위한 포석을 두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외래의 침략을 물리쳐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원군 정권 시기 두 차례의 양요에서 인민들이 힘을 모아 외래침략을 물리친 것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사의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압박받는 인민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것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 역사적 의의의 최고조에 달한 것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본 전술이며 이는 외세침략을 격퇴한 인민의 총화적 활동으로써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역사서술은 민족의 구세주로써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일성을 주체로 하여 서술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끈 김일성을 높이 추켜세우게 되고 그의 투쟁은 외세침략을 격퇴한 찬란한 역사의 종결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

한 역사서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남한에서는 개항 자체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고 평가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민씨일파의 개국이 침략적 자본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반침략 반외세의 시대적 과제를 무시한 채 굴종적 외교노선을 걷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식의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민비와 대원군의 정쟁관계를 지나칠 정도로 부각시키는 것은 자주 독립국가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이 시기에 과연 누가 반봉건, 반침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했는가 하는 면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원군의 경우에는 그가 견지한 쇄국정책이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의 동력을 이끌어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민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세를 끌어들인 장본인으로서 민중의 역량을 무너뜨리고 자주 독립국가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된 세력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노선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의 정쟁관계에 주목하였고 민비보다 반외세의 입장에 있었던 대원군의 치적을 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황후의 권력의지와 관련하여 유약하고 정세판단이 어두운 고종을 뒤로 한 채 민비가 정치가로서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는 고종의 정치지도력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남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 측이 고종과 민씨일파를 동일한 운명을 지닌 정치집단으로 설정한 뒤 척족세도의 우두머리격인 민비가 정치전면에 나서서 인민을 강제히는 모습으로 서술한 것은 계층간의 대립을 설명하기 위한 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계급투쟁설에 입각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야만 곧이어 일어나는 갑오농민전쟁의 원인과 배경이 설득력 있게 언급될 수 있겠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북한의 역사서술은 북한정권의 유지와 정권의 홍보차원에서 철저하게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다양한 사론과 역사해석이 진행되어 역사적인 평가와 시각이 여러 유형으로 검출되고 있다.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비에 대한 재평가 역시 다양한 역사해석의 결과물이다. 현재 민비에 대한 호칭이 명성황후로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은 대한제국의 역사적 위치가 정립됨과 함께 사회일반에 퍼져 있는 여성지위의 성장과 향상에 대한 시각

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 또한 명성황후가 민족주의의 표상으로써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려 한 여걸로 묘사된 것은 황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어느 정도 바로 잡힌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황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진행된 후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던 한말의 국제정세와 현재 한국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관계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1세기 이전의 인물을 찬란하게 환생시켜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다시 조망하려는 각계의 노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여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처럼 남한에서 역사 재해석에 기울이는 노력과 비례하여 북한에서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재평가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의 명성황후 연구동향과 과제

서 민 교*

1. 머리말
2. 일본에서의 민비 및 민비 시해사건에 대한 인식과 서술
3. 일본 학계의 선행 연구에 대하여
4. 민비 시해사건 연구 동향에 대한 몇 가지 검토와 향후의 전망
5. 맺음말

1. 머리말

본고에서는 19세기말 조선 고종의 왕비로서 일정 시기 조선정국에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도 평가되고 있는 명성황후 민씨(이하 민황후 혹은 민비[1]로 칭함)에 대한 일본에서의 연구 동향과 향후의 과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전문위원

[1] 閔妃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한국측에서 조선국왕의 왕비로서의 호칭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측에서 비하시킨 표현이라는 의미인 듯하다. 한편 명성황후라는 호칭도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추증된 칭호이므로 해당 시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지적될 수있다. 일반적인 호칭으로는 민중전, 민왕후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나, 일본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비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일본어에서 妃는 王妃의 약칭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선입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비하시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특히 1895년 10월 8일 미명에 발생한 동서고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인 민비시해사건이 일본에 의한, 정확하게는 일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首長인 일본의 조선국 주차(朝鮮國 駐箚)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중심적 역할을 하며 계획적으로 주도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도 민황후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뿌리 깊은 악연을 쉽게 지울 수가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 학계에서도 민황후라는 인물 및 민비 시해사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고 연구의 정도가 여전히 불과 극소수의 연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본론 안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몇몇 선구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일본학계 및 한국학계의 민비 시해사건에 대한 연구의 부진에 대해 일본측의 경우 미우라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와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한 사건 조작 및 자료 은닉, 그리고 일본인 연구자의 고의적 연구 기피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고, 한편으로 한국측의 경우는, 대원군 및 훈련대 주모설을 부정하는데 여념이 없도록 유도되었다는 지적이 있다.[2] 이점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펼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민비 시해사건에 대한 일본측의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강창일의 지적[3]이 현재까지는 가장 자세하다고 보여지나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민비 시해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학계에서 민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서술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시해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행해졌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다.

2. 일본에서의 민비 및 민비 시해사건에 대한 인식과 서술

일본에서 민비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몇 년 전에 제작된 한국 KBS와 일본 NHK 방송국의 민비시해사건에 대한

[2] 최문형 외, 『明成皇后試害事件』 序說, 民音社史1992,, 11~12쪽; 최문형,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1, 23~24쪽

[3] 강창일, 「三浦梧樓 公使와 閔妃弑害事件」 『明成皇后弑害事件』, 민음사, 1992, 30~32쪽.

공동 다큐멘터리의 제작과정에서도 한국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민비라는 인물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민비의 존재나 시해사건이 일반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못하고, 또 후술할 역사 전문가들의 논저에 의한 업적이 나와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도 않은 채 사장되어 가는 학계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나마 독자층을 확보하면서 일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비 시해사건을 정면에서 다룬 작품으로 출판된 것이 작가 쓰노다 후사코 (角田房子)의 저서 『閔妃暗殺』이다.[4]

1988년에 간행된 이 책은 여성 작가 특유의 잔잔하고 섬세한 필치로 민비가 살았던 조선 후기 고종시대의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흐름을 민비라는 인물사를 중심에 놓고 민비 시해사건을 총체적으로 망라하면서 그려내고 있다. 전체 약 370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할 지면의 여유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작품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료와 자료를 통하여 치밀하게 분석한 저작이 그것도 일본인 여류작가의 손에 의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작품이 한국에 번역된 후에 한국측에서 역사왜곡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5] 무츠(육(陸奧)외교에 대한 평가와 일본정부와 시해사건과의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현재의 연

---

[4] 角田房子, 『閔妃暗殺』, 新潮社 1988. 이 책은 같은 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번역본은 김은숙 역 『민비시해』, 조선일보사, 1988.

[5] 최문형, 『명성황후시해의 진실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1,179~185쪽 참조. 최문형은 "민비 암살사건도 일본정부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나의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쓰노다의 결론에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 같다. 또 무츠무네미츠 (個澳宗光) 일본 외상이 시해사건 발발 당시에는 와병중이라 비중있는 역할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건 직전까지의 무츠 외교의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일본 정부와 사건과의 직접적안 관련성 문제를 고려할 때,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강창일을 비롯한 연구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시점에서는 안타깝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심증은 있으나 물중이 없다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쓰노다가 특별히 왜곡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쓰노다를 두둔할 마음은 없지만 그녀는 일반인을 독자로 하는 대중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미 1930년대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에 유학하여 역사를 공부하였고, 예를들어, 그녀의 저작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戰前 일본군 장교들의 사상과 행동을 분석한 일련의 작품의 경우는 일본 근대 軍事史가 전문인 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학계의 전문연구자에 뒤지지 않는 자료의 활용, 분석력 및 관점 등등의 점에서 충분히 평가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필자 註; 쓰노다의 일본어 서문에 의하면 "암살사건도"가 아니라 "암살사건과"가 바른번역이다. 단순한 조사 하나라도 해석에 있어서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하겠다.)

구 상황에서 증거가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 문제는 향후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쓰노다의 작품은 역사학자들의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실증사학의 제한된 범주를 넘어서 작가적 상상력을 발동하여, 보다 자유로운 사색에 근거한 역서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느낌이다. 즉 역사와 문학의 차이로 지적되기도 하는 시비와 이해라는 저울추에서 보면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며, 민비의 존재 및 시해사건에 무지한 일본인들에게 사건의 일단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이끌어 낸 점만으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어서 역사 관련 서적 등에서는 민비의 존재와 민비시해사건이 어떻게 인식되고 기술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에서 간행된 역사 사전으로는 가장 권위가 인정되는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에서 편찬된『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의 기술을 보면, 동 사전에는「閔妃」와「閔妃殺害事件」이란 두 항목이 실려 있다. 민비의 인물에 대해서는

> 『춘추좌씨전(春秋左民傳)』 등 書史百家에 通曉한 才援으로서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女傑로 대두되었고……(대원군 실각 후) 민비와 그 일족 민씨 일파는 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廠族政治를 행하였다……민씨정권의 無定見적인 개국정책은 국내의 사회적 모순을 격화시켜……(갑신정변 후) 민씨정권은 개화에 대항하여 수구정책을 강화하였다……1895년의 삼국간섭을 계기로 민비와 민씨파는 러시아와 연계하여 반일정책을 전개하였다.

고 서술하면서

> 95년 10월 8일 미명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首謨하에 일본군 일개 대대, 일본 외교관, 거류민이 (94년에 왕궁점령사건에 이어) 다시 궁성을 점령하고 민비를 살해했다.

라고 사실 관계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박종근, 朴宗根). 그리고 민비 시해사건에 관해서는

> 신임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예비역 육군 중장)는 민비를 반일의 원흉으로 생각해……민비 암살을 꾀했다. 1895년 10월 7일 심야에서 8일 아침에 걸쳐 일본군이 지도하던 조선의 훈련대, 일본군 수비대, 일본인 경찰관, 대륙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왕궁을 호위하던 시위대를 격파하고 왕비의 침실에 난입해 민비를 참살하고 사체를 능욕하고 석유를 뿌리고 불태웠다……(미우라 고로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는 히로시마 군법회의와 지방재판소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免訴 판결을 받았다.

라고 기술하면서, 그 말미에서

> 이 사건은 在朝鮮 日本官憲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인데, 그들은 (1894년 일청 전쟁 개전 당시 조선왕궁점령사건 행위를) 일본정부가 是認한 이상, 이 사건(1895년의 왕궁점령 및 민비시해사건)도 비난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하였다.(나카츠카 아키라, 中據明).[6]

라고 지적하면서 시해 사건에 있어서 주모자들의 대조선정책 시각의 일단을 분석하고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민비 및 시해사건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어서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사 관련 개설서의 기술을 살펴보자. 일본에서 한국사 연구자들의 중추적인 모임인 조선사연구회가 펴낸 『朝蘇の歷史』에는 「민비 살해사건과 초기의병투쟁」이란 항목에서 삼국간섭 이후의 조선에서의 친러파의 대두로 일본의 침략주의자들은 커다란 불안감을 안게 되었다는 점이 원인이 되어 , 신임 공사 미우라 고로가 민비시해사건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의 개요와 사건 직후 김홍집 내각의 진상 은폐 및 단발령 등의 실시가 의병투쟁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한다.[7]

그리고 최근에 간행된 한국사 개설서는 「초기의병과 아관파천」이란 항목에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일본의 세력만회를 위해 친로파의 중심인 왕후 민씨를

[6] 國史大辭典編纂委員會編, 『國史大辭典』 11卷, 吉川弘文館, 1990, 1116쪽.
[7] 朝鮮史硏究會 編, 『朝蘇の歷史』, 三省堂, 1974, 147쪽.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일본공사관원, 영사관원, 일본군 수비대, 일본인 고문관 및 대륙낭인 등을 동원해 시해 사건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우려하여 외무성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우라 공사 등을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죄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카스야 켄이치, 櫓谷憲一).[8]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사 관련 서적 등에서는 대체로 대동소이한 기술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특정을 지적하면, 우선 기존의 일본 학계에서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청전쟁 직후의 러시아 등에 의한 삼국간섭에 의해 조선 내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쇠퇴를 만회하기 위해 친러파의 배후로 지목된 민왕후를 미우라 공사 등이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시해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역사는 문학과는 달리 이해의 학문이 아니라 시비의 학문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상과 같은 역사 관계 사전이나 개설사류는 시비를 논하기보다는 사실 위주의 간략한 기술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지적될 수 있겠다.

3. 일본 학계의 선행 연구에 대하여

전술한 대로 최문형은 "자국민의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일인연구자들의 고의적인 연구 기피 경향마저 겹쳐져 진상 규명을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朝鮮史』나 다보하시 키요시(田保橋潔)의 『근대일선관계의 연구(近代日蘇關係の研究)』에서도 연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9]

그러나 2차 대전 전에 간행된 연구서 중에서 민비 시해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12년에 간행된 도카노 노부오(戶吐薰雄), 나라사키 칸이치(楢崎觀一) 공저 『조선최근사(朝蘇最近)』에서는 「日露衝突時代」라는 항목에서 민비시해사건에 대해

[8] 武田幸男 編『世界各國史2; 朝鮮史』, 山川出版社, 2000, 247~247 양쪽 및 精谷憲一, 『朝鮮の近代』, 山川出版社, 1996, 55~57쪽

[9] 최문형 前揭書 12쪽. 誌2) 참조.

> 민비는 露國公使웨베르와 결탁하여……일본을 두려워하는 바 없고……권력을 전횡하여 일본의 세력 현저하게 실추하고 親日黨의 경우 또한 상당한 위기에 빠져 일본의 결단을 재촉하는바 절실하였다……日韓壯士의 一群 또한 이에(필자주; 대원군의 입궐) 수행하여……乾淸宮 구중궁궐 玉壺樓 근처에서 때 아닌 폭풍이 붙어 닥치니 옥체 부서지고 구름 같은 머리칼 꽃 같은 얼굴 덧없이 진토로 화하니……

라고 민비시해사건의 원인과 개요를 유려한(?)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또 사건의 선후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 (事)變 後 민비 암살의 음모에 관해 미우라(삼(三浦) 공사, 스기무라(杉村) 서기관 등도 관계했다는 비설(蜚說)이 있어 스기무라 및 시바 시로(紫四郎),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 등 47인을 일본으로 송환해 히로시마(廣島)의 감옥에 투옥해 수개월간 심문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一同放免 되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10]

위의 서술 내용은 진범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의 압박에 굴복한 조선측의 진상 은폐 과정에서 억울하게 범인 취급을 당했던 이주회(李周會)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미우라, 스기무라 등의 진범의 존재를 슬며시 암시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본서의 간행연도가 한일병합의 직후라는 시점이 다른 의미에서 일본의 자신감으로 작용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보여 진다.

오랜 무관심과 진상의 은폐 왜곡의 시기를 거쳐 민비 시해 사건의 전모와 실체가 드러나는 연구가 나타나는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도 한참 뒤인 1960년대에 들어가서이다. 사건의 실체와 진범을 밝힌 선행연구로서 우선 야마베 겐타로(山述健太郎)의 연구[11]를 들 수가 있다.

야마베는 자신의 저서『일본의 한국병합(日本の韓國併合)』중 제7장「민비 사

---

[10] 戶叶薰雄, 楢崎觀一, 共著『朝鮮最近史』, 蓬山堂, 大正元年, 1912, 10~12쪽.
[11] 山边健太郎,「閔妃事件について」『日本の韓國併合』, 太平出版社 , 1966 참조.

건에 대하여」라는 장(章)을 설정해 약 32페이지를 할애하면서 , 민비시해사건의 정의, 진상 및 일본 군대의 관련 문제, 그리고 외교적 처리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분석을 행하고 있다.

야마베는 당시까지 횡행하던 사건의 진상 왜곡과 은폐[12]에 대해 다소 거칠지만 격정적인 문체로 주모자가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였다는 것과 그 하수인들에 대해서 대강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특기할 것은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조선 주둔 일본군 수비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과 직접적인 하수인 속에 현역 일본군 장교(士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상의 은폐, 사실왜곡을 꾀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된 것은 강창일이 지적하는[13] 바와 같이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등에 비장되고 있던 관련 자료가 공개 혹은 공간되면서"였다. 더불어 메이지유신 100주년을 즈음하여 메이지시대 자료집 간행이 성행하였고 또한 이로 인해 그 시대 역사연구에 박차가 가해진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어서 일청전쟁에 관한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나타나는가운데 재일 조선인 사학자인 박종근의 연구업적[14]이 제시되었다. 1894년에 발발한 일청전쟁은 한·중·일 삼국의 그 후의 발전 방향성을 서로 크게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한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며, 전쟁발발의 최대 요인은 조선을 보호국화 하려는 일·청 양국의 정략에서 찾을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조선의 입장을 논하는 연구가 부진하였는데, 박종근의 『일청전쟁과 조선(日淸戰爭之朝鮮)』은 그러한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박종근의 연구가 보여준 연구사상의 의미를 한 가지만 더 부언하자면, 1895년 7월 25일의「豊島沖海戰」의 발발에서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논해왔던 기존의 통설에 대해 그 이틀 전인 23일 발생한 일본군에 의한「朝鮮王宮占領事件」이 개 전(開戰)의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논증한 것이다.[15]

그리고 박종근은 전체 300여 페이지 중에 약 80페이지를 할애하여 이노우에 가

---

[12] 山边, 前揭論文, 207~208쪽.

[13] 강창일, 前揭論文, 31쪽.

[14] 朴宗根, 『日淸戰爭と朝鮮』, 靑木書店, 1982, 第6章 三浦梧樓公使の赴任と明成皇后 (閔妃)殺害事件 및 第7章 殺害事件の處理策と反日義兵運動 참조.

[15] 中塚明, 『蹇蹇錄の世界』, みすず書房, 1992, 244~245쪽.

오루의 퇴임과 미우라 공사 임명의 배경, 명성왕후 살해 사건과 쿠데타의 실행과정 및 일본정부와 친일 한국 내각이 행한 각각의 시해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것은 사건의 배경 및 진상과 처리과정을 실증적으로 논증한 선행연구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을만한 것으로서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입체적인 분석을 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미우라 고로의 주모설을 기존의 진상 왜곡설 등과 관련시켜 논증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하수인으로 일본군인, 외교관, 영사관 경찰 등을 동원하였고, 구마모토(熊本) 국권당(國權党) 계열의 대륙낭인 등의 민간인을 동원하여, 만에 하나라도 일본측이 주도한 진상이 밝혀졌을 경우를 대비해 사건 발발 당초부터 진상을 은폐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획책되었고 또 범인들의 의도대로 전개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은 비단 박종근의 연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사건의 계획, 실천 과정에서의 미우라 고로와 일본 정부와의 관련성을 논증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주목할 만한 추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시 일본외상인 무츠 무네미츠의 회고록인『건건록(蹇蹇錄)』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무츠의 외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일청전쟁기 일본의 외교정책의 공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나카츠카 아키라의 근년의 연구 성과[16]를 지적할 수 있다.

나카츠카의 견해에 의하면 조선의 민족적 자주성을 무시한 일본외교의 실행방식이 한편으로 일본의 조선침략을 점점 노골적으로 만들어 때로는 무궤도(無軌道)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고, 그 대표적인 행동이「閔妃殺害事件」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일본의 외교관이자 시해사건 실행의 참모장 역할을 담당했던 스기무라 후카시 일등서기관의 인식을[17] 지적하면서 민비시해사건이 조선 정부내

---

[16] 中塚明, 前揭書, 그 중에서도 第3章「陸奥外交」の歷史的位置とそ意味 참조.

[17] 스기무라는 민비 시해사건을 企圖했던 "유일한 목적이 궁중에서 露國黨(그 首領은 물론 왕비임)을 억제하고 일본당의 세력을회복시키는데 있었고 · · · · · 살해사건은 오로지 이에 附帶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主要한 목적이 아니었다." 라는 폭언을 내뱉고 있다. 당시 일본 외교관의 조선인식의 수준 과 자질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자료라고 하겠다. 후술하겠지만 당시 사건에서 스기무라가 담당했던 역할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조선에 부임해서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사건을 주도했던 미우라공사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는 지적(최문형)도 있는데 거꾸로 미우라 주도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스기무라의 존재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一杉村濬,『在韓苦心錄』, 1932, 199쪽. 中塚明, 前揭書, 247쪽에서 재인용.

일본 세력의 회복을 꾀하는 쿠데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으킨 행동이었다는 안일한 대(對)조선인식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또 나카츠카는 민비 시해사건이 미우라 공사와 스기무라 서기관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것이라고 추찰(推察)하면서도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많이 남아 있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18] 이러한 지적 역시 금후의 명성황후 연구에 대한 과제를 시사하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다.

4. 민비 시해사건 연구 동향에 대한 몇 가지 검토와 향후의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인식과 연구 동향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일본 학계에 있어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어서 향후의 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 작업은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학계의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겠다.

일본 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한국측 연구자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다.[19] 그 지적에 의하면 미우라 공사의 총지휘 아래 일본인에 의해 민비가 시해를 당한 것이 극명하게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건 전모에 대한 해명은 미진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미우라의 정치적 성향과 배경, 일본 정부당국의 사전모의 및 사전인지 여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자전모의 및 사전인지 여부는 당시 정치권의 핵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노우에 가오루 및 미우라의 숨김없는 참회록(?)류의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추정의 범주 속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연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즉 사건의 배경과 전모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미진하다는 지적과 현재입장에서는 사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추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측의 연구 동향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

[18] 中塚明, 前揭書, 249~250쪽.
[19] 강창일, 前揭論文, 31쪽 참조.

다고 해서 추정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만은 없다. 앞으로도 관련 사료의 발굴이 계속되겠지만 더불어서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를 보다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또 기존의 연구를 보다 심화시킴으로써 하나씩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관점에 입각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황 인식의 외연을 넓혀보고 싶다. 첫 번째는 사건의 배경과 시해사건의 주모자와 하수인에 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모자 및 하수인의 인물 및 인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여 진다. 이 점과 관련해 최근 한국에서 다른 의견(=이노우에 가오루 주범설)이 제기 되기도 했지만[20]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민비시해사건의 주모자는 미우라 고로 공사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지어 먼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전임 공사[21]를 간단히 검토해 보자. 이노우에는 조슈(長州) 출신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로서 1881년 정변에서 이토를 도와 정국을 주도하는 주류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외교의 책임자로서 외무경(外務卿)에 이어 내각제도가 도입되자 외무대신으로 기용되어(제 1차 이토내각) 일본외교의 전권을 휘두르게 된다. 그런데 이노우에가 주도했던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조약 해소를 위한 비밀협상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굴욕외교의 책임자로 규탄 받아 1887년 외무상을 사임한다. 그런데 일본외교의 총수였던 인물이 1894년 일청 전쟁 당시 조선공사로 부입하고 있다. 이노우에가 일본 정국의 주류파의 일원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엄연한 강격(强格) 인사임에 틀림없다. 근대 일본의 내각제도는 책임 내각제이기 때문에 외교의 최고 책임자는 외무대신이며, 조선 공사는 원칙적으로 외무대신의 지휘 계통 하에 속한다. 이노우에가 강격 인사를 감내하면서도 더구나 무츠 무네미츠라고 하는 개성이 강한 외무대신의 지휘를 받으면서까지 조선에 부임하였던 이유와 조선에서의 활동 및 일본 정부 내에서의 이노우에의 정치적 비중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이노우에는 적어도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정부 내의 주류파에서 밀려나 있

---

[20] 최문형, 前揭書, 특히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밝힌다』 참조.

[21] 이노우에 가오루에 대해서는 井上馨侯傳記編纂會 編, 『世外井上公傳』, 原書房, 1968년 복간과 近藤吉雄 編, 『井上角五郎先生傳』 등이 있다. 그리고 일본국회도서관 憲政資料室에는 이노우에 관련 書翰文 3500통과 관련서류 1300여점이 井上馨文書로 소장되어 있어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었고 조선 문제를 잘 매듭지음으로써 화려하게 중앙정계에 복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그의 희망이 좌절하는 것과 그가 사임한 직후 발생한 민비시해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한 고증이요구되어 진다. 이어서 미우라 고로[22]에 대한 문제이다. 미우라 고로는 일본 근대의 역사공간 에서도 상당히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인물이다. 일본 사학계에서의 미우라에 대 해서는 사츠마(薩摩)조슈(長州) 출신의 양대 세력이 살장번벌(薩長藩閥)정권을 구성해 정치 군사적으로 독단적 정권을 강화해 갈 때 이에 줏대를 가지고 반대한 반골무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조선공사 시절의 만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미우라는 본인 스스로의 주의(主義)가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로 이어지는 조슈벌의 정신적 직계라고 자부하고 있었다.[23] 그리고 미우라는 군인이면서도 예비역으로 물러난 이후에는 국권당 계열에 속하는 일본 우익의 대부를 자처하면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계의 흑막(黒幕)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미우라는 이토 히로부미나 야마가타 아리토모와는 친구이자 정치적으로는 애증관계로 연결되는 동격(同格)의 인물이다. 즉 이노우에와도 대등한 관계였고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그가 현역에서 물러난 것도 군 제도 개혁문제에 대해 살장(薩長)정권의 야마가타 주도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앞서 이야기한 이노우에가 외상에서 사직할 수 밖에 없었던 계기가 조약개정 교섭 당시 비밀교섭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연약 굴복외교라고 정면에서 비판한 사람이 다니 간조(谷干城) 농상무 대신이었는데, 다니가 미우라의 직계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도 미우라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민비시해사건에 관계되는 하수인들은 일본군 수비대 소속의 군장교와 병사들 공사관, 영사관의 외교관과 경찰관, 그리고 일본인 민간인으로서 아다치 겐죠(安達謙藏)를 비롯한 구마모토 국권당 계열의 우익 낭인 그룹 그리고 여기에 조선의 훈련대 병력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휘 통

---

[22] 미우라 고로는 『觀樹將軍縱橫談』과 『觀樹將軍回顧錄』을 저술했다. 회고록 전문(全文)과 종횡담의 일부를 합본하여 나온 책이 『三浦梧樓關係文書』, 『明治史料』, 8卷이 있다

[23] 三浦梧樓, 『明治反骨將軍一代記』, 芙蓉書房, 1981, 424쪽.

제할 수 있는 인물은 결과론적인 결론일지 모르나 미우라 고로가 최적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미우라를 주모자로 전제할 때, 그 하수인들과의 상관관계 문제이다. 미우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부 스기무라 후카시 일등서기관에게 위임했었다고 적고 있다.[24] 이 말은 전혀 신용할 수 없는 기술이지만 반면에 시해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스기무라 일등 서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보여 진다. 스기무라는 1880년에서 87년까지그리고 1891년에서 95년까지 외교관으로서 10년이상을 조선에서 지낸 이른바 "조선통"이라 할 수 있는 인물로서 갓 부임한 미우라 공사를 보좌해 민비 시해사건을 주도했던 주요 인물이었다. 이러한 관점과도 연계지어 스기무라를 접점으로 하는 미우라와 그 하수인들의 관계, 특히 국권당계열의 우익들과 대륙낭인 중에서도 조선 낭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금후의 연구가 기대되어 진다.[25]

세 번째 문제는 역시 민비시해사건과 일본 정부와의 상관관계, 즉 일본 정부의 사전인지 내지는 사전모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사료상의 한계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26]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미우라 공사를 비롯하여 당시 일본 정부 의 핵심이자 정국의 주도자들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사이온지 킴모치(西園寺公望) 등 거물급 정치가들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당시의 외무대신인 무츠 무네미츠와 민비시해사건과의 관련성 문제

---

24 『觀樹將軍回顧錄』중 朝鮮事件, 三浦梧樓, 前揭書, 238쪽.

25 스기무라 후카시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도 주목하고 있다.(註 17 참조) 그리고 스기무라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杉村濬,『在韓苦心錄』, 1932年 刊行이 있고, 또 田保橋潔,『日淸戰役外交史の硏究』도 참조할 만하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스기무라는『杉村君日記』미간행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사료가 일본 토치기현 사노시(佐野市)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원래 소장자는 스나가 하지메(須永元)라는 사노 지역의 대지주였다. 그는 게이오대학 출신으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으나 민비 시해사건 관련자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오카모토 류노스케에게 평생 생활비 등으로 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우범선에 대한 지원도 남다르게 하고 있다. 우범선의 무덤도 분묘가 되어 사노시에 있으며, 그의 아들인 우장춘의 일본내 후견인도 바로 스나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인간적 관계에 대해서도 향후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범선 일가와 스나가의 관계에 대하여는 쓰노다 후사코,『朽炳祖國－禹博士の運命の種』, 新潮社),1990 참조.

26 주19) 참조

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27], 적어도 95년 6월까지는 무츠가 일본 외교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원군을 입궐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시해사건의 핵심적 인물의 한 사람이었던 오카모토 류노스케 조선 궁내부 고문은 무츠 외상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그의 추천에 의해 조선으로 부임한 점 등에서 무츠 외상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간접적 이나마 포착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후세에 타인들이 읽을 것을 예상하고 기록을 남긴, 이들 거물급 정치가가 남겨놓은 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앞에서 지적한대로 현장실무자(예를들어, 스기무라 후카시 일등 서기관)나 당시 일본 정부의 중진 관리들(예를 들어, 외무성의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郎)나 하라 다카시(原敬)의 기록 등에서 보다 정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외연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점과 관련된 지적으로서 후쿠시마 신고(福島新吾)는, 앞에서 언급한 스기무라『日記』의 분석을 통해, 민비시해사건에 대하여 "병 치료중의 무츠외상이나 이토수상은 반쯤은 그 의도(필자 주; 미우라가 민비 시해사건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고 추측을 하고 있다.[28]

네 번째 문제는 극히 미묘한 문제로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것은 민비시해사건에 당시 조선인들은 전혀 무관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지니는 미묘성과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미우라가 최초부터 훈련대 내지는 조선인 주도설로 사건의 핵심을 조작하려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고,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역사의 진실을 왜곡 호도하는 측면을 부각시켜버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술했던 박종근의 연구에 의해서 국왕 주동설, 훈련대 수모설(訓練隊 首謀調), 대원군 수모설은 전

---

[27] 민비 시해사건 발생 당시 외상인 무츠 무네미츠는 臥病 중이었기 때문에 公卿 출신인 사이온지 킴모치(酒園寺公望)문부대신이 외상 임시대리로서 사건 처리 과정을 주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해사건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대외적 역할을 못하고 있으나 일청전쟁 발발이후 그가 일관되게 대외관계를 주도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28] 福島新吾,「壬午 · 甲申 · 閔妃事件關聯の『杉村君日記』(續) – 研究と史料解讀 –」『傳修史學』제22호, 1990; 中塚明, 前揭書, 252~253쪽에서 재인용.

부 부정되었고, 미우라공사 수모설이 입증되었다.[29]

그런 반면에 민비 시해사건은 동시에 미우라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측이 주도한 친일 쿠데타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즉 민비 시해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란을 초래한 대 사건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측의 행위가 반드시 민비 시해만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동반해 친일내각을 구성하는 쿠데타를 실행하고 조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 시도,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당의 회복"을 노린 시도도 병행되어졌음을 생각할 때 과연 당시에 조선측의 일부 인물이나 세력이 이에 관련되어지고 더불어 민비 시해사건에 관계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기도 하다.

또 이점은 미우라가 부임할 당시 조선에 데리고 왔던 조선낭인의 대표적 존재이자 우익적 성향의 승려인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등의 역할과도 관련되어지는 문제이다.[30] 동학봉기 당시의 천우협(天佑俠) 활동에서부터 조선측 인사(=예를 들어 이주회 등)들과 친교가 있었던 조선낭인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도 역사의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재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이 타국의 궁정에 쳐들어가 그 나라의 왕비를 학살한다고 하는, 국제정치의 상식에서 보더라도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몰법규적인 폭거가 외국에 있어서 일본의 얼굴인 (미우라) 공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 조선의 인간들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시각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느낌이다.[31] 또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그들 일본인들에게는 조선이 외국이라는 인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32]라는 지적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지적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29] 박종근, 前揭書, 224~227쪽 참조.
[30]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창일, 前揭論文, 49 ~55쪽 참조.
[31] 瀧澤誠『武田範之とその時代』, 三嶺書房, 1986, 第5章, 天佑俠 閔妃事件 참조.
[32] 前揭書, 100쪽.

5. 맺음말

이상의 검토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일본에서의 민비 및 민비시해사건에 대한 인식과 서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일본 학계의 선행 연구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민비나 민비 시해사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또 일청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일본에게 러시아를 위시한 삼국간섭이라는 사건이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거의 보호국화에 성공한 듯이 보였던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국에서 러시아의 대두로 인해 일본은 한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탈출하여 조선 정국에서 일본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초래되었던 것이 동서고금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만행인 민비시해사건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민비 시해사건을 둘러싼 제 문제 즉, 사건의 왜곡 진상의 은폐 기도와 더불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고 그 주모자가 미우라 공사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한편으로는 사건 전체의 총체적 파악과 일본정부와의 정확한 관련성 입증은 앞으로의 과제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민비 시해사건 연구 동향에 대한 몇 가지 검토와 향후의 전망을 통해서 민비 시해사건의 전체상을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필요로 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해 보았다. 물론 금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더 많이 있겠지만, 일본측의 연구의 진전뿐만이 아니라 한국 학계에서도 또한 연구가 병행되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 피해와 가해라는 측면의 사실 복원도 매우 중요하나,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 그리고 피아간(彼我間)을 불문하고 진상에 접근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본고에서도 민비 시해사건에 국한된 분석이 되어버렸지만 망국의 군주, 유약하고 나약한 고종의 이미지나, 당시 민비의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역사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또 고종시대의 정치 사회 국제관계를 포함한 역사상을 정확하게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는 민비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금후의 새로운 연구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2부 국내외 정세의 변동과 명성황후

명성황후와 중국과의 관계

구 선 희*

1. 머리말
2. 민씨척족의 세력 확대와 청의 임오군변 진압
3. 민씨척족의 정권 장악과 청의 갑신정변 진압
4. 민씨척족정권의 반청정책
5. 민씨척족정권의 몰락과 청병차병
6. 맺음말

1. 머리말

근래 개화기 정치세력에 관한 연구 방향이 다양화되면서 국왕인 고종의 비로서 이시기 대내외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민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되는 경향이다. 그간 민비와 관련한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조선시대 가부장적 국왕 중심사회에서 왕비의 정치적 언행이 정사(正史)라고 일컬어지는 공식적인 통치사료에 기록될 수 없었던 데서 기인하는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자료상의 빈곤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민비와 관련한 기록은 황현(黃玹)의『매천야록(梅泉野錄)』이나 윤효정(尹孝定)의『풍운한말비사(風雲韓末秘史)』와 같은 야사류에 기록된 전문(傳聞), 조선에 와서 민비를 만나 본 서양인들이 남긴 견문류 등이 있고, 청과 일본의 공식 외교문서에 간간이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개화기 국제정치 속에서의 명성황후"를 조명하는 데 특히 청과의 관계에서는, 자료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민비가 고종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를 이용해서 조언자 역할을 하며 대내외 정책에 많은 간여를 했다 해도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가부장적 국왕중심사회에서 주역은 고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의 문맥 중에는 고종과 민비를 동렬에 놓고 기록된 부분이 발견된다. 이것은 당시 대내외정책에서 갖는 민비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민비가 조선의 내 · 외정에 깊숙이 간여한 시기는 1873년 고종 친정 선포 이후부터 1896년 을미사변 전까지 약 20여 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민비는 그 능력과 의지가 어떻건 정치 전면에서가 아니라 고종의 내조자라는 위치와 민씨척족의 수장 역할을 통해 배후에서 조선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민비의 이같은 현실적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당시 조선의 외압세력 중 하나인 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청계중일한관계사료』『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음청사』『종정 연표』『윤치호일기』『매천야록』『알렌의 일기』등의 자료를 이용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민씨척족의 세력 확대와 청의 임오군변 진압

민비로 대표되는 민씨척족이 조선의 대외정책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873년 11월 대원군의 10년 집정이 종식되고 고종친정이 시작된 후였다.

고종은 1873년 11월 4일 자신이 모든 정사를 직접 통할하겠다고 선포했다. 고종 친정이 이루어진 배후에는 대내외 정치에서 소외당하던 고종과 민비를 비롯해 대원군의 인사정책에서 배제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국내 정치세력이 있었다.

한 나라의 일인자인 국왕 고종이 대내외 정치에서 대원군으로부터 어떻게 소외당했는가에 대해서 황현의『매천야록』에는 "대원군 때는 혼자 집권을 했기 때문에 비록 음관(蔭官)한 사람과 변장(邊將)한 사람이라도 대원군을 거치지 않고는 발령할 수가 없었다. 인사 발령을 할 때는 언제나 그가 미리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자리를 채운 후에 올리면 고종은 그것을 따라 낙점만 할 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원군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던 고종과 민비는 대원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내 세력을 적절히 이용하여 대원군을 하야시키고 고종 친정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고종과 민비는 대원군 반대세력과 민비 친속인 민씨척족을 등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대원군 세력을 조선 정계에서 몰아냈다.[1]

고종 친정을 즈음하여 두각을 나타낸 척족 세력으로는 민승호와 민규호가 있었고, 이 외에 대원군의 정책에 반대하던 이유원, 박규수, 조영하 등이 있었다. 민씨척족 세력의 후원자인 민비는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척족세력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겨우 돌이 지난 자선의 소생인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이유원을 청에 보내 청으로부터 세자책봉 승인을 받아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청과 일본, 그리고 서구 열강의 문호개방 요구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면서 국내외 정치에 간여했다.

1882년 6월 일어난 임오군변은 표면적으로는 개화정책의 하나로 시행되었던 군제정비과정에서 일본식 훈련을 받던 신식군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던 구식군대의 반발로 일어난 것이었다. 군변의 와중에서 군인들에게 돌 섞인 쌀을 지급한 선혜청 당상 민겸호를 비롯해 민씨척족 몇 명이 살해되었다. 민씨척족이 공격대상이 된 것은 민비가 세자를 위한 기도로 국고를 낭비한다는 풍설이 있어 이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시키기도[2]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화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주요 요직을 민씨척족이 차지하고 있어 실정의 책임이 그들에게 돌려진 때문이었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개항 이후 수교통상에 대한 국내의 반발세력을 견제하면서 개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였다. 통리기

[1]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이하『관계사료』로 줄임) 2, 1972, #556-(2), 919b쪽, 光緖 8년 8월 11일(#는 자료에 나타난 문건번호, 쪽의 윗단은 a, 아랫단은 b로 나타냄).
[2] 황현,『매천야록』, 57쪽.

무아문은 1881년 11월의 조직개편으로 7개의 속사(屬司)를 갖게 되었다. 7사의 주요직인 당상에 민씨척족인 노론 여흥 민씨가 4명 포진하고 있었다. 1881년 4월 이후 거듭되는 인사 조치를 통해 민영익, 민태호, 민겸호, 민치상은 사대교린사나 통상사 등 외교관련 부서를 제외한 부서에 각각 당상으로 임명되었다. 외교관련 부서에는 개화세력이 임명되었다. 이것은 민씨척족이 개화정책추진 과정에서 당시엔 자신과 정치적 노선이 같았던 개화세력을 포용하며 권력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반대로 개항에 반대한 친대원군적인 성향의 세력은 통리기무아문 내의 세력분포만으로 볼 때 점차 정권에서 멀어져가고 있었다.[3]

군변을 기회로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고, 대원군과 대립하고 있던 민비는 군변 중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충청도 장호원으로 피신해 있었다. 조선정부는 군변을 진정시킬 힘이 없었다. 훈련도감은 당시 서울 도성 수비의 핵심 군영이었다. 훈련도감의 하급군병들이 군변의 중심세력이 된 이상 이를 진압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이 내세운 대원군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청병을 불러들여 군변을 진압하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청이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한 것은 청에 가 있던 김윤식과 어윤중의 요청도 있었지만 이 기회에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청의 대조선정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1876년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이 점차 조선에 세력을 확대해가자 청은 내심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선에서 임오군변이 일어났다. 청 정부는 그곳에 있던 김윤식과 어윤중과의 문답을 통해 군변의 원인과 그간의 조선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때의 김윤식과 어윤중 그리고 청 관료 사이의 문답에서 당시 조선정치에서 민비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귀절들이 나온다.

김윤식은 청 관리 주복(周馥)에게 임오군변이 발발하게 된 배후에 대원군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식에 의하면 대원군이 집정하는 동안 고종과 민비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면서 능멸했고 민비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했다. 그래서 대원군이 실각한 후 민비가 민씨 친속을 기용해서 대원군의 권력을 약화시키자 대원군의 민비에 대한 분노가 날로 증가했다는 것이다.[4] 한편 김윤식은 민비와 그

---

3 구선희, 「개항기 관제개혁을통해 본 권력구조의 변화」『한국사학보』12, 고려사학회, 2002, 313쪽.
4 『관계사료』3, #556-(2), 919b쪽, 광서 8년 8월 11일.

일족에 대한 주복의 물음에 민비가 군변 과정에서 화를 입은 이유에 대해 대원군과는 다른 외교정책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고종과 민비가 추진했던 것을 의미하며, 당시 이런 대외 문호개방에 대해 대원군을 비롯한 척화론자들의 불만이 비등했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5] 또한 김윤식은 군변을 전후하여 민비는 대원군과의 정쟁에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무당들을 불러 굿을 하며 기원하는 것으로 극복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많은 돈을 쓰게 되어 인민의 원망을 샀다고 했다.[6] 청측은 임오군변을 계기로 조선정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조선정계에서 갖는 민씨척족의 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임오군변시 조선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청 정부 관료 마건충은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었던 청 함선에서 어윤중과 가진 필담 중에 민간에서 왕비가 권력을 남용해 외척이 자횡(恣橫)한다고 하는데 그 연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어윤중은 왕비의 권력 남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왕을 내조하기 위한 것이고, 외척의 자횡은 수십 년 전 일로 지금에는 그 같은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7] 당시 민비는 정부 요직에 민씨척족을 등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조선의 대내외 정책에서 고종을 내조한다는 명목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고종 친정 이후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은 임오군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만, 청의 물적지원과 청군의 조선주둔상황에서 개화정책의 독자적인 수행은 어려웠다. 임오군변이 청군에 진압된 후 조선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향후 조선의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에 원조를 요청했다. 이때 청에 파견된 조영하와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필담과정에서 이홍장은 민비와 대원군이 원수 사이인데 민비가 군변 후 돌아와서 변란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또한 민비가 외척을 즐겨 쓰고 있다고 하는데 민씨 중에 민영익 외에 쓸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8] 청 정부는 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하고 군변세력을 진압해서 임오군변이 끝났지만 또 다시 개화정책과 민씨척족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있어 조

5 『관계사료』 2, #498-이, 782a쪽, 광서 8년 6월 29일.
6 위와 같음.
7 『관계사료』 3, #556-(8), 929a쪽, 광서 8년 8월 11일.
8 『관계사료』 3, #554-(2), 913b쪽, 광서 8년 8월 8일.

선정정이 불안해질까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영하는 이에 대해 조선정정이 안정을 되찾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군변으로 무너진 군제정비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의 원조를 구했다. 조선정부는 청에 군사교관 파견과 무기 공급을 요청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이미 와 있는 청 군대를 그대로 주둔시켜 줄 것도 요청했다.[9] 고종이나 민비의 처지에서는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만, 조선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청으로서도 바라마지 않던 제의였다.

군변 이후 조선에 주둔한 청 병력은 군변 때 파병된 약 3,000명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884년 안남 종주권을 둘러싼 청불전쟁이 터지면서 1,500명이 철병하여 1884년 갑신정변 당시에는 1,500명의 청군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다. 조선정부는 군변 이후 일본과 체결한 제물포조약에서 일본에도 1년이란 한정된 기간이었지만 병력 주둔권을 주었다. 이로써 조선에 청군과 일본군이 함께 주둔하게 되었다.

이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투었고 조선측에서도 이들의 무력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세력 중의 하나가 개화파였다.

임오군변이 청군에 의해 진압된 후 고종은 임오군변 후의 민심수습을 위해 정치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윤음과 교서[10]를 내리는 동시에 임오군변으로 폐지된 통리기무아문을 대신하여 국가기무를 총찰하고 궁내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구 개편을 단행하면서 개화파를 대거 기용했다.[11] 1882년 7월 25 일 고종은 대궐 내에 '기무처' 를 설치[12]하고 적극적인 체제정비를 시도했다. 기무처는 의정부, 6조와는 별개로 고종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였다. 기무처 구성원은 집권 수구파인 조영하와 김병시 등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김홍집 · 김윤식 · 어윤중 · 신기선 · 홍영식 등 개화파가 포함되어 있었다. 개화파는 기무처 참여를 기회로 고종의 막료 역할을 함으로써 더욱 더 활발하게 구체적으로 개화정책을 추

9 『관계사료』 3, #624-(4), 1040쪽, 광서 8년 10월 13일; 北京古宮博物院 編,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臺北:文海出版社 이하 『교섭사료』로 줄임) 권4, 1963, #(161)-부건3, 37쪽, 광서 8년 10월 5일.

10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7월 18일, 20일, 22일.

11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7월 25일.

12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7월 25일.

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씨척족세력은 임오군변이 일어나자 장호원으로 피신해 숨어있던 민비가 8월 1일 청의 도움으로 환궁한 후, 친청사대(親淸事大) 노선으로 기울면서 개화정책 추진에 일정하게 제동을 걸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기구개편을 모색했다.

1882년 11월 17일 고종의 명으로 외무를 전담하는 '통리아문'이 설치되었다가[13] 12월 4일 명칭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바뀌었다.[14] 고종이 '통리아문' 설치를 명령한 다음날인 1882년 11월 18일에는 "외무가 비록 긴요하나 내무는 외무보다 우선 힘써야 한다."[15] 는 고종의 교시와 함께 '통리내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통리아문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12월 4일 '통리군국사무아문' 으로 개칭되었다.[16]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이르면 임용대상의 폭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과거에는 바로 정식 관료로 등용되기 어려웠던 생원 · 진사 · 유학까지도 임용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17]

이는 전통 관료제 하에서의 인사기본원칙과 많이 달라진 것이었다. 그 결과 통리교섭아문의 발족과 더불어 처음 임용된 주사 10명 중 4명은 관료로서의 경력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바로 참상관으로 등용되었다. 이 중에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있었던 유길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외교, 통상이란 직무 자체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외국견문이 풍부하고 신학문을 배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통리군국사무아문의 독판은 6사에 각 1명씩 임명되어, 취임한 독판의 총수는 7명이었다. 이들 독판들은 이전에 정계의 주요관직을 역임했던 원로 세력가들로서, 이전의 통리기무아문 당상을 지냈던 인물이 많았다. 이들은 친청적인 인물들로서 통리군국사무아문을 통해서 내정과 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재정의 경우는 민태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 민태호는 고주처(鼓鑄處)의 관리외에 전환국, 혜상공국, 선혜청, 공시당상 등에 임명되고 있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

13 『일성록』 고종 19년(1882) 11월 17일.
14 『일성록』 고종 19년(1882) 12월 4일.
15 『일성록』 고종 19년(1882) 11월 18일.
16 『일성록』 고종 19년(1882) 12월 4일.
17 『승정원일기』 고종 20년(1883) 1월 19일.

기 몇 개월 전인 1884년 6월 30일 이후에 독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인물은 민태호, 김유연, 조영하 3명뿐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를 전후로 정부기구가 특정한 권력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장내사 독판인 민태호는 왕실사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재정의 업무도 장악하고 있던 민씨척족세력의 실력자였다.[18]

통리군국사무아문의 협판은 독판의 지시를 수행하는 실무자였다. 협판에 임명된 총수는 16명으로 통리군국사무아문을 통해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실질적인 인물들이었다. 협판 중에는 민씨척족과 이에 친분이 있는 세력들이 많았다. 민응식, 민영익은 민씨척족세력이었고, 박정양, 윤태준, 이조연, 한규직, 심상학 등은 민씨척족세력과 친연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김윤식, 어윤중, 홍영식, 심상훈 등은 개화세력으로서 민영익과 친분이 있었다.[19]

윤태준, 한규직, 이조연, 민응식, 심상훈, 민영익 등은 1883년 8월 이후 등용되어 재정, 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조연, 한규직, 윤태준 등은 친군영을 감독하고 기기국총판, 혜상공국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기관은 민씨척족세력에 의해 그 권한이 독점되어 갔다. 민씨척족세력은 통리기무아문을 통해 개화파와 연합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를 거쳐, 통리군국사무아문 단계가 되면 재정, 군사 변에서 독점적인 권력 우위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개화파 중 청 세력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내정개혁을 통한 근대적 자주국가수립을 꾀하고 있던 변법개화파와 충돌하게 되어 변법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3. 민씨척족의 정권 장악과 청의 갑신정변 진압

개항 후 조선과 청의 관계는 기왕의 조공관계에서 근대 국제법적인 관계로 전이하는 단계에 있었다. 조선과 청은 서로간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조선은 사대사

---

[18] 구선희, 앞의 글. 317쪽.

[19] 어윤중, 홍영식, 심상훈은 어릴 때부터 민영익과 친분이 있던 8學士들이었다. 그리고 민응식, 윤태준, 이조연, 심상훈 등은 임오군변 때 민비를 비롯한 민씨척족세력을 도와준 인물이었다. 이에 대해 황현, 『매천야록』(갑오이전) 참조.

행 폐기 등을 요구하며 만국공법적인 평등관계로 대청관계를 이끌어 나가고자 했고, 청은 종래의 조공관계에 가탁하여 근대적인 속국체제로 대조선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여 이 과정에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하 '장정' 으로 줄여 씀)이 체결되었다.[20] 장정체결 후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선정부관료들이 갖는 대청인식에는 많은 편차가 나타났다. 특히 개화파내부의 대청인식 차이는 장정체결을 분수령으로 하여 보다 선명해졌다.

개화파는 서양이나 일본 등 앞서 가는 자본주의국가의 근대적 생산력 수용에서는 모두 적극적이었지만 서구나 일본의 근대적 사회정치체제의 수용에서는 의견이 달랐다. 김윤식 · 어윤중 등은 청의 보호 아래 동도서기론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시무론적 인식에 머무르고 있어 서구나 일본을 개혁의 모델로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에 청으로부터의 '자주' 를 주장하던 김옥균 일파는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델로 하는 변법적 개혁을 추구했다. 그 결과 반청독립운동인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청의 외압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느냐 친연성을 가지느냐는 개화파 내부의 분화=정변파와 비정변파로의 분리의 지표가 되었던 것이다.

청군에 의해 진압된 갑신정변 직후 고종은 188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청군의 영무처(營務處)에 머물면서 일련의 제도개혁과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고종은 갑신정변 당시 반포된 모든 전교를 환수하는 동시에 우정국을 혁파하고 10월 21일 통리군국사무아문을 의정부에 합부시켰다.[21] 이어 11월 30일에는 모든 국정을 의정부에 위임한다는 윤음을 반포했다.[22]

정변 직후 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등 변법개화파가 망명한 상태에서 조선정계에는 민씨척족과 시무개화파 등의 세력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당시 이루어진 인사개편에서는 친청적인 시무개화파가 의정부 중심의 전통적 행정조직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컨대 정변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김홍집은 좌의정 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에, 김윤식은 병조판서 겸 강화유수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에, 어윤중은 선혜청 제조(提調)에 각각 임명되었다. 반면에 민씨척족 중에서는 민영익이 전영사(前營使)에, 그리고 민종묵이 한성판윤에 임명되었

20 구선희,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혜안, 1999, 83쪽.
21 『일성록』 고종 21년(1884) 10월 21일.
22 『金允植全集』 2, 「常參綸音」 82~83쪽.

을 뿐이다. 이로써 조선정계에는 청의 후원을 받은 김윤식 · 김홍집 · 어윤중 등이 외교 · 군사 · 재정 등을 장악하고 민씨척족세력을 견제하면서 국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결국 통리기무아문의 폐지로 청이 조선의 개화정책을 통제하는 한편 이 기구를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민씨척족세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23] 이에 따라 고종과 민씨척족세력은 점차 반청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청의 대조선정책에 불만을 품은 고종은 조선을 둘러싼 열국간의 균세를 이용해 청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고, 대내적으로는 친청적 관료들 대신에 민씨척족과 자신의 측근세력을 임용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했다. 고종은 1885년 3월과 4월에 걸쳐 정부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김윤식 · 어윤중 등 친청파 관료들을 축출하고 민씨척족인 민응식 · 민영환 · 민영위 · 민세호 · 민긍식 · 민병석 · 민종묵 등을 고위 관직에 기용했다. 갑신정변으로 위축되었던 민씨척족을 요직에 집중 배치한 고종은 국정을 총괄할 새로운 기구인 내무부를 설치했다. 따라서 내무부 설치는 외압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지주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는 내무부를 궁궐 내에 설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내무부는 1885년 5월 25일 고종의 명으로 군국서무(軍國庶務)를 총찰하고 궁내 사무도 겸관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24] 내무부는 의정부와 통일한 정1품 아문으로 궁궐 내에 설치되어 외교 · 교육 · 재정 · 군사 · 치안 · 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내무부는 의정부 · 6조의 전통적 통치기구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업무와도 상당 부분 중첩되었다. 특히 직제사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있음에도 외무를 담당하게 하여 청에 주진대원(駐律大員)을 상주시키고 일본 · 미국 · 유럽 등에 공사를 파견함으로써 내정뿐 아니라 외교 · 통상 문제에도 관여했다. 이것은 내무부 설치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청의 주차관 원세개의 통제하에 있었고, 또한 그와 친밀하고 친청적인 김윤식이 독판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통제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종은 내무부 설치 직후부터 각국 공사를 만날 때 내무부의 독판이 배석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외교에 관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25]

---

23 한철호, 「민씨척족정권기(1885~1894) 내무부의 조직과 기능」『한국사연구』 90, 1995, 5쪽

24 『일성록』 고종 22년(1885) 5월 25일.

25 한철호, 앞의 글, 28쪽.

내무부 체제하에서 민씨척족세력은 더욱 더 그들의 권력구조를 강화시켜 최극성 시기를 구가했다. 이것은 갑신정변 이후 민씨척족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885년 대원군이 청으로부터 귀국했지만 여전히 민씨척족의 견제로 정치세력으로서는 유명무실했다.[26] 고종을 둘러싼 반청세력은 1886년 7월 인아거청책(引俄拒淸策)으로 인해 정계에서 퇴장당했다. 그리고 청에 유화적이었던 김윤식 등 개화파와 그 밖의 관료들도 고종의 보복적 숙청 및 자진사퇴로 제거되었다. 이에 따라 정계에 남은 실질적 정치세력은 갑신정변 이후 고위관직에 기용되었던 민응식, 민영환, 민영소, 민영준, 민영달, 민병석, 민종묵 등 민씨척족과 이에 부화하는 집단뿐이었다. 따라서 민씨척족세력의 권력독점은 점점 강화되었다.

1887년 이후 내무부 독판직에 오른 민씨척족은 민응식 · 민영익 · 민영환 · 민병석 · 민영준 등으로 장기간 독판직에 있으면서 군사와 재정관련 부서의 직임을 겸직했다. 또한 내무부 당상을 예겸하는 병조판서, 선혜청 당상을 민씨척족이 장악하고 있었다.[27] 갑신 · 갑오기 병조판서에 취임한 총수는 14명이었다. 그 중 민씨척족인 노론계 여흥 민씨는 민영익 · 민응식 · 민영환 · 민영소 · 민영준 · 민영규 등 6명으로, 취임한 총인원의 40%를 넘어서고 있었다. 특히 민응식 · 민영환 · 민영소는 각각 1년 10개월, 3년 5개월, 2년 5개월에 걸쳐 재임해, 이 3명이 병조판서로 재임한 기간은 총 7년 8개월이 되어 갑신 · 갑오 기간의 약 70%를 차지했다.[28] 선혜청은 호조와 더불어 중요한 재정기관인데 선혜청 당상의 정원은 2명이었다. 그 중 1명은 호조판서가 겸임했고, 나머지 1명이 실제로는 선혜청 당상으로 불려졌다. 갑신 · 갑오기 선혜청 당상에 취임한 사람은 총 6명이었다.

그 중 민씨척족인 민영준은 1890년 3월부터 1894년 6월까지 4년 3개월에 걸쳐 선혜청 당상에 재임했다.[29] 민씨척족이 이 시기 병권과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무부는 외압에 의한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설치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씨척족에 의한 권력독점의 매개가 되기도

---

26 『관계사료』 4, #178-(1) 2146b쪽, 광서 12년 9월 26일.

2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糟谷憲一, 「閔氏政權後半期の權力構造-政權上層部の構成に關する分析-」『朝鮮文化硏究』 2, 東京大文學部 朝鮮文化硏究室, 1995.

28 糟谷憲一, 위의 글, 105쪽.

29 위의 글, 109쪽.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산하 기구를 통해 개화정책 추진세력인 신진관료의 육성이 이루어졌다. 내무부 산하 기구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통한 개화정책추진 과정에서 이를 담당한 신진개화파 관료들은 일정하게 개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면서 근대적 관료로서의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신진개화파 관료를 이용한 개화정책 추진은 청이라는 외압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4. 민씨척족정권의 반청정책

갑신정변 직후 청과 일본이 개전(開戰)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조선정계에 팽배해 있었다. 고종과 민비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청 · 일이 아닌 제3세력을 조선에 끌어들이려 했다. 청과 일본이 개전할 경우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해 조선의 독립을 보존하겠다는 계산이었다.[30] 더구나 갑신정변을 겪고 난 뒤 청과 일본의 간섭과 대립상황에 직면한 고종이 정변 이전에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맺어 두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기록[31]은 인아책(引俄策)이 단순한 외교관계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제간 역학관계에서 고종이 절실히 바랐던 대응책이었음을 보여준다. 갑신정변 이후 '조아밀약사건(朝俄密約事件)' 은 이같은 배경을 갖고 일어난 것이었다. 고종의 러시아 접근은 필연적으로 친청파의 몰락을 동반했다. 인아책이 구체화될 시점에서 당시 친청파로 알려진 김윤식과 김홍집의 권위가 점차 쇠퇴하고 있었다는 청측의 관찰은 고종의 인아책이 청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32]

이러한 조선의 인아거청책에 대해 청은 임오군변 때 보정부로 납치한 대원군을 조선으로 귀국시켜 조선의 대외정책을 견제하려 했다. 청측에서 볼 때 대원군은 적어도 인아거청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그의 정치적 역량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원군 귀국에 즈음하여 조선정정은 대원군 귀국에

30 『교섭사료』 권8, #(385) – 부건2, 23쪽, 광서 11년 5월 29일; 伊藤博文 編, 『秘書類纂 朝鮮交涉史料』 下, 東京 : 原書房, 1970, 125쪽.

31 『관계사료』 4, #999–(1), 1834b–1835a쪽, 광서 12년 5월 11일.

32 『교섭사료』 권8, #(385)—부건2, 23쪽, 광서 11년 5월 29일; 『관계사료』 4, #999–(1), 1835a쪽, 광서 12년 5월 11일.

맞추어 무위영 포수 김춘영(金春永)과 훈련도감 취수(吹手) 이영식(李永植)을 임오군변의 잔당으로 처형하는 등 대원군 귀국에 노골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비는 심기가 대단히 불안해서 청병이 서울에 주둔해 있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33] 이렇듯 대원군의 환국 후 상황은 청이 기대한 것과는 달라서 민씨척족세력이 대원군 세력을 압도하고 있었고 이런 사정 하에서 대원군을 통한 조선정부의 통제는 효율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34] 그래서 청은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진수당(陳樹棠) 대신 원세개를 파견해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總里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으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섭하도록 했다.

1885년 8월 25일 대원군 호송임무를 띠고 대원군과 함께 인천에 도착했던 원세개가 파악한 당시 조선정정은 "조선정부와 대원군은 부아(咐俄))를 원치 않으며 고종은 주관 없이 떠돌면서 민씨척족과 함께 러시아 관계를 주지하고"[35] 있었다. 또 다른 보고에서 원세개는 조선정부의 모든 정사를 민씨척족이 장악하고 국왕 고종은 민비의 말만 따름으로써 스스로의 계책을 내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어윤중과 김홍집은 기용되지 못했고 조선내정을 잘 아는 사람은 김윤식과 김병시인데 민비가 묄렌도르프와 내통하여 러시아세력을 조선에 끌어들이려 하는 어수선한 때라 김윤식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36] 이에 따라 원세개는 「적간론(敵奸論)」을 지어 러시아를 조선에 끌어들일 경우 일본세력을 끌어들여 난신적자(亂臣賊子)된 김옥균과 같은 인물이 나오고, 프랑스의 보호를 받으려다 프랑스에 당한 안남(安南)처럼 조선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고종을 협박했다.[37] 원세개의 관찰에 따르면 당시 인아거청책의 중심에는 민비와 묄렌도르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묄렌도르프는 고종의 인아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 조선의 외교와 세관업무의 고문으로서 청으로부터 파견되어 조선의 외아문 협판이란 관직을 갖고 있었다. 묄렌도르프는 인아책 구상에 대해 임오군변 이후 조선에서의 청과 일

33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출판부, 1991, 108쪽.
34 『교섭사료』 권9, #(407)－부건2, 2~3쪽, 광서 11년 9월 16일.
35 『교섭사료』 권9, #(407)－부건1, 4~5쪽, 광서 11년 9월 22일.
36 『교섭사료』 권9, #(407)－부건1, 3쪽, 광서 11년 9월 16일.
37 『교섭사료』 권9, #(407)－부건2, 3쪽, 광서 11년 9월 16일. 『교섭사료』 권9, #(409)－부건5, 9~10쪽, 광서 11년 9월 22일.

본의 각축 속에서 조선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한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은 청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본과는 적대관계에 있었으므로 러시아의 가장 큰 관심은 조선이 자주국이 되어 자기 나라와 일본 사이에 하나의 완충국으로 존재하게 하는데 있었다는 것이다.[38] 따라서 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조선에서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조선은 일본이나 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39] 그러나 묄렌도르프가 인아책을 추진한 것은 중동진출을 위한 독일의 대아시아정책에 기인한다는 견해[40]도 있지만 그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그것은 조선에서의 열강의 세력균형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종과 민비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묄렌도르프는 인아책으로 인해 그를 조선에 파견한 청 정부의 소환을 받아 조선에서의 직위에서 파면되었다.

고종은 인아거청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고종폐위음모설이 나오는 가운데 왕권에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종 및 그 측근세력은 조선에서의 열강의 세력균형으로 청을 견제하는 동시에 청과의 전래적인 '속방' 관계에서 벗어나 만국공법적인 체제하의 대등한 독립국으로 청에 맞서고자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대외사절파견을 추진하고 경제적으로는 청 이외의 나라로부터 기채(起債)하여 청으로부터의 경제적 예속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대외기채모집을 계획하기도 했다. 특히 대외사절파견 문제는 조선과 청이 극렬하게 맞섰던 문제였다.

대외사절파견 계획은 조선의 개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인사들로부터 고무된 측면이 강했다. 고종은 사절을 파견할 경우 파생되는 국내외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묄렌도르프 후임으로 조선에 온 후 내무부 협판으로 활동하며 고종의 정치고문을 하고 있던 데니[41]와 조선주재 미국공사였던 포크에게 자문을 구했다. 포크는 사절파견문제에 대한 고종의 자문에, 조선이 빈약하여 청의 압제를 받고 있으므로 각국에 전

---

[38] 신복룡 외 옮김, 『데니문서, 묄렌도르프 문서』, 평민사, 1997, 67쪽.

[39] 위의 책, 74쪽.

[40] 최문형, 「한로수교와 한말의 정황」 『제국주의시대의 열강과 한국』, 민음사, 1990, 96쪽

[41] 신복룡 외 옮김, 앞의 책, 73쪽; 『교섭사료』 권10, #(542), 30쪽, 광서 13년 7월 2일; 吳汝論 編, 『李文忠公(鴻章)全集』電稿 (이하 『李電』으로 함) 권8, 「寄譯署」, 1965, 광서 13년 7월 2일; 『관계사료』 5, #1411-(1), 2567a쪽 , 광서 15년 3월 8일.

권공사를 파견하면 상대국도 조선에 공사를 주차(駐箚)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이 있을때 각국이 청을 견제할 수 있어 청이 조선을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를 전했다.[42] 민영익 또한 고종에게 "청은 본래 구미제국을 두려워하므로 우리가 사절을 파견하여 구미제국과 결속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두려워할 것"[43]이라고 건의했다. 원세개에 의하면 사절파견문제는 1887년 4월부터 매일 조선조정에서 거론되었는데 민영익이 1887년 윤4월 22일 청국으로부터 귀국한 후 촉성되었고, 이 때문에 친청파이던 김윤식이 출척 당했다고 한다.[44] 이렇게 하여 조선에서 열강의 세력균형으로 청을 견제하고, '상국' 임을 자청하는 청에 대항하여 대외적인 독립국의 변모를 과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대외사절파견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종은 우선 1887년 5월 16일 민영준을 일본주재 판리대신으로, 김가진을 참찬관으로 임명해 파견했다.[45] 이어서 6월 29일에 박정양을 주미전권공사에, 심상학을 영국 · 독일 · 러시아 · 이태리 · 프랑스 주재 전권대신으로 임명했다가 심상학이 병으로 사직하자 조신희로 대체했다.[46] 고종은 이렇게 대외사절 파견으로 청을 견제하려 했지만 원세개는 오히려 조선의 사절파견을 통해 청의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원세개는 조선정부에 대해서는 조선과 청 사이의 사건처리에서 먼저 알리지 않고 파견했다는 이유로, 구미 각국에는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조선의 사절파견을 저지했다. 청측은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미리 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조선정부를 문책하고 이것은 조선과 청의 '속방체제' 에 위배된다는 뜻을 고종에게 알렸다. 조선의 대외사절 파견에 대한 청의 압박은 결국 조선의 외교권 제한으로 귀결되었다.

박정양이 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권공사로 미국에 파견될 때 청측은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서 이후 대외사절을 파견할 때에는 '삼단(三端)' 의 조건에 따라서 속방체제'를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삼단' 의 내용은 1) 조선공사가 각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 공사관으로 가서 알리고 청 공사와 함께 해당국 외부(外部)로

42 『관계사료』 4 #1272, 2361b 쪽, 광서 13년 8월 20일.
43 『李電』 권8, 「寄譯署」, 광서 13년 8월 6일.
44 『관계사료』 4, #1272, 236b쪽, 광서 13년 8월 20일.
45 『승정원일기』 고종 24년(1887) 5월 16일.
46 『승정원일기』 고종 24년(1887) 6월 29일.

갈 것, 2) 조회 또는 공연석상이나 교제석상에서 조선 공사는 반드시 청 공사의 뒤를 따를 것, 3) 큰 일의 교섭이나 관계가 긴요한 사건은 조선 공사가 먼저 청 공사와 협의한 후에 지시를 따를 것 등이었다. 청의 '삼단' 규정은 이미 원세개를 통해 조선 내에서 내정과 외교를 간섭하는 것에 더하여 재외 조선사절에게 실질적으로 외교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종은 삼단개정 교섭을 시도했지만 청에 의해 거부되었다.[47] 박정양에 대한 원세개의 문책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삼단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구주 5국 전권사신으로 파견되어 홍콩에서 관망하고 있던 조신희가 임지로 가지 않고 병을 핑계로 귀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48] 고종은 즉시 조신희 대신 내무협판 박제순으로 바꾸어 전권대신이 아닌 3등 공사로 임명했다. 3등 공사의 경우 '삼단' 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전권이나 3등 공사나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독립국의 사절로 인식된다고 하여 청측에 의해 거절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삼단'을 무시하고 자주적으로 대미교섭을 벌인 주미공사 박정양에 대한 문책이 원세개로부터 계속되자 고종은 박정양을 소환했다. 원세개의 끈질긴 박정양의 문책요구에 대해 조선정부 한편에서는 박정양은 죄가 없으므로 박정양의 처벌은 자주의 체면만 잃을 뿐이고 이로 인해 점점 더 청의 간섭만 심해져 잃는 것이 클 뿐이니 급히 박정양을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세개에 의하면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박정양의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49] 청의 조선 내정간섭에 대한 조선정부관료의 대응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이 같은 움직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외사절 파견은 사전에 대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낸다거나 충분한 재정확보 없이 급박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조선정부 내부에서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조선정부 대신들 중에는 고종에게 사절파견은 큰 실책이라고 극력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50] 1888년 8월 21일 미국주재 참무관(參務官)으로 임명된 병조정랑 김사철은 언어의 불통과 사신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의 미비, 그리고 대외

47 『李電』 권12, 「寄譯署」, 광서 16년1월 26일; 「朝鮮袁道」,광서 16년 2월 3일 「寄譯署」, 광서 16년 7월 23일.
48 『관계사료』 5, #1509, 2744b쪽, 광서 16년 2월 17일; 『李電』 권12, 「寄譯署」, 광서 16년 1월 13일.
49 『관계사료』 5, #1561, 2823b-2824a쪽, 광서 16년 8월 25일.
50 『이전』 권8, 「기역서」,광서 13년 8월 4일

통상을 한 지 10년이 되었어도 대외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 , 따라서 대외사절을 파견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가지 못하겠다고 고종에게 진언했다. 김사철이 미국 파견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박정양을 주미공사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청의 간섭으로 인해 대외사절 파견을 통해 조선이 대외적으로 독립주권국가임을 밝히는 데 사실상 실패하였음을 인정한 데에 있었다. 그는 전권사절 파견시 청의 간섭으로 나라의 체제와 조약내용도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되어 드디어는 군권도 제한되고 사신의 명목도 실속이 없게 되었다고 했다.[51] 김사철의 진언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청이 조선에 가한 외교권에 대한 압박이 조선정부 관료들에게 패배감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절파견에 대한 반대는 국가재정의 절용이란 측면에서도 제기되었다. 1889년 7월 29일 서연관 김낙현은 멀리 사신을 보내는 일을 시급히 중지해 아무 이익도 없는 비용을 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2]

청의 조선사절 파견에 대한 간섭에 대해 조선정부의 외교자주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집요했다. 조선정부는 청에 원세개의 소환을 요청했다. 원세개의 파견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제1조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 제1조의 말미에 파견된 "관원이 고집과 편견으로 인해 사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은 피차간에 서로 조회하여 즉시로 철회시킨다."[53] 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약상 당연히 조선정부는 청에 원세개의 소환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간주하던 청측이 이런 조약상의 문구를 근거로 조선의 요구를 들어줄 리는 없었다.

처음 원세개의 본국 소환문제는 사절파견 문제로 인한 청과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내무부 고문이었던 데니를 천진으로 보내 청측과 회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때 데니는 청측에 원세개의 소환을 요청했다.[54] 그 후 원세개의 조선 주재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1888년 8월 천진에 주재하고 있던 성기운으로 하여금 다시 원세개의 소환을 이홍장에게 요청하면서 그 후임으로 마건상

51 『승정원일기』, 고종 25년(1888) 8월 21일.

52 『일성록』, 고종 26년(1889) 7월 29일.

53 『관계사료』 3, #596, 990a쪽, 광서 8년 9월 1일.

54 吳汝綸 編『李文忠公(鴻章)全集』(譯署函稿, 臺北: 文海出版社 이하『李譯』으로 줄임) 권19, 「議留袁世凱駐韓」, 1965, 광서 14년 11월 16일.

(馬建常)을 임명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때의 소환요청 이유는 원세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또 조선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원세개 대신 공평무사한 인물로 교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이홍장은 소환요청에 응하는 것은 '상국체통' 을 잃는 것이며, 게다가 조선사정에 능통해 일을 잘하고 있는 원세개를 교체할 경우 원세개 만한 인물을 구하기 어렵다고 거절했다.[55] 원세개의 소환교섭은 민영익과 김가진의 주도 아래 재차 추진되었다.[56] 당시 고종과 민비가 얼마나 원세개를 미워했는지 원세개 스스로 왕과 민비가 자신을 싫어하고 그와 왕래하는 조선인을 염탐하고 있으며, 민영익 또한 원세개를 기피한다고 청 정부에 보고하고 있었다.[57] 조선정부의 원세개 소환요구는 1889년 5월 21일 천진주재관으로 임명된 김명규를 통해 청측과 교섭한 것을 끝으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조선정부가 이홍장에게 원세개의 소환을 요청한 것은 당시 조선의 대청인식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정부는 자주적인 대외사절 파견이 청이 상정하고 있는 속국지분(屬國之分)'에 위배된다고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고종이 이홍장과 원세개의 대조선정책을 각기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은 고종 및 그 측근세력의 반청정책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고종은 원세개가 청 정부를 대표하는 이홍장의 대조선정책의 대리자임을 간과하고 있었다. 즉 이홍장은 전래적인 조공체제 하에서 조선의 내치와 외교는 자주하는 생각을 갖고 대조선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반해 원세개는 조선에 파견되어 권력을 남용하며 이홍장의 대조선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추단했다. 때문에 원세개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세개 소환요청을 할 수 있었던것이다. 이것은 당시 자주외교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고종의 대청인식의 한계였고, 조공관계 하에서의 조청관계와 근대 국제법 하에서의 조청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었던 조선의 국내외적인 힘의 열세와 조선정부권력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고종과 민비의 균세외교를 통한 반청정책은 이 때문에 실패하고 청일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

55 위와 같음.

56 『관계사료』 5, #1483, 2694b-2695a쪽, 광서 15년 12월 1일; 『李譯』 권19, 「論徹還袁世凱」, 광서 15년 11월 29일.

57 『관계사료』 5, #1411, 2567a쪽, 광서 15년 3월 8일.

5. 민씨척족정권의 몰락과 청병차병

갑오농민전쟁은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에서 본다면 조선의 내란으로 청과 일본 세력이 맞부딪쳐 결국은 청을 조선에서 물러나게 한 사건이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민씨척족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것의 도화선은 균세외교를 통한 대외적 독립을 추구하던 고종과 민비의 국제사정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청병차병이었다.

청병차병문제는 1893년 3월 중순 농민군의 충청도 보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고종과의 차대(次對)과정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농민군의 집회를 진무하는데 심영(沁營)과 기영(箕營)의 병정을 동원하고 이와 함께 경군(京軍)도 투입하자는 영의정 심순택의 주장에 대해 고종은 경군은 파송할 수 없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타국에 차병하는 방법도 있음을 제시했다. 이 때 고종은 다른 나라에서 차병하는 예를 청의 태평천국난 진압시 영국병을 차병한 예를 들면서 차병대상국이 다른 나라가 아닌 청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영의정 심순택과 우의정 정범조 등은 청에서 차병한다고 하더라도 차병시 군량미 조달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반대했다.[58]

농민군이 북상하면서 청병차병 문제는 정권 내부에서 논의가 계속되었다. 1894년 4월 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의 지방관청을 습격하고 세력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전주로 진격해 오자 조선정부는 초토사 홍계훈에게 1,000명의 병력을 주어 진압하도록 했지만 농민군에게 패하고 전주는 함락되었다. 전주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대신회의에서 청에 원병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민씨척족의 대표적 실권자였던 민영준이었다.

당시 농민군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조선정부 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하나는 1894년 4월 4 일 시원임대신회의에서 조병세가 주장한 것처럼 민정(民情)이 지극히 애긍(哀矜)한 상태에서 민원을 파악해 이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길은 대경장(大更張)을 하는 방법이었다.[59] 이는 내정개혁으로 백성이 혐오하는 폐해를 제거함으로써 농민군을 회유하여 서서히 진정시키고자 하는 안이었

58 『일성록』 고종 30년(1893) 3월 25일.
59 『일성록』 고종 31년(1894) 4월 4일.

다.[60] 그러나 대경장의 방법은 국정을 장악하여 가렴주구를 행하고 있던 민씨척족이 정부 내에서 축출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쉽게 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다. 또 다른 하나는 민영준이 주로 주장한 것으로 청병을 차병하여 농민군을 진압하는 방법이었다.[61] 민영준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병차병을 고집한 것은 민씨척족에게 불리한 내정개혁의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청병차병을 모색했기 때문이었다.[62] 이 두 방안에 대해 이미 조선주재 일본 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는 조선정부가 끝내는 시비 없이 청병차병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청병의 조선 파병에 대비한 일본의 준비를 본국에 요청하고 있었다.[63] 스기무라는 민씨척족이 장악한 당시의 조선정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영준은 4월 8일 고종과의 면담에서 적세가 창궐하여 진압할 수가 없어 청병내조(來助)를 요청해주길 원하는 초토사(招討使) 홍계훈의 전신이 있었는데 이는 사정에 합당한 것이고 이미 원세개와 밀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고종의 의견을구했다. 고종이 청병하는것은 경솔하게 처리할수 없다고 하자 민영준은 대신회의에서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 꼭두새벽에 고종 및 여러 대신과의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대신들은 내란을 진정시키는 데 굳이 외병을 부를 필요가 없고 우선 폐정개혁을 하고 불량한 수령과 방백을 처벌하여 민심을 안심시키면 난민이 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병을 끌어들였을 경우 곤란한 점에 대해 세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나라는 백성으로서 근본을 삼는데 외병으로 몇 만의 생령(生靈)이 진압되게 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외병이 국내에 진입하면 그들이 미치는 곳마다 폐단이 생겨 인심을 동요시키므로 곤란하다는 것이었다.[64] 셋째는 외병의 입국은 국내에 사절을 파견한

---

60 농민군이 충청도에 닿았다는 말이 들렸을 당시까지 조선정부대신들은 민씨척족을 제외하고는 농민군을 가리켜 양민이라고 칭하고 초멸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외무성 편, 『일본외교문서』(동경 : 일본국제연합협회, 이하 『일외교』로 줄임) 27-9, #503, 1963, 157쪽, 1894년 6월 3일 참조.

61 『일외교』, 27-9, #497, 152~153쪽, 1894년 5월 22일.

62 김종익 옮김, 『번역 오하기문』, 1994, 83쪽.

63 『일외교』 27-9, #497, 153쪽, 1894년 5월 22일.

64 실제로 청군이 아산에 주둔하고 있을 때 충청감사 이현영은 고종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청군에 대한 치닥거리로 백성의 폐단이 많고, 아산만이 아니라 그 이웃의 여러 고을도 마찬가지여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성록』 고종 31년 6월 14일 참조.

각국이 그 공관의 보호를 구실로 출병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종 또한 외병 청병은 곤란하다고 하여 청병 요청에 대한 논의는 부결되었다.[65] 대신들은 외병의 초치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농민군의 진압보다는 내정개혁을 하면서 서서히 진무시키는 방법을 원했던 것이다. 대신들은 국제정세를 객관적으로 읽고 있었다.

그러나 민영준은 계속 원세개에게 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의 원조를 청하였다. 4월 22·23일경 원세개가 민영준을 방문하여 농민군의 창궐에 대해 우려를 하자 민영준은 '상국' 과 '소국' 과는 고통을 같이 하는 사이므로 위급한 처지에서 오로지 원세개의 원조만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4월 27일 민영준이 원세개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병 파견을 다시 요청하자 원세개는 쾌히 승낙하고 '난도' 의 토멸은 자신이 담당할 것이라고 장담했다.[66] 이 때 이미 조선정부 내부에서 청병차병이 결정되기 전에 민영준과 원세개 사이에서는 청병차병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민영준이 원세개에게 농민군의 진압을 요청하는 논리적 근거는 표면적으로는 '상국' 과 '소국' 이라는 '속방' 체제의 구도였다. 원세개를 정치적 후원자로 삼던 민영준인 만큼 당연한 결과였다.

4월 27일 전주가 농민군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영준은 4월 29일 원세개를 찾아가 다시 도움을 요청했고 원세개는 재차 그럴 것임을 확언했다. 원세개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민영준은 그날 밤 시원임대신이 입시한 가운데 고종에게 적의 세력이 커져 우리나라의 병사로는 진멸할 수 없으므로 청병을 차병하면 일전에 박멸할 수 있다고 상주했다. 이에 대해 여러 대신은 청병차병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천진조약에 의해 일본병도 반드시 조선에 들어올 것이므로, 후환을 생각할 때,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했다.[67] 대신들과의 회의에서 청병차병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고종은 비밀리에 성기운을 원세개에게 보내 상담하면서 청병차병을 암암리에 결정했다.[68]

결국 청병차병은 왕권을 유지하려는 고종과 정권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민씨척족정권의 실권자 민영준, 그리고 외압세력의 대표자인 원세개 사이에서

65 『일외교』 27-9, #498, 153~154쪽, 1894년 5월 23일 #499, 156쪽,1894년 5월 29일.
66 위의 책, 9쪽.
67 『일외교』 27-9, #516, 165~166쪽, 1894년 6월 6일.
68 『일외교』 27-9, #516, 166쪽, 1894년 6월 6일.

담합이 이루어져 결정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청병차병문제가 결정되자 원세개는 4월 29일 청병차병에 대해 청의 이홍장에게 전보하는 가운데 "청이 병을 보내 대신 진압해 줄 것을 구하니 조선이 청의 보호하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내란을 스스로 끝낼 수 없으므로 청에 대신 진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국의 체면으로서도 물리칠 수 없다."[69]는 의견을 개진했다. 원세개는 그가 총리교섭통상사의의 직함으로 조선에 온 이후 오로지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내외에 주지시키고 조선에 강요함으로써 조선 내 · 외정을 청의 지배하에 두는 일에 몰두한 인물이었던 만큼, 조선의 청병차병에 대한 시각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청병차병에 찬성한 세력의 대청인식에는청이 강요한 '속방'체제의 의식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이 문제는 민영준과 고종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민영준은 다른 열강의 군대가 침입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고종에게 "공법에 있는 것처럼 지금 청병을 요청해서 온다고 해도 기타 외병이 들어오지 못한다."[70]고 했다. 민영준이 말하는 공법에 있는 이같은 관계는 다름아닌 종주국과 속국과의 관계이다. 앞서 민영준은 원세개에게서 청병파병을 요청하면서 '상국'과 소국' 과의 관계를 내세웠다. 이것은 전근대적 조공체제하에서의 '속방' 논리이지만 근대국제법인 만국공법체제 하에서의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는 식민지배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영준에게서는 전근대 조공관계에서의 속방관계와 근대국제공법체제 하에서의 종속관계가 서로 혼재된 상태에서 대청인식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청 세력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던 민영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개항 이후 필요에 따라 개화정책의 후원을 기대하는 등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이용해 왔고 국력의 차이로 끝내 이를 불식하지 못했던 고종의 대청정책과 대청인식이 안고 있던 한계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종도 민영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편 대표적인 반청세력이었던 안경수 · 김학우 등은 청병차병 소식을 듣고 민씨척족에게 부당함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1] 김가진 · 유길준 등 6

69 『교섭사료』 권13, #(949), 7쪽, 광서 20년 4월 29일: 『李電』 권15, 「寄譯署」, 광서 20년 4월 28일.
70 『일외교』 27-9, #516, 166~167쪽, 1894년 6월 6일.
71 伊藤博文 編, 『秘書類纂 朝鮮交涉史料』 中, 東京 : 原書房, 1940, 359쪽.

명도 '권문(權門)' 을 방문하여 차병이 국가의 장계(長計)가 되지 못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전라지방민의 폭발은 지방관의 탐학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지방관 선발의 책임은 민씨척족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즉, 매관매직이 농민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농민군의 세력이 거세질수록 민씨척족정권에 위험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민영준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원세개와 결탁했다는 것이었다. 원세개는자신의 수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 둘 민영준의 청을 들어주게 되어 결국에는 차병을 결정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파악하고 있었다.[72] 이들이 청병차병의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청이 강요한 속방'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에 자신의 정치적 후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들은 일병(日兵)의 침입 이후 갑오개혁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이었다.

대다수의 조선정부대신들은 청병이 조선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놀라는 동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선정부대신들은 만약 청병이 조선에 들어온다면 일본도 반드시 파병을 할 것이고 러시아도 또한 조선에 병력을 파견할 것이니 조선은 각국의 전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청병차병에 반대하면서 5월 3, 4일 밤에도 대신회의를 열었다.[73] 그러나 이미 차병이 결정된 뒤여서 이들의 논의는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 이들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이 시기 정부 관료의 일반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미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만국공법과 국제정세에 대한 객관적 사고가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결국 청병차병문제는 민씨척족을 비롯한 일부 관료들이 기존의 청에 대한 속방관계에 가탁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고, 청측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조선에서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청병차병에 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과 청측이 서로의 이해타산에 따라 이용한 동아시아의 전근대적 조공체제에서 비롯된 '상국-속방' 관념은 이미 근대국제공법체제라는 세계사적 규정성에 지배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대외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그 어떤 장치가 없었던 만큼 일본군의 파병이라는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하게 되었다. 이로써 청일전쟁이 일어나 조선에서 청 세력이 철수

72 위의 책, 361쪽.
73 『日外交』 27-9, #524, 172쪽, 1894년 6월 8일.

한 후 민씨척족정권도 몰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에서 개화기 조청관계에 나타난 민씨척족세력의 정치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명성황후 민비와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았다. 민비는 왕조국가에서 왕이 아닌 이상 왕을 제쳐두고 전면에 나서 국내외 정책을 주도할 수는 없었지만 왕의 비로서 내조라는 형태를 띠고 정책에 간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의 공식 외교문건에 조선의 "왕과 비(또는 민비)" 라는 구절이 조선정황을 설명하는 중에 간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민비의 정치적 역할이 상당한 강도로 행해졌음을 알수있다.

민비의 정치적 역할은 민씨척족세력을 권력의 핵심부에 포진시킴으로써 활발할 수 있었다. 민씨척족세력은 1873년 11월 고종 친정이 시작된 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종의 친정은 대원군 하야와 문호개방을 둘러싼 척사와개화세력의 대립이란 국내정세를 적절히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고종은 대원군 반대세력과 민비 친속인 민씨척족을 등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대원군 세력을 조선정계에서 몰아냈다. 이를 통해 민비의 후원을 받는 민씨척족은 조선정계의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민씨척족세력의 후원자인 민비는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척족세력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돌이 지난 자신의 소생인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청으로부터 세자책봉 승인을 받아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청과 일본, 그리고 서구 열강의 문호개방 요구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면서 국내외 정치에 간여했다.

민비의 후원을 받던 민씨척족은 개화정책 추진과정에서 신설된 기구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당시 자신과 정치적 노선이 같았던 개화세력을 포용하며 권력기반을 다져갔다. 1882년 임오군변과 1884년의 갑신정변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청 세력을 적절히 이용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조선의 개화정책은 청의 물적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근대적 조공체제에 근거한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되자 고종은 대외정책을 수정하여 조선의 외압으로서 작용하던

청과 일본 외에 제3세력인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대외사절을 파견하는 등 균세 외교로서 조선의 독립을 보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행된 국내외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국내외적으로 실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다. 고종과 민씨척족세 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병차병을 요청했다.

청병차병은 고종과 민씨척족을 비롯한 일부 관료들이 기존의 청에 대한 속방관계에 가탁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고, 청측의 처지에서는 조선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조선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청병차병에 응한 것이었다. 청병차병은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이로 인해 민비를 정점으로 하는 민씨척족세력은 몰락하게 되었다. 결국 민씨척족의 권력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외부세력이 청이었다면, 민씨척족의 몰락의 길을 재촉한 것도 외압으로서의 청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조선침략과 명성황후

강 창 일*

1. 머리말
2. 삼국간섭 전후 일본의 대조선 정책과 명성황후
3. 미우라 고로의 공사임명과 대조선 정책의 변화
4. 일본의 명성황후관과 시해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 그것을 동양의 격언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런데 실은 당시 일본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공사가 명성황후를 암탉에 빗대어 만들어낸 말이었다. 또한 "민비는 얼굴이 검고 곰보라 밉고 마음은 간악하여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시아버

* 배재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지를 잘 모시지 않는"[1] 여자라고 교육받아 명성황후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많은 사료가 발굴되면서 이것은 일제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실제로 명성황후는 탁월한 국제적인 감각과 정치적 역량을 갖춘 대정치가이며 품위 있고 우아한 귀부인 스타일의 여성이라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일본은 '국모시해' 라는 만행을 저지르고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조선 멸망의 책임을 명성황후에게 전가하기 위해 그러한 역사왜곡과 조작을 자행했다. 그것이 해방되고 나서도 식민지 사학이 청산되지 못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들이 해방 후 역사교육을 또다시 담당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잔재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이 당시 명성황후를 어떻게 보고 있었으며 왜 명성황후를 시해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청일전쟁 이후 삼국간섭을 거쳐 시해사건을 자행하기까지 일본의 대조선 정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 외교에는 문외한이면서 군인출신인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를 왜 공사로 임명했는지, 그 배경과 목적을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일본 본국 정부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단서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시 일본인들은 명성황후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인식이 시해사건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삼국간섭 전후 일본의 대조선 정책과 명성황후

1894년 6월 초, 동학농민전쟁을 빌미로 청일양군이 출병하자 명성황후를 정점으로 하는 민씨 정권은 일본측에 철병을 요구하였고 또한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를 일축하면서 줄곧 반일정책을 취했다.

7월 23일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도발하기 직전 조선 왕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나서 곧장 친청 · 반일적인 정책을 취해온 명성황후를 실권으로부터 축출하고 대원군을 입궐시키는가 하면,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정권을 수립하여 갑

[1] 나홍주, 『閔妃暗殺(角田房子 著) 비판』, 미래문화사, 1990, 18쪽.

오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왕실 및 민씨척족세력을 '궁중과 부중의 분리' 라는 명분아래 권력으로부터 내쫓아 보호국화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여갔다. 그때까지 공사였던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도 교체하여 정치적 거물로서 元老이자 내무대신을 역임한 이노우에 가오루를 새로 공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노우에 공사는 대원군을 이용하여 보호국화를 위한 정지작업을 펼치려고 했으나 대원군은 일본 덕에 명성황후를 몰아내고 권력의 좌에는 앉았으나 일본의 뜻대로 호락호락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대원군은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간섭과 '내정개혁' 그 중 특히 '궁중과 부중의 분리' 라는 왕실세력의 약화책에 대해 반발했다. 이노우에 공사는 "왕비, 대원군, 이준용은 실로 조선내정 개량의 전도에 가로놓인 방해물이다. 이들 방해물의 세력을 데리고서는 도저히 어떤 개혁에 착수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왕실세력을 정치에서 밀어내기 위해 무력을 내세워 강경하게 밀어붙여 나갔다.[2]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세가 드러나면서 영국 · 미국 등 구미 열강의 중재아래 그 해 10월부터 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승리가 명약관화한 가운데 제기되는 강화의 조건은 일본에게 유리한 것임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었다. 양국 간 오랜 동안의 협상 끝에 드디어 1895년 4월 17일 일본과 청국은 강화조약에 조인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청일전쟁은 종결되었다. 시모노세끼(下關)에서 청국의 전권공사 이홍장(李鴻章)과 일본의 전권공사 이토 히로부미(伊 藤博文; 총리대신) · 무츠 무네미츠(陸奥大臣; 외무대신) 사이에 강화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에 의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배권을 승인 받았고, 요동반도를 획득하여 대륙침략의 근거지를 확보하였으며, 대만을 영유하여 일약 비 백인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식민지를 영유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식으로 비준서가 교환되기도 전에 '난관' 에 봉착하였다. 하나는 요동반도의 할양을 반대하는 러시아 · 프랑스 · 독일 3국에 의한 간섭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의 할양을 반대하는 청국 정부내의 조약파기론이다.[3]

청일 양국간의 강화조약의 내용이 전해지자 구미 열강의 동향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조인 직후인 4월 23일 러시아 · 프랑스 · 독일 3국의 주일 공사는

---

[2] 市川正明 編, 『(日韓外交史料5) 韓國王妃殺害事件』, 原書房, 1981, 「解說」 참조.
[3] 檜山幸夫, 『日淸戰爭—秘藏寫眞が明かす眞實』, 講談社, 1997, 229쪽

외무성을 방문하여 하야시(林薰) 외무차관에게, "요동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는 것은 늘 청의 수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선국의 독립을 유명무실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4] 요동반도를 환부할 것을 권고하는 각서를 교부했다. 이른바 삼국간섭이다.[5]

일본정부 당국이 그에 대한 대응에 골몰하여 시간을 끄는 동안 3국 공사는 거듭 외무성을 방문하여 회답을 촉구하였다. 일본정부는 부득불 굴복하지 않을 수 없어 5월 5일 요동반도 환부의 회답서를 3국의 공사에게 전달하여 삼국간섭은 종결되었다.[6] 이 때 일본은 '와신상담' 을 주창하고 국만의 애국심과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비등시켜 조선을 위시한 대륙침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가목표를 정하고 대대적인 군비확장을 추진하여 갔다.

삼국간섭으로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은 조약파기론을 제기한 청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에서도 3국 정부의 강력한 간섭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만 할양을 거부하려고 하는 청국의 노력은 요동반도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는 열강의 이해 때문에 그 지지나 지원을 얻지 못하고 5월 8일 요동반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본래의 조인대로 양국 정부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청일 강화조약은 성립하고 전쟁은 종결되었다.[7] 요동반도 환부문제는 11월 8일 요동반도 환부조약과 의정서에 의해 결착되었다.[8]

삼국간섭에 굴복하여 러시아의 강대함이 확인되고 일본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조선의 조야도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의 침략을 막을 목적으로 '인아거일(引俄拒日)'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공사 웨베르를 직접 인견하여 국정을 상담하는가 하면, 박정양(朴定陽) · 안경수(安駉壽) · 서광범(徐光範) · 이완용(李完用) · 이범진(李範晉) 등을 축으로 하는 반일 친러적인 정동파를 만들어 지도하기도 했다.

---

4 『日本外交文書』 8-2, 事項12<三國干涉1件>, 1895.

5 삼국간섭에 대해서는, 李光麟『韓國史講座v: 近代篇』, 일조각, 1981, 359~360쪽; 崔文衡, 「閔妃殺害 以後의 列强과 韓國—引俄拒日과 그 後의 情況 變化를 중심으로」『明成皇后 殺害事件』, 민음사, 1992; 金相洙, 「閔妃殺害의 國際的 背景—日本政府의 介入과 관련하여」『明成皇后 殺害事件』, 민음사, 1992 참조.

6 檜山幸夫, 앞의 책, 234쪽.

7 위의 책, 230~231쪽.

8 위의 책, 234쪽.

이노우에 공사의 힘이 약화되면서 친일 정권 내부에서도 알력과 갈등이 노정되었다. 급진 개화파인 내부대신 박영효(朴永孝)가 그 틈새를 이용하여 '자주독립' 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이노우에 공사와 대립하고 온건 개화파인 총리 대신 김홍집(金弘集)과 내홍하는가 하면, 보수적인 궁중 세력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9]

5월 말 친일파인 조희연(趙羲淵) 군부대신의 해임문제로 김홍집과 박영효가 심각하게 대립하더니 결국은 김홍집 총리대신이 사퇴하고 박영효가 임시 총리대신을 맡다가 6월 2일 정동파인 박정양이 총리대신에 취임하였다. 이것은 친일파가 권력으로부터 밀려나고 새롭게 친러파가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0] 결국 일본으로부터도, 왕실 세력으로부터도 견제 · 배척당하고 있던 박영효는 6월 25일 궁성 호위대 교대사건을 빌미로 한 7월 7일 '반역음모 사건' 으로 축출 당하여 일본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11]

이후 명성황후의 실권 장악과 친러파의 득세는 확연히 나타났다. 8월 10일 인사개편에서는 군부대신에 안경수가, 경무사에 이윤용(李允用)이, 내각 총서기에 이성열(李聖烈)이 취임하고, 8월 24일 단행된 제3차 김홍집 내각에서는 김홍집은 원로로서 명색만 유지할 뿐 실제는 친러파와 민씨 세력 일색으로 이루어졌다. 새 정부의 정점에 명성황후가 있었음은 두말을 요하지 않는다.

일본 세력 쇠퇴의 직접적 계기는 삼국간섭이었으나, 또 다른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일본이 약속한 차관제공의 문제이다. 청일전쟁 도발 후 조선의 정치적 보호국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온 이노우에 공사는 조선 재정의 파탄을 빌미로 차관을 대여하여 경제적 보호국화를 획책하려 하였다. 이노우에는 우선 그 조치로 500만 엔의 차관을 약속하여 1895년 2월 말부터 3월에 걸쳐 본국 정부와 협의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본국의 총리대신인 이토, 외무대신인 무쓰와의 협의 결과 300만 엔으로 줄어들었다. 그것조차도 민간 차원의 차관이 아니라 임시 군사비에서 충당되는 것이고 조건도 조선 측에서 받

9 柳永益, 「甲午更張을 圍繞한 日本의 對韓 政策－甲午更張 他律論에 對한 修正的 批判－」『歷史學報』, 1975.
10 柳永益, 위의 논문.
11 이광린, 앞의 책, 365~367쪽.

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것이었다.[12] 우여곡절 끝에 4월 10일까지 300만 엔이 대여되었으나, 조선 왕실과 정부 내의 불만은 매우 컸고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 세력의 쇠퇴와 러시아 세력의 부상을 부추기에 충분하였다.

'내정개혁' 과 차관대여라는 명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던 이토와 이노우에로 대표되는 '문치파(文治派)' 에 의한 조선 지배의 책략은[13] 삼국간섭으로 좌초에 부딪쳤다. 일본으로서는, 계속 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러시아의 간섭을 야기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 이었다. 이노우에의 표현대로 그대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 삼국간섭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서 公[이노우에—필자 주, 이하 생략]은 비상한 난국에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적극적으로 나가면 露國으로 하여금 간섭 의 구실을 주고, 물러서서 소극적으로 나가면 지금까지 고심하여 건설하여 온 개혁 사업은 갑자기 내부적으로 붕괴하여 위기를 낳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아갈까 그만둘까 모두 公의 행동은 구속되었던 것이다. 무릇 우리 정부[일본]의 對韓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방관적 태도로 나가, 오로지 타국에서 조선의 일에 관하여 끼어들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 밖에 없다.[14]

이노우에 공사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대해 러시아의 개입이 두려워 어떠한 대응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5월 22일 본국의 무쓰 외무대신에게 전보를 보내, 당국에서 시급히 "장래의 대한방책" 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15]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6월 4일 내각회의를 열어 "장래의 대한방침은 가능한 한 간섭을 그만두는" 불간섭 정책으로 할 것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선 내정의 문제는 물론 철도부설, 전신가설의 건에 대하여서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도록 하는 응급 조치

---

[12] 鄭在貞, 「井上馨—明治政府에서의 役割과 朝鮮侵略의 實錢—」 『國史館論叢』 第1輯, 국사편찬위원회, 1989.

[13] 강창일, 「근대일본의 사상흐름과 조선침략론」 『오늘에 본 친일문제와 일본의 조선침략론』, 역사학연구소, 1993.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일본의 조선침략의 인적 계보를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가쓰라 등 육군 군벌 세력의 '무단파' 와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 등 문민정치가의 '문치파' 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4] 井上馨侯傳記編纂委員會 編, 『世外井上公傳』 4卷, 內外書籍, 1934, 475~476쪽.

[15] 위의 책, 479~480쪽; 『伊藤博文傳』 下卷, 統正社, 1940(復刻版 原書房, 1970), 247쪽.

를 이노우에 공사에 하달했다.[16]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의 응급 처방일 뿐, '조선문제' 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었다. 이노우에는 "장래의 대한방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6월 7일 서울을 출발하여 20일 요코하마(横濱)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즉시 천황을 비롯한 정계 지도자에게 현지의 사정을 보고하는 한편, 7월 2일에는 각의에서 자기 나름의 "장래의 대한방책"을 제시했다.[17] 요컨대 그것은 차관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왕실을 매수하여, 왕비를 위시한 왕실의 러시아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안은 '문치' 적인 방식, 즉 회유와 공작으로 왕실과 내각을 친일화하여 조선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이노우에의 입장에서는 '최선 · 최후'의 책략이었다. 이 책략의 채택여부는 그의 진퇴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 이상의 제 조건[앞에서 언급한 장래의 對韓方策]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한 후, 본관 [이노우에]의 귀임을 요한다면 언제라도 귀임할 것이고, 신임공사 파견의 경우라고 하면 본관의 희망은, 공사 그 사람은 특히 **細君**[명성황후를 가리킴]의 交際 등에 노련한 인물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적임자를 내정한 후에는 발표 전에 본관이 일단 귀임해서 종전의 사정과 장래의 조치 등에 대해 대군주[고종] 및 왕비[명성황후]에게 **잘 奏聞**하고, 또한 각 대신과 신임공사와의 사이에 대해서도 유감 없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뜻도 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8][강조는 필자]

위의 진언은 자기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다시 귀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임하겠다는[19]것으로, 7월 2일 단계에서는 사임할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그의 일본 체류 시에 경질이 결정되어 후임에는 미우라가 내정되었다.

삼국간섭 이후 조선에서 일본의 '위세' 는 점차 통하지 않게 되고, 친일파 세력은 정권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 7월초 이노우에 공사의 일본체류 중에 일

---

16 『伊藤博文傳』 下卷, 248쪽; 『日本外交文書』 28-1, 문서번호 198 〈對韓政策二關係과スル閣議案〉, 1895.

17 『世外井上公傳』 4卷, 483~491쪽; 杉村濬, 『在韓苦心錄』, 1931, 155~159쪽.

18 위의 책, 『世外井上公傳』 4卷, 491쪽.

19 伊藤博文, 「岡本柳之助訊問調書」 『朝鮮交涉資料』 中卷(秘書類纂刊行會, 1936)에 의하면, 井上는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岡本에게도 사임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본의 비호 아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박영효 내무대신이 실각하여 일본에 다시 망명하는 사건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였다.

'내정개혁' 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궁중과 부중의 분리책' 은 주지하다시피 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조선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노우에의 책략이었다. 그런데 삼국간섭이라는 국제적 압력 속에서 일본의 강압정책은 통용되지 않게 되면서,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하는 왕권파는 서서히 권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일본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7월 19일 급거 귀임하고 나서는, 종래의 태도를 돌변하여 왕 및 왕비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적대적 입장을 취해 왔던 왕실에 대해서도 "조선의 독립과 왕실의 보호" 를 주상할 정도이다.[20]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차관(300만 엔)을 제공한다고 미리 미끼를 던져 왕실을 매수하려고 하였다.[21] 종래 스스로의 '내정개혁안' 을 번복하여 버리는 17개조의 의견서도 제출하여, 왕비를 비롯하여 민씨 척족 세력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22] 종래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보호국화 하려고 하는 '법전정략(法典政略)' 을 포기하고 왕실을 회유하고 매수하려는 '궁중정략(宮中政略)' 으로 전환한 것이다.[23]

8월 24일 제3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됨에 이르러서는 친일 · 친러의 연립내각을 모색하여 "국왕 · 왕비를 위시하여 조선정부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진력하기도 하였으나,[24] 이미 '인아거일(引俄拒日)' 의 방침은 확고한 것이었고 일본 세의 쇠퇴와 러시아의 부상은 불가항력적인 대세였다.

---

20 앞의 책, 『世外井上公專 』 4卷, 495~520쪽; 『日本外交文書』 28-1, 문서번호 248 〈謁見顚末竝二寄贈金二關シ內申ノ件(井上公使ヨリ西園寺外務大臣臨時代里苑, 8月6日)〉.

21 위의 책, 『世外井上公傳』 4卷, 500~502 · 517쪽.

22 위의 책, 503~511쪽.

23 安達謙藏, 『自敍傳』, 新樹社, 1960, 53~54쪽.

24 『世外井上公專 』 4卷, 512 쪽.

3. 미우라 고로의 공사임명과 대조선 정책의 변화

삼국간섭 이후 이노우에의 대조선 정책에 대해서는 당국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외무대신 무쓰는 "이노우에는 닭을 잡는 데에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격이어서 점점 평판이 좋지 않아 君[무쓰]은 부득불 이토에게 도모하여 그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노우에는 매우 불평하였다."[25] 고 평하고 있다. 다음의 구절로도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

> 경성에 재류하고 있던 우리 민간지사[일본인 낭인을 가리킴]가 이 모양[일본의 후퇴와 러시아의 진출]을 보고 절치부심한 것은 무리도 아니다. 일본의 내지에 있어서도, 유지 사이에서는 조선의 정세를 걱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노우에 공사를 귀환시켜 더욱 강단있고 과감한 인물을 공사로 파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뒤에서 정부쪽에 향해 헌책하는 자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결국 그 필요를 인정해서 이노우에 대신에 육군중장 미우라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26]

이노우에의 후임자로 내정된 자는 예상외로, 외교에는 전혀 경험이 없고 조선의 사정에 대해서도 문외한인 미우라였다. 그것도 노련한 정략가인 이노우에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주무 대신인 무쓰 외무대신은 반대하였다고 한다.[27]

당시 일본의 정치권력은 이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이노우에를 거두로 하는 장주벌(長州閥)에 장악되어 있었다. 미우라는 장주벌이면서도 이들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번벌(藩閥) 전제정치라고 비판하는 반정부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이노우에의 대조선 방책에 대해서도 후임자로 내정되기 이전부터 비판하고 있었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 야마가타, 이노우에 등에 의해 그가 후임자로 결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급격한 상황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

25 『日本外交文書』 28-1, 문서번호 281 〈對韓政策意見伊藤總理ヘ陳述方ノ件陸奥外務大臣ヨリ伊藤伯ヘ, 5月22日)〉;1仮崎斌, 『陸奥宗光』, 博文館, 1898, 287쪽.

26 黑龍會 編, 『東亞先覺志士記傳』 上卷, 黑龍會出版部, 1933, 516~517쪽.

27 앞의 책, 『陸奥宗光』, 287쪽

28 安達謙藏, 「閔妃事件と當時の政局」 『義人李周會氏法要及事蹟』, 黑龍會, 1928, 31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노우에는 7월 2일 단계에서도 진퇴를 확실히 결정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만일 후임자를 정하게 될 때는 細君[명성황후를 가리킴]의 交際에 노련한 사람을 임명할 것을 진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며칠 안 되어 그 후임자로 그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미우라를 추천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7월 7일 조선에서 박영효가 실각하여 일본에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일본에게는 최악의 사태였고 종래의 '문치' 적 방법으로서는 '조선문제' 의 해결은 전혀 무망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토와 이노우에 등 '문치파' 들은 그들과는 전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비사교적이고 무단적인 미우라를 내세워 '조선문제' 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노우에는 후임자로 미우라를 추천하고 나서 조선에 귀임하였다.

이노우에로부터 조선공사의 제의를 받은 미우라는 스스로 외교에 대해 문외한이고 서툴기 때문에 재삼 거절했으나 끈질긴 부탁에 일단 응낙했다고 하는데,[29] 7월 10일 전후의 일로 추정된다. 미우라는 승낙하는 대신 정부당국에 세가지 대조선책을 제안하면서, 그 중에서 명확한 방침을 선택하여 제시하여 주도록 촉구했다. 『일본외교문서』의 기록을 인용하기로 한다.

> …미리 3조를 진열해서 장래의 훈령을 청하는 바이다. 원하건대 다시 심의하여 不拔의 대한방침을 국시로 정할 것을.
>
> 제 1조, 지난해 征淸의 주의에 따라 조선을 통맹의 독립왕국으로 인정하고 장래 우리[일본]의 혼자 힘으로 전국[조선]의 방어 및 개혁을 담당하는 책임의 방침을 취할 것인가.
>
> 제2조, 우리의 혼자 힘으로 조선 독립 개량의 책무를 꾀하고 보호, 점령한다는 웅심을 억제하여 구미 열국 중 공평한 나라와 함께 도모하여 공동보호의 독립국으로 하는 방침을 취할 것인가.
>
> 제3조, 조만간 반드시 한 둘의 강국과 紛擾가 생기는 것은 매우 예측하기 쉬운 추세이기 때문에 大難事가 일어나지 않은 금일, 오히려 무단 결의하여 한 열강[러시아를 가리킴]과 고려 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방침을 취할 것인가.

[29] 小谷保太郎 編, 『觀樹將軍回顧錄』, 政敎社, 1925, 319쪽.

> 위 3조 중, 제 1조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책이기는 하지만 難中의 難事로서 장래 내외로부터 困難 蝟集하고 많은 인력과 금력을 소비하고 恩威 또한 행하기에는 오랜 시간을 요한다. 특히 한 두 강국과 조만간 전쟁을 치를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그렇지만, 우리가 堪忍, 시종 일관하여 전력을 다해서 몇 년이 지나면 조선은 우리의 보호 하에 속하는 결과를 내놓고, 또한 천하에 대해 좋은 일이 될 것이 아닌가)……. 梧樓[미우라 본인을 지칭] 이미 난국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그 땅[조선]에 바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져도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단, 앞의 3조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은혜적, 협박적 혹은 묵종적 정책의 필요가 생기고 寬猛, 緩急 모두 준거하여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30]

미우라가 제시한 3안은 요컨대, (1) 일본의 독력지배, (2) 공동보호국화, (3) 러·일의 분할 점령 안으로서 그 스스로는 이 3안 중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제 1안을 채택할 것을 은근히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난국' 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력투구할 '비장한 결의' 까지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미우라의 대한방침의 질의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아무런 회신조차 없자, 그는 7월 17일, 공사교섭을 맡았던 노무라 야스시야(野村靖) 내무대신을 찾아가서 취임승낙을 번복하여 버렸다.[31] 이때 미우라를 추천한 이노우에는 7월 14일 일본을 출발하여 19일 인천에 도착하였고 이 문제는 결국 18일 야마가타와 다나카(田中光顯)의 간곡한 설득으로 미우라가 다시 받아들여 수습되었다.[32] 이 번복과 재수락의 상황 전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미우라 자신의 표현대로 깊이 숙고한 끝에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그 방침[대조선 방침]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침반 없이 항해를 강행할 수 없기"[33]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이를 통고 받은 노무라 내무대신은 미우라가 처음에 승낙한 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선의 사정을 듣고 그 곤란한 것에 당혹했기"[34] 때문이라고

---

30 『日本外交文書』 28—1, 문서번호 350 〈對韓政策二關スル三浦新公使意見書:對韓政策ノ訓令ヲ待シ〉. 날짜가 8月17日로 되어 있으나, 註에서 "三浦梧樓朝鮮公使發令의日附로 한다"라고 附記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제의를 받았던 7월 10일경 직후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있다(앞의 책, 『陸奧宗光』, 286쪽; 『觀樹將軍回顧錄』, 319쪽; 『世外井上公傳』, 475쪽 참조).

31 「7月18日付, 野村靖(內務大臣)より井上全權公使の書翰」(東京, 國際韓國硏究院 소장).

32 「7月18日付, 野村靖(內務大臣)より井上全權公使の書翰」.

33 앞의 책, 『觀樹將軍回顧錄』, 320쪽.

34 주 32와 같음.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곧 번복한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숙고한 끝에 이루어진 치밀한 계산하의 행동이었음을 말해준다.

재 수락의 설득은 이토와 쌍벽을 이루면서 군벌 정치세력을 이끌던 '무단파'의 수령 야마가타가 담당하였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조선의 일에 대하여 공사가 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확실하다. 미우라 자신의 다음 말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 돌아가 본 즉, 야마가타로부터 [미우라가] 제출한 3대 정책은 일이 중대하여 매우 숙고를 요하기 때문에 **하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도안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나[미우라]는 정부 무방침인 채로 渡韓하는 이상은 **임기응변적으로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것**이다.[35][강조는 필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미우라의 성격과 일 처리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야마가타가 미우라에게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그에게 전권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등의 결정'** 운운한 구절이다. 즉 이 시점에서는 아직 대조선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 후 과연 일본정부는 3안 중 어떠한 방침을 결정하였을까.

이에 대해 몇 가지 추정하여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직후인 10월 14일, 미우라가 이토 총리대신에게 보낸 보고문에서, "우리세력을 유지하고 **당초의 목적**[독력지배]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불 이렇게 하게 된 바[왕비시해],그 전후의 사정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번의 행동이 좀 과격한 바가 있다고 해도 외교상 곤란을 극복하면 **우리의 대한 정략**은 이로 인해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강조는 필자][36]라고 기록하고 있다.

---

35 위와 같음. 인용문에서 '渡韓' 이라는 구절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는 재수락을 촉구한 내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6 『日本外交文書』 28-1, 문서번호 378 〈事變起因ノ竝其ノシキ對策稟申ノ件(韓國駐箚三浦公使ヨリ伊藤總理大臣宛, 1895年10月14日)〉, 1895.

또한, 범죄자들이 히로시마 형무소에 투옥되고 나서 검사의 취조에 대해, “이[시해사건]에 대해 내각원에게 논술한다면 말하겠지만, 법정에서는 진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37] 뿐만 아니라, ‘증거불충분’ 으로 석방되고 나서 도쿄에 상경했을 때 이토가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시골에 빨리 내려가도록 재촉한데 대해 깊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38]

이러한 정황을 놓고 판단하여 볼 때 이토와 야마가타 등 일본 정부의 수뇌들은, 미우라가 부임하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최소한 미우라가 제시한 3안 중 제 1안인 ‘독력지배책’ 을 기본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왕비제거’ 의 계획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여 준다.

7월 22 일 전권공사로 내정된 미우라는 8월 17일 임명받고 임지인 조선으로 출발할 때까지 아타미[熱海]의 별장에 머물면서 많은 조선문제 전문가와 화합하면서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열렬한 대륙침략론자로서 현양사(玄洋社)나 태본국권당(態本國權黨) 같이 근대일본의 전형적인 우익이 있었는가 하면, 다니 간조(谷干城) 시바 시로(柴四朗) 같은 정치가도 있었다.

미우라는, 대외 강경파 정치가인 시바 시로, 天佑俠의 다케다 한시(武田範之)[39]와 현양사의 쓰키나리 하카루(月成光; 후에 梶川光으로 개명)[40] 를 막료로서 동행하여 9월 1일 조선에 부임하였다.

미우라의 공사임명은, 종래 이노우에가 취해온 회유, 공작적 차원의 책략을 방기하고 무단적 방법을 통해 조선을 장악한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뜻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조선을 ‘독력지배’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친로파의 정점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방법도 포함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

37 『舊陸海軍文書』, 第5回報告(10月27日付) 〈憲兵司令官春田景義ヨリ兒玉陸軍次官ヘ〉 (日本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마이크로필름).

38 앞의 책, 『觀樹將軍回顧錄』, 347쪽.

39 다케다는 전형적인 ‘조선낭인’ 으로서, 1893년 전라남도의 금오도에서 李周會와 교류를 맺고 있었고,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하였을 때는 민씨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天佑俠을 결성하여 농민군과 접촉을 획책하였던 자였다(武田範之, 「記李豊榮事」 『洪疇遺績』 1卷(東京大學 圖書館 所藏).

40 쓰키나리는 전형적인 대륙침략단체인 玄洋社의 핵심멤버로서 오쿠마(大隈重信) 외무대신 폭탄 테러사건에 가담하여 구속된 적이 있는 테러리스트였다(『東亞先覺志士記傳』 下卷, 249쪽).

4. 일본의 명성황후관과 시해

명성황후를 직접 만났던 외국인들은 일관되게 그의 정치적 역량이나 교양, 자세 등에 대해 상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교사 언더우드는 고종의 시(侍醫)였는데 그의 부인은 명성황후를 여러 차례 직접 뵙고 나서 그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그 분은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와 그 정부에 관하여 매우 높은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과거에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께서는 기민한 그리고 유능한 외교관이셨으며, 가장 날카로운 그분의 반대자들도 늘 그분의 機智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명성황후께서는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광범위한 모든 정책의 지도자이셨습니다.[41]

명성황후를 몇 차례 알현했던 비숍 여사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나는 명성황후의 우아함과 매혹적 몸가짐, 사려 깊은 친절, 보기 드문 지성과 박력, 그리고 비록 통역관의 중계를 통한 것이지만 명성황후의 놀랄만한 대화 능력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명성황후의 비범한 정치적 영향력 또는 고종황제와 기타 많은 문제를 조정하는 수완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놀라울 것이 없었습니다.[42]

그런데 일본인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좋게 평가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당시 서울에는 낭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민비제거'를 외쳤다고 한다.[43]

> 露國의 세력이 도도히 조선반도에 침입하는 근원은, 실로 이 궁정의 한 여성 민

---

41 Lillias.H.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op-Knots or life in korea,* 1908(Second Edition) (나홍주, 앞의 책, 72쪽에서 재인용).

42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Yonsei University Press, 1970(나홍주, 앞의 책, 73쪽에서 재인용).

43 앞의 자료, 「岡本柳之助訊問調書」 참조.

> 비 그 사람의 一頻一笑의 사이에 생겼다. 무서운 동아의 禍源이 그곳에 배양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녀는 일본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一心에 치달아 두려운 장래의 禍에는 마음 쓰지 않는 것이었다. 동아를 구하고 조선을 구할 수 있는 안전의 유일하고 가까운 방법은 민비를 죽이는 데 있다. **민비를 죽이라! 민비를 죽이라! 이러한 것이 당시 경성[서울]에 在留하고 있는 志士[낭인]의 절규였다.**[44][강조는 필자]

당시 조선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조선에서 활동하는 낭인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들은 정통한 '조선문제' 전문가로서 활약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고하면서 일본인의 조선관을 형성하고 조선침략의 여론을 조성하여 갔다.[45] 이들 낭인들은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천우협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겉으로는 동학농민군을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민씨 정권을 타도하여 친일정권을 수립하고자 획책하는가 하면,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참가하기도 했다.[46] 때문에 이들이 명성황후와 민씨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곧 일본의 일반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좋은 재료가 된다.

전형적인 '조선낭인' 인 다케다는 1889년 조선에 건너와서 전라남도의 금오도에 체류하면서 이주회(시해사건 당시 군부협판으로 처형당함. 당시 그곳에 유배중)와 함께 '동양의 평화와 조선민족의 구제를 위해 명성황후를 제거' 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47] 그 후 그는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친일정권을 수립하고자 천우협이라는 일본인 무장 낭인단을 만들어 동학농민군에게 접근했던 자이다. 미우라가 공사로 부임할 때는 수행원으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이주회를 찾아가 명성황후 제거를 논의했고 시해사건에 참여했다.

시해사건 당시 참모장 격으로 암약했던 시바는 유명작가이자 정치가인데 그의 정치소설『佳人之奇遇』에서, 김옥균을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명성황후는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조선을 망하게 하고 동양의 흥륭을 저해하는 왕비로 묘사하고

---

44 앞의 책,『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522쪽.

45 강창일,『근대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일본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2, 참조.

46 姜昌一, 앞의 논문,「三浦梧樓 公使와 閔妃殺害事件」

47 武田範之,「記李豊榮事」『洪疇遺績』1卷.

있다.[48]

구마모토 출신인 기쿠치 겐죠(菊池議讓)라는 자는 1894년 국민신문 특파원으로 조선에 건너와서 시해사건에 참가하여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병합을 획책하였고 병합 후에는 조선통신사 사장과 이왕직(李王職) 편찬위원을 지낸 자인데, 조선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다.[49] 그중 특히 『(朝蘇最近外交史)大院君傳,(付)王妃の一生』은 당시 일본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기록으로서는 방대한 사료와 정보를 가지고 쓰여진 가장 상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일본의 명성황후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틀을 만드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당시 명성황후에 대한 시각과 평가는 물론이고 일제시기 식민사가들의 그것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명성황후를 대원군과 함께 근대조선을 이끈 대정치가로서 그려내고 있다.

> 최근의 조선 왕국은 2사람의 영웅의 전기이다. 흥하고 폐한 수많은 사업도, 鮮血을 가지고 생긴 몇 차례의 사변도, 또한 분규 혼잡한 외교관계도 이 둘의 영웅이 각각 야심의 발동에 의해 동반한 투쟁의 역사이다 그 하나는 대원군이고 그 한 사람은 왕비이다.[50]

더 나아가 명성황후의 "용맹한 기상과 심원한 기략'은 대원군이 감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성황후가 정치적 기량과 역량에서 대원군을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51] 그리고서는,

> 대원군은 공인으로서 거대한 투사이다. 그렇지만 근세의 조선을 만들고 근세의 외교를 산출한 자는 왕비이다. 그는 실로 쇄국양이를 가지고 중흥의 건업이라고

---

48 平泉澄, 「『佳人之奇遇』解說」, 柴四郎原著 · 平泉澄, 『(解說)佳人之奇遇』, 時事通信社, 1970, 『佳人之奇遇』 제2권(1885년)에 김옥균이 발문을 쓰고 있다.

49 樓井良樹, 「解說」(菊池謙讓, 『(朝鮮最近外交史)大完君傳,(付)王妃の一生』, 日韓書房, 1910. 복각판, ぺりかん社,1998)참조. 菊池謙讓이 남긴 저서로는 『朝鮮王國』(民友社, 1896); 『朝鮮諸國記』(大陸通信社, 1925); 『朝鮮讀本』(朝鮮讀本 · 民族讀本刊行會, 1925); 『金剛山記』(鷄鳴社, 1931); 『近代朝鮮社』(大陸研究所, 1937)등이 있다.

50 菊池謙讓, 앞의 책, 78쪽(복각판, 124쪽).

51 菊池謙讓, 앞의 책, 112쪽(복각판, 158쪽).

> 생각한 대원군과 상대해서 20년 간 開國國事 事大의 외교를 발휘한 政事家이다. 만일 조선에서 세계를 알고 문명을 이해하고 강대함을 존중하고 근세적 국민의 상태와 세력을 아는 자 있다면 이것은 왕비의 정치에서 배태한 것이다.[52]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량과 식견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친청 · 반일적인 태도에 대해 시세를 모르고 고루한 사대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냉각(冷刻)한 성격과 권력을 사랑하는 정열은 수많은 사변의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 고 하여 권력욕에 탐한 여자라고 하는가 하면,[53] "히스테리적인 독비(毒妃)"라고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54]

> 일단 대원군과 권력을 다투게 됨에 이르러서는, 유화하고 침착한 여성은 심각한 기략가가 되고 잔인한 정략가가 되어 용맹한 호랑이 같은 거인과 서로 擊搏해서 왕권의 존재를 다투게 된다.[55]

그는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다툼을 사원(私怨)에 의한 것, 개인적인 권력욕과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정책도 모두가 대원군을 견제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교활하고 표독스러운 상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의 부정부패와 가렴주구는 모두 명성황후가 오로지 개인적인 권력욕으로 정사를 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

기쿠치는 조선이 망한 원인은 바로 권력자인 명성황후가 일본을 따르지 않고 중국 추종의 사대주의 정책 그리고 그 후 친러시아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곧 명성황후의 반일 정책 때문에 조선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실제는 바로 침략세력은 일본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주장은 명성황후시해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우라는 명성황후를 '여우' 에 비유하면서 시해작전을 '여우사냥' 이라는 암호

---

52 菊池謙讓, 앞의 책, 295쪽(복각판, 341쪽).
53 菊池謙讓, 앞의 책, 296쪽(복각판, 342쪽).
54 앞의 논문, 櫻井良樹,「解說」에서 재인용.
55 菊池謙讓, 앞의 책, 295쪽(복각판, 341쪽).

를 사용하여 자행했다.[56] 그들이 갖고 있던 명성황후에 대한 인식은 바로 '여우'로 이미지 되는 것처럼 교활하고 표독스러운 여성이었고 일본의 조선침략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미우라는 9월 1일 부임하고 나서 두문불출하면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이노우에 전 공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시해계획을 실천에 옮겨갔다.[57] 동행한 시바 시로와 다케다 한시를 앞세워 경성에 재류하고 있던 우익낭인들과 구마모토(態本) 국권당 패들이 장악하고 있던 한성신보사(사장 아다치 겐죠, 安達謙藏) 관계자들을 끌어 모았다.

미우라는 대원군과 훈련대를 내세워 왕궁에 침입함과 동시에, '기괴망측'한 복장을 한 일본인 낭인과 조선인 경위대의 복장을 한 일본인 순사들을 궁중에 난입시켜 명성황후를 시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 나름의 완전범죄를 위한 조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일본인의 개입조차도 숨기기 위한 위장전술이었고, 만에 하나 일본인 가담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원군 측의 요청에 의해 개인적 차원에서 가담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예방조치였다.

이 시해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곧 미우라, 시바 시로, 오카모토 류노스케, 아다치 겐죠 등의 극히 제한된 소수만이 왕비시해라는 계획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당일 동원되고 나서 혹은 사후에야 알 정도였다. 심지어는 참여하지 않는 공사관 직원에게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 연막전술을 펴기도 했다. 사후의 은폐공작은 더욱 철저했다. 모든 관련지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영령을 내렸다.

완벽한 각본과 주도면밀한 진행으로 완전범죄를 노린 이 계획은 당초 10월 10일에 예정되고 있었는데, 10월 7일 친일적인 군대인 훈련대가 해산되는, 예기치 않은 사태의 전개로 이틀 앞당겨져 결행되었다. 또한 대원군을 끌어내어 새벽 4시경에 궁궐에 쳐들어가려고 했던 본래의 계획도 대원군의 완강한 저항을 만나 지연되는 가운데 동트기 시작한 6시경에야 궁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고 특히 외국인에게도 그 현장이 생생히 목격되어 즉시

---

[56] 앞의 책, 『安達謙藏自敍傳』, 55~59쪽.

[57] 구체적인 시해과정에 대해서는 강창일, 앞의 논문, 「三浦梧樓 公使와 閔妃殺害事件」 참조할 것. 본고에서는 개략적인 것만을 서술하기로 한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의 만행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나서 즉시 미우라는 대원군과 상의하여 정부개조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였고 10월 10일에는 명성황후에 대한 폐위 조칙을 발표하였다.

미우라 공사는 사건 직후인 10월 14일 내각총리대신인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 시해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작년 7월 閔黨 政府는 파괴되고 정권내각에 옮겨지고 나서 왕비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여 온갖 方略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노우에 공사의 힘을 이용해 대원군을 쓰러뜨리고 박영효를 이용해서 김홍집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박영효를 축출하고 어윤중을 파면하여 점차 정권을 궁중에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사이 이면에서는 러시아 공사와 통해서 그 성원을 빌린 것은 완전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노우에 공사 착임 초에 제출한 시정강령[내정개혁안] 20개조 중에는 왕비가 정무에 간여하는 것을 완전히 금했음에도 그 공사가 재부임할 때는 그 항목을 삭제하고 아울러 다시 제출한 의견서 17개조 중에는 왕비는 국왕과 마찬가지로 정무에 관계할 수 있도록 된 것 때문에 왕비는 여기에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자기 세력에게 政事를 맡겨 제멋대로[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58]

또한, 시해를 자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본세력을 유지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력지배' 를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일본이 자금까지 진력해온 백반의 사업과 세력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망연자실한 나머지 다수의 고문관도 쫓겨나고 군대도 조선에서 철환되기에 이르는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당하여 본관이 아니라도 손을 내놓고 눈을 감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한다면 우리세력을 유지하고 당초의 목적[독력지배]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로 부득불 이렇게 한 것입니다.[59]

---

58 『日本外交文書』 28-1, 문서번호 378 〈事變起因ノ竝其ノシキ對策稟申ノ件(韓國駐箚三浦公使ヨリ伊藤總理大臣宛, 1895年10月14日)〉.

59 위와 같음.

더욱이 그 결과에 대해, 그는 성공한 것이라 자화자찬하면서 현재의 친일 괴뢰 정권을 더욱 도와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 현재 궁중 정부라고 해도 모두 우리 편입니다. 총리대신 이하 평상처럼 침착하게 사무를 다루어 그 정부의 기초를 굳히고 우리 정부의 권고의 뜻에 맞추려고 불요불굴의 미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현 정부를 도와 개혁의 실효를 올리는 것이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60]

그들의 뜻하고는 달리 이 만행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자,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郎) 정무국장을 10월 10일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부득이 미우라를 위시한 사건관련자들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사실 은폐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10월 17일에는 미우라를 공사 직에서 해임하고 대신에 고무라 정무국장을 공사로 임명하였다. 18일에는 관련자 오카모토를 위시한 낭인들에게 퇴한 명령을 내리고 22일에는 스기무라 등 공사관 관리들에게도 퇴한 명령을 내려, 이들 48명을 임기응변책으로 히로시마 감옥에 수용하였다. 그 후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진상규명' 의 흉내를 내다가 다음해 1월 20일에는 '증거불충분' 이라는 명목으로 무죄판결을 내리고 석방하여 버렸다.

6. 맺음말

이 야만적인 시해사건은 일본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조선에서 반일투쟁을 야기하고 열강으로부터 비난을 받아[61] 일본세가 더욱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가담하였던 자들은 당시 '지사'처럼 행동하였고 일본인으로부터 개선장군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62] 메이지 천황은 미우라가 석방되어 동

60 앞과 같음.
61 앞의 책 『陸奧宗光』, 290쪽.
62 『東亞先覺志士記傳』, 上卷 , 537쪽; 『觀樹將軍回顧錄』, 344쪽.

경에 도착하였을 때에 우메다(米田) 시종을 보내어 그 '노고' 를 치하할 정도였다.[63] 더욱이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살인행위를 정당화하여 '일한합방' 의 초석으로 평가하고 있다.[64] 사건 후 관련자들은 정치가로서, 문필가로서, 언론인으로서 '입신출세' 의 가도를 달렸다.[65]

일본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줄곧 '대원군주모설' 혹은 '낭인들에 의한 우연한 살인사건' 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여 왜곡시켜 왔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66] 그러나 사실은 이토 총리대신을 위시하여 일본 당국은 미우라 공사가 명성황후를 시해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도록 조장한 측면도 있다. 이노우에 전 공사는 사건의 실행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고 총 진두지휘했을 가능성조차도 있다. 그럼에도 미우라 공사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적으로 그에게 책임을 묻는 척하다가 그나마도 '증거불충분' 으로 무죄 방면하는 작태를 보였다. 그리고서는 당시부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거나 사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도리어 한국을 불법 강점하고 나서 식민지 사가들에 의해 명성황후의 나쁜 이미지를 그려냈고 한국의 멸망이 오히려 명성황후의 탓인 것으로 전가하는 역사왜곡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 만행에 대해 당시 조선인들은 의병투쟁을 전개했고,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국모(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와 조선의 독립을 유린한 것 등을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인들은 이 만행을 잊지 않고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

63 『觀樹將軍回顧錄』, 345~346쪽.

64 『東亞先覺志士記傳』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 杉村濬, 『在韓苦心錄』;『觀樹將軍回顧錄』, 堀口九萬一, 『外交と文藝』, 第一書房, 1934; 菊池謙讓, 『近代朝鮮史』 下卷, 大陸研究所, 1940 등을 들 수 있다.

65 이들의 사후 행적에 대해서는 강창일, 앞의 책, 『근대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우익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참조할 것.

66 朴宗根, 「三浦梧樓公使の赴任と明成皇后(閔妃)殺害事件」『日清戰爭と朝鮮』(青木書店,1982)에서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일본측의 연구경향 및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서양인의 견문기를 통해 본 명성황후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장 영 숙*

1. 머리말
2. 황후의 인품과 내면
3. 황후의 정치적 성향과 위상
4. 대원군과의 적대적 갈등관계와 역할
5. 맺음말

1. 머리말

한말의 격변기를 살다간 명성황후(明成皇后, 이하 황후)[1]에게서는 실로 다양한 모습이 엿보인다. 남편인 고종(高宗)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하나밖에 없는 병약한 아들인 순종(純宗)의 장래를 걱정하여 무속인들을 가까이 한 부분에서는 전통적 여인으로서의 필부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반면 민씨일파의 중심에 서서

*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명성왕후는 살아생전에는 왕후로 불리었으며 황후 시호를 받은 때는 고종 34년 11월 6일이다. 본문에서 국왕의 상대어로 함께 쓰일 때 왕후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러우나 글 전체의 통일감을 위해 시호를 기준하여 황후로 호칭하기로 한다.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끊임없는 정쟁에 휘말리고, 고종을 보좌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정책에 깊이 관여한 결과 을미시해의 변을 당했다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야심만만한 여성정치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황후에게서 이토록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그녀의 삶이 복잡 다양하게 보일 만큼 그녀가 실제로 한말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그녀를 가까이에서 보고 평가한 사람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측면도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녀를 평가하고 그녀에 대한 인상기를 남긴 사람들 중에는 서양 선교사들이나 외교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이들이 황후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신분상의 특권이 있었고 이러한 특권을 십분 활용하여 그들이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저작물을 남기려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인들이 남긴 저작물 가운데 황후와 관련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선의 환경과 교통, 주민들의 삶과 생활수준 등을 소재로 하여 서양보다 더 낙후되고 덜 문명화된 조선의 사정을 알리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2] 그 결과 19세기말 서양인들이 남긴 조선견문기 가운데에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인상기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저작물 대부분은 서양인들의 의식 속에 조선의 후진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일조하였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서양인들 사이에 형성된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그들의 시각안에서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조선은 비문명화된 국가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서양인들은 문명화된 서구와 비문명화된 조선을 대비시킴으로써 서구인의 정체성과 문명적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을 일방적인 잣대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황후에 대한 기록 역시 이러한 서양인의 이해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 관찰의 대부분은 공정하고 엄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첫 인상기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직 · 간접적으로 풍문을 통해 들

---

[2] Isabella.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1897(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도서출판 살림, 1994);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or Life in Korea,* 1904(신복룡 · 최수근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1999); H.N 알렌 저, 신복룡 역, 『조선 견문기』, 박영사, 1979; Madame Claire Vautier · Hippolyte Frandin, En *Coree*(김상희 · 김성언 옮김,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 태학사, 2002); William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1907(申福龍 역, 『隱者의 나라 韓國』, 평민사, 1985); Carlo Rossetti, *Corea e Coreani,*1904(윤종태 · 김운용 역,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학연구소, 1996).

은 내용을 아무런 비판과 평가 없이 싣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록류는 서양인이 조선을 보는, 나아가 고종을 비롯한 조선왕실을 이해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서양인은 왜곡된 조선관과 정확치 못한 황실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양인이 보는 명성황후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했으며 황후를 직접 관찰한 견문기와 풍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한 내용의 상호 차이점을 비교 검토해 보려 한다. 이를 통해 명성황후를 평가하는데 새로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은 물론 이방인의 눈에 비친 시각과 평가를 통해 명성황후의 정치적 위상과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고종과 대원군과의 관계나 황후의 권력의 원천 등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명성황후의 생애와 평가를 둘러싼 글들은 몇 편 있어왔지만[3] 서양인의 눈에 비친 황후를 검토하고 평가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명성황후를 언급하는 글 속에서 서양인의 인상기가 일부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4] 한말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고종에 대한 서양인의 시각에 관한 연구[5] 역시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사실관계 기록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서양인의 기록물을 준거로 하여 최고집권자의 집권능력과 국정운영에 따르는 의식의 수준을 살펴보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명성황후와 관련된 평가와 시각을 검증해보는 문제 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공정성과 저자의 저술 배경 및 저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타자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내부의 인식과 평가를 새롭게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보여 진다. 이 글에서는 서양인이 남긴 기록물을 기초로 하여 황후의 정치적 비중과 역할을 검토하되 조선 내부의 황후에 대한 시각을 적절히 대비 교차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

[3] 지금까지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로는 이배용, 「개화기 명성황후 민비의 정치적 역할」『국사관논총』 66, 국사편찬위원회,1995; 서영희, 「명성왕후 연구」『역사비명』 57, 2001; 서영희, 「명성왕후 재평가」『역사비명』 58, 2002; 이민원, 「근대 궁중여성과 명성황후」『사학연구』 77, 2005; 장영숙, 「명성황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평가」『상명사학』 10 · 11 · 12 합집호, 2006 등이 있다. 명성황후에 대한 인물과 평가중심의 연구 외에 시해사건을 다룬 글은 최문형 외, 『명성황후시해사건』, 민음사, 1992 등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글들이 있다

[4] 이배용, 위의 논문.

[5] 정연태, 「광무년간 서양인의 고종관」『한국사연구』 115, 2000.

2. 황후의 인품과 내면

명성황후는 여흥 민씨(驪興閔民) 민치록(閔勳풍)의 외동딸로 철종(哲宗) 2년(1851) 음력 9월 25일에 경기도 여주 섬락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녀가 8세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읜 후 인현왕후의 거처였던 감고당(感古堂)에서 생활하다가 고종 3년 (1866) 왕비로 책봉된 사실은『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讀記略)』과『열성황후왕비세보(列聖王后王妃世譜)』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후의 생전의 인품에 대해서는 그녀 사후 기록한 행록(行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성품이 단정하고 아름답고 총명하였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小學』『孝經』『女訓』등의 책을 밤늦도록 탐독하여 학식과 견해가 풍부했음은 물론 왕실의 웃어른인 신정왕후까빠貞王팀)를 지극정성으로 모심으로써 "왕비는 효성스럽다"라는 칭찬을 늘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해 음력 2월이면 친히 북쪽 후원에서 누에를 치고 제명원(濟明苑) 동산에 과일이 처음 익으면 햇것을 먼저 올려 제사를 지내는 등 조상을 추모하고 경배하는 데에도 모범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6]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왕실관련 기록물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찬양일변도의 글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타의 인물들의 글에서 흔히 보이는 '단정하고 총명하다' '효성스럽다' 라는 내용 외에 특기할만한 사실은 '여러 종류의 책을 탐독하여 학식과 견해가 풍부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백관(百官)의 장주(章奏)를 다 보았다는 설명까지 있는 것을 보면[7] 그녀는 적어도 학식과 견해만큼은 궁중 내의 다른 여성들 보다 뛰어난 편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점은 황후의 인품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황후의 인품과 내면에 대해 서양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가? 우선 황후를 직접 근거리에서 관찰한 사람들 대부분은 먼저 외적으로 그녀의 지적이고 명민한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황후가 여느 여염집 아녀자와 다를 바 없이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조선의 평

6 『璿源系譜記略』(규장각 2348); 『高宗實錄』 명성황후 행록.
7 『고종실록』 명성황후 행록.

범하고 보편적인 부녀자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하는경향이 있다.

황후를 직접 겪어 보고 자신의 체험과 느낀 점을 글로 남긴 서양인들의 저작물과 그들의 조선에서의 체류년도 등을 구분하여 도표로 만들어보면 다음의 표 l과 같다.

표 1을 보면 황후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상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들은 특히 황후에 대한 외적인 인상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녀와 고종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부지간의 의사결정권 문제, 정치지향적인 자세, 병약한 순종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속에 빠져드는 종교에 대한 맹신적인 모습 등과 관련해서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느낌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표 1 명성황후를 직접 관찰한 서양인

인물	국적	직업	조선방문시기	저작물(출판년도)	왕후에 대한 인상
H.N.Allen (l858~1932)	미국	의료 선교사	1884~1916	조선견문기*(Things Korean)*(1908년)	냉정하고 침착한 비운의 왕비
P. G.Moellendorff (1847~1901)	독일	외교 고문	1882~1885	데니의 정한론에 대한 답변 (*Reply to Denny)*(1930년)	정치 지향적 인물
R. von. Moellendorff (?)	독일	외교관 부인	1882~1885	뮐렌도르프 전기 *(EinLebensbild)*(1930년)	매력적이고 섬세, 지적인 인상
L.H. Underwood (1851~1921)	미국	의사	1888~1921	조선에서의 생활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n)* (1904년)	지적이고 사려 깊은 친절함. 진보적이고 유능한 외교가
Hippolyte Frandin (1852~1924)	프랑스	외교관	1892~1894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Coree)*(1902년?)	정치 지향적 인물 종교 맹신
lsabella B. Bishop (1894~1897)	영국	지리 학자	1894~1897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urs)* (1897년)	명민하고 이지적. 정치적인 방자함. 종교 맹신

전거 : 각 인물의 대표 저작물에서 발췌하여 분류

우선 명민하고 이지적이라는 그녀의 외모와 관련된 평가를 살펴보자. 서양인의 대부분은 황후를 직접 겪어본 후 황후의 첫인상에 대해 그녀가 무척 명석하고 똑똑하며 우아한 멋을 지니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특히 여행가이면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 Bishop) 여사는 마흔을 넘긴 왕비가 우아한 자태로 앉아서 대화에 집중을 했으며 특히 관심있는 이야깃거리가 나오면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지성미로 빛나곤 하였다고 기억했다.[8] 비숍이 어떤 대화를 주로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아마도 세계지리학회 회원이기도 했던 그녀는 황후가 그때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으리라 추측된다. 이를 통해 볼때 총명하고기억력이 뛰어나 조장(朝章),전고(典故) 등을 두루 암기할 정도인[9] 황후였던 만큼 지적인 충격 속에서 세계의 다양한 면모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황후의 총애를 받아 을미사변이 일어나기까지 어의(御醫)로 활동하였던 언더우드(L.H. Underwood) 여사는 그 누구보다도 황후를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던 신분의 서양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더우드 여사의 황후에 대한 관찰과 평가는 보다 상세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그녀의 평가에 따르면 황후는 쾌활하고 기지가 뒤어난 명석한 여성이었으며 자상한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와 정부에 대해 고른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10]

물론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는 언더우드 여사가 황후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황후의 자상한 배려를 많이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내재되어 있다.

그녀는 1889년에 초기선교사로 조선에 와 있던 H.G. 언더우드와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황후는 결혼선물로 현금 100만 냥이라는 거액을 하사하였다. 또 한 번은 여사가 황후를 알현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황후가 왕궁 가까이까지 가마를 불러오도록 배려해 준 일도 있었다.[11] 결국 언더우드 여사의 황후에 대한 극찬은 여사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개인적 호감이 더 부가되었을 가능성도 었다. 그러나 비숍과 언더우드 여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유

---

8 Isabella B. Bishop, 앞의 책, 295쪽.
9 黃玹 著, 金濬 譯, 『梅泉野錄』, 교문사, 1994, 97쪽.
10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49~51쪽.
11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61쪽과 120쪽.

럽, 미국의 여성들과 공식회견을 할 경우 참가자 모두는 황후에게서 강한 매력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12]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황후는 서양인들이 보기에 지적이고[13] 명민한 우아미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동양적 아름다움과 결부되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황후를 평가함에 있어서 눈에 띄는 점은 황후의 끔찍한 자식사랑이 결국 그녀로 하여금 무속으로 빠지게 했다는 점을 공통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후가 출산한 4남 1녀 가운데 유일한 혈육인 순종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고 임오군란과 을미사변을 거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에다가 이후 김홍륙(金鴻陸)의 사주아래 어소(御所)의 요리사인 김종화(金鍾和)가 올린 아연을 탄 커피를 부왕과 함께 마시다가 영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14]

황후는 이처럼 병약한 아들의 치료를 위해 전국의 유명하다는 무당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점쟁이에게 아들을 맡겼으며 절에 바치는 시주도 점점 늘려갔다고 한다.[15] 비숍은 황후의 영향력 아래에서 몇몇 무당들이 참판(參判) 혹은 승(承旨)의 벼슬을 받기도 했으며 특권을 누렸다고 술회하였다.[16] 이러한 점은 서양인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 명민하고 우아하기 이를데 없는 황후가 이상한 미신에 빠진 모습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특히 조선 주재 프랑스의 2대 공사 겸 총영사였던 이폴리트 프랑맹(Hippolyte Frandin)은 세자의 무능력 때문에 여군주로서와 어머니로서의 품위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다고[17] 표현할 정도로 황후의 종교맹신을 부정적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매천

[12]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48쪽.

[13] 서양인들이 보기에 세계의 여러 나라와 정부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추고, 명석한 황후였을지라도 병환을 앓을 때는 팔 위의 맥박이 1인치 정도만 보이도록 팔을 천으로 감싸고 진료를 받으며 칸막이에 뚫린 구멍으로 혀를 내밀어서 검진을 받고자하는 비과학적인 태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H.N. Allen, 앞의 책, 205쪽 참조. 이는 국왕부처의 어의였던 알렌이 황후에 대해 다소 의외로 생각한 점이기는 하지만 중국식의 치료방법에 익숙해 있던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일 뿐 그녀의 지적인 면모와 직접 결부시키기는 어려운 점일 것이다.

[14] 黃玹, 앞의 책, 429쪽.

[15] Isabella B. Bishop, 앞의 책, 296쪽.

[16] Isabella B. Bishop, 앞의 책, 325쪽.

[17] Hippolyte Frandin, 앞의 책, 98쪽. 책을 옮긴 이에 따르면 이 책은 외교관이었던 프랑뎅이 조선에서 경험한 바에 대해 기록한 것을 문필가인 보티에가 다듬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책이라고 한다. 이하 프랑탱의 저서로 기록.

야록(梅泉野錄)』에도 황후가 명산의 사찰을 두루 다니며 세자를 위해 기도하였다는기록이 있을정도이므로[18] 서양인둘이 보기에 황후가 세자의 병약함으로 인해 무속에 깊이 빠져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 한다고 할수 있다.

결국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지적이고 총명 보이는 황후가 미신으로 여겨지는 종교에 깊이 빠져서 많은 돈을 기부하는 모습은 그녀의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면모였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서양인들은 문명화된 국가의 종교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도 기독교 세계를 널리 인식시키려던 선교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인 불교와 무속신앙을 미신으로 여긴 반면 기독교는 한국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상태에서 문명사회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계몽의 빛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서구사회가 문명화된 이유 역시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도덕적으로 우월한 종교인 기독교가 문명국가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한 원동력이었다고 보고 있었다.[19] 따라서 가난하고 지적으로 열등하며 세계사의 흐름에 뒤쳐져있는 비서구지역의 야만인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서는 지적인 면모를 가진 황후의 미신적인 종교활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또한 황후를 알현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충분히 독립할수 있는시기를 지나버린 아들을[20] 내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21] 그녀의 모습 역시 일찍부터 독립심을 키워주는 서구의 교육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황후의 순종에 대한 특별한 사랑은 병약한 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모라도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종교적 맹신 내지 미신에 대한 시각 역시 조선인의 정신적 자산의 일부가 무속과 결부되어[22]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조선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서양인이 가질 수 있는 이질적인 시각은

---

[18] 黃玹, 앞의 책, 97쪽

[19]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153쪽.

[20] 황후가 왕세자 拓을 생산한 때는 1874년이었고 비숍이 조선을 방문한 후 국왕 내외를 알현한 시기는 1895년 1월이므로 그녀가 세자를 본 시기는 순종이 청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즈음이라고 볼 수 있다. -비숍여사의 여행일정에 대해서는 Isabella B. Bishop,의 앞의 책, 547~549쪽 역자 해제 참조.

[21] Isabella B. Bishop, 앞의 책, 296쪽.

[22] 우리민족 신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단군신화의 단군은 곧 제정일치 시대의 정치적 군장자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샤먼이 그 역할수행을 하고 있었음을 볼 때 우리 정신문화의 원형틀이 무속에 원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서양의 문화적 격차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동양을 평가할 때 서구와는 달리 스스로 진보하기에 불가능한 타자(他者)라는 서구문화의 우월적인 시각 속에서 보기 때문이며[23] 조선의 황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황후의 정치적 성향과 위상

황후를 직접 관찰한 바 있는 서양인들은 황후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으며 그녀의 정치적 비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황후가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녀의 정치적 이해와 식견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는 고종이 내외 인사들을 접견할 때 황후는 항상 장막 뒤에 자리하고 있었고 각종 인사문제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윤치호(尹致昊)가 쓴 일기 속에서 "양전(兩殿)께서 좌의정이 아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뜻이 있으셨다."[24] "임금과 왕비가 성명(聖明)하여 여러 나라 문명과 기술의 취사(取捨)를 통촉하고 군정 · 세무 · 기계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을 많이 좇고 있다."[25] 는 등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황후가 직접 정사에 관여한 정황은 여러모로 포착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양인들이 황후와 국왕과의 사이에 누가 최종적으로 정책의 결정권을 가졌으며 황후의 정치적 비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제라 하겠다.

특히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고종은 유약하고 지도력과 리더십이 부족한 인물이었으며[26] 특히 황후는 권력의 막후에서 남편의 의사결정권을 대리하는 인물로 비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황후와 고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왕은 성격적으로 온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강도높게 밀어

---

23 김택현, 「인도의 식민지 근대사를 보는 시각과 서발턴 연구」『역사비평』 48, 1999, 230~23

24 『尹致昊 日記』 1885년 1월 8일.

25 『尹致昊 日記』 1885년 2월 14일.

26 고종에 대해 계몽적이고 진보적인 개명군주라고 평가하던 서양인의 대부분도 외교고문이었던 데니를 제외하고는 乙巳勒朽 이전의 고종은 냐약하고 결단력과 의지가 부족해 리더십을 구비하지 못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정연태, 앞의 글, 149~152쪽

붙일 정도로 자기주장이 강한 인물이라고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왕보다는 황후의 리더십이 더 뛰어남으로 해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을 황후가 가졌던 것으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로 드러난 두 사람간의 의사표현 방식과 기질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평가로 볼 수 있다.

국왕내외를 알현하였던 서양인들의 기록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보이긴 하나 오히려 황후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서양인들이 당시 떠돌던 소문들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편이어서 이를 통해 황후와 고종과의 권력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간접 경험자들의 기록에서는 주로 황후가 민씨척족의 중심에 서서 국정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였고 대원군과 권력쟁탈전을 벌였으며 일본에 적대적이었던 사실로 인해 을미시해의 변을 당한 것이라는 일본측의 주장을[27]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황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의 야심을 가지고 권력의 핵심에 앉으려 했던 인물로 설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다. 이는 비록 서양인들이 세간에 떠돌던 풍문을 통해 유추 해석한 내용이긴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황후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황후를 간접 경험한 인물들의 저서와 그들의 저술에서 묘사되고 있는 황후의 권력지향적 이미지는 어떠했는지 도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2에 따르면 황후를 간접적으로 접해본 자들의 경우 황후의 권력지향적인 측면과 성격적으로 강한 기질 또 그에 따라 고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고종을 주도해 나가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고 시종일관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정정(政情)을 간접 견문한 서양인들은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명성황후가 사망한 이후에 조선을 방문했던 자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이 언급한 황후와 관련된 사실은 다분히 풍문으로 들은 내용이거나 다른 기록물을 참조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실제 황후와 대원군과의 적대적인 관계나 고종과 대비되는 강한 기질로 인해 황후가 고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권력의 핵심에 있으려는 황후의 정치적 야심 등에 관해서는 한국 근

---

[27] 외척의 발호를 뿌리 깊은 당쟁의 소산으로 파악하고 대원군과 황후의 대립관계를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며 황후가 고종을 무시하고 교만 방자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일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었으므로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역사서술은 田保橋潔, 『近代朝鮮關係の研究』(조선총독부, 1940)을 비롯한 대다수 일본측 학자들에게서 보이는 공통된 방식이다.

대사를 기술하는 일인학자들의 거의 모든 저술에서 보이는 내용이다.[28]

표 2 명성황후를 간접 견문한 서양인

인물	국적	직업	조선방문시기	저작물(출판년도)	왕후에 대한 견문기
H.B.Hulbert (1863~1949)	미국	선교사	1886~1891 1893~1907	대한제국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 (1906년)	문호개방주의자 권력지향적 인물 강한 기질, 대원군과 적대적 관계
J.S.Gale (1863~1937)	캐나다	선교사	1888~1897 1898~1928	코리언스케치 (*The Korean Sketch)* (1909년)	비운의 왕비 을미시해의 피해자
W.E.Griffis (1843~1928)	미국	신학자	1차:년대 미정 2차: 1926~1927	은자의 나라 한국 *(Corea, The Hermit Nation)*(1882년)	재색겸비한 권력지향적 인물
F.A.McKenzie (1869-1931)	영국	신문 기자	1차:1904 2차: 1906~1907	대한제국의 비극 *(The Tragedy of Korea)* (1908년) 한국의 독립운동 *(Korean's Fight for Freedom)* (1920년)	권력지향적이고 야심적인 강한 기질의 소유자. 냉정하고 침착하며 야심적인 문호개방 주의자
Carlo Rossetti (?)	이태리	외교관	1902~1903	꼬레아 꼬레아니 *(Coreae Coreani)* (1904년)	일본과 적대적 관계 강한 기질로 고종에 영향력 행사

전거 : 각 인물의 대표 저작물에서 발췌하여 분류

따라서 서양인들은 당시 일인학자들의 기술내용을 참조해서 사실관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소문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차원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록물을 남긴 서양인들이 조선을 방문했던 시기는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었던 시기 내지는 조선이 일제 강점기에 놓여있던 시기였다. 때문에 더더욱 일본이 주도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일본의 역사서술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28] 林泰輔, 『朝鮮通史』, 富山山房, 1912; 靑柳綱太郎, 『李朝五百年史』, 조선연구회, 1912 등의 책자는 한국의 근대사 부분을 기술하면서 고종의 역할은 무시하고 대원군과 민비의 대결구도로 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서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108~123쪽 참고.

이처럼 황후를 간접 체험한 서양인들의 묘사가 시종일관 일본식 서술방식을 따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에 비해 직접 경험자들의 서술은 황후의 정치적 비중과 성향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정황묘사를 남기고 있다. 비숍은 국왕내외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황후가 고종의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대표적 경우이다. 그녀에 따르면 왕은 천성이 온화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인데 알현하고 있는 동안 왕비가 왕을 몹시 채근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앞장서서 유도하였다고 한다.[29] 한편 이와는 달리 프랑뎅은 황후가 부분적으로 국사를 뒤에서 조종하지만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자리에서도 표면에 직접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30] 결국 프랑뎅은 황후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비숍의 관찰기와 대조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황후가 친밀한 관계의 여성인 비숍을 상대할 때는 보다 감성적인 표현이 앞서고 남성인 프랑뎅 앞에서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등 때와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처신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두 사람의 견해와 표현은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황후가 국왕의 의사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국사에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나아가 동양학 연구자인 그리피스(W.E. Griffis) 역시 황후가 국왕을 유능하게 보좌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31]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후가 고종을 보필하는 인물로써 국왕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은 서양인의 시각과 평가 안에서만 보이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일례를 들면 독일인 외교 고문이었던 묄렌도르프(P. G. Moellendorff)가 제 1차 조 · 러 밀약사건의 책임으로 이홍장의 압력을 받아 외아문 협판직에서 해임되고 후임으로 미국인 데니(O.N.Denny)가 부임하게 되자 황후는 묄렌도르프 부인(R. von. Moellendorff)을 상대로 묄렌도르프가 계속 조선에 남아주기를 간청하였다.[32] 당시 고종은 묄렌도르프와 친교관계에 있던 러시아 공사대리 겸 총영사 웨베르를 활용해서 러

[29] Isabella B. Bishop, 앞의 책, 295쪽.
[30] Hippolyte Frandin, 앞의 책, 85쪽.
[31] William E. Griffis, 앞의 책, 524쪽.
[32] 묄렌도르프 부부 지음, 신복룡 · 김운경 옮김, 『묄렌도르프문서』, 평민사, 1987, 89~90쪽.

시아로부터 군사고문이나 유사시 도움을 청하는 등의 관계개선을 의도하고 있던 터였다.[33] 결국 고종의 의도로 뮐렌도르프는 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도국(典圖局) 방판(幇辦)에 임명되어 고종의 친러정책을 간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여기에는 묄렌도르프 부인을 통해 묄렌도르프의 마음을 돌려보려 한 황후의 역할 공로도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황후의 국정참여 태도 때문에 서양인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의 인사들도 그녀가 고종 보다 우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국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독립협회 중요간부를 역임했던 정교(鄭喬)는 대원군과 황후가 권력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인 사실과 황후가 고종을 보좌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국정에 개입하였던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박영효가 갑신정변 후 일본망명을 마치고 돌아와 금릉위(金陵尉)에 복위되고 난 뒤 대원군을 만나고 돌아오자 황후는 대원군과 박영효의 합세를 두려워해 박영효를 자주 궁중에 불러들여 다독였다고 한다.[34] 이준용(李埈鎔) 모반사건[35]이 일어났을 때에도 황후는 박영효에게 국가의 종사가 그에게 달려있음을 주지시켰고 박영효는 순검(巡檢)을 동원해 이준용을 검거하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이는 갑오개혁 당시 일본이 친일개화파와 대원군을 정국에 활용하려던 기미를 황후가 간파하고 두 세력의 합세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일본통인 박영효를 이용해 정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사실로써 그녀의 정치적 식견과 고종의 보필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국내 정치인을 비롯한 서양인들은 황후가 고종을 보좌함은 물론 고종의 우위에 서서 국정에 개입하려 하였으며 권력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찍이 제가문(諸家文)과 사기(事記)에 통달하여 황후가 백관의 장주를 친히 보았다는 사실은[36] 그녀가 뛰어난 정치적 안목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

[33] 송병기, 「고종 초기의 외교」『한국독립운동사』 I, 국사편찬위원회, 1987, 84쪽.

[34] 鄭喬, 『大韓季年史』 上, 국사편찬위원회, 1957, 106쪽.

[35] 1894년 10월에 이준용 등이 모의하여 벌인 군국기무처 의원 金鶴羽 암살사건과 박영효 등의 친일파 대신들의 암살에 연루된 사건을 일컫는다. 그 후 이준용은 박영효의 주청으로 종신유배형 판결을 받았으나 왕명에 의해 10년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 –鄭喬, 위의 책, 105~106쪽.

[36] 黃玹, 앞의 책, 190쪽.

즉 황후는 스스로 실력을 가다듬어 국왕을 보좌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황후의 이러한 국정참여태도는 일반에게 확대 인식되어 고종을 뛰어넘어 국정을 농단하기까지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면 황후의 정치활동에 대해 고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황후가 사망한 후 고종이 직접 지은 행록을 보면 황후의 정치참여에 대한 고종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고종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의 어려운 때를 만난 다음부터는 더욱 살뜰히 자신을 도왔으며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풀어 주어"[37]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황후의 도움이 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황후가 국정에 개입하여 고종을 보필한 것은 그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고종의 용인 속에서 이뤄진 것이며 고종은 황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황후의 권력이 고종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의미하는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후의 국정농단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고종이 국정의 중심에서 통치력을 행사한 측면은 상대적으로 생략되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자주 변경하는 줏대 없는 인물로,[38] 문명과 개혁을 편드는 진보적이고 총명한 왕비가 살해된 뒤에는 기진맥진한 충격 상태에 빠져 독살의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39]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인들이 고종에 대해 무기력하고 줏대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한국이 결국은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데에 대한 내외의 안타까움과 나라의 주권을 망실한 책임을 고종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동시에 담겨 있어서일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일본의 고난도의 전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종은 개화군주로 불릴 만큼 친정초기부터 각종 개화관련서적을 수집하여 규장각 관원들을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에게 해외지식과 문물을 익히게 하였던 점, 서양문물의 우수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서기(西器)를 도입하고자 개

---

37 『고종실록』 명성황후 행록.

38 F.A.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1908, New York (신복룡 옮김, 『대한제국의 비극』, 평민사, 1985, 86쪽).

39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80~188쪽; F.A. McKenzie, 위의 책, 76쪽 등. 이 외에도 대다수 서양인들은 고종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부족에 대해 언급하였다.

화정책 추진기구인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는 등 제도의 정비정책을 추진한 점, 집권기반의 강화를 위해 군사력을 보강하고 군권의 체계적 발효를 위해 무위소(武衛所)에서 원수부(元帥府)에 이르는 군사부문 기구를 설치 운영한 점 등 그의 정치노선과 정책 사례를 두고 볼 때 국정을 일방적으로 농단당하는 무기력한 군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40]

황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종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권을 빼앗기거나 휘둘렸다고 보기 어려운 반증들이 있다. 이를테면 고종의 대외인식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동도서기 시책의 실시를 주창하는 국왕교서의 반포는[41] 임오군란 이후 황후가 장호원에 피신해 있다가 막 돌아온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42] 따라서 이 시책의 발표는 국왕 스스로의 의지가 배어있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생들이 황후가 군란당시 피신해 있던 충주에 행궁(行宮)을 세워 예(禮)를 표시할 것을 건의하자 고종은 군사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거절한 일도 있었다.[43] 그 후 황후에 대한 예의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황후' 의 시호를 올리고 성대한 국상(國喪)을[44] 치루는 속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결국 고종은 체제정비와 부인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선후를 분명히 할 줄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서양인의 황후에 대한 인식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고종의 면면들이 드러날 때 그 시각의 편협함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록물을 남긴 저자들 스스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45]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총체적인 평가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

40 장영숙, 『高宗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5.

41 『고종실록』 고종 9년(1882) 8월 5일.

42 『고종실록』 고종 9년(1882) 8월 일-황후가 장호원에서 궁궐로 돌아온 때는 고종 19년 8월 1일이다. 국왕의 교서 반포는 8월 5일자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황후가 돌아온 후 단 며칠간에 앞으로의 정책을 결정짓는 국가시책에 황후의 의지가 작용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43 "達弓疏略日 忠州幸宮不建 而睡之德未興矣 · · · 允秀 疏略日 當今更始之時 整軍之矩 安民之策 可急釐正者也 · · · 批以內修政敎 果爲治法之要 當留念矣" -『일성록』 고종 19년(1882) 9월 29일.

44 황후를 장사지내기 위한 의식을 장례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고종 34년(1897)11월17일) 공식적으로 홍릉에 장사지낸 것은 11월 22일의 일이다.-『洪陵石儀重修都監儀軌』(규장각 13895,13897~13899); 『고종실록』 고종 34년(1897) 11월 17일,11월 22일.

45 헐버트는 서울을 방문하는 단기적인 여행자들이 주로 황제의 편모(片貌)묘사하였지만 그들이 통과할 당시의 시류에 편승해 있었고 황제의 편모에 관하여는 과장이 있음을 밝히면서 무책임한 가십과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H.B. Hulbert, 앞의 책, 333쪽. 맥켄지 역시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의 기록은 당시의 인상제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상함에서는 믿을게 못됨을 언급하였다. F.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1920 (신복룡옮김, 『한국의 독립운동』, 평민사, 1986, 37쪽).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황후는 고종을 보좌할 정도로 높은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할 정도로 비상한 정치 감각을 지녔던 여성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황후의 국정농단설과 관련하여서는 그녀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고종을 옆에서 보좌하고 지혜롭게 내조를 한 보필자로서의 위상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녀의 모든 권력과 능력이 고종의 후원 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서양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점은 황후의 정치적 성향이다. 언더우드 여사의 표현을 빌리면 "황후는 늘 조선도 미국처럼 자유롭고 힘이 있으며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으며 서구와의 친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고 한다.[46] 1882년 조미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황후와 민씨일파들이 앞장서서 조약체결에 열의를 보였고 그러한 열성으로 인해 당시 외국인들의 눈에 이들은 개화파로 보일 정도였으며 개화파 들 역시 초기에는 국왕내외가 개화파에게 동정적이라 생각하였다.[47] 이는 고종이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로 구미제국과 적극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등 개국정책을 주도하는 데서 오는 인식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더욱이 조미통상조약체결 이후인 1883년에-는 민씨일파의 중심인물인 민영익(閔永翊)이 보빙사(報聘使)로 미국을 다녀오는 등 외국과의 교섭에 있어 국왕내외의 의중을 대변해서 활약을 하였기 때문에 황후는 개국과 개방을 환영하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국왕내외는 러시아 공사 웨베르 등을 통해서 러시아의 국내정세를 부지런히 알고자 하였고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다가 을미시해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서양인들 사이에 정설로 알려진 만큼 황후의 성향은 친러적이고 반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황후의 정치성향에 대해 친미적 혹은 친러적이었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대외개방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여 진다. 황후에게 개방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는 친미적 태도로, 러시아의 이용가치가 있으면 친러적 태도를 취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고종과 함께 서

[46]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147쪽.
[47] William E. Griffis, 앞의 책, 567~571쪽.

구열강과의 친교를 다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황후는 대외 개방적인 기조 위에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외세를 활용하려는 정치적 성향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대원군과의 적대적 갈등관계와 역할

서양인들은 황후와 시아버지인 대원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황후와 대원군과의 관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은 두 권력지향적인 인물들의 욕심이 상호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갈등이었다. 먼저 황후가 대원군 못지않게 권력지향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선교사이자 육영공원의 교사였던 헐버트(H. B. Hulbert)의 경우에는 황후와 대원군을 숙적관계로 규정하고 두 사람의 고집이 국왕보다 더 세서 1872년의 무력충돌을[48] 시작으로 일본인에 의한 국모시해사건이 있은 후에야 갈등관계가 종식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특히 대원군이 황후의 양오라버니에게 위장 폭탄을 보낸 사건과[49] 임오군란 당시 황후를 모살하려고 했던 점, 황후시해사건 이후 대원군이 오랜 열망을 달성한 듯 기뻐한 사실 등을 들며 이들의 숙적관계가 짧은 기간 내에 조성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50]

또한 일본사의 연구를 위해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그리피스는 이 점에 대해 황후는 진보적이고 외국문물에 대해 개방적이어서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충돌하는 면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51] 이를테면 두 사람간의 대외정책의 기조가 다른데서 오는 갈등이 컸다는해석이다. 나아가 1902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에

---

[48] 원 저서에는 1872년의 무력충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암시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1873년 10월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고종이 친정반포를 선언하면서 대원군 계열인 洪淳穆, 姜沆, 韓啓源 등의 대신들을 처벌하고 李裕元, 朴珪壽등을 새로 임명하여 政情이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49] 헐버트는 대원군파의 폭탄이 황후의 양오라버니인 閔升鎬의 집에 전달되어 민승호의 어머니인 한씨와 민승호, 어린 세 명의 아들이 폭사한 사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를 황후의 아버지 집으로 잘못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대원군파가 일으킨 것으로 본 것은 당시의 추측일 뿐 현재까지 정확히 규명된 자료는 아니다.

[50] H.B. Hulbert,앞의 책, 333~335쪽.

[51] William E. Griffis, 앞의 책, 567쪽.

주재했던 이태리 총영사인 까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는 고종이 겪은 모든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아버지로 파악하였다. 그는 대원군과 황후가 서로 반목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벌어졌던 상대에 대한 암살기도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황후살해의 배후에 대원군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도 지목하여 언급하였다.[52]

황후와 대원군이 권력을 놓고 서로 갈등관계에 놓여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서양인들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다. 임오군란 당시 대원군이 군란의 여파로 장호원에 피신해있는 중궁전(中宮殿)의 소식도 모르는 채 강제로 중전국흘(中殿國恤)을 선언하게 했다든지[53] 정씨 성을 가진 소경이 황후의 사주를 받고 나무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대원군을 저주하다가 체포되어 처형 당한 일[54]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의 갈등관계가 그 당시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외에도 황후가 보낸 자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운현궁을 침범하여 대원군에게 화를 입히려고 했다는 설이며[55] 임오군란 당시 민겸호(閔謙鎬)가 대원군을 붙잡고 난병(亂兵)들로부터의 화를 모면하려 했으나 대원군이 냉소를 지은 채 도와주지 않았다는 설이[56] 난무하였다. 이러한 투쟁과 갈등의 내용이 정확한 사실고증을 바탕으로 퍼져나간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를 거꾸로 생각할 때 이미 그 당시 황후와 대원군 사이에 흐르는 반감과 적대적 관계가 정평이 나 있었음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갈등은 서양인들이 관찰하고 평가하였듯이 물론 권력쟁탈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황후의 입장에서는 국왕이 이미 성인이 되어 친정을 선포해도 될 시기가 지났건만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고종이 안쓰러웠을 것이다. 고종의 입장에서는 유교적 효의 윤리를 놓고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하기에는 많은 도덕적 부담이 있었다.[5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의 실정을 비난하는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를 계기로 전격적

---

[52] Carlo Rossetti, 앞의책, 1996, 86~88쪽.
[53] 尹孝定, 『風雲韓末秘史』, 교문사, 1995, 31~32쪽.
[54] 黃玹, 앞의 책, 98쪽.
[55] 黃玹, 앞의 책, 229~230쪽.
[56] 黃玹, 앞의 책, 119~120쪽.
[57] 이 부분에 대해 이배용은 앞의 논문에서 고종이 아버지에 대한 효의 도리를 놓고 갈등을 겪자 황후가 고종대신 정치일선에 나서며 대원군과 정면충돌을 해 나감으로써 두 사람사이의 방파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으로 친정을 주도해 나간 것은 고종 스스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권력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고종도 그 나름대로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렬했고 황후는 대원군의 상대적 권력의지를 보며 반사적으로 고종을 막아주고 보완해주려 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8]

그러면 대원군의 권력에의 의지는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대원군은 10년 세도가 끝난 후에도 임오군란 직후 일본의 경제침투와 개화정책으로 인한 과다한 경비지출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자 민심을 등에 업고 33일간의 재집권 기회를 가진 바 있다. 곧이어 그는 갑오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사건이 있은 직후 약 4개월간의 3차 집권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다. 대원군이 정계에 재등장한 것 자체는 그 계기가 국내 대원군 세력에 의해 추대된 결과이든 일본에 의해서든 간에 대원군의 권력을 향한 야욕이 그 정도로 컸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59] 이는 또한 고종과 황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하여금 집권세력의 갈등관계를 이용하여 조선을 분열시키려는 전술을 세우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양인이 보기에 두사람의 갈등관계를 적절히 이용한 측은 단연 일본이었다. 맥켄지 (F.A. McKenzie)는 일본이 황후가 부왕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 일본 교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훈련대를 해산시키고자 한 사실, 나아가 그녀가 친일적인 대신들을 몰아내고 모든 권력을 장악할 계획을 세운 사실 등을 알고 난 뒤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그녀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내의 일본의 새로운 조직은 무질서와 혼란만 초래할 뿐인 것으로 이해하였다.[60] 헐버트 역시 황후와 대원군의 반목을 일본 측이 적절히 이용해서 불화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 불화를 일본에 유리하도록 적용하려 하였다는 사실, 대다수의 일본인이 국모의 세력을 견제하여 더 이상 국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

[58] 이 점에 대해 黃玹도 그의 저서에서 지적하기를 황후는 총민하고 정략도 풍부하였으며 언제나 고종의 좌우를 떠나지 않고 고종이 미치지 못한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황후가 고종을 넘어서서 권력을 탐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고종의 후원자로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59] 대원군의 재집권 과정을 통한 집권야심에 관해서는 황선희,『한국근대사의 재조명』,국학자료원,2003, 25~30쪽 참조.

[60] F.A. McKenzie, 앞의 책, 47~48쪽.

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였다.[61]

당시 조선 조정은 일본이 조정에 친일관료를 심고 일본의 훈련대를 설치하며 궁중과 부중의 분리라는 명분하에 갑오내정개혁이 실시되고 있었다. 개혁의 이름으로 왕실이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조정에서는 곧 반격을 시작하였다. 즉 러시아 공사 웨베르를 통해 러시아 세력의 도움을 모색했으며 박정양(朴定陽)· 안경수(安駉壽)· 서광범(徐光範)· 이완용(李完用) · 이범진(李範晋) 등의 반일친러적인 정치집단을 생기게 하였다. 조선 조정의 이러한 움직임은 삼국간섭 이후 일본세력의 쇠퇴를 감지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자극히는 계기가 되었다.[62]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황후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63] 일본의 대 조선 진출정책에 걸림돌인 그녀를 제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곧 고종의 권력기반을 와해시키는 한 방법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시작된 국모시해사건의 배경과 진행과정에 대해 서양인들은 비교적 소상히 들어서 아는 바를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황후가 지나친 권력욕을 자제하지 못했고 국정을 농단하였으며 일본의 시책에 사사건건 맞섰으므로 시해의 변을 당했다는 일본 측의 악의적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64]

여기에는 기록물을 남긴 서양인의 다수가 미국인과 영국인인 관계로 그들의 본국정책과 결부해서 일본 측의 주장을 묵인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여 진다. 미국의 경우 대조선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 노력에 호의적이고 동정적이었으나 조선이 청이나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 후 청일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조선외교정책은 친일노선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65]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극동에서의 러시아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일본의 한반도 점

---

61 H.B. Hulbert, 앞의 책, 140~141쪽.

62 강창일, 「삼국간섭과 을미사변」『한국사』41, 국사편찬위원회, 1999, 19~22쪽.

63 일본은 실제로 황후가 국왕보다 정계의 핵심에 있으며 제반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these remarks also applied to the Queen, of whose influence over the King the Japanese have had good reason to be suspicious. She is, indeed, believed to have been in constant secret communication with the Chinese until they were driven across the frontier.– ***The Times***, 19 Mar 1895, "Japan in Korea"

64 이런 류의 글쓰기는 맥켄지를 비롯하여 헐버트, 그리피스, 뮐렌도르프 등의 서양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인다.

65 박일근, 「조선의 대외관계」『한국사』39, 국사편찬위원회,1999, 68~70쪽.

령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모든 열강이 자국의 영향력을 팽창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주요관심이 만주에 집중 되었기 때문에 한국문제는 덜 중요시하게 되었다.[66]

이처럼 각국의 열강이 조선의 중요성을 가볍게 인식하는 가운데 국모시해사건이 발생하자 서양선교사들은 조선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행한 사태에 대해 지극히 동정심을 표하는 외에 별다른 도움을 제공할 수는 없었다. 또한 이들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정치적으로 깊이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풍문대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었다. 결국 서양인의 황후를 보는 시각은 그녀가 대원군과의 권력투쟁으로 갈등의 고리를 형성해왔고 일본의 계산된 권력게임의 피해자로 권력쟁탈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고착되어왔다.

5. 맺음말

서양인들의 기록 속에서 그들의 눈에 비친 황후의 제반 면모를 거꾸로 추론해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명인으로서 비문명세계를 바라보는 그들의 굴절된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되어 있었고 총괄적인 평가를 떠나 부분적인 묘사와 왜곡된 시각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기록자의 직업에서 오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들의 출신 국가의 대 조선정책 노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류를 통해 명성황후에 대한 서양인의 시각과 평가를 살펴보는 것은 황후의 정치적 능력과 외교적 성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유효성 때문이다.

황후를 직접 관찰했던 서양인들은 황후의 개인적인 면면과 고종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주로 남겼다. 기록에 따르면 황후의 인품은 고상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자 노력핸 총명하고 지성적인 태도에 의해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병약한 아들인 순종의 뒷바라

[66] 신승권, 「러 · 일의 한반도 분할획책」『한국사』 41, 국사편찬위원회, 1999, 94~97쪽,

지를 위해 무속에 빠져든 황후의 다른 한편의 모습은 서양인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서구사회가 문명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여기는 기독교를 세계에 파급시키고자 노력하던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의 원시적 종교에 대한 맹신은 종교적 야만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들을 향한 모성애의 발현은 평범한 부녀자의 모습으로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조선인의 정신적 원형이 단군으로부터 이어지는 무속에 원류하고 있음을 볼 때 조선의 종교적 특성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서양인들은 황후가 고종과의 사이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하게 민씨일족을 중용하는 등 정치전면에 나서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황후는 국내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할 정도로 비상한 정치적인 감각과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정치인으로서 역할한 측면도 있었다. 또한 서양과의 조약체결에 열의를 보일 정도로 개국과 개방을 환영하고 친미적 입장에 있었으며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정책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고 보아 반일 친러적인 외교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점은 서양인을 통해 국제지식의 폭을 넓힐 정도의 사교성과 정치 감각, 의사표현에서 고종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 등 황후 개인의 기질적인 면과 결부되어 황후가 국정을 농단하는 것으로 비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황후의 권력은 고종의 암묵적인 허락과 후원 속에서 나올수 있었고 이 점은그녀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또한 고종의 친정의지와 개화군주로서의 역할을 상기할 때 고종 역시 권력을 농단당할 정도의 무기력한 군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황후는 높은 정치적 식견과 국제적 감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외교정책의 제안자였으며 고종을 옆에서 보좌하는 지혜로운 정치적 내조자로서의 위상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황후를 간접 체험했던 서양인들은 대원군과의 관계나 일본에 정치적 희생이 된 풍문에 반영된 간접 인상기를 주로 남겼다. 이들은 황후와 대원군 두 사람이 대내외적으로 정책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반목과 정쟁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원군의 권력에의 의지는 황후로 하여금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함으로써 보다 더 고종 전면에 나서서 고종정권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았다. 일본은 이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이용하였고 황후는 일본의 앞날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이해되어 결국 일본의 표적이 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사

건의 이면에는 무기력한 군주와 국정을 농단하는 황후, 권력욕에 집착하는 늙은 대원군상을 만들어 대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일본의 고도의 국가전술이 녹아있었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민씨척족의 중심에 서 있는 황후의 제거는 곧 고종의 권력기반 와해와도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 침략의 직접적인 시도로써 사건을 일으킨 측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적인 내막을 갚이 알 수 없었던 서양인들로서는 본 대로 느낀 대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3부 명성황후황와 항일의병운동

개항 전후 여흥 민씨 세력의 동향과 명성황후

연 갑 수*

1. 머리말
2.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3. 집권 여흥 민씨 세력의 구성과 특징
4 여흥 민씨 세력의 시기별 동향
5.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1873년 11월 대원군이 실세한 이후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할 때까지를 대상 시기로 하여 당시 집권세력인 여흥 민씨 세력의 동향을 파악할 것이다. 이 시기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나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등을 통하여 조선이 민족국가 단위의 근대적 국제질서 체제로 전환되던 시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선진문물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꾀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이 이 시기에 근대문물 도입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식민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 연구부장

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본고의 대상 시기가 한국사에서 전환기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시기 정권을 흔히 '민씨정권' 이라고도 부르며, 19세기 전반에 있었던 외척세도가 부활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물론 해당 시기의 정책이 당시대인들이 목표했던 부국강병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시기 집권세력이 충분히 역사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더라도, 과연 이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떤 기제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는지,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우선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를 검토하여 보았다. 19세기 전반의 세도 외척들과는 달리 19세기 후반의 여흥 민씨 세력은 가문의 자체적인 역량의 강화에 의한 발전과정으로서 집권한 것이 아니라 명성황후 개인의 후광과 발탁에 의해 집권하였다. 따라서 명성황후를 통해서 여흥 민씨 세력이 집권하게 된 계기와 간략한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나서 여흥 민씨 세력의 전반적인 특징과 세부 시기별 여흥 민씨 세력의 동향을 당시 정세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여흥 민씨 세력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평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정치적 급변기로서 개별 사건별로도 이미 상당히 엇갈린 평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비교적 넓은 시기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사실들에 대한 미숙한 의미전달이나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보다는 역사적 대의 속에서 평가를 시도하는 시론적 성격을 띠기로 하였다. 여러분의 질책을 기다린다.

2.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명성황후는 철종 2년 (1851) 9월 25 일 민치록(閔致祿, 1799~ 1858)의 외동딸로 경기도 여주군 근동면 섬락리에서 태어났다. 민치록은 숙종의 국구인 민유중

(閔維重)의 5대 종손이었다. 민유중의 딸인 인현왕후는 숙종 연간에 희빈 장씨와 더불어 기사환국, 갑술환국 등 서인과 남인간 환국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 만큼 서인-노론으로서는 집권의 명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여흥 민씨는 민유중 이후로도 좌참찬을 지낸 민진후(閔鎭厚) 유일로 천거되어 사헌부 장령을 지낸 민익수(閔翼洙), 문과급제 후 대사성을 지낸 민백분(閔百奮), 이조참판을 지낸 민기현(閔耆顯)으로 이어지며 대대로 사환이 끊이지 않는 명문이었다.

민치록 자신도 노론 낙론 학맥의 정통 산림인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의 제자이자 사위로서 음직으로 외직을 두루 거치고, 장악원 첨정, 선혜청 낭청 등을 지냈던 인물이었다. 그런 만큼 명성황후는 왕비로 간택될 수 있는 가문적 명망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명성황후가 민치록의 외동딸이라고는 했으나 민치록의 소생이 원래 명성황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민치록의 첫째 부인인 해주 오씨는 본래 딸 한 명을 낳았으나 그 딸은 어려서 죽었고 해주 오씨 자신도 1832년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명성황후는 민치록의 재취인 한산 이씨의 소생이었다. 한산 이씨는 1남 3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려서 죽고 셋째 딸인 명성황후만이 유일한 혈육이었다.

민치록은 그 만년에 민승호(閔升鎬, 1830~ 1874)를 양자로 삼았는데, 민승호 본가의 누이가 흥선대원군의 부인이었으니 명성황후는 이미 이때부터 흥선대원군과 직접 인연을 맺기 시작한 셈이었다 그러나 민치록 역시 명성황후 나이 8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명성황후로서는 고단한 삶의 시작이었다.

명성황후가 탄생지인 여주에서 언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명성황후가 다섯 살인 철종 6년(1855) 민치록이 선혜청 낭청 벼슬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거처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2년 뒤 영천 군수로서 부임하였다가 일 년 만에 병으로 그만두고 세상을 떠났으니 계속 서울에서 살기는어려웠을 수도 있다.

다만 고종이 지은 명성황후의 행록에 따르면 고종 2년(1865) 인현왕후의 사저였던 감고당(感古堂)에서 인현왕후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감고당으로 이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덕성여고 자리에 있던 감고당은 인현왕후가 숙종 연간에 폐서인(廢庶人)되

었을때 머물렀던 사저였다. 그 후 감고당은 중간에 청송 심씨들의 소유가 되어 심의면(沈宜冕) · 심이택(沈履澤) 부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고종 즉위 후 대원군이 사실상 이들에게서 강탈하여[1] 민승호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서 명성황후 일가가 감고당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인현왕후의 후광을 이들이 다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종 즉위 직후 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서 보면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즉위와 더불어 처음부터 명성황후를 왕비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흥선대원군은 아버지도 없고, 그 오라비가 자신의 처남인 명성황후를 고종 3년(1866) 고종의 왕비로 맞이하면서 본인의 권력기반을 더욱 다졌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원군은 1873년 고종의 친정 선언으로 실세하게 되었다. 이후 1895년 을미사변 때까지 정국의 중핵이었던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이다.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평가는 가부장제적 관념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거나 역으로 선구적인 여성의 정치 참여였다고 미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평가의 전제가 되어야 할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었다.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란 그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책임지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특히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으면서 국왕을 보좌하며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전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상이 아직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명성황후의 역할을 국왕권의 범주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명성황후는 섭정(攝政)의 지위로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왕이나 명성황후를 알현했던 신하들이나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국왕과 왕비가 함께 배석하여 외교사절을 맞아들이거나 대신들의 알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왕비의 이러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었다면 모르지만, 일상적인 행위였다고 한다면 수렴청정하던 대왕대비들이나 대

[1] 『고종실록』 고종 1년(1864) 3월 15일. 심의면이 감고당을 제멋대로 고친 것을 탄핵하는 상소가 이어지는데, 심의면의 아들 심이택이 의주부윤 당시의 부정에 대한 탄핵에 이은 이러한 공격은 이들 부자가 살고 있는 감고당을 강탈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원군보다도 훨씬 파격적으로 진전된 정치 참여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공식 기록을 보면 왕비의 존재는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대부분 국왕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2] 결국 명성황후가 특별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공개적인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섭정인지 국왕에 대한 배후의 조언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아직도 그려내기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해의 방식은 명성황후의 존재가 왕권의 위상과 상치되었는지의 여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국왕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 집안이 대대로 의리를 강구하니 황후도 어려서부터 이를 본받아서 옳고 그른것을 가리는 것이 마치 못이나 쇠를 자르듯이 날카로웠다. 예지가 타고난 천성이어서 귀신과 같았다. 어려운 때를 만나니 더욱 살뜰히 나를 도와서 내가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앉아있었고, 근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풀어주었다. 특히 외국과 교섭하는 문제에서도 綏遠政策(먼 나라를 끌어들여 가까이 하라는 정책)을 권하여 사신으로 각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국인들도 모두 감복한다고 했다. 황후가 일찍이 나에게 말한 것들이 지나고 보니 모두 그 말대로이니 황후의 통달한 지식과 遠慮, 미래에 대한 요량이 고금에 미칠 바 없이 탁월하다.[3]

비록 죽은 사람에 대한 지문이므로 칭찬 일변도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 글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명성황후의 역할을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글에서 명성황후의 정책적 판단을 고종이 따르고 있었으며 그것이 고종의 의지와 상반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의리를 강구하여 시비를 분명히 한다는 점은 대원군 집권기 정권에 참여했던 남인이나 북인들을 숙청하고 다시 노론 위주의 인사등용을 하게 된 것이 명성황후의 의지였으며, 수원정책에 의하여 일본 및 서방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

---

2 명성왕후와 국왕과의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李培鎔, 「開化期 明成皇后 閔妃의 政治的 役割」『國史館論叢』 66, 1995, 62, 67~71쪽.

3 『高宗實錄』 광무 원년 11월 22일 大行皇后誌文 御製行錄; 서영희, 「명성왕후 연구」『역사비평』 57, 2001,115쪽에서 재인용.

하게 된 것도 명성황후가 주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개항 전후의 주요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명성황후의 구도였으며, 고종은 이러한 방향을 자신의 방침으로 체화한 것이 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종과 명성황후의 의견이 갈라졌던 경우도 있다. 갑신정변 이전 김옥균 일파에 대한 고종의 신뢰는 1883년 보빙사행 이후 김옥균과 멀어진 민영익을 신뢰하였던 명성황후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김옥균 일파의 조급한 거사[갑신정변]로 인하여 그들의 반역성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고종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게 되었다. 그 이외에는 고종이나 명성황후 양측의 두드러진 견해차나 서로에 대한 거세나 폐위 시도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단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성황후가 결과적으로는 고종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동반자적 지위에서 사실상 정책의 비전을 제시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국왕은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은 어디까지나 국왕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변 국왕의 정비(正妃)였다는 점이 권력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정비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만 했다.

정비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가장 굳건히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자(世子)의 생모(生母)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 위치가 그다지 굳건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명성황후는 네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생산하였지만 모두 일찍 죽었고, 오직 둘째 아들인 순종만이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런데 자녀의 조졸(早卒)에 대한 불안함은 명성황후 생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이 첫째 부인인 해주 오씨를 통해서 낳은 딸 하나와 재취인 한산 이씨와의 사이에서 난 1남 3녀는 셋째 딸인 명성황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서 죽었다.

1874년 2월 탄생한 원자가 첫돌이 되자마자 1875년 2월에 세자로 책봉한다든지, 세자의 나이 불과 9세인 1882년에 가례를 치른다든지 하는 것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서는 정치적 무리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 정치행위를 감행히는 배경에는 세자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 중전으로서의 위치도 불안하다는 명성황후의 기반이 갖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세자의 건강을 축수하기 위하여 수많은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야사류의 기록들은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함은 피붙이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적인 예가 세자빈을 또다시 여흥 민씨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남연군 이래 순종에 이르기 까지 4대에 걸쳐서 여흥 민씨 삼방파에서 아내를 구해오는 사실상의 근친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루빨리 여흥 민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손이 번창해야만 하는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명성황후가 설령 국왕과 함께 신하들을 접견하고 일상적으로 정사에 참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위가『송정원일기』등의 공식 기록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성황후의 행위가 제도적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임을 보여준다. 즉 그는 수렴청정을 하는 대왕대비처럼 독자적인 전교(傳敎)를 반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며 언제나 국왕을 통해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왕비 자신의 독자적인 권위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로 말미암아 명성황후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영조, 정조와 같은 탕평의 인사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보다는 19세기 전반에 보였던 일반적인 외척 세도의 방식에 따라 친정 가문을 권력 기반으로 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었고, 여흥민씨 세력이 갖고 있는 노론의 명분을 새삼 강조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성적이고 학식이 높으며' '개성이 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의지' 의 여성에 의하여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파행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는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공식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일치로 인한 파행적 측면이었다. 그리고 유교적 왕권체제에서 여성 권력자들이 숙명적으로 부딪히는 한계이기도 하였다.

3. 집권 여흥 민씨 세력의 구성과 특징

19세기는 정치사적으로는 세도정치기로 불린다. 세도정치기에는 서울에 사는 소수의 유력한 가문들이 국가권력을 과점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외척들이 핵심에 있었다. 이러한 세도정치는 1860년대 대원군의 집권으로 타격을 입었다가 대원

군 실세 이후 여흥 민씨 세력에 의해 외척의 세도정치가 부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 고종대 활동하던 여흥 민씨 들은 민광훈(閔光勳, 1595~1695)의 아들들인 민시중(閔蓍重), 민정중(閔鼎重), 민유중 형제의 후손들 [삼방파(三房派)]로서 19세기 후반에는 20촌 이내의 범위에 드는 자들이 대부분이다.[4] 이러한 가문적 결집도는 안동 김씨의 김상헌(金尙憲) 후손, 김상용(金尙容) 후손이나 풍양 조씨의 조도보(趙道輔) 후손 등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여흥 민씨의 세도를 19세기 전반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세도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우선 여흥 민씨 중에는 고종 15년(1878) 10월 7일 우의정에 임명되었다가 8일 만에 죽은 민규호(閔奎鎬, 1836~1878)를 예외로 한다면 20년간 단 한 명의 대신도 배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세도가문의 핵심인물인 이른바 세도가의 위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이다.

즉 19세기 전반의 세도가는 일반적으로 국구(國舅) 즉 국왕의 장인이나 대왕대비의 오라비로서 국왕으로서도 쉽게 제어하기 어려운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여흥 민씨 집권 초기의 세도가로 지목되는 민승호, 민규호, 민겸호(閔謙鎬 1838~1882) 등은 국구가 아닌 왕비와 같은 항렬이며 연배상으로도 정계의 원로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의 반열에 들기 곤란하였던 것이었다. 더군다나 1880년대 이후 세도가로 지목되는 민영익(閔泳翊, 1860~1914), 민영환(閔泳煥, 1861~1905), 민영준(閔泳駿, 1852~1935) 등은 그나마 왕비의 조카 항렬이다. 즉 이들은 고종(1852~1919)이나 명성황후(1851~1895)에 의하여 쉽게 제어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한편 여흥 민씨의 집권 배경도 이전의 세도가문과는 일정한 정도 차이가 있다. 즉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의 경우 외척이 되었다는 점이 가문의 성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외척이 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가문적 성세가 있었고 그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외척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흥 민씨의 경우 비록 17세기에는 안동 김씨, 은진 송씨 등과 더불어 노론의 3대 명벌(名閥)로 성세가 있었으나 19세기 중반에는 침체를 보이고 있었다. 명성황후가 고종의 왕비로 간택된 것은 대원군이 여흥 민씨의 가문적 성세를

[4] 본고 제3장에서의 여흥민씨 세력에 대한 분석은 주로 糟谷憲一, 「閔氏政權上層部の構成に關する研究」『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1990을 참조하였다.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문의 명망은 있으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원군 실세 이후 여흥 민씨가 급격히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가문의 정치력이 대원군 집권기에 강화되어 자기 역량으로 뻗어나가는 측면보다는 대원군의 정치적 반격에 대비하는 국왕 · 왕비의 의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19세기 전반의 외척세도는 왕권을 제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19세기 후반 여흥 민씨의 세도는 왕권을 제압하기보다는 국왕 혹은 왕비에 의하여 총애를 받는 세력 혹은 왕권의 기반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여흥 민씨 세력이 대원군 실세 이후 순탄하게 권력을 독점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은 이들의 관계 진출 경향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가령 의정부 당상의 경우 임오군란 이전에는 전체 60~65명 정도의 인원 중 45명의 여흥 민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2년 6월 임오군란을 거치면서 여흥 민씨들의 성세가 약화되었는데 1884년 10월 갑신정변 이후 그 세력은 더욱 약화되더니 1885년 2월부터 1885년 5월까지는 민영위(閔泳緯), 민종묵(閔種默) 두 명만이 남아있었다. 이 중 민종묵의 경우 본관은 여흥이지만 삼방파 여흥 민씨들과는 원족(遠族)이고 당색도 북인으로써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여흥 민씨들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갑신정변 이후 1885년 5월까지 여흥 민씨들은 정계에서 대부분 제거된 셈이었다.

여흥 민씨 세력이 다시 의정부 당상에 대거 진출하는 것은 조선에 주둔했던 청 · 일 양군의 철병을 규정한 천진조약이 비준되고 난 1885년 6월 이후였다. 즉 50~60명 정도의 의정부 당상 중 10여 명의 여흥 민씨들이 항상적으로 의정부 당상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으로 여흥 민씨 세도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때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의미는 왕권을 제압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세도가 아닌 권력을 농단한다는 의미에서의 세도로 한정해야 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는 국왕의 입장에서 볼 경우 여흥 민씨의 정치적 의미가 시기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873년 대원군 실세 이후 1894년 갑오개혁

까지를 네 개의 작은 시기로 구분한 적이 있다.[5] 본고에서도 그 시기 구분에 따라 여흥 민씨세력의 동향과 해당 시기별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 여흥 민씨 세력의 시기별 동향

1) 제1기(1874~1879)

대원군 실세 이후 1870년대에는 주로 대원군 세력의 반격에 대항하는 정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흥 민씨 중 일부는 대원군 세력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는데 1874년 11월에 있었던 민승호 일가 폭사(暴死) 사건 등이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1882년 6월의 임오군란도 대원군 세력의 여흥 민씨 집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성격도 함께 갖는 것이었다. 여흥 민씨 세도의 중심 인물은 대원군 실세 직후 민승호였던 것이 민승호 폭사 이후 민규호로 바뀌고, 1877년 4월 이후에는 다시 민겸호로 바뀌었다. 대원군 실세 직후에는 대원군이 추진하던 중요 정책들에 대한 반동 정치가 추진되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청전(淸錢)의 혁파였다. 대원군 집권 후반기에 유통시킨 악화였던 청전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원군의 주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통을 일거에 금지시킴으로써 민심을 얻고 대원군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조처였다. 물론 청전 유통의 금지가 거의 아무런 사전 조처 없이 내려짐으로써 이후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정치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또 다른 조처는 노론의 명분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처는 남인 등을 대대적으로 등용하였던 대원군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반동이었으며, 인현왕후를 중심으로 한 노론 명분의 강조를 통한 여흥 민씨 집권의 정당화 작업이기도 하였다. 즉 희빈 장씨를 옹호했던 남인 이봉징(李鳳徵)을 추탈한다든지, 1694년 갑술환국의 명분을 다시 강조한다든지 하는 조처가 그것이었다. 이러한 노론 명분의 강화는 정권에 참여하고 있던 남인과

[5] 연갑수,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1894년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 1993.

북인들의 기반을 축소시키는 것과 궤를 함께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이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원군 집권기의 강력한 척화정책을 철회해 나갔다는 점일 것이다. 대원군의 정치기반이 되는 무장(武將)들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로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진무영(鎭撫營) 축소 등의 조처는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지는것이었다. 이러한 조처는 결국 외국에 대한 주화책으로 이어지면서 1876년 조일수호조규로 이어졌고, 1880년대에는 서방 세계와의 수교로 나아가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모든 개혁성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지방 유쟁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원군 집권기에 훼철하였던 서원을 복설하는 일은 없었으며 다만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만동묘(萬東廟)를 복설하였을 뿐이었다. 양반에게서도 군포를 걷는 호포법이나 신분적 기준보다는 경제적 기준이 좀 더 중시되는 사창제의 경우도 대원군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계승이 새로운 사회 개혁 정책의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국왕의 친정이라고 하는 왕권 강화라는 측면 이외에는 퇴행적인 집권 명분, 개혁 방향의 불분명성이 1870년대 후반 정국의 흐름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고식적인 주화정책으로 처리했던 조일수호조규의 불평등성으로 인한 무관세 교역으로 인한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었다.

2) 제2기(1880~1884)

여흥 민씨 세도 기간 중 가장 활기찬 시기라고 한다면 1880년대 초반이었다.국왕의 주도로 고종 17년(1880) 12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 것을 필두로, 청나라에는 영선사행을 파견하여 무기제조 기술 습득을 위하여 장인(匠人)들을 파견하였고, 일본에는 근대화 추진 현황을 살피기 위하여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련병대를 설치하여 일본을 통하여 서양식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나라에 상설 공관 설치 미국과의 통상조약 등 사대조공체제를 벗어나 민족국가 단위의 국제법적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조선의 대외정책은 청나라의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청

나라에는 영선사행의 기술자들을 파견할 것과는 달리 일본에는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들을 조사로 파견하여 통리기무아문의 핵심 역할을 맡긴다든지, 청나라에서 영선사행에 대한 무기제조기술 이외에 군사훈련도 제안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고, 일본식 군사훈련에 의한 교련병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청국과 일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력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청나라의 입장에서 볼 경우 이러한 조처는 조선이 청나라를 버리고 일본에 경도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882년 2월 파견된 문의관 어윤중(魚允中)을 통한 사대사행 폐지 등의 요구는 청나라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개화정책 추진기구로 설치된 통리기무아문은 의정부와 비견되는 정1품 아문으로 설치되어 총리대신은 영의정이 겸하게 하였다. 그리고 10명의 당상을 두었는데 그중 여흥 민씨는 민겸호, 민영익, 민치상 등이었다. 이는 개화정책의 추진에 무게를 실어주는 조처로서 국왕과 함께 여흥 민씨 세력이 개화정책 추진의 강력한 후원 세력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차후 실질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해나갈 포석으로 파견된 11명의 조사시찰단 중[6] 여흥 민씨는 민종묵 뿐이었다. 민종묵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세도를 펼치는 삼방파 여흥 민씨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다시 말해서 개화정책 추진기구의 장관급 인물에는 여흥 민씨들이 포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여흥 민씨 중에서는 배출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추후로도 여흥 민씨 중 실질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인물은 민영익 정도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흥 민씨 세력이 개화정책의 후원 내지는 응원세력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이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바뀌면 오히려 반개화세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기 서구 문물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시도가 아직 열매를 맺기에는 미숙하였다. 우선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의 궁핍을 어떻게 해결할

---

[6] 조사시찰단은 흔히 12명이 거론되지만 그 중 金鑌元의 경우 許東賢,「1881年 朝鮮 朝士 日本視察團圓에 관한 一硏究」『韓國史硏究』52, 1986에서 본래의 시찰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파악한바 있고, 귀국 후 통리기무아문에서의 활동양상 등이 김용원은 다른 朝士들과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아예 제외하여 11명으로 파악하였다.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정 개혁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중세적인 재정 지출을 감축하려는 시도라도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일체의 내정 개혁은 보이지 않았다.

그 위에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체제 하에서의 통상확대에 따른 국부의 유출 특히 미곡의 수출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고통을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서울 등 도시지역의 빈민들이었다. 이들은 개화정책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고, 개화정책의 후원자인 여흥 민씨 세력에게 그 화살을 돌리면서 그 대안으로서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을 희망하게 되었다. 이는 임오군란으로 구체화되었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우선 중궁전이 승하하였다고 발표하여 국상을 치름으로써 명성황후의 궐위를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리고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삼군부를 복설하였으며, 척사운동을 벌이다가 유배된 이만손 · 김평묵 등을 석방하였다. 명성황후 및 여흥 민씨 세력은 개화세력, 흥선대원군은 반개화세력이라는 도식적 인식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 정권은 청국군의 흥선대원군 납치 및 구식군대 진압으로 3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한 청국군의 파견을 장호원으로 피신한 명성황후 혹은 여흥 민씨 세력이 요청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청국군의 파병과 대원군 납치 방략 등을 주도한 것은 천진에 머물고 있었던 김윤식과 어윤중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김윤식이 정탐을 전제로 한 파병준비를 제안하였을 때 청국에서는 이미 진압을 위한 파병 방침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사태에 개입하여 조선을 청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7]

1882년 청국군에 의하여 진압된 것은 흥선대원군을 추대했던 구식군대만이 아니었다. 청국과의 사대관계에서 벗어나려던 조선 정부의 의지도 함께 좌절된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조공의 폐지, 북경주재 사신 파견 등에 대한 요청을 사죄하면서 공식 철회하였다.

임오군란 직후 개혁의 주도권은 청국의 후원을 받는 김윤식, 어윤중 일파가 쥐고 있었다. 이들은 감생청(減省廳) 등을 통하여 관제나 재정의 개혁을 추진하였

[7] 權錫奉, 「大院君의 被囚」『淸末 對朝鮮政策史硏究』, 一潮閣, 1986, 202~203쪽.

다. 그리고 민심을 안정시키고[정민지(定民志)], 인재를 등용하며[용인재(用人才)], 군제를 정비하고[정군제(整軍制)], 재정을 다스리며[이재용(理財用)], 법률제도를 변혁하고[변율제(變律制)] 통상업무를 확대한다[확상무(擴商務)]는 구상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폐지되었던 통리기무아문의 맥을 이어서 1882년 11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과 통리군국사무아문[내아문] 양대 기구가 설치되었으며 김윤식 일파는 특히 외아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여흥 민씨 세력의 퇴조와 병행하는 것이었다. 청나라에서는 여흥 민씨 중에서 민영익의 개혁성만을 평가하고, 그 이외의 여흥 민씨는 대부분 배제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여흥 민씨 세력이 반개혁, 반개화 세력으로서 이미 내외의 신망을 잃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흥 민씨의 퇴조가 국내 정치 세력간의 대립구도의 결과가 아니라 청국이라는 외세에 기인한 것임으로 인하여 여흥 민씨 세력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반청(反淸) 자주화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구심점으로서 국왕을 상정할 경우 개혁성향을 띠는 정치세력은 오히려 국왕에 맞서는 외세에 의한 원심력으로 빨려 나가고 있으며 국왕의 입장에서는 그 빈 공간을 반개혁 성향의 여흥 민씨들로 채워나가려는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국왕이 주도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1882년 말 민태호(閔台鎬)는 내무아문의 독판, 민영익은 외아문의 협판이 되었고, 민영위 · 민영목 등이 의정부 이조 등에 진출하는 등 여흥 민씨 세력이 점차 고위관직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사정책이 청국의 내정간섭에 대항하는 고종의 지주화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만은 없으며 오히려 개혁의 후퇴라는 성격이 강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 가지 측면이 흔합되어 있으면서도 개혁의 후퇴라는 성격이 좀 더 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간섭이 노골화되는 것에 가장 반발한 세력은 여흥 민씨 세력이라기보다는 김옥균 등의 친일개화파 세력이었다. 이들은 신문의 발간을 준비하거나 한성부의 도로 정비, 우편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주도하여 나갔다. 그러나 기대했던 일본의 지원이 미약해지면서 더 이상의 세력 확대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더군다나 조미통상조약으로 미국이 주한공사

를 파견한 데 대한 답방으로 보빙사로서 미국 등지를 방문하고 1884년 5월 귀국한 민영익은 김옥균 일파와 개화노선을 놓고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즉 민영익은 일본에 대한 신뢰를 접고 당분간 청국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김옥균 일파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청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결국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영익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고 있던 명성황후는 김옥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김옥균 일파에 대한 든든한 후원자는 오히려 고종이었다. 청나라가 가장 꺼리는 대일차관교섭을 김옥균에게 맡긴다든지[8] 박영효 · 윤웅렬 등과 같은 친일성향의 인물들이 양성한 군사력을 청국군의 영향력이 배제된 친군전영(親軍前營)에 배속시켜 강화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조처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물론 고종은 김옥균 일파에 대해서만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 김윤식 일파와 같은 친청적인 세력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배제하여 나가면서, 여흥 민씨 세력을 비롯한 광범위한 세력들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처럼 반청적인 기류가 감도는 국내 정국의 분위기와 베트남 문제를 둘러싼 청불전쟁의 발발에 따른 일부 조선주둔 청국군의 철병, 1884년 9월 휴가에서 돌아온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의 적극적인 지원의사 표명으로 결국 김옥균 일파는 1884년 10월 17일 정변을 단행하였다.

3) 제3기(1885~1890)

갑신정변은 불과 3일 만에 진압되었지만 그 정치적 파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우선 친청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기반이 몰락하고, 그동안 점차 약화되던 친청세력의 권력이 다시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등이 처형되거나 망명하고, 이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도태되거나 수면 아래로 잠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김윤식 일파는조선의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적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

[8] 고종은 1883년 3월 김옥균을 東南諸島開拓使兼捕鮮等事에 임명하여 대일차관교섭을 벌여나갈 수 있게 하였으나 김옥균의 일본에서의 차관교섭은 실패하였다.

겠다.

그러나 갑신정변 진압 이후 정변의 진원지였던 우정국뿐만 아니라 국왕의 개화정책 추진 기구였던 통리군국사무아문도 폐지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반청의 기류에 있었던 것은 친일개화파만이 아니었다. 즉 반청자주화는 바로 고종 자신의 의중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청나라는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왕의 정치적 측근세력으로 간주되는 여흥 민씨 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갑신정변 진압 직후부터 고종이 추진하였던 러시아와의 밀약이 1885년 5월 드러나게 되자(제1차 조러밀약사건), 청나라는 고종과 여흥 민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임오군란 진압시 납치해간 흥선대원군을 환국시켰다. 이후 청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여하기 위하여 1885년 10월 청국의 대표로서 진수당(陳樹棠)을 교체하고 원세개(袁世凱)를 파견하였다.

원세개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 전반에 관한 간섭을 강화하였는데, 그 단적인 예가 여흥 민씨 세력이 주동이 되었다고 하는 제 2차 조러밀약설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1886년 7월의 고종 폐위 음모였다. 비록 원세개의 시도는 이홍장의 지시로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세개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의 정도, 국왕권의 실추가 얼마나 심각하게 도전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갑신정변으로 청국의 간섭을 견제할 수 있는 국내 정치세력이 사실상 와해되자 고종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여흥 민씨 세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그 구체적인 동향은 청 · 일 양국군의 공동철병 규정을 담는 천진조약이 체결된 1885년 3월(비준은 그 해 4월, 철병은 6월에 이루어졌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85년 3월 병조판서가 김윤식에서 민종묵으로 교체되었고, 정국을 주도하던 또 다른 인물인 어윤중도 4월 선혜청 제조 및 의정부 당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886년 4월 김윤식, 어윤중, 신기선 등은 탄핵을 받아 정계 활동이 중지되고, 1887년 5월 김윤식은 유배되었다. 청나라와 국왕 및 여흥 민씨세력을 연결하던 민영익 마저도 고종의 제2차 조러밀약 추진 및 원세개의 고종폐위 음모 등에 휘둘리며 1887년 여름 홍콩으로 망명하였다.

친청적인 성향을 갖는 개혁 세력이 퇴조하고 적극적인 반청세력은 조러밀약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또다시 제거되고, 청나라에서 기대하였던 흥선대원군의 정치세력이 이미 몰락한 상태에서 여흥 민씨들의 진출이 더욱 현저해졌다. 1885년 5

월 이후에는 민병석, 민응식, 민치서, 민영환 등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특히 민영익의 망명 이후 민영환이 정치, 경제, 군사적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 있었다.

정치기구상으로는 갑신정변 직후 폐지된 통리군국사무아문의 계통을 이어 1885년 6월 내무부를 설치하여 군국사무와 궁내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시 추진하던 개화정책 또한 모두 내무부에서 관장 처리하게 하였다. 즉 내무부는 상리국 · 전환국 · 전운국 · 광무국 · 교환소를 지리사(地理司)에, 기기국을 공작사(工作司)에, 육영공원을 수문사(修文司)에, 종목국을 농무사(農務司)에, 연무공원을 군무사(軍務司)에 각각 분속시켜 당시 추진하던 모든 개화정책을 조정 · 관장할 수 있게 하였다.[9] 특히 대표적인 반청 자주정책인 미국 및 일본 · 유럽에 상주외교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 사안이 외교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아닌 내무부에서 관장하였다.

특이한 것은 내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1품직인 독판(督辦)의 경우 각사에 1명씩, 2품의 협판은 각사에 두 명씩 배정되었는데, 행정 실무자인 주사와 부주사도 각사에 각기 1명 , 2명씩 배정되었다는 점이다.[10] 즉 고위 당상관의 숫자가 실무급 인원과 거의 비슷하였다. 실무자의 숫자는 적고 고위 관직만 남발하고 있는 이러한 관직 운영은 조직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물론 독판과 협판에는 여흥 민씨 세력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비하여, 실무자급에는 여흥 민씨 세력이 거의 없다. 즉 국왕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 개혁의 핵심기구에서조차 실무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왕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능력이 없이 국왕권에 기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 내무부에는 조사시찰단원 출신 등 개화정책 추진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성장한 그룹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김옥균 일파나 김윤식 일파 수준의 정치력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만큼 개화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세력들이 상당수 거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유학

---

9 韓哲昊,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組織과 機能」『韓國史硏究』 90, 1995, 13쪽.

10 내무부의 관료 구성 및 인물들에 대하여는 韓哲昊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 官僚 硏究」『아시아문화』 제12호, 瀚林大學校 아시아文化硏究所, 1996 참조.

생이 파견되는 일은 없었고 새로 설치된 육영공원 등과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충원받기에는 아직 연륜이 짧았다.

결국 이 시기의 개혁추진을 뒷받침할 만한 세력은 미약하였고 그렇다고 새로운 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흥 민씨 세력의 진출이 다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의미 있는 사회개혁은 노비세습제의 폐지시도 정도에 불과할 만큼 수구성이 더해가고 있었다.

4) 제4기(1891 ~ 1894)

비록 활발하지도 못하고 비효율적이었다는 한계를 지니면서도 어렵게 추진되던 개화정책들이 그나마도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대부분 중단되었다. 이미 1888년 6월 한성주보를 폐간한 것을 시작으로, 1889년에는 종무소가 폐지되었고 농무목축시험장도 1899년 이후로는 거의 중단상태에 들어가는 등 상당히 많은 개화정책이 중단되었다. 그에 반해서 새로이 시도하는 개화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거의 파탄에 이른 국가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관(海關) 세입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해관의 세입은 경상비 및 차관상환을 제외하면 대개 개화정책에 쓰였다. 그러나 해관의 세입을 초과하는 지출의 누적으로 인해 다시 차관을 도입하고 도입된 차관에 대한 우선 변제 방식으로 인해 조선의 해관세입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1888년 이후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반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해관세입을 일반 국가재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1890년경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재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원세개는 차관공세를 취하였고 결국 1892년에는 청에서 2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재정의 정리를 위한 정부 개혁이나 사회적 개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해군 창설을 위해 1893년 1월의 총제영(總制營) 설치, 1893년 6월의 충청병영 복설과 8월의 친군서남영[전주에 설치], 11월 친군북영[함경도에 설치] 등 대대적인 군비확장을 꾀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군영의 경우에는 농민들의 결집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민에 대한 수탈의 가중으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집권세력의 양보나 절감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여흥 민씨 세력의 권력독점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왕 측근 기구인 내무부의 경우 1893~1894년경에 총 독판수의 과반수를 여흥 민씨 세력이 독차지할 정도였다.

한편 이 시기의 세도가로는 민영준이 부상하였다. 민영준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전의 세도가들과는 달리 정치적 전변에 나서기보다는 선혜청 당상, 의정부 공시당상, 관서구관 당상 등을 맡음으로써 경제적 이권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국정을 주도하는 개인으로서는 무책임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만큼 세도가의 위상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민영준이 세도가가 된다는 점은 여흥 민씨 세도 중에서도 특이한 사항이었다. 즉 그 동안의 세도가는 대체로 민유중의 후손 중에서 명성황후나 순종비와 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되었던 것인데, 민영준의 경우는 민시중의 후손이었다.

사실 민영준은 무능한 탐관오리로서 매관매직에 능란했고, 가렴주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뭇사람의 원망이 다 그에게 돌아오고 고종이나 명성황후도 점차 싫어하게 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에 경도되어 적극적으로 원세개에게 접근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한 인물이었다. 이외에도 민응식, 민영달 등이 원세개의 근친세력이 되었다.[11]

청국의 집요한 조선 속방화 정책과 조선 정부의 재정 자립도의 약회는 결국 정치세력의 사대굴종을 초래하였다. 결국 국왕을 중심으로 반청 운동의 일환으로 포진했던 여흥 민씨 세력이 1890년대 들어서면서는 오히려 청국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민영준이 있었다.

---

[11] 具仙姬『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혜안, 1999, 137~138쪽.

5. 맺음말

여흥 민씨 세력은 흥선대원군 실세 이후에는 흥선대원군의 공격으로부터 친정을 선포한 국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력기반으로 기능하였고.1880년대 초반 개화정책을 수행할 때는 개화정책의 후원세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 임오군란 · 갑신정변 이후로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려는 청국의 간섭으로부터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자주권을 지키려는기능을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왕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들이 집권한 동안 수행하였던 수구성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취했던 서원철폐, 호포법 시행 등을 유지하였으나 사색탕평보다는 노론적 입장의 명분론 강화 등을 통한 정치 참여 계층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권력의 사회적 기반을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한편 1880년대 초반 추진된 개화정책에 일정 정도 후견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화정책의 실무를 담당할 만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 이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전망과 신념을 갖는 개화정책 추진 세력이 아니라, 다른 세력을 이용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자신들은 그 성과만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개화정책의 추진을 전반적인 정치, 사회개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을 위해 중세적 통치체제의 일부라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게 되었으며 개항 이후 새로운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부담까지도 합리적 체계 없이 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반개화적 위정척사론이나 동학과 같은 민중사상이 사회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셈이 되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조러밀약 추진사건 등의 정변을 거치면서 개혁성향의 관료층이 정계에서 배제되어 나감으로써 국왕 중심의 근대적 국민국가 추진 세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그 빈자리를 다시 여흥 민씨 세력이 차지하여 나갔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 이후의 여흥 민씨 세력은 1880년대 초반 수준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채 전반적으로 청나라에 굴종되어 갔으며 특히 1890년 이후에는 자

주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굴종의 모습만 보이게 되었다. 물론 자기 개혁성은 1880년대 후반부터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880년대 후반 이후 청나라는 조선에 속방화를 강요하며 조선의 지주권을 훼손하고 경제적 종속을 획책하였으나 더 이상의 정변은 발생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다. 그러나 뒷날 광무개혁 수준의 전망이나 자기개혁성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킨 시기이기도 했다. 이들의 수구성은 결국 1894년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로 파정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거니와 이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충원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고종과 명성황후 역시 역사적 과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기 남부 지역의 을미의병투쟁과 그 성격

박 민 영*

1. 머리말
2. 경기 남부 연합의병의 활동
3. 여주지역의 의병 동향
4. 맺음말

1.머리말

여주를 비롯하여 광주, 이천, 양평 등지에서 규합된 경기 남부지역의 연합의 진은 지역성과 혈연성, 학통성 등을 특정으로 한 을미의병 가운데서도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은 을미의병의 상징적 인물인 유인석(柳麟錫)의 제천의병(堤川義兵)을 비롯하여 강원도의 춘천의병(春川義兵)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리고 을미의병 초기 거의(擧義) 당시 가장 의기가 왕성했던 원주지역의 의병과도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었다. 이 점은 경기 남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부지역의 연합의진이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라는 이름하에 단발령을 공포한 직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편성된 의진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근접해 활동하던 의진이라는 점에서 사실적으로 주목되던 점과 더불어 경기 남부지역 의병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주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1895년 말부터 1896년 6월까지 전개된 을미의병의 동향과 활동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남한산성을 점거하고 활동한 경기 남부 의병연합체인 이천수창의소와 전 사과(司果) 심상희(沈相禧) 의병장을 주장으로 한 여주의병(驪州義兵) 등 두 의진이었다.

김하락의진(金河洛義陣), 혹은 남한산성의병(南漢山城義兵)으로도 불려온 이천수창의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련 자료도 풍부하고 이에 따라 전국의 대표적인 의병 가운데 하나로 그 동안 학계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축적해 왔다. 하지만, 심상희의 여주의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도 엉성하고 산발적이어서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 두 의진은 시기에 따라 이합(離合)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본고를 작성하는 데는 의병측 기록과 일제측 정보기록 등 두 가지 종류의 자료에 힘입었다. 의병 참여자들인 김하락이 남긴 정토일록(征討日錄)과 김태원(金泰元)이 기록한『을병일기(乙兵日記)』제천의병의 관련기록인『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대략(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大略)』과『의암유선생서행대략(毅菴先生西行大略)』등은 의병측의 대표적인 자료들이며 ,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이나 부산주재 일등영사인 가토우 마수오(加藤曾雄)이 자국의 외무차관에게 올린 보고 등은 의병 탄압자인 일제측의 대표적인 자료들이다. 그밖에도 당시에 발간된 국내외 신문류나 공문류 등의 기록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입었다.

2. 경기 남부 연합의병의 활동

1) '이천수창의소' 의 결성과 활동

전기의병 시기에 제천의병, 춘천의병, 강릉의병, 진주의병 , 안동의병, 홍성의병 등과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의진 가운데 하나인 남한산성의병은 경기 남부지역의 연합적 성격을 갖고 이전에서 결성된 이천수창의소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천수창의소는 서울에 머물고 있던 김하락, 조성학(趙性學), 구연영(具然英), 김태원(金泰元), 신용희(申龍熙) 등의 우국지사들이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에 격분, 1895년 12월 31일(양력, 이하 같음) 이천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1]

이들이 거사 장소를 이천으로 선택한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천군 화포군(火抱軍) 도령장(都嶺將) 방춘식(方春植)이란 인물과 광주, 이천 일대를 세거지로 한 구연영의 연고지였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하락 등은 이천으로 내려오자마자 방춘식을 만나 그와 함께 포군 명부를 놓고 그 가운데 1백여 명을 선발, 여러 대로 나누어 의병 소모의 임무를 담당케 하였다. 즉 김하락을 비롯한 5인은 각기 이들을 분담하여 의병 모집에 착수하게 된다. 이때 구연영은 2개 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양근, 지평으로, 조성학은 역시 2개 대의 포군을 영솔하고 광주(廣州)로, 김태원은 안성으로, 신용희는 음죽(陰竹)으로 각각 떠났고, 김하락은 이현(梨峴)에 남아 총지휘의 역할을 맡았다.

이와 같은 의병 모집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관포군 1백여 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의병 시기 다른 지역 의진과 구별되는 특정 가운데 하나이며, 이천수창의소의 전력과 지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관포군들의 활동으로 주변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와 이들 의병은 단기간에 대규모 의진으로 결성될 수 있었다. 구연영은 양근, 지평에서 군사 3백 명을, 조성학은 광주 산성의 별패진포군(別牌陣包軍:) 3백여 명을, 신용희는 음죽, 죽산에서 화포군 3백여 명을 각각 모집하였고 김태원은 안성으로 들어가 이미 창의했던 민승천(閔承天)과 합세하기로 하였다. 김하락 등은 의병 모집에 나서 곧 최소한 9백여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이외에도 이천에서의 의병 봉기소식이 인근에 전해지자 용인, 안성, 포천,

[1] 柳漢喆,「金河洛義陣의 義兵活動」『한국독립운동사연구』3, 1989, 3쪽.

시흥, 수원, 안산 등지에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하여 이천에 모여들었고 이에 '이천수창의소' 의 기치 아래 대규모의 의진이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이천수창의소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성 초기부터 경기 남부지역연합의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2] 그리고 다음과 같이 편제를 갖추고 활동에 들어갔다.[3]

창의대장 : 민승천(閔承天)	
각군도지휘(各軍都指揮) : 김하락(金河洛)	제군문도총(諸軍門都總) : 조성학(趙性學)
좌군장 : 김구성(金龜性)	우군장 : 신용희(申龍熙)
선봉장: 김태원(金泰元)	중군장 :구연영(具然英)
후군장 : 박주[준]영(朴周[準]英)	소모장 : 전귀석(全貴錫)
유격장 : 김경성(金敬誠)	돌격장 : 심종만(沈鍾萬)

창의대장에 민승천이 추대된 것은 그가 이천수창의소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안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창의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경험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편제의 요직은 서울에서 이동해 온 김하락, 조성학, 구연영, 김태원, 신용희가 맡았고, 이 점이 이천수창의소의 또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다. 나머지 편제상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자료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선봉장 김태원은 서울에서, 후군장 박주영은 여주에서, 돌격장 심종만은 음죽 또는 죽산에서, 좌군장 김구성(金龜性)은 이천에서 각기 활동하던 인물로 확인된다. 결국 이천수창의소의 인적 구성은 경기 남부 각지의 의병세력이 각기 그지역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규합되어 한 곳에 집결한 것으로, 각 지역 단위의 의진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896년 1월 초순 · 중순경 결성된 것으로 짐작되는 이천수창의소는 1월 27일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고종의 애통조(哀痛詔)가 극비리에 도착함으로써 의진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었다.[4] 이 이천수창의소는 결성 직후인 1896년 1월 18일

[2] 柳漢喆, 「金河洛義陣의義兵活動」, 4쪽.

[3] 金奎聲 譯, 『金河洛征討日錄』, 19~23쪽.

[4] 哀痛語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왜적이 대궐을 침범하여 국가의 安危가 朝夕에 박두하였으니 힘을 합해 적을 토벌하라. 卿 등의 자손에게 의당 후한 녹을 내릴것이다. 金炳始를 三都倡義指軍使로 삼고 桂宮亮을 木印官으로 삼아 장차 木印을 선포키로 한다. 경기도는 殉義軍이라하고 충청도를 忠義軍이라 하고 영남은 仗義軍이라 하여 팔도에 반포하노니 팔도 각 고을은 모두 호응하여 창의하기 바란다."

백현(魄峴; 이천 널고개)에서 급파된 일본군 '수비대 보병 1백여 명' 을 상대로 첫 전투를 치러 승리하게 된다. 이때 의병들은 패주하는 적을 한때 광주군 노루목(獐項) 장터까지 추격해 무기, 군량 등 많은 전리품을 노획한 뒤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2월 12 일 일본군 수비대 '2백여 명' 이 이현(梨峴)의 의진을 재차 공격해와 결국 이천수창의소는 그 중심인물들이 사방으로 패산함으로써 해체되고 말았다.[5]

2) 남한산성 연합의진의 서울진공구상

이현전투(梨峴戰鬪)에서의 패배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진 이천수창의소의 중심인물들은 곧 김하락의 주도하에 재결성을 시도하였다. 그는 먼저 패전 직후인 2월 14 일 여주의 심상희를 찾아가 이천으로 이동하여 활동할 것을 종용, 그의 휘하 5백여 명의 의병과 함께 이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6] 그 후 사방으로 탐문하여 구연영, 신용희, 전귀석, 김태원, 민승천 등이 잔여 군사를 이끌고 이천으로 모여들어 군의 기세가 다시 높아졌다. 이때 병력 규모는 1천 8백여 명이고, 장수 · 종사관을 합하여 2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2월 25일 새롭게 짜여진 이천수창의소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7]

대장 : 박주영(朴周英)
여주대장 : 심상희(沈相禧)
군사겸도지휘(軍師兼都指揮) : 김하락(金河洛)
도소모(都召募) : 전귀석(全貴錫)
선봉장 : 김태원(金泰元)
중군장 : 구연영(具然英)

---

[5] 金奎聲 譯, 『金河洛征討日錄』, 20~23쪽.
[6] 북한에서는 남한산성의병을 '여주, 이천 반일의병대' 로 부르고, 이 의진이 "1896년 1월 15일 경기도 이천에서 김하락이 조직한 반일의병대와 1896년 2월 5일 경기도 여주에서 심상희가 조직한 반일의병대가 1896년 2월 25일 통합되어 심상희가 지휘하는 하나의 의병대로 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여주, 이천지역의 반일의병세력이 단일편제로 통합된 것으로 규정하였다.(『조선근대반일의병 운동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1988, 30쪽).
[7] 金奎聲 譯, 『金河洛征討日錄』, 23~24쪽.

좌익장 : 김구성(金龜性)
후군장 : 신용희(申龍熙)
우익장 : 김경성(金敬誠)

한편, 이 무렵 광주 일대에서는 이천수창의소 의병과는 별도로 심진원(沈鎭元)을 주장으로 하고 일어난 일단의 의병이 활동하고 있었다. 광주군수 박기인(朴基仁)도 이 무렵 의병에 의해 처단되었을 만큼 성세를 떨쳤다. 그리고 심진원의 광주의병은 이미 2월 23일 남한산성을 장악, 활동 근거지로 심았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광주의병은 참령 장기렴(張基濂)의 인솔 하에 서울에서 출동한 관군 8백 명의 공세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심진원은 이천수창의소에 서한을 보내 합세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이천수창의소 의병은 2월 28일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산성으로 들어가 심진원이 인솔하는 광주의병과 합류하게 되었다.[8]

한편, 일본의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에서도 의병의 남한산성 점거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남한산성 안의 적(의병 -필자) 수는 약 1천 6백 명이다. 그 가운데 1천여 명은 광주, 이천, 양근(양평-필자)의 포군, 즉 구 지방병이고, 그 나머지 6백 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의병장-필자)는 광주의병장 沈鏞澤, 이천의병장 朴周英[朴準英-필자), 양근의병장 李錫容등 3명이다.[9]

위의 기사로만 미루어 본다면 남한산성 안의 의병 가운데 근간이 되는 병력은 광주, 이천, 양평 지역에서 모인 포군과 광주지역의 농민이었으며, 이들 의병은 크게 광주, 이천, 양평의 세 의진이 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광주의병장으로 나타나는 심녕택(沈鏞澤)은 위의 김태원이 기술한 내용 가운데 나오는 광주의병장 심진원이(沈鎭元)과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한편, 2월 25

[8] 金泰元,『集義堂遺稿』(『韓末義兵資料集』,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08쪽. 이 자료에는 위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남한산성 입성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廣州義將 沈鎭元이 남한산성에서 격문을 보내 가로되 '금 10일 城中에 入據하였는데 참령 장기렴(張其濂)이 병사 8백 명을 거느리고 數匝으로 성을 포위하고 있다. 지형이 협소하고 우리 병사수가 적어 적이 함락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며 하루에 세 차례나 알리어 왔다. 이에 친히 精兵 수천 명을 거느리고 포위망을 뚫고 나아가 크게 싸워 물리치고 성에 들어갔다. 이때는 정월 15일(양력 2월 28일-필자 주)이었다."

[9] 『東京朝日新聞』 1896년 4월 1일자.

일 새롭게 편제된 이천수창의소 중심인물 가운데 심상희가 여주의병장의 직함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남한산성을 점거한 의병 가운데는 그가 이끄는 여주의병의 주력도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남한산성을 점거한 경기남부 연합의병의 실체는 광주, 이천, 양평, 그리고 여주 등지에서 모인 포군과 농민이 주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부대는 여주의병의 경우에는 심상희가, 광주의병은 심진원이, 이천의병은 박주영, 그리고 양근의병은 이석용(李錫容) 등이 이끌고 있었으며, 그 총대장으로 박주영이 추대되어 그가 연합의진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중 의병이 각지 연합적 형태의 의진이었다는 증좌 가운데 하나는 후술하겠지만, 성중 의진을 배반하고 관군측에 귀순한 김구성에게 보낸 격문류의 서한에서 작성 주체를 '산성유진제장(山城留陣諸將)' 으로 밝히고 있는 점이다. 즉 이들 여러 의병장의 연명 형태명의로 이 서한이 작성되었던 것이다.[10]

남한산성을 점령한 직후 의병들은 견고한 성곽과 성중에 비치되어 있는 군량과 무기 등 풍부한 군수물자를 보고 다음과 같이 탄복했다고 한다.

> 사방 산이 깎아지른 듯이 솟고 성첩이 견고하여 참으로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이라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성중을 두루 살펴보니 쌓인 곡식이 산더미 같고 食鹽이 수백 석에 달하고 무기도 구비되어 大碗器가 수십 자루, 拂狼器가 수십 자루, 天黃抱와 地字砲도 역시 수십 자루, 千步統이 수백 자루였고, 그 나머지 鳥統도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탄약 철환이 산더미 같으므로, 여러 장수들은 軍用이 넉넉하고 진 칠 곳마저 견고함을 몹시 기뻐하였다.[11]

남한산성 점령 후 의진에서는 선봉장 김태원은 남문을, 후군장 신용희는 북문을, 우익장 김경성은 서남문을, 좌익장 김구성은 동문을, 그리고 중군장 구연영은 성 중앙부를 각각 파수케 하여 수성(守城)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어 3월 5일경 관군과 첫 전투를 벌여 대포 1문을 노획하는 등 승리를 거두었다.[12]

서울의 인후인 남한산성이 항일의병의 활동근거지 가운데 한 곳으로 변모하게

---

1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 「廣州城을 포위공격한 韓兵 지휘관의 解散論達에 대한 賊魁의 반박문 송부건」 (1896년 3월 17일), 별지 1, 『賊魁의 반박문」, 225쪽.

11 金奎聲 譯, 『金河洛征討日錄』, 23쪽.

12 『東京朝日新聞』 1896년 3월 18일자.

되자, 일제는 조선 정부로 하여금 강화도에 주둔하고 있던 정예관군 3백여 명을 남한산성으로 증파하면서 성을 에워싼 채 의병을 더욱 압박하였다. 이때의 포위 상황을 보면 성 안의 의병 2천 명에 대하여 관군은 친위대와 강화병을 합해 3개 중대와 2개 소대로, 지휘소를 남문 밖 매착동(梅着洞)에다 설치하고 1개 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문 밖 불당곡(佛堂谷)과 향교리(鄕校里)에 각 1개 중대, 서문밖 석회당(石會堂)과 통문쪽 엄현리(俺峴里)에 각 1개 소대를 분산 배치하고 군수미 보급로를 차단하며 포위공격의 태세를 취하였다.[13]

성 안의 의병과 성 밖의 관군 간에는 연일 크고 작은 전투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하지만 전투 때마다 지리적으로 우세를 점한 의병측에 유리하게 전황이 돌아갔다. 관군은 기습작전을 펴기도 하고 화공(火功)을 계획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공성(攻城)작전을 벌였으나, 그때마다 의병측의 반격으로 번번이 격퇴당해 성에 접근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전투 외에도 의병과 관군의 두 진영 간에는 의진의 해산과 활동명분을 놓고 치열한 설전도 벌어졌다. 관군측에서는 관군에 대항하는 의병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시 의진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효유서(曉諭書)를 성중의 의진에 보냈다. 이에 의진에서는 오히려 명분론을 앞세워 의병을 탄압하는 관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의진을 배신하고 관군측에 합류한 좌익장 김구성 앞으로 의진의 여러 주장(主將)은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 의병의 정당성을 천명하면서 관군측의 불의를 격렬하게 비난하였던 것이다.[14]

> 김구성에게 直展한다.
>
> 이번 擧義가 첫째 왜병을 격멸하여 위로 국가의 원수를 갚고 둘째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끝낼 목적인데 어찌 감히 우리 王師, 한병지군휘관에 항거하는 것인가? 왕사가 領率한 諸公은 왜적을 토벌할 것인가, 우리 義軍을 토벌할 것인가. 만일 앞으로 왜적을 토멸하는 데 당국자와 우리 의군이 함께 토멸하여 皇輿를 호위하고 돌아가면 위로 국가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인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크나큰 소망이다. 왕사 주둔처에 나와 있는 도지휘사는 무슨 까닭으로 왜병을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1, 1971, 220쪽.

1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 「廣州城을 포위공격한 韓兵 지휘관의 解散諭達에 대한 賊魁의 반박문 송부건」(1896년 3월 17일), 별지 1, 「賊魁의 반박문」, 225쪽.

몇 번씩이나 대리하여 의군을 죽여 없애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른바 의군이라는 것은 우리 東國 전체의 근본인 백성들이라. 만에 하나라도 백성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면 국민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또 무엇으로서 국가를 위할 것인가. 우리들이 대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미 南道宣論使 主 앞에서 호소하여 이의 처분을 어떻게 되든 간에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뜻을 지휘사에게 알리니, 전방에 있는 왜적을 토멸하면 이것이야말로 왕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의군을 치면 이것은 왜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의군은 왜군을 토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의 뜻을 알리고 답한다. 不具

丙申 2월 3일(양 3/16) 辰時
山城留陣諸將 書

산성을 사이에 두고 의병과 관군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의병측에서는 서울 진공을 목표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었다.[15] 서울 진공은 실제로 많은 의진들이 표방하고 있었던 구호지만, 대개의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은 미약하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남한산성을 점거한 경기남부지역 연합의병의 경우에는 실질적 전력면에서나,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위치 면에서 볼 때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실현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16]

한편,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한 경기남부 연합의진의 서울 진공 계획은 춘천의병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주목된다.

한편, 이소응(李昭應)을 주장으로 하여 봉기한 춘천의병은 2월 초 서울 진공을 시도하다가 가평 벌업산전투에서 패퇴하고 뒤이어 2월 8일 근거지 춘천마저 함락되고 말았다. 그 가운데 일부는 태백산맥을 넘어 민용호의 강릉의진으로 합류하고, 또 다른 일부는 양평으로 내려와 한강을 건너 경기남부 연합의진과 합류함

15 柳漢喆, 「金河洛義陣의 義兵活動」, 20~21쪽.
16 『東京朝日新聞』,1896년 3월 28일, 31일자.

으로써 연합전선을 구축한 서울로 진공할 계획이었던 것이다.[17] 춘천의병의 이러한 동향은 다음과 같은 일제 정보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賊情은 여전히 굳게 지키고 있다. 식량은 1개월분이 있다고도 하고 또 10일간 정도라고도 말하는데, 모두 믿기 어려운 일이다. 춘천의 적은 廣州의 적과 연합하여 當地를 습격한다는 소문이 있는 까닭에 쉽게 해산할 모양 같지는 않다.[18]

> 춘천의 적 1천 2백 명이 양근까지 침범하였음. 금일 오후 廣津상류(이곳에서 20리)에서 적 2백 명이 도강하여 광주의 적과 합류하려 함. 한병 2백 명이 그곳으로 向發하였는데 광주의 적은 동문에서부터 3백 명이 돌진해 와서 한병을 협격하려 하므로 한병이 위험하여 대대장에게 원병을 청함에 1소대를 파견하였다함. 그래서 동문의 적은 성중으로 도망하였으므로 한병은 성 밖에서 불을 놓아 지금 교전 중에 있음. 17일 오후 7시 반.[19]

위의 기록에 의거한다면, 양평까지 도달한 1천 2백 명의 춘천의병 가운데 2백 명이 3월 17 일 양평쪽의 광진(廣律) 상류에서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려 하자 성곽을 포위하고 있던 관군 기운데 3백 명이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하였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문을 수비하던 성중의 의병 3백 명이 구원차 출병하였으며, 이에 형세가 불리해진 관군측에서는 다시 본대에 원병을 청하여 목하 양 진영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산성이 포위되어 있던 정황과 뒤이어 3월 22일에 산성이 함락된 상황으로 볼 때, 춘천의병은 성중의 의병과는 합류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은 연합전선 구축을 통해 세력을 극대화한 뒤 서울로 진공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진공 계획은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말미

---

17 북한에서 1988년에 발간된 『조선근대반일의병운동사』에서도 춘천의병이 남한산성에 거점을 둔 경기 남부 연합의진에 합류하여 공동으로 서울 진공을 구상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즉 3천여 명의 춘천의병이 1896년 3월 15일 춘천을 떠나 가평을 경유한 뒤 3월 17일 양근지역에 도달하였고, 이날 오후 광주군 광진을 건너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며, 춘천에서 남한산성까지 행군하는 도중 대오에서 이탈되던 의병들이 많아 최종적으로 1천2백여 명이 남한산성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조선근대반일의병운동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60~61쪽).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춘천의병이 실제로 성중의 경기남부 연합의진과 합류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 「廣州城을 포위공격한 韓兵 지휘관의 解散諭達에 대한 賊魁의 반박문 송부건」(1896년 3월 17일), 별지 2, 「廣州城의 賊情報告」, 225쪽.

1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 「廣州지방의 賊情報告 이첩 건」(1896년 3월 18일), 226쪽.

암아 중단되고 말았다. 의진이 와해되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다음 세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의진의 핵심인물 김하락과 김태원이 기록한 내용에는 주장 박주영의 배신으로 와해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곧 관군측에서는 비밀리에 김구성으로 하여금 박주영이 귀순하기만 하면 그를 광주유수에 임명하고, 김구성을 수원유수에 임명한다는 감언이설로 매수토록 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군에 매수된 3월 20일 저녁 전군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 회식연을 성대히 벌였고, 그의 흉계를 눈치채지 못한 의병들은 이 날 저녁 만취가 되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으며, 각 성문의 파수를 맡았던 군사들조차도 대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튿날 새벽, 이미 정해진 계획에 따라 박주영이 서문과 북문을 열자 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시에 성 안으로 몰려들게 되자 의병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때 박주영은 배신행위가 드러나 의병들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다.[20]

두 번째는 좌익장 김구성의 배신으로 박주영이 억울하게 관군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의병에게 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소응이 지은 「척회거의사실대략(斥和擧義事實大略」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러한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 이천의 박주영은 남한산성을 점령하였다. 그 부장 김귀성이 몰래 장기렴에게 붙어 내응하여 성을 넘어가 스스로 삭발하고 장기렴 군대를 끌어와 성을 함락시키니, 의병의 죽은 이가 수백 명이다 박주영은 그 主將이 되었던 까닭에 의병이 그를 의심하여 그 부자를 죽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산성 의진의) 내응사를 말함에 박주영은 기실 (내응사를) 몰랐다고 한다. 김귀성은 개화군(관군-필자 주)의 소대장이 되어 의병을 무수히 죽였다.[21]

세 번째는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의진 내부의 갈등과 분열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성이 함락되기 수일 전부터 성 안의 중심인물들 사이에는 해산론과 반대론이 대립되었는데, 주장 박주영이 해산을 반대하다가 반대파에게 살

---

[20] 金奎聲 譯, 『金河洛征討日錄』, 24~25쪽; 金泰元, 『集義堂遺稿』,16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1, 223쪽.

[21] 李昭應, 「斥和擧義事實大略」『(昭義新編』,국사편찬위원회, 1975), 259쪽.

해되었기 때문에 군심(軍心)이 흩어져 군사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관군이 서문으로 들어가 함락시켰다는 것이다.[22]

이러한 견해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 진위 여부와 실체를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로 확인할수 있는 점은 좌익장 김귀성이 관군측의 회유로 귀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박주영이 처단 내지는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하락이나 김태원 등을 비롯한 핵심인물들은 의진 와해 이후에도 오랫동안 각지를 전전하며 항전을 지속해 갔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의병해산을 주장하는 온건노선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은 비록 실함되었지만, 의병측의 저항은 매우 격렬하였다. 이 점은 당시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한 전군장 김태원(金泰元)이 남긴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적병은 일제히 산에 올랐고 서로 공격하였는데 어둠이 칠흑과 같았고 동서가 구분되지 않았다. 삼경부터 날이 밝기까지 큰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병사와 군마(士馬)의 죽은 수가 5백여 명이었고, 적병의 죽은 자가 3백 명이었다. 이에 포위망을 뚫고 동쪽으로 탈출하여 싸우며 행군하였는데, 처음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따르는 군사가 4백여 명이었다.[23]

결국 이 날 "의병측에서는 희생된 병사와 군마가 5백여 명에 달하였고, 관군도 3백여 명이 전사"하였을 정도로 쌍방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로써 의병은 남한산성을 점거한 지 한 달 만에 관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고 말았다.

수성전에서의 패배로 활동 근거지를 잃은 의병은 그간 다져온 인적 , 물적 기반도 거의 상실하였다. 패산 이후 경기남부 연합의병의 동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김하락을 대장으로 추대한 일부 의병은 새로운 항전 근거지를 찾아 남행길에 오르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의병은 안동, 경주, 영덕 일대에서 주장 김하락이 전사하는 1896년 7월까지 활발한 재기항전을 전개함으로써 전기의병 가운데서도 가장 폭넓은, 그리고 장기지속적인 항전을 벌인 대표적인 의진 가

22 『漢城新報』 1896년 3월 25일자, 『東京朝日新聞』 1896년 4월 5일자.
23 柳輿喆, 「金河洛義陣의 義兵活動」, 24쪽; 金泰元, 『集義堂遺稿』,16~17쪽.

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24]

한편, 남한산성 패전 이후 잔여 의병 가운데 일부는 영남지방으로 남하하였지만, 나머지는 각자 본래의 활동 본거지였던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일대로 흩어져 산발적인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일부 확인되거나 추정된다. 이러한 정황은 그해 5월 광주군수가 "비도(匪徒)들을 치고" 있었다는 기록과[25], 5월 9일 정부에서 각지 의병 탄압을 위한 군대를 세 길로 파견할 때에 60여 명의 관군이 광주방면으로 내려갔다는 기록 등을 통해서도 입증된다.[26] 뿐만 아니라 일제도 그들의 정보기록에서 남한산성 함락 직후 남문을 통해 피신한 의병 가운데 일부는 양평과 용인(양지) 방향으로 피신하였고, 그리하여 양근에는 춘천의병이 남하한 2월 19일 이래 1천여 명의 의병이 모였고 산성 의병의 일부가 이에 합하여 그 수가 대략 2천 명을 상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7] 또한 후술하겠지만, 여주로 돌아간 심상희 부대가 6월 초순까지 활동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1896년 6월초까지 의병활동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8]

3. 여주지역의 의병 동향

을미의병 시기에 여주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의진은, 그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심상희 의병이다. 북내면 외룡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심상희는 1908년 1월 결성된 십삼도창의군의 총대장을 맡았던 이인영(李麟榮)과함께 여주출신의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이들은, 그 실제는 분명하지 않지만, 유인석의 제천의병과 긴밀한 연계 하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

24 윤병석,『한말 의병장 열전』, 64~68쪽 참조.

25 『독립신문』, 1896년 5월 7일자.

26 『독립신문』, 1896년 5월 12일자.

27 『韓末義兵資料』, 1, 「廣州 폭도 패주한 건 및 기타 지방 폭도의 정황 보고」(3월 28일 부산주재 일등영사가 외주치관에게 올린 보고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01쪽; 『韓末義兵資料』,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1896년 3월 28일 부산주재 加藤 일등영사의 보고」, 20쪽.

28 『독립신문』, 건양 원년 6월 6일자에 "지방으로 출정한 장령들의 보고에 의하면 의성, 안동, 예천, 흥해, 청하, 영해, 제천의 의병은 다 평정되었으며 여주의 의병만이 아직 많다고 한다"라고 하여 특히 여주지역에서 의병이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종시대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0, 146쪽).

심상회가 의병을 조직하고 편제한 내용은 자료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일제측의 다음과 같은 정보 보고를 통해 그 정황은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산주재 일등영사 가토우 마수오(加藤曾雄)가, 충주 가흥(嘉興)에 있던 육군통신소의 미야케(三宅)) 대위와 부산의 이즈노(伊津野) 병참사령관에게 올린 보고에 의거하여 2월 10일자로 본국의 외무차관 하라다카시(原敬)에게 올린 정보 문건인 「여주 부근 폭도 봉기의 건 보고」에 의하면

> 이 달(2월-필자 주) 5일 경기도 여주에서 시장 날에 맞춰 폭민 수백 명이 모여여주 및 그 부근에 걸쳐서 우리 전선감시소 工夫 및 측량수 일행, 기타의 일본인을 습격하여 살상하였다. 또 여주 부근 연도변의 우리 전선을 절단하였습니다. 이미 여주의 이남에서 쓰러뜨린 전주의 수가 무려 60본에 달한다. 그 이북에 걸쳐서는 아직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욱 격심한 형편이다. 그래서 여주 부근에 주둔한 우리 수비병은 여주의 남방에서 이천, 장호원 및 가흥에 산재하는 자를 합쳐서 겨우 1개 소대의 병력이 있을 뿐이므로 6일 이후 수차례 각 방면으로부터 소수의 병력을 출동시켜 폭민과 씨워도 매번 중과부적이다.특히 종래의 조선국 각지에 있던 폭도와 달리 그 진퇴와 출동과 멈춤이 점차 戰法에 맞고 그 세력이 맹렬하여 도저히 10명 내외의 우리 병사로써 당해낼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후에 부근 지방에서 와서 가세한 폭민이 더욱 많아져 관청을 빼앗아 그곳을 근거로 하여 폭동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부근의 촌락에서도 민정이 불온하여 촌민이 모두 적 편을 들어 우리 병사의 진퇴가 극히 곤란합니다. 때문에 台封대구간의 수비병 1개 소대를 순차적으로 가흥에 파견하여 오는 12일을 기하여 여주의 폭민을 협격하기로 결정하고 그 계획 중에 있다.[29]

라고 하였다.

위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월 5일 여주 장날을 기화로 수백 명의 의병이 봉기하였으며, 이들은 전선감시소의 일본인 노동자, 측량수 일행, 기타 일본인을 처단하였고, 나아가 60여 본의 전주를 넘어뜨리는 등 격렬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여주 부근에 주둔한 일본군 1개 소대가 출동하여 6일 이후 수차 교전하였지만 의병의 기세에 눌려 그때마다 패산하고 말았다. 여주의병은 이에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관아를 장악하여 본부로 삼았다. 일반 민심도

[29] 『韓末義兵資料』 1, 61~62쪽.

의병측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탄압하는 일이 현재로서는 어려워, 영남에 주둔해 있는 1개 소대 병력을 여주 현지로 급파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여주에서 1896년 2월 5일에 봉기한 의병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보아 이 의병이 바로 전 사과 심상희가 주도한 의진으로 보인다. 이는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거의 직후에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상희 등의 상소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도 인정된다. 심상희 등은 이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거사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토적복수(討賊復讐)의 활동목표를 선명하게 밝혔다.

> 신 등이 국가화변의 날에 즉시 죽지 않고 죄를 기다리며 초야에서 한 가닥 실낱처럼 살아있는 것은 위로는 국모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곤경을 구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감히 만 번이라도 죽을 계책을 내어 나라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해서이다. 엎드려 勅敎를 읽으니 경군과 의병은 각자 그 소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니, 위대하도다, 임금의 말씀이여. 은혜로운 헤아림이 하늘과 같으니 신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나 아직 의진을 파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왜노가 심복에 가득하고 역신이 辱舌을 체결하여 당당한 도의의 나라를 더럽혔으니, 신등의 이 거사는 목숨을 다한 이후에야 말 것이다. 周가 儼狁을 토벌한 이후에야 宣王의 중흥이 있었으며, 漢이 莽賊을 멸한 연후에야 光武의 再昌이 있었은즉 적을 토벌하고 역신을 誅殺하는 것은 신등이 원컨대 이 임무를 질 것이다. 폐하께서는 먼저 哀痛詔를 전국에 내리시어 신민이 化中의 사물을 편안케 하고 왜노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의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라. 금일의 기강이 무너진 역신은 모두 喬木世臣이라, 만약 효수하여 경계하지 않는다면 宗社의 안녕과 백성의 회생이 다시는 여망이 없을 것이다 신등이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고 모인 병사를 풀어서 보내고 枕戈를 일찍부터 기다린 것은 죄인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다.[30]

한편, 심상희와 함께 이 상소에 연명한 인물은 전 도사(都事) 김현규(金玄圭), 유학(幼學) 이민수(李敏洙), 송명진(宋明鎭), 최기락(崔基洛), 이겸성(李謙性), 윤일창(尹一昌), 원숙상(元蕭常), 경단(慶煓)등이다. 이들이 심상희와 함께 여주의병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의 출신이나 면모에 대해

30 『日省錄』, 건양 원년 양력 2월 29일조; 『高宗實錄』 건양 원년 2월 29일조.

서는 거의 알려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주의병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심상희를 정점으로 하여 위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여주의병의 편제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제천의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원용석(元容錫)이 심상희가 이끈 여주의병의 후군장(3월)과 중군장(6월)을 역임하였고, 전규석(全圭錫)이 전군장(6월)을 맡고 있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여주의병도 일정한 편제를 갖고 있었음은 확인된다.[31]

여주의병은 앞의 일제 정보자료에서도 보았듯이 봉기 디음날인 2월 6일부터 일본군과 수차에 걸쳐 교전을 벌여 승리하였다. 또한 일제 침략에 동조하는 일본인을 처단하고 전신주 등 통신시설을 파괴 하였다. 또한 2월 9일에는 여주의병의 동향을 정찰하기 위해 현지로 파견된 기구치(菊池) 군조 일행 9명이 행방불명되었고, 일제도 이들이 의병에 의해 처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32] 이어 2월 11일 부산 이즈노(伊津野) 병참사령관이 가외카미(川上) 병참총감에게 보낸 전보에 의하면

> 여주 부근의 폭민이 더욱 증가하여 몹시 창궐하다. 전선을 파괴하여 그 피해가 수십 리에 걸쳐 있어 지금의 수비병으로서는 격퇴하기 어려워 이곳 수비대 제1중대를 가흥에 파견키로 하였다.[33]

라고 하여 , 여주의병이 더욱 기세를 올리고 활동이 격화되고 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파견된 다나카(田中) 대위가 이끄는 중대는 2월 17일 여주에 도착하여 즉시 의병 탄압에 동원될 예정이었지만 통신이 불통인 관계로 아직 출동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충주 이북의 전신은 거의 불통되었기 때문에 일제로서는 통신선 복구를 최대의 급무로 삼았다.[34]

이 무렵 여주 인근의 이천과 곤지암 일대에도 의병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의병

---

3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 1971, 407 · 504 · 506쪽.

32 『韓末義兵資料』 1, 「여주 부근 폭도의 건 속보」(2월 13일 부산주재 일등영사 加藤曾雄이 외무차관 原敬에게 올린 보고서), 62~63쪽.

33 『韓末義兵資料』 1, 「여주 부근 폭도의 건 속보」(2월 16일 부산주재 일등영사 加藤曾雄이 외무차관 原敬에게 올린 보고서), 65쪽.

34 『韓末義兵資料』 1, 65쪽.

의 실체도 여주의 심상회 의병의 일파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월 12일 곤지암을 출발해 이천으로 향하던 우체부가 의병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천과 곤지암에서 출동한 일제 군경과 교전을 벌였다. 그리고 이천과 장호원 간에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일제는 이에 우편선로의 확보를 급무로 설정하고 요시가와(吉川) 소위가 인솔하는 일본군 수비대는 장호원으로 가 우편선로를 확보한 뒤 다나카 대위의 귀대를 기다렸다가 의병의 근거지가 되어 있던 여주를 공격할 예정이었다.[35]

여주의병의 주요 공격목표 가운데 하나가 인접해 있던 충주 가흥(嘉興)이었다. 이곳에는 세곡미(稅穀米)가 보관되던 가흥창(嘉興倉)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 수비대도 이곳에 주둔하는 등 경제적 군사적 요지였던 셈이었다. 유인석의 제천의병이 가흥 공략을 집요하게 시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리하여 심상희의 여주의병이 가흥을 공격하기 위해 가흥 근처의 목계(牧溪)에 주둔해 있던 중미야케(三宅)와 다나카(田中) 대위가 이끌던 가흥 일본군 수비대와 2월 20일 격전을 벌였다. 교전이 끝난 뒤 일부 의병은 충주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제천 방향으로 분산 이동하였다고 한다.[36]

한편, 여주의병은 인근 원주 일대까지도 활동영역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에는 이인영이 이구채(李球彩) 등과 독자적인 단위 의진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 의진은 또한 유인석의 제천의병 및 심상희의 여주의병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여주의병 또한 원주 제천의병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원주지방으로 진출한 상황에 대해서는 2월 중순경 심상희가 원주에 들어가 원주의병장 이인영의 중군인 한진국(韓鎭國)을 죽이고 이인영이 도주하

35 『駐韓韓日本公使館記錄』 8, 국사편찬위원회, 번역본, 1988, 「여주 부근의 폭도 정황 보고」(1896. 2. 16), 213쪽.

36 『韓末義兵資料』, 「충주 부근 폭도 정황 보고」(2월 23일 부산주재 일등영사가 외무차관에게 올린 보고문), 68쪽, 4). 이때의 상황은 의병측의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 즉 심상회 등이 장호원의 일본군 병참소를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휘하 의병을 거느리고 원주로 들어가 있다가 남쪽 청풍으로 내려왔으며, 이때 충주에 주둔해 있던 제천의병을 원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제천의병과 함께 일시 제천에 주둔하였다는 것이다.(『獨立運動史資料集』1, 「下沙安公乙未昌義事實大略」, 392쪽).

게 되자, 그 휘하 의병을 통솔하였다고 한다.[37]

심상희가 이끈 여주의병은 이후 2월 25일 박주영을 총대장으로 한 이천수창의소가 편제될 때 여기에 합류하여 28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이래 3월 22일 성이 실함될 때까지 경기 남부지역 연합의병부대와 함께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측의 정보기록에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여주지역의 의병 동향에 대해 보고한 문건이 나타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38]

심상희가 경기 남부지역 연합의병부대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로 이군한 직후에 일본군과 관군이 연합하여 여주읍으로 들어와 여주 일대를 초토화하였다. 즉 이천주재 일본군수비병 20명과 관군 140명이 2월 24일 여주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던 것이다. 이때 장호원 남쪽으로 퇴각한 여주의병의 일부는 24일 오후 장호원 공격을 개시하여 25일 자정까지 그곳을 수비하던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는 것이다.[39]

한편, 남한산성이 실함된 직후 심상희는 여주의병을 거느리고 여주를 거쳐 원주, 제천 일대로 한때 피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성 함락 당시 적군이 심상희 의병을 추격하여 여주군 상동(床洞)까지 왔다는 기록과[40]이 3월 27일 여주의병의 후군장 원용석(元容錫)이 심상희 의병장의 의사로 제천의병의 통제 지휘를 받고자 하루를 머물다 갔다는 기록[41]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심상희가 거느리던 여주의병은 남한산성 실함 후인 4월 초에 여주에

---

37 이에 제천의병의 安承禹가 다음과 같이 심상희를 비난하였다고 한다. "내가 심상희 의진을 대우하여 재물이나 양곡을 청하는대로 주면서 함께 일을 치르기로 약속하였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옳지 않은 처사를 하는가. 심지어는 禹冀鼎이 (충주에 주둔한 제천의병의) 구원을 청할 때에 우리 군사 더러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까지 비방하고 지금 또 우리를 따르는 군사를 이렇게 학대하니 이는 참소하는 말들이 그를 격동케 하는 것이 아닌가." 『獨立運動史資料集』1, 「下沙安公乙未昌義事實大略」, 393~394쪽). 이로써 미루어 모병, 활동과정에서 의진 상호간에는 다소간의 알력이 노정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8 단 金河洛이나 金泰元이 남긴 기록에 2월 28일 남한산성을 장악한 이후 3월 22일 성이 실함될 때까지 남한산성의 활동 동정에서 심상희 관련 기록이 일체 나타나지 않는 점은 특이하다.

39 『한말의병자료』1, 「여주 부근 폭도의 정황 後報」(2월 29일 부산주재 일등영사가 외무차관에게 올린 보고문), 73쪽. 『한말의병자료』 3, 「조선국 각지 폭도 봉기에 관한 각 영사의 보고(를) 재외 각 公使에게 통보한 건(1896년」, 7쪽 전자인 「여주 부근 폭도의 정황 後報에서는 이때 동원된 관군을 140명으로 기록하고, 후자인 「조선국 각지 봉기에 관한 각 영사의 보고(를) 재외 각 公便에게 통보한 건」 (1896) 년에는 전자와 동일한 근거에 따라서 관군 40명이 동원된 것으로 각각 다르게 기술하였다. 후자의 기록이 전자에 근거하여 이기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수치가 맞고 후자는 이기과정에서 脫字된 것으로 보인다.

40 『獨立運動史資料集』1, 「下沙安公乙未昌義事實大略」, 409쪽.

41 『獨立運動史資料集』1, 「下沙安公乙未昌義事實大略」, 407쪽.

서부터 원주 어둔(魚屯)에 도달한 경군(京軍)을 맞아 상왕사(霜旺寺)의 좌우편에 매복하고 있던 중 적의 공격을 맞아 배수진의 결사항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열수(洌水)까지 적을 추격하여 타격을 가하였다.[42]

그 후 심상희는 전력이 고갈되고 관군의 추격을 받으면서 고단한 형세에 놓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경군이 이천 방면으로 내려와 심상희의 여주의병을 압박하게 되자[43], 심상희는 경군의 탄압을 피해 음죽(陰竹)으로 이동하여 이정참(李亭站)을 쳐서 함락시키고 나아가 문덕현(文德峴)을 공격하여 복속시켰으며, 장호원으로 진군하면서 제천의병의 신지수(申芝秀)로 하여금 가흥을 공격토록 요청하는 등 최후의 항전을 전개하였다.[44]

6월에 들어서 경군의 압박과 연전으로 인한 전력 고갈로 인해 심상희 의병은 더 이상 항전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1896년 6월 초 의진을 드디어 해산하기에 이르렀다.[45] 그리고 여주의병의 일부는 원용석(元容錫)과 전규석(全圭錫)의 인솔 하에 서행중인 제천의병에 합류하게 된다.

---

42 『獨立運動史資料集』1, 「下沙安公乙未昌義事實大略」, 415쪽.

43 『대한매일신보』 1896년 6월 11일자에 "이 달 4일 군부에서 중대장 신우균씨와 권숙진씨가 군병 140명을 거느리고 남한으로 다녀서 이천 비도들을 치러 간다더라." 라고 하여 경군의 이천 진출 사실을 보도하였다. 한편, 심상희는 제천의진에 경군의 이천 진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獨立運動史資料集』1, 「下沙安公乙未昌義事實大略」, 439쪽).

44 『獨立運動史資料集』1, 「下沙安公乙未昌義事實大略」, 459쪽.

45 심상희가 의병을 해산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지만 6월 11일 여주의병의 중군장 元容錫이 제천 의병장 유인석에게 解陣사실을 알렸던 점으로 미루어 이보다 조금 앞선 6월 초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서행길에 올라 원주 강천에 도착한 뒤 여주로 들어가려던 중 해진 소식을 듣게 된 유인석은 다음날 심상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 解陣행위를 심하게 비난하였다. "의거를 일으킨 지 반년이 되도록 기록할 만한 공적이 없었으니, 오직 마땅히 더욱 힘써서 순치의 형세를 이루어 더럽고 요망한 것을 씻어 없애고, 始終을 한결같이 해야 할 것인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貴陣에서는 이미 군사를 해산하였다고 하니 과연 무슨 생각에서인지 알지 못 하겠도다. 바다 밖 오랑캐를 이미 몰아냈다고 보는가. 나라를 파는 역적을 이미 다 죽였다고 보는가. 宗社가 이미 편안하고 소기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서 서로 싸울 수가 없으니 차라리 제 몸이나 보전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가. 어찌해서 먼저는 강하다가 뒤에는 연약해지고 시작은 있고서 종말이 없는가. 이는 이웃나라가 들을까 두려운 일이로다. 다행히 다시 생각을 돌이켜서 흩어진 군사를 모으고 거듭 軍容을 정비해서 앞뒤에서 서로 적을 몰아친다면 삼가 마땅히 말채찍을 잡고 거기에 따를 것이다." (『獨立運動史資料集』1, 「下沙安公乙未昌義事實大略」, 502~503쪽).

4. 맺음말

이상에서 경기 남부지역의 을미의병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의병 시기에 제천의병, 춘천의병, 강릉의병, 진주의병, 안동의병, 홍성의병 등과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의진가운데 하나인 남한산성의병은 경기 남부지역의 연합적 성격을 갖고 이천에서 결성된 이천수창의소의 결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천수창의소는 서울에 머물고 있던 김하락, 조성학, 구연영, 김태원, 신용희 등의 우국지사들이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에 격분, 1895년 12월 31일 이천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이천수창의소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성 초기부터 경기 남부지역 연합의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의진은 1896년 2월 12일 이현 전투에서 패퇴한 뒤 일시 해산하게 되고, 이천수창의소의 중심인물들은 곧 김하락의 주도하에 재결성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2월 25일 2천여 명의 병력으로 이천수창의소를 다시 결성할 수 있었다.

이때 심진원이 인솔하는 광주의병은 이미 2월 23일 남한산성을 장악, 활동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천수창의소는 2월 28일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산성 안으로 들어가 광주의병과 합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남한산성을 점거한 경기남부 연합의병의 실제는 광주, 이천, 양평 , 그리고 여주 등지에서 모인 포군과 농민이 주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부대는 여주의병의 경우에는 심상희가, 광주의병은 심진원이, 이천의병은 박주영 , 그리고 양근의병은 이석용(李錫容) 등이 이끌고 있었으며 그 총대장으로 박주영이 추대되어 그가 연합의진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다.

남한산성을 장악한 경기 남부 연합의병의 활동목표는 서울 진공에 있었다. 서울 진공은 실제로 많은 의진들이 표방하고 있었던 구호지만, 대개의 경우 그 실현 기능성은 미약하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남한산성을 점거한 경기남부지역 연합의병의 경우에는 실질적 전력면에서나,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위치 면에서 볼 때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실현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경기남부 연합의진의 이러한 서울 진공계획은 춘천의병의 동향과 관

련해서도 주목된다. 춘천 함락 후 양평까지 도달한 1천 2백 명의 춘천의병 가운데 2백 명이 3월 17일 양평쪽의 광진(廣津) 상류에서 한강 동강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연합전선 구축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한 뒤 서울로 진공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을미의병 시기에 여주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의진은 심상희 의병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의병을 조직하고 편제한 내용은 자료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2월 5일 여주 장날을 기화로 수백 명의 주민을 모아 거의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희의 여주의병은 곧 전선감시소의 일본인 노동자 등 일인들을 처단하였고, 나아가 60여 본의 전주를 넘어뜨려 통신을 두절시키는 등의 항일전을 펼쳤다.

한편, 심상희와 함께 의병을 일으킨 인물은 그와 함께 연명 상소한 전 도사 김현규, 유학 이민수, 송명진, 최기락, 이겸성, 윤일창, 원숙상, 경단 등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출신이나 면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여주의병의 편제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제천의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원용석이 심상희가 이끈 여주의병의 후군장(3월)과 중군장(6월)을 역임하였고, 전규석이 전군장(6월)을 맡고 있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여주의병도 일정한 편제를 갖고 있었음은 확인된다.

심상희가 이끈 여주의병은 이후 2월 25일 이천수창의소가 편제될 때 여기에 합류하여 28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이래 3월 22일 성이 실함될 때까지 경기남부지역 연합의병부대와 함께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측의 정보기록에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여주지역의 의병 동향에 대해 보고한 문건이 나타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

그 뒤 남한산성이 실함된 직후 심상희는 여주의병을 거느리고 여주를 거쳐 원주, 제천 일대로 한때 피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성 함락 당시 적군이 심상희 의병을 추격하여 여주군 상동(床洞)까지 왔다는 기록과, 3월 27일 여주의병의 후군장 원용석이 심상회 의병장의 의사로 제천의병의 통제 지휘를 받고자 하루를 머물다 갔다는 기록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 심상희는 전력이 고갈되고 관군의 추격을 받으면서 고단한 형세에 놓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경군이 이천 방면으로 내려와 심상희의 여주의병을 압박하게 되자, 심상희는 더 이상 항전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1896년 6월 초 드디어 의진을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여흥 민씨 척족과 한말 의병운동

오 영 섭*

1. 고종치세기 여흥민씨척족의 활동상
2. 전기의병운동과 여흥민씨척족
3. 후기의병운동과 여흥민씨척족
4. 여흥민씨척족의 의병운동에 나타난 특징

1. 고종치세기 여흥민씨척족의 활동상

고종 친정 (1873) 후부터 을미사변(1895) 전까지 최대의 정치세력은 여흥민씨 척족이었다. 이들은 여흥민씨 가문의 삼방파(三房派) 인사들과 출계를 통해 삼방파로 편입된 소수의 입암공파(立岩公派〕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론계 벌열가문에 속하는 삼방파는 호조참의를 지낸 민광훈(閔光勳, 1595~1659)의세 아들인 민시중(閔著重) . 민정중(閔鼎重) . 민유중(閔維重)의 후손들을 말한다.[1] 이 중 민정중과 민유중은 17세기 중 · 후반 유명한 척화관료이자 노론영수인 송시열(宋時烈)의 제자들이었다. 동시에 이들은 당쟁이 치열했던 18세기에 집권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1 『驪興閔氏族譜』(1889); 『驪興閔氏世系譜』(973).

노론의 중추 인사를 맡은 민진후(閔鎭厚) · 민진원(閔鎭遠) · 민진장(閔鎭長)·민진주(閔鎭周)의 부친들이었다.

여흥민씨 삼방파는 조선사회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알려진 통혼정책과 통치이념을 적절히 활용하였다.[2] 삼방파는 화양서원과 대보단의 건립과 운영을 통하여 주자학적 민족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삼았고, 민유중의 여식인 인현왕후를 숙종비로 들여보냄으로써 국혼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삼방파는 조선사회에서 모든 당파들이 지향한 국혼물실(國婚勿失)의 방책을 통하여 꾸준히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흥선대 원군과 민치록(閔致祿)이 김정희(金正喜)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인연을 배경으로 1867년에 명성황후를 고종의 배필로 들여보냈다. 이어 고종 친정과 함께 정계의 지배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1882년에 명성황후의 지원으로 세도재상 민태호(閔台鎬)의 여식을 왕세자빈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민씨척족은 세대를 이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개항기에 민씨척족은 대외개방정책과 부국강병정책을 추구한 명성황후를 정점으로 상호간 견제와 협력을 되풀이하는 세도집단을 형성하였다.[3] 이들은 19세기 전반의 안동김씨 · 풍양조씨 척족정권과 19세기 중반의 대원군정권과 달리 국왕의 전제권과 인시권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도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들은 민치상(閔致庠) . 민승호(閔升鎬)· 민규호(閔奎鎬) · 민겸호(閔謙鎬) · 민태호(閔台鎬) · 민영상(閔泳商) · 민영위(閔泳緯) · 민영규(閔泳奎) · 민영익(閔泳翊) · 민영준[민영휘(閔泳徽)] · 민영환(閔泳煥)· 민영소(閔泳韶) · 민영달(閔泳達) · 민영목(閔泳목) · 민응식(閔應植) · 민형식(閔炯植) · 민종식(閔宗植) · 민병석(閔丙奭) · 민종묵(閔種默)등이었다. 이중 민승호 · 민태호 · 민영익 · 민영환 · 민영준 · 민영소 · 민응식 등이 세도가로서 권력을

---

[2] 황현 저, 김종익 옮김,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13~20쪽.

[3] 개항 후부터 대한제국기 까지 여흥민씨 척족정권과 그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姜聖祚, 「桂庭 閔泳煥 硏究」『關東史學』2, 1984; 槽谷憲一, 「閔氏政權上層部の構成に關する考察」『朝鮮史硏究論文集』27, 1990; 연갑수,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 1993; 李培鎔, 「開化期明成皇后 閔妃의 政治的 役割」『國史館論叢』66, 1995; 槽谷憲一, 「민씨정권 중추부의 특질」『東北亞』7, 동북아문화연구원, 1998; 韓哲昊 「閔氏寂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組織과 機能」『韓國史硏究』90, 1995; 서영희, 「명성왕후 재평가」 『역사비평』60, 2002; Michael Finch, *Min Yong-hwan : A Political Biography*,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노대환, 「閔泳翊의 삶과 정치활동」『韓國思想史學』18, 2002.

행사하였다. 이들은 고종의 암묵적인 승인과 명성황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지기반이 미약한 고종과 명성황후의 전위부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1880년대에 동도서기노선을 추구한 민씨척족은 자주외교정책과 개화자강정책을 전담하는 신설 개혁기구와 막강한 실권을 지닌 권부(權府)의 상층부를 독점하였다. 이를테면, 통리기무아문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 통리군국사무아문 · 내무부 · 선혜청 · 친군영 · 통위영 · 평양감사 등의 영향력 있는 고위직을 민씨척족이 돌아가면서 차지했던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가문의 위세를 배경으로 수령직까지도 우선적으로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민씨로서 상투만 틀면 과거에 급제하였다거나 요직으로부터 수령 · 방백에 이르기까지 좋은 자리는 모두 민씨척족과 그들의 인척들이 차지했다는 세평이 나돌았다.[4] 나아가 그들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근대화정책에 필요한 거액의 내탕금과 기밀비를 다투어 마련해 바치는 충성경쟁을 벌였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근대화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농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토지세와 토지관련 부가세에서 거둬들였고, 명성황후의 후원을 등에 업고 가문의 영달과 개인의 사리를 추구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시대의 진운과 조선의 장래와 인민의 기대를 저버린 부패성 보수정권으로 변해갔다.

1894년 6월 갑오경장으로 민씨척족정권이 일시 붕괴되었다. 갑오경장 직후 친일개화파-대원군 연립정권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유폐시키고 만인의 지탄을 받은 민씨척족과 그들의 협력자들을 정계에서 몰아냈다.[5] 이에 민씨척족은 유배지나 피난지에서 자신들의 존립기반인 고종과 명성황후의 군주권 회복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군국기무처에서 대원군파와 친일개화파가 개혁노선을 둘러싸고 대립을 벌이는 호기를 이용하여 권한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6] 이때 민영환 · 민영소 · 민영달 · 민형식 · 민응식 등이 고종의 측근 심상훈(沈相薰) · 이재순(李載純) 등과 함께 비밀리에 궁중을 드나들며 고종 부처의 왕권회복운동을 도왔다.[7] 또 일부 인사들이 밀사와 밀지를 삼남(三南)에 내려 보내 동학농민군 지도

---

4 黃玹 저, 金澹 역, 『梅泉野錄』, 敎文社, 1994, 95~96쪽, 一鄕暗, 「半島天地를 흔들린 閔氏三家의 今昔」, 『別乾坤』 제8권 제15호, 1933.5.

5 『高宗實錄』, 고종 31년(1894) 6월 22~27일.

6 柳永益, 「大阮君과 淸日戰爭」 『東學農民峰起와 甲午更張』, 一潮閣, 1998, 43~52쪽.

7 『日本外交文書』 27-2, 문서번호 496, 146~147쪽; 『大阪每日新聞』 1895년 1월 10일.

부와의 연대활동을 추구했던 고종과 명성황후의 항일활동을 암중에서 도왔다.[8] 이런 활동을 통하여 민씨척족은 갑오경장 이전의 세력을 회복할 발판을 확보해 나갔다.

1895년 봄 고종과 명성황후는 심국간섭으로 일본세력이 위축되고 러시아가 부상하는 유리한 국제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친일개화파를 축출하고 정권을 되찾았다.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는 대외적으로 친구미 성향의 정동파를 앞세워 친아거일(親俄巨日)정책을 취하였고, 대내적으로 궁내부를 통하여 왕권강화정책을 펼쳤다. 민씨척족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전위세력으로서 다시 정계에 등장하여 궁내부와 내각으로 진출하였다. 그러자 일본세력은 자기세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을미사변 후 정계에서 거세당한 민씨척족의 일부 인사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의병봉기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민영환 · 민영준 · 민영기(閔泳綺) . 민병성(閔丙星〕 등이 황후시해를 복수하고 친일내각을 타도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재야의 위정척사 세력과 연대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9] 이들의 의병활동 덕분에 서울에서 고종의 아관파천이 성사될 수 있는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아관파천 후 근왕성향의 궁내부세력과 정동파내각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의정부와 중추원의 체제개편을 통한 정치체제의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을 벌였다. 이는 고종의 전제군주권의 강화 내지 축소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이 와중에서 갑오경장 이전의 인적 기반을 그대로 지니고 있던 민씨척족은 명성황후와 세자빈 민씨의 후광에 힘입어 다시금 중앙정계의 다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어 1897년 10월에 구본신참의 동도서기론을 개혁모토로 내세워 출범한 대한제국이 명성황후의 국장을 거행하고 을미사변 관련자를 유배형에 처한 다음, 1899년 말부터 존호의 봉정과 홍릉(洪陵)의 수축 등 명성황후 추존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갔다. 이로써 민씨척족은 갑오경장 이전의 위세를 되찾았다. 이때부터 고종퇴위 (1907) 이전까지 민씨척족의 민치헌(閔致憲) · 민상호(閔商鎬) · 민영휘(閔泳徽) · 민영환(閔泳煥) · 민영소(閔泳韶) · 민영규(閔泳奎) · 민영달(閔泳達) · 민

---

8 『大阪每日新聞』 1894년 10월 5일, 12월 19일;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16일, 5월 11일.

9 吳瑛燮, 「甲午更張 中 高宗의 國權恢復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국학자료원, 1999, 제4장 제1절.

영돈(閔泳敦) · 민영린(閔泳璘) · 민영찬(閔泳瓚) · 민영철(閔泳喆) · 민형식(閔炯植) · 민경식(閔景植) · 민병석(閔丙奭) · 민병한(閔丙漢) · 민종묵(閔種默) 등이 정계에서 활약하였다.

명성황후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대한제국기에 민씨척족은 내각세력과 궁내부 세력으로 분화되었다. 양지는 고종과 구미공사관을 둘러싸고 이합집산을 거듭했는데, 전자가 의정부와 중추원의 체제개편을 통하여 고종의 황제권을 다소 축소하려 했던 반면, 후자는 절대군주제의 충실한 지지자로서 고종의 황권강화정책과 국권수호외교를 적극 보좌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자를 대표하는 민영준과 민영환이 각기 1898년과 1902년에 대한청년애국회사건과 개혁당사건에 연루되어 피체되었고, 후자를 대표하는 민경식과 민영철은 고종의 지시대로 중립화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갔다.[10] 이들은 러일전쟁 전후 대외인식과 중립화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자주성향의 근왕파와 유신파, 친구미 성향의 근왕파와 유신파, 친일적 매국파로 분화되어 나갔다. 고종퇴위 이전 시점에서 근왕파와 유신파로 분류되는 인사들 중에서 민영휘(閔泳徽) · 민영소(閔泳韶) · 민영달(閔泳達) · 민영철(閔泳喆) · 민형식(閔炯植) · 민경식(閔景植) · 민형식(閔炯植) · 민병한(閔丙漢) 등이 의병운동을 후원하였다.

그러면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민씨척족은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는가? 이제까지 민씨척족과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들은 고종 친정에서 갑오경장 이전까지 민씨척족정권과 명성황후의 정치활동, 1895년의 명성황후 시해사건, 대한제국기 명성황후 추존사업 등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을미사변 후부터 아관파천기까지 민씨척족의 의병운동, 아관파천 후부터 러일전쟁 전까지 민씨척족의 정치활동, 러일전쟁 후부터 고종퇴위 직후까지 민씨척족의 의병운동과 계몽운동, 고종퇴위 후부터 일제시대까지 민씨척족의 독립운동과 친일활통, 그리고 일제시대 민씨척족의 변신과정과 소멸과정에 대한 연구[11]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개항 전부터 고종퇴위 전까지 조선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장악한 최대의 정치세력이 바로 민씨척족이었음을 감안할 때 위와같은 연구상의 공백은 우리에게

---

[10] 玄光浩, 『大韓帝國의 對外政策』, 신서원, 2002; 서영희, 「러일전쟁기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시국대응」 『역사와 현실』 25, 1997.

[11] 민영휘 가문의 1910~1920년대 은행경영에 대해서는, 박현, 「韓末 · 日帝下한국인 자본가의 銀行설립과 경영－韓一銀行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36~75쪽.

상당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한국근대사에서 민씨척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일제침략기에 민씨척족은 인적 · 물적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친일이든 반일이든 그들의 행보는 당대 역사의 전개에 일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니기 마련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민씨척족은 그 일부가 친일파로 전락했던 반면,[12] 다른 일부는 민족운동가가 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처음에는 민족운동에 종사하다가 나중에는 친일활동으로 돌아서기도 하였다. 이때 국망 전후기에 일부 민씨척족들이 항일성향에 따라 을미사변 후부터 고종퇴위 직후까지 의병활동과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리고 일제시대에 고종망명운동과 항일독립운동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갑오경장기와 대한제국 멸망기에 민씨척족의 일부 인시들이 전개한 여러 가지 항일운동 가운데 의병운동만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한다.[13] 당시 의병운동에 가담한 일부 민씨척족의 정치적 · 사상적 이해관계나 일제통치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양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차후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민씨척족이 조선국가와 고종중심의 정치체제를 수호하고자 항일활동을 벌인 구체적 실상과 거기에 나타난 특징을 천착하는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

[12] 민씨척족 중에 한일병합 직후 일제의 작위를 받은 자는 민병석[閔丙奭, 습작: 민홍기(閔弘基)] · 민상호[閔商鎬, 습작: 민영욱(閔泳頊)], 민영규(閔泳奎) · 민영기(閔泳綺) · 민영소(閔泳韶) · 민영린(閔泳璘) · 민영휘[閔泳徽, 습작: 민형식(閔衡植)],민종묵[閔種默, 습작: 민철훈(閔哲勳)], 민형식(閔炯植) 등이다. 이중 민영규 · 민영기 · 민영휘 · 민형식 · 민형식 등이 의병운동에 가담하였다. 『親日反民族行爲者名單』, 光復會, 2002, 109~114 · 128쪽.

[13] 고종의 충신들이 의병운동에 어떻게 간여했는가를 다룬 연구로는,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 · 社會的 背景」『國史館論叢』 65, 1995; 李相燦, 「1896년 義兵運動의 政治的 性格」,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吳瑛燮,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的 性格-密旨를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吳瑛燮, 「甲午更張 中 高宗의 王權恢復運動」; 오영섭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2000; 吳瑛燮, 「韓末 13道昌義大將 李麟榮의 生涯와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2002; 오영섭, 「한말의병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軍史』 52, 2004; 오영섭, 「한말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東方學志』 128, 2004,

2. 전기의병운동과 여흥민씨척족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강제점령으로 고종 부처가 감금되자 항일성향이 강한 위정척사파 유림들이 창의를 모색하였다. 이듬해 명성황후가 일본의 대륙낭인들에게 무참히 시해당한 을미사변(1895. 8)과 한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급진적인 단발령 (1895. 11) 이 발포되자 재야인민들의 항일열기가 거세게 분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명성황후의 최대 지원세력인 민씨척족의 일부 인사들과 그들의 수하들이 재야의 항일열기를 적극 수렴하여 황후시해를 복수하고 친일내각을 타도하고자 은밀히 반일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창의활동은 단발령 이전 회덕의 문석봉(文錫鳳)의병, 단발령 이후 제천의 유인석(柳麟錫)의병, 강릉의 민용호(閔龍鎬)의병, 춘천의 이소응(李昭應)의병의 결성을 가능케 하였다. 그런데 이들 의병진들은 단발령 후 경기남부에서 활동한 김하락(金河洛)의병과 함께 전기의병운동(1895~ 1896)[14]을 대표하는 의병진이었다.

민씨척족의 의병운동은 을미사변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단발령 이전과 이후에 전국의 관찰부와 요해처에서 민씨척족이 후원하거나 지도한 의진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런데 단발령 이후에 봉기한 민용호의병 · 유인석의병 · 이소응의병은 을미사변 이후부터 이미 결성되기 시작한 의진들이었다. 당시 의병운동에 관여한 민씨척족은 민영환 · 민치헌 · 민영기 · 민병성 · 민영준 등 고위직을 지낸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의진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보다는 인척이나 측근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거리에서 의진을 후원하고 지도하는 은밀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명성황후의 총애를 배경으로 민영준과 세도권을 다투었던 민씨척족의

---

[14] 전기의병운동의 기점을 金祥起의 주장(「朝鮮末 甲午義兵戰爭의 展開와 性格」『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46~53쪽)에 따라 1894년 가을 안동에서 봉기하여 서울진격을 목표로 곤지암까지 진출한 徐相轍의병으로 잡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僞동학군' 이라고 불린 서상철의병을 대원군계열의 동학의병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95년 9월 중순에 거의한 문석봉의병을 전기의병운동의 기점으로 잡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서상철의병의 동학성에 대해서는 申榮祐,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對應」,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具玩會, 「堤川義兵에 관한 文獻資料의 檢討」「朝鮮史硏究」 5, 1996.

실력자 민영환과 한말 최초의 항일의병장 문석봉과의 연대관계를 살펴보겠다.[15] 을미사변 후 민영환은 김병시(金炳始) · 송근수(宋近洙) · 신응조(申應朝) · 이용직(李容直) · 송도순(宋道淳) 등 당대의 고관들과 함께 "무용이 뛰어나고 호협한 기질을 지닌" 충청인 문석봉(1851~1896)을 후원하여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민영환 등이 의병장감으로 낙점한 문석봉은 1893년 명성황후가 특설한 별시무과에 급제한 다음 경복궁오위장에 특채되어 금궁을 호위한 경력을 가진 명성황후의 지지자였다.[16] 관력에 나타난 것처럼 문석봉의 친민(親閔) 경력은 그가 민씨척족과 그들의 인척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의병운동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을미사변 후 서울로 올라간 문석봉은 민영환 · 신응조 · 송근수 · 김병시 등 고관들을 찾아가 거병의사를 나타냈다. 그러자 이들은 문석봉에게 창의를 적극 권하였다. 이때 민영환은 "日月明明天地定位 忠義炳炳 君臣義分"이란 시를 지어주며 각별히 격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환도를 건네주었다.[17] 이는 자신을 대신하여 국모시해를 복수해달라는 간곡한 당부일 뿐더러 필요한 경우에 모든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목적의 의미를 띄고 있었다. 아울러 민씨척족의 중진 민영달(민영환과 8촌간)의 후광으로 이조참판까지 역임한 송도순[18]이 향촌에서 문석봉에게 군량과 군자금을 제공하였다. 또한 신응조와 송근수는 "1895년 9월 국모시해의 원수를 갚고자 거의를 모의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개화파의 모함을 받았다"고 하는데,[19] 이들 양인과 문석봉과의 내응관계는 당시 일본 신문과 서양선교사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20] 이 중 신응조는 관동의병장 민용호의 양부 민치우(閔致禹)와 매부간인 신상현(申常顯)의 아들로서 혼인을 통하여 민씨척족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었다.[21] 그는 이종

---

15 문석봉과 근왕 관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 · 社會的 背景」, 230~235쪽. 문석봉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金祥起 「舊韓末 文錫鳳의 儒城義兵」『歷史學報』134 · 135합집, 1992.

16 文永井, 「家狀」『義山遺稿』4.

17 文永井, 「家狀」.

18 송도순의 외조부인 閔達鏞은 유인석의병의 핵심인사로서 민씨척족의 후원을 받은 李春永의 부친 李載信과 처남-매부 사이였고, 그 손자 가운데 閔亨植은 화서학파의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19 金河洛, 「金河洛陣中日記」『독립운동사자료집』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584쪽.

20 『東京朝日新聞』「忠淸道賊魁」, 1896년 1월 3일;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역, 『뮈텔주교일기』1, 1986, 433~434쪽

21 『驪興閔氏世系譜』4, 1973, 640~641쪽.

사촌인 흥선대원군보다 모친 쪽의 명성황후를 추종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처럼 민씨척족계 인사들의 정신적 · 물질적 원을 등에 업고 1895년 9월 18일 유성에서 창의한 문석봉은 10월 21일 진잠(鎭岑)을 점거했으나 11월 28일 공주전투에서 패배하였다.[22]

표 1 전기의병운동에 관련된 민씨척족

성명	생몰	派 · 父	관력(1896년 이전)	관력(1896년 이후)	활약상 및 참고사항
閔東植	1856 ~ 1931	三房派 閔泳道 (통덕랑)	의금부도사		민용호의병의 수성장 겸 관동의병장, 민용호의 참모 조부 민상호는 민병성의 從증조
閔內星	1870 ~ 1925	三房派 閔廷植 (의금부도사)	문과, 승정원준서	회덕군수, 비서원승, 봉상사부제조, 내장원경, 규장각부제학	閔鼎重의 손자 閔安洙의 封祀孫 민용호의병 후원
閔泳綺	1858 ~ 1926	三房派 閔峻鎬 (지중추부사)	무과, 운봉현감, 충청도어사, 충주목사, 상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군부협판, 충주관찰사, 경무사, 육군부장, 궁내부협판, 군부대신, 탁지부대신	유인석의병 후원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 일제 작위수령(남작), 일진회의 함방청원지지, 이왕직장관
閔泳煥	1861 ~ 1905	三房派 閔泰鎬 (진사, 참봉)	문과, 성균관대사성, 이조참판, 내무부협판, 병조판서, 내무부독판	赴俄특명전권공사,군부대신, 내부대신, 육군부장, 표훈원총재, 시종무관장, 참정대신	문석봉의병 후원 을사조약 후 자결
閔泳駿 (閔泳徽)	1852 ~ 1935	三房派(出) 閔斗鎬 (立岩公派 춘천유수)	문과, 평안도관찰사, 선혜청제조, 독판내무부사, 친군경리사, 統衛使	장예원경, 궁내부특진관, 충추원의장, 육군부장, 서종원경, 표훈원총재	이소응의병 후원 휘문학교 설립, 일제작위 수령(자작)
閔龍鎬 (閔璔鎬?)	1869 ~ 1922	(出)三房派 閔致謙(생부) 閔致禹(양부)		비서원비서숭	관동의병장 민병성의 從증조
閔致憲	1844 ~ 1903	三房派 閔泰顯 (司果)	문과, 의주부윤, 사간원대사간, 이조참판	중추원의관, 의정부찬정, 회계원경, 궁내부특진관	춘생문사건직후 李世鎭의거의 활동에 沈相薰과 함께 참여
閔恒植	1855 ~ 1922	三房派 閔泳學 (진주목사)	明陵참봉, 문과, 홍문관수찬	掌禮院相禮, 규장각직각, 비서원승	민용호의병 후원, 민용호의 숙부

출처 : 『高宗實錄』;『독립운동사료집 : 의병항쟁사료집(1-3)』; 『湖西義兵事蹟』; 『毅菴集』;『昭

[22] 文永井, 「家狀」『義山遺稿』 4. 그런데 문석봉의병에 뒤이어 1895년 11월초 압록강변 강계에서 일어난 金利彦의병에 京城人 白진사가 의진의 전략과 전술을 지도하는 참모를 맡은 것으로 보아 김이언의병도 중앙세력과 재야세력의 연대에 의해 결성된 연합의병으로 보인다. 윤병석 직해, 『백범일지』, 집문당, 1995, 58~59쪽.

義新編』;『義山遺稿』;『復齋集』;『驪興閔氏世系譜 4』 1973;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 · 社會的 背景」『國史館論叢』 65, 1995; 『義兵運動의 政治的 性格』,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오영섭 「을미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2000.

다음, 단발령 이전에 이미 전국적 의병봉기가 준비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민치헌(閔致憲)의 의병운동 참여를 알아보겠다. 전 사과(司果) 이세진(李世鎭)은 춘생문사건 (1895. 10. 12) 발발 이전에 정교(鄭喬)를 찾아가 고종의 밀지(密旨)를 내보이며 향리로 내려가 거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가 있었다. 이후 이세진은 청양군수 정인희(鄭寅羲)와 함께 군사를 모아 공주로 진격했으나 개화파 군대에 의해 패산하고 말았다.[23] 이후 정인희는 청양 · 공주지역을 무대로 계속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세진(李世鎭)은 고종의 이종사촌이자 측근 중의 측근인 전 탁지부대신 심상훈(沈相薰), 민씨척족의 민치헌 등과 1895년 10월경에 이른바 오도창의소(五道倡義所)란 전국적 의병조직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을미사변 후 제천으로 내려가 거의를 모색 중이던 심상훈이 뮈텔주교에게 보낸 편지에는 "왕비 시해를 복수하기 위해 낙향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내용과 함께 오도창의소의 취지와 지도부 편제가 담긴 문건이 동봉되어 있었다.[24] 여기에는 도통장(都統長)에 이세진 · 임건수(林建洙), 대장 최여신(崔呂信) · 오기영(吳起永), 경기도 통장 전 참판 민치헌(閔致憲), 대장 김지영(金志榮), 충청도통장 전 대신 심상훈, 대장 윤상희(尹相羲), 경상도통장 전 참봉 유도석(柳道奭), 대장 곽종석(郭鍾錫), 전라도통장 전 교리 고정주(高鼎柱), 대장 강일회(姜一會), 강원도통장 전 도사 이규삼(李圭三) 대장 김한소(金漢韶) 등으로 나와 있었다.[25] 이를 보면, 민치헌은 심상훈과 이세진 등 고종의 측근인사들이 전국적 의병조직을 조직하려 했을 때에 거기에 일정하게 간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전기의병운동을 대표하는 제천의 유인석의병과 민씨척족과의 관계

23 鄭喬, 『大韓季年史』 上, 국사편찬위원회, 1971, 127~128쪽.
24 『뮈텔주교일기』 1, 418쪽.
25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문서, 문서번호 1895-41. 이 문건의 열람 · 복사를 허용해 주신 한국교회사 연구소에 감사드린다.

를 알아보겠다.[26] 유인석의병의 최대 후원자이면서 충주 · 제천 · 영월 일대의 재지세력인 청송심씨 온양공파의 심상훈을 제외할 경우, 유인석의병에 가담한 민씨척족과 그들의 조력자로는 민영기 · 이춘영(李春永) · 민의식(閔義植) 등을 꼽을 수 있다. 화서학파 유생들과 함께 유인석의병의 지도부를 이룬 민씨척족은 동도서기론을 수용한 개화성향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구미적 외교노선을 추종한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위정 척사시장에 철저한 화서학파 유생들과 사상적 갈등을 보였다. 이런 사상적 갈등문제는 급기야 군권장악 문제로 비화되어 상호간에 화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의병장 유인석이 "평소 여주 삼전(三田)의 여흥민씨를 하늘같이 숭앙했다"[27]는 선봉장 김백선(金伯善)을 양반모독죄로 전격 처형한 것도 기왕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신분갈등 때문이라기보다는 군권장악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화서학파와 민씨척족간의 권력투쟁 때문이었다.

을미사변 후 향제가 있는 여주로 낙향한 전 충주목사 민영기는 유인석의병의 결성과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민영기는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고 칭하고 제천유림 이병선(李炳善)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화서학파 유생들과 연대하였다. 당시 민영기는 자기 가문의 여러 명의 재상이나 수령['수재((數宰)']들과 함께 화서학파와 연대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다.[28] 이를테면 갑오경장 이전에 요직을 역임한 민영위(閔泳緯) · 민응식(閔應植) · 민병승(閔丙承) · 민병석(閔丙奭) · 민형식(閔炯植) 등 민영기 가계의 일부 인사들과 그들의 수하들이 민영기와 함께 이면에서 유인석의병을 후원했던 것이다. 유인석의병이 출범한 후 민영기는 군자금 2천냥을 희사하고 자신은 서울로 올라가 고종에게 거의의 전말을 아뢰었다. 이에 고종은 '柳某爲國忠心 嘉尙嘉尙"이라며 유인석의 창의를 격려하였고, 다시 민영기는 제천으로 내려가 이를 유인석에게 알렸다.[29] 이로써 민영기는 항

---

[26] 유인석의병과 민씨척족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영섭,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제3장 제1절 참조.

[27] 李正奎, 「從義錄」, 38쪽.

[28] 元容正, 「卜隱」『昭義新編』, 중앙문화출판사, 1981, 44쪽. "於是 內而稱董承之受昭者 通其刺 節度使閔泳綺 有寵於王者也 國母見弑後 見先生門下諸名士 毅然守舊 從堤川人 李炳善 與其家數宰 通刺於徐敬菴 欲相結納 敬菴以未有前 而且其名籤 用倭紙 離不受."

[29] 柳麟錫, 『毅菴集』 55, 年譜, 1896년 조. 민영기가 원주에서 유인석 의병에게 일시 체포되자 유인석은 "민영기가 그때 의병을 돕고 있었는데 수하들이 모르고 그랬다"고 말했다. 『毅菴集』, 권37, 「(호적쇄)言」, 36a-b.

일성향의 민씨척족의 총괄대리인으로서 유인석의병을 원거리에서 지도하고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군사활동에 필요한 ·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씨척족의 인척인 덕수이씨 이춘영은 유인석의병에 직접 가담하여 활동한 민씨척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30] 의병장 유인석보다 실권이 많은 중군장직을 맡은 이춘영은 민씨척족을 비롯한 중앙세력과 화서학파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인석의병의 실질적 무력기반인 김백선이 거느린 지평포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인물이었다. 요컨대 유인석의병의 최대 실권자로서 거의 초기부터 충주성전투까지 의진운영을 전담한 이춘영은 민씨척족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이춘영의 조부 이재신(李載信)은 민명혁(閔命爀)의 차남인 민치문(閔致文)의 사위였다. 그런데 민치문의 후손들 가운데 갑오경장 이전에 실직 당상관을 지낸 인물만 하더라도 민달용(閔達鏞)) · 민영직(閔泳稷) · 민영목(閔泳穆) · 민영일(閔永一) · 민영숙(閔泳肅) · 민정식(閔正植) · 민형식(閔亨植) · 민후식(閔厚植) 등 여러 명이었다.[31] 아울러 심이섭(沈理燮) · 홍병진(洪秉晉) · 이근영(李根永) · 이승휘(李承徽) · 정언조(鄭彦朝) 등 민씨척족과 중앙고관들의 대리인들과 함께 유인석의병의 종사로 참여한 민의식(閔義植)은 이춘영의 외조카였다.[32] 이춘영의 부친 이민화(李敏和)는 1873년 사망할 때에 어린 이춘영의 장래를 인척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였다. 그래서 을미사변 후에 민씨척족의 모 대신이 이춘영을 그의 향장(鄕庄)으로 불러 선대의 부탁을 받았다며 적극 밀어주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하였다.[33]

이들 외에도 유인석의병의 중요 인사들 중에는 민씨척족과 깊은 인연을 지닌 이들이 많았다. 의병장 유인석은 명성황후와 9촌간인 과천군수 민종호(閔宗鎬)의 여식을 초취로 맞이하여 수년간 서울에서 민씨척족과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군사(軍師)와 소모장을 맡은 서상렬(徐相烈)은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민태호(閔台鎬)의 문하에 드나들며 민씨척족들과 친교를 맺었고, 이춘영에 이어 중군장을

30 이춘영의 가계에 대해서는 『德水李氏世譜』, 禮編 下, 春塘公派, 1931, 399~400쪽.
31 『驪興閔氏世系譜』 4, 612~620, 648~649쪽.
32 김백선이 받들어 모신 민의식은 화서학파 유생들과 교분이 있는 전 강원감사 閔亨植과 4촌간이었다.
33 李正奎, 「六義士列傳」 『독립운동사자료집』 1, 180쪽.

맡은 이경기(李敬器)는 갑오경장 직전에 민영준의 전장이 있는 삼화군에서 수령을 지낸 것으로 보아 민영준의 겸인에 해당하는 인물로 보이며, 이경기에 이어 중군장을 맡은 안승우(安承禹)는 민씨척족의 인척집단인 덕수이씨들과 겹혼을 맺은 사이이며, 일반 유림들에 대한 접대 임무를 총섭한 사객(司客) 장충식(張忠植)은 민영환의 문객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 전군장 정운경(鄭雲慶)은 1907년 홍주의병의 종사 이용규(李容珪)의 동생에게 장가들어 민종식(閔宗植)과 동서간이며, 이필희(李弼熙) · 이필근(李弼根) · 원용정(元容正) · 원용석(元容錫) 등은 대대로 여주에 세거하며 민씨척족정권을 외곽에서 호위하는 역할을 맡은 무반가문 출신들이었다.[34]

다음으로 강릉일대에서 활약한 민용호의병과 민씨척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겠다.[35] 민용호는 경남 산청의 궁반 출신에서 삼방파의 민치우(閔致禹)에게 출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36]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분개하여 여주로 내려간 민용호는 민병성(閔丙星)의 동림서옥(東林書屋)에 머물다가 1895년 9월 16일 항일격문을 청심루(淸心樓)에 내걸고 의병창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호응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민용호는 단발령 직후에 여주에서 창의한 다음 원주를 거쳐 강릉으로 이동하다가 1896년 1월 17일에 의병장에 올랐다. 이후 민용호는 관동지역을 무대로 의병활동을 벌였다.[37] 그런데 손자뻘인 민병성의 가숙에서 식객생활을 하던 궁색한 처지의 민용호가 여주를 출발하자마자 거액의 군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보면, 민용호는 여주의 민씨척족이 다액의 군자금을 주어서 관동지역으로 보낸 의병장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민용호와 같이 창의한 목천사람 이병채(李秉埰)와 호서 무장(茂長)사람 송형순(宋炯淳)은 민용호처럼 민씨척족의 문객이나 겸인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보인다.[38]

민용호가 남긴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에 의하면, 여흥민씨 민경혁(閔景

---

[34]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270~271쪽.

[35]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 · 社會的 背景』, 268~270쪽.

[36] 민용호가 생부 閔致謙의 장자인 閔璟鎬인가 아닌가, 또 閔致禹에게 입양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등 민용호의 신상내력이 상당히 불분명한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李相燦, 「1896년 의병장 閔龍鎬의 實體」『奎章閣』 20,1997.

[37] 민용호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朴敏泳, 「閔龍鎬의 江陵義兵 抗戰에 대한 연구」『한국민족운동사 연구』 5, 1991.

[38] 閔龍鎬 저, 李泰吉 · 閔驪植 역, 『國譯 復齋集』, 昭文出版印刷社, 1988, 172~180쪽.

嬅)의 후손들인 민항식(閔恒植) · 민동식(閔東植) · 민충식(閔忠植) · 민병성(閔丙星) · 민병태(閔丙台) 등이 민용호의병을 후원하였다. 따라서 유인석의병이 민씨척족 중에서 민명혁(閔命嬅)계의 지원을 받은 의병이라면, 민용호의병은 민경혁계가 전폭 후원한 의진임을 알 수 있다. 민용호의병에 직접 참가하여 수성장 · 군량감 겸 핵심참모 역할을 수행한 민동식과 유인석의병을 이탈하여 잠시 몸을 의탁한 민의식(閔義植)을 제외할 경우,[39] 여타 인사들은 민용호에게 군자금과 의병전략을 제공하고, 서울정세를 수시로 전달하고, 그리고 의병해산을 적극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용호의병을 이면에서 지도하고 후원하였다. 특히, 민정중(閔鼎重)의 손자 민안수(閔安洙)의 봉사손으로서 민씨척족 내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민병성은 1892년 명성황후의 배려로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특전을 입어 가계 내에서 유일하게 문과에 오른 인물일 뿐 아니라 여주 심상희(沈相熙)의병의 선봉장 이겸성(李謙成)이 그를 원세개(袁世凱) 휘하의 운량관으로 알고 있었을 만큼 재력이 상당했던 인물이었다.[40] 민병성이 1896년 2월 7일 민용호에게 배자와 겨울옷을 인편으로 보내 거의를 격려했는데, 이때 민용호는 그것들을 군중에 두루 보인 다음에 입었다.[41] 이는 민용호의 의병장으로서의 권위와 정통성이 여주의 민씨척족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상징하는 에피소드였다.

그런데 유인석의병이 민씨척족과 그들의 인척들의 후원을 받은 민씨척족계의 병이라면, 민용호의병은 흥선대원군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대원군계 의병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첫째, 의병장 민용호가 거의 초기의 모병단계부터 유인석의병과 심한 대립과 갈등을 보였고,[42] 둘째 민용호가 거의 초기에 의병장으로 모시려고 했으나 신병으로 사양한 바가 있는 홍재구(洪在龜)는 화서학파 내에서 친민(親閔) 성향의 유인석과 달리 친대원군 성향을 보인 인물로 유명하며,[43] 셋째, 홍재구가 민용호를 대신하여 포고문과 격문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 최중봉(崔中奉)을 보내 민용호의진을 돕게 하였으며,[44] 넷째, 1896년 여름 건봉사 승려 창기가 "원산항의 일본군을 공격하자"는 민용호의 비밀편지를 들고 운현궁으로

39 『國譯 復齋集』, 224, 232, 245, 279, 291, 323쪽.
40 『國譯 復齋集』, 357~358쪽.
41 『國譯 復齋集』, 223쪽.
42 李正奎, 「從義錄」『독립운동사자료집』 1, 20~21쪽.
43 『國譯 復齋集』, 179~180쪽;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114~ 118쪽.
44 『國譯 復齋集』, 155~166, 247쪽.

가다가 순검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은 사실[45] 등을 두루 감안할 때에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요컨대 한말의병운동 당시에 중앙의 근왕관료들이 서로 적대관계일 경우에 그들의 후원을 받는 재야의병장들도 대립을 보이곤 했는데, 을미의병운동 때에 친민계 유인석의병과 친대원군계의 민용호의병의 갈등은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민씨척족의 실력자 민영준과 춘천의 이소응의병과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개항 전 남인세와 노론세가 균형을 이룬 춘천에 1884년에 병대(兵隊)가 1888년에 유수부가 설치되면서부터 노론계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1880년대 후반 이후 민씨척족의 최대 실력자로 부상한 민영준의 부친 민두호(閔斗鎬)가 춘천유수로 부임하여 고종의 파천에 대비한 이궁을 건립하고 친위군대인 친군진어영을 설치한 다음부터 춘천은 민두호 · 민영준 부자의 보장지가 되었다.[46] 이로써 "춘천은 민족(閔族)의 소굴로서 춘천 인민 중에는 민족(閔族)의 가신이 많았고 이들이 의병을 창도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47]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춘천의병과 민영준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유인석의병이 고종의 측근 심상훈과 민씨척족의 중진 민영기의 후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소응의병은 친로파의 거두 이범진(李範晉)과 민씨척족의 거두 민영준의 후원을받았다.[48] 크게 보아 이소응의병의 지도부는 전주이씨 경창군파의 4촌간인 이소응 · 이진응(李晉應) · 이만응(李晩應:) · 이경응(李景應) 등 화서학파의 유림세력과 남세창(南世昌) · 오규영(吳奎泳) · 최만순(崔萬淳) · 정인회(鄭寅會) · 성익현(成益鉉) · 황강이(黃江伊) 등 춘천부내 전직관료들과 토착세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전자가 이범진과 연대했던 반면, 후자는 민영준과 연대하여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자의 중간에는 춘천부내의 여흥민씨로서

---

45 『독립신문』 1896년 8월 18일자.

46 吳瑛燮, 「春川離宮攷」, 『아시아문화』 1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47 菊池謙讓, 『朝鮮王國』 東京:民友社, 1986, 532쪽. 이선근은 "춘천지방 의병의 배후에는 閔泳駿 같은 거물이 멀리 앉아서 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풍설이 들렸다"고 하였다. 李瑄根, 『韓國獨立運動史』, 尙文院, 1956, 178~179쪽.

48 일본공사관측은 단발령 직전까지 춘천의 향제에 머물다가 상경한 민영준이 이범진의 권유를 거부하고 춘천의병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親露派 李範晉 등의 陰謀에 관한 報告」, 143쪽 (지난 11일자 事變顚末 보고 후의 상황), 146~147쪽.

화서학파의 일원인 민영문(閔泳文) · 민영대(閔泳大)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49]

민영준의 의병운동에 가담한 인사들 가운데 춘천부내 사인(士人)들을 이끈 정인회는 민영환의 후원을 받은 문석봉의 '동지인(同志人)' 이었다.[50] 따라서 문석봉처럼 정인회도 서울에서 민씨척족의 문하에서 문객을 했던 경력을 지닌 인사로 파악된다. 강한 애국성향을 보여준 전 초관 성익현은 민두호가 육성한 춘천진어영의 해산군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 통솔한 개화군인이었다.[51] 춘천유수부의 퇴노(退奴)출신의 황강이는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중군장에 해당하는 '의병집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포군모집을 빌미로 군물(軍物)탈취와 공전(公錢) 약탈에 주력하고 개화순검 2인을 붙잡아 살해한 죄로 1898년 1월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모처로부터 긴급한 청을 받은" 춘천관찰사 권웅선은 법부의 지령을 무시하고 황강이를 은밀히 석방하였다. 이를 보면 황강이는 민영준 등 고위층의 후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52]

3. 후기의병운동과 여흥민씨척족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의 체결과 6월 일제의 황무지개척권요구는 한국민들의 항일열기를 고조시켰다. 대한제국이 일제로부터 시정개선의 지도를 받을 것을 규정한 한일의정서와 한국의 영토를 강제로 점유하려는 황무지개척권요구는 일제의 대한침략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따라서 1904년 여름부터 한국민들은 대대적으로 일제의 한국침략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한일병합 전까지 중앙과 지방에서 상소운동 · 의병운동 · 계몽운동 · 외교청원운동 ·황제파천운동 · 자결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한국민이 가

---

49 오영섭, 「춘천지역의 을미의병운동」『북한강유역의 유학사상』,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제4장.

50 文永井, 「家狀」『義山遺稿』4.

51 金泳河, 「忠義」『壽春誌』, 1954; 『李景應義兵實記』, 6쪽; 『國譯 復齋集』, 310쪽.

52 『司法稟報』 2, 亞細亞文化社, 1988, 430~431쪽; 『제국신문』, 1898년 10월 8일자; 『독립신문』 1899년 4월 8일자. 또한 민영준의 후원으로 출세하여 원주지역 연안김씨의 지도급 인사로 부상한 전 판서 金世基가 민영준의 의병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까지 李正奎의 「從義錄」에 의거하여 김세기는 단발령 직후 화서학파 유생들의 거의요청을 거부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근자에 발굴된 자료를 보면 김세기는 고종의 측근 심상훈과 함께 (음)1895년 12월자 창의통문을 춘천지역에 보내 의병봉기를 촉구하고 있었다.. 『江原日報』 2003년 8월 15일자.

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의병운동이었다.

1904년 여름부터 1909년 9월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 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의병장들이 일정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을 이변에서 지도하고 후원한 고종의 신하들도 일정 지역의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의병활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고종의 신하로서 민씨척족 이외의 인사들 가운데 이인영(李麟榮) · 허위(許蔿) · 이회영(李會榮)은 경기도지역, 심상훈 · 김현준(金賢峻)은 호좌지역과 경상도지역, 원우상(元禹常) · 원용상(元用常)은 호좌지역, 이유인(李裕寅) · 정환덕(鄭煥悳) · 이소영(李紹榮)은 경북지역, 한규설(韓圭卨))은 경상도와 평안도지역, 강석호(姜錫鎬) · 이용태(李容泰)는 충청도지역, 신기선(申箕善)은 해서지역, 김승민金升旼) · 주석면(朱錫冕)은 함경도지역, 이범진(李範晉)은 연해주지역의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53] 이렇게 일정지역의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의병운동을 벌인 것은 민씨척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후기의병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민씨척족은 민경식(閔景植) · 민긍호(閔肯鎬) · 민병승(閔丙承) · 민병한(閔丙漢) · 민영달(閔泳達) · 민영철(閔泳喆) · 민영휘(閔泳徽) · 민종식(閔宗植) · 민형식(閔炯植) · 민형식(閔衡植) 등이었다. 이 중 민종식 · 민형식(閔炯植)은 충청도지역, 민경식 · 민병한 · 민형식(閔衡植) · 민영철은 전라도지역,[54] 민영휘는 강원도지역, 민영달 · 민병승은 경기도지역의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아울러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민씨척족들이 은밀히 의병운동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하여튼 현존 자료에 의거할 때 민씨척족의 의병활동은 양호(兩湖)지역에서는 1906년에, 경기 · 강원지역에서는 1907 년에, 영남지역은 1906~1907년에 이루어졌다. 다만, 1907년 7월 군대해산후 경기 강원지역에서 활동한 한미한

---

[53] 오영섭, 「한말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 제3장 참조.

[54] 1906년 3월 최익현과 함께 거의한 전 낙안군수 임병찬은 1904년 1월 러일이 개전할 경우 고종을 호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울의 민영소에게 속히 밀지를 내려 사민을 규합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민영소는 시기상조라며 응하지 않았다. 임병찬은 1906년 3월에 철원인 김모에게서 밀지를 받고 거의했는데, 이때 김모가 민영소의 문객인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임병찬과 민영소의 관계를 통하여 전라도의 중인출신들이 민영휘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닌 민영소를 비롯한 민씨척족들과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林炳瓚, 『遯軒遺稿』,권1, 「上閔輔國泳韶書」, 권6, 「倡義日記」; 宋相燾, 『騎驢隨筆』「林炳瓚」, 국사편찬위원회, 1971, 106~107쪽, 林炳瓚, 「遯軒問答記」『독립운동사자료집』 2, 114~115쪽.

가문출신의 민긍호는 을미 강릉의병장 민용호의 경우처럼 민씨척족의 중진을 후원자로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55]

표 2 후기의병운동에 관련된 민씨척족

성명	생몰	派 · 父	관력(1896년 이전)	관력(1896년 이후)	활약상 및 참고사항
閔景植	1871 ~ ?	立岩公派閔泳雨(閔泳柱, 장예원경)	별입시, 문과	중추원의관, 내부협판, 한성판윤, 경무사, 궁내부협판,비서원경	閔泳徽의 조카의병운동 후원자로 체포됨 (1906)
閔肯鎬	1864 ~ 1908	立岩公派閔致龍		육군무관학교, 원주진위대특무정교	강원 영서지역의 항일의병장
閔丙承	1865 ~ 1946	三房派閔應植	문과,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궁내부특진관	閔維重의 손자 閔昌洙의 봉사손 경기남부 의병 후원
閔丙漢	1861 ~ 1939	三房派閔昌龍 (호조참판)	별입시, 문과, 규장각대교, 영변부사, 이조참의	경무사, 내부협판, 궁내부특진관	閔鼎重의 9세손이자 봉사손 의병운동 후원자로 체포됨 (1906)
閔泳奎	1846 ~ 1922	三房派閔璟鎬 (공조참판)	문협판내무부사, 형조판서, 한성부판윤, 이조판서, 병조판서	궁내부특진관, 장예원경, 궁내부대신, 시종원경, 量地衙門 총재관	아들 閔鳳植이 1907년에 체포됨. 을사조약 후 의병소모활동벌인 李範錫의 장인, 한일합병 찬성론자 규탄활동
閔泳達	1859 ~ 1924	三房派閔觀鎬 (덕천군수)	문과, 성균관대사성, 이조참판, 협판내무부사, 호조판서	궁내부특진관	고종의 내탕금 관리자, 의병봉기 관련자로 지목됨(1907), 작위(남작) 거절, 1910년대 고종의 망명운동에 거액지원, 물산장려운동, 동아일보사 설립 참여
閔泳喆	1864 ~ 1911	三房派閔善鎬 (홍문관수찬)	별입시, 문과, 이조참의, 형조참판, 예조참판	궁내부특진관, 전남관찰사, 육군참장, 평안남도관찰사, 학부대신, 군부대신	고종의 자금책인 閔泳達과 사촌간, 평양 離宮 영건 담당(1902), 러일전쟁 후 이용익·이근택 등과 중립화 방안 강구, 安圭洪 의병의 배후인 安極과 절친한 사이, 을사조약 후 상해망명, 구국외교활동 전개

[55] 민긍호에 대해서는, 閔德植, 「閔肯鎬 義兵將에 관한 一考察」『아시아문화』 1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성명	생몰	派 · 父	관력(1896년 이전)	관력(1896년 이후)	활약상 및 참고사항
閔泳徽 (閔泳駿)	1852 ~ 1935	출계, 三房派 閔斗鎬(立岩公派, 춘천유수)	문과, 평안도관찰사, 선혜청제조, 독판내무부사, 친군경리사, 統衛使	장예원경, 궁내부특진관, 중추원의장, 육군부장, 시종원경, 표훈원총재	유홍석 · 박선명의 춘천의병 후원 휘문학교 설립, 李甲의 계몽운동지원 일제작위 수령(자작)
閔宗植	1861 ~ 1917	三房派 閔泳商 (이조판서)	문과, 이조참의, 이조참관, 규장각직제학	궁내부특진관, 시종원소경	閔維重의 손자 閔遇洙의 봉사손홍주의병장(1906), 1907년 이후 전라도 의병봉기에 직접적 영향 미침.
閔炯植	1859 ~ ?	三房派 閔泳緯 (예조판서)	별입시, 문과, 이조참판, 삼도수군통제사, 한성부좌윤	봉상사제조, 중추원의관, 의정부찬정, 궁내부특진관, 특명전권공사, 육군부장	임오군란시 명성황후 호종, 갑오경장시 민영준과 함께 탐학죄인으로 귀양형을 받음, 의병봉기 혐의로 체포됨(1906), 閔景植과 절친, 일제작위 수령(남작)
閔衡植	1875 ~ 1947	三房派 閔泳徽 (표훈원총재)	문과, 규장각 대교	학부편집국장, 의정부총무국장, 판리공사, 궁내부특진관, 평안도관찰사, 학부협판	충청도 · 전라도 의병 후원, 閔泳徽 양자, 羅寅永 · 吳基鎬 등의 을사오적 암살거사에 자금지원, 기호흥학회 총무(1909)

출처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 義兵篇(8-19) 』; 『독립운동사 자료집 : 의병항쟁사자료집(1-3)』 ; 『湖西義兵史蹟』 ; 『 騎驪隨筆』 ; 『 皇城新聞』 ; 『大韓每日申報』 ; 『萬歲報』 ; 『驪興閔氏世系譜 四』 『梅泉野錄』 ; 『友堂李會榮略傳』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 『統監府文書』 崔永禧,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所收 韓末官人의 經歷一般」 『史學硏究』 21, 1969; 吳瑛燮,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的 性格」 』 15, 1997 ; 오영섭, 「 한말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 『東方學志』 128, 2004.

먼저, 충청도지역을 무대로 전개된 민종식의 의병운동을 알아보겠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로 전락하자 경향(京鄕)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창의활동에 나섰다. 전라도의 최익현, 충청도의 민종식, 경상도의 정환직 등이 그들이었다. 이 중 민종식과 최익현의 의병활동은 1906년 홍주의병과 1907년 이후 호남의병의 태동과 전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민종식은 민씨척족 중에서 “고요함과 담박함으로 이름이 났던” 부친[민영상(閔泳商)]의 풍모를 계승했을 뿐더러 동시에 의기를 중시한 인

물로 평가받고 있었다.[56] 더욱이 그는 숙종비 인현왕후의 부친인 민유중(閔維重)의 손자 민우수(閔遇洙)의 봉사손으로서 가문 내에서 위치가 상당한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종식이 향리에서 창의의 전면에 나섰던 사실은 민씨척족의 항일의병운동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하여튼 이들의 의병활동은 을사조약 이전부터 은밀히 활동 중이던 허위 · 심상훈 · 이유인 · 기우만(奇宇萬) · 김현준 등의 의병운동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성괴를 거두었다.

민종식의병의 최대 후원자는 고종의 내관 강석호(姜錫鎬)와 민씨척족의 민형식(閔炯植)[민영위(閔泳緯))의 서자]이었다. 대한제국기에 궁내부특진관과 시종원소경을 지낸 민종식은 대한제국기에 정계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민종식이 막대한 인적 · 물적 자원이 필요한 의병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종의 측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종의 밀지(密旨)[밀칙(密勅). 애통조(哀痛詔)]나 밀지에 준하는 내락과 권유를 받은 다음에 홍성지역의 재야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었다. 당시 고종과 그의 측근인사들은 지방의 명망가들에게 고종의 권한을 일시 위임하는 밀지나 마패를 하사하여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아울러 그들이 재야세력의 면전에서 직접 거의를 당부하는 것도 밀지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다. 민종식이 강석호와 민형식에게서 후원을 받은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후기의병운동을 대표하는 연합의진의 의병장들이 창의하는 과정에서 모두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형식은 고종의 별입시(別入待)로서 무시로 궁중을 드나들며 고종의 의사에 따라 각종의 비밀운동에 종사하였다. 민종식의병이 진압된 후 일제는 "민종식이 이번 거사를 일으킨 연원은 궁중(宮中)에 있는 것으로 추측됨. 즉, 한국 황제의 신임이 두텁다고 칭해지는 궁중 잡배의 수령 민형식이 그 수모(首謀)로서 몰래 궁중에 출입하며 폭도를 조종하고 있다는 풍문이 전해진다며 민종식과 민형식의 연대관계와 양인의 배후에 고종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57] 아울러 일제는 "지난날 민후사건(閔后事件) 이래 민씨 일족은 일본을 원망하여 자칫하면 배일

---

[56] 김택영 저, 조남권 등 역, 『韓史繁』, 태학사, 2001, 562쪽.

[57] 『韓末義兵資料』III, 통발 제540호(1906. 6. 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82~83쪽; 『統藍府文書』 3, 「忠淸南道暴徒 宮中雜輩 首領 · · · 件」, 45~46쪽.

(排日)행동으로 나가려 하고 또 그들은 한국 황제폐하의 진의도 역시 일본을 깊이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배일의 위의(爲義)를 주창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은 폐하에 대한 더없는 충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의병봉기의 한 원인이다." 라고 하여 민종식 등이 반일의식과 충군의식에 따라 창의했다고 보았다.[58]

민종식은 고종의 내관 강석호로부터 고종의 밀지와 군자금 10만 냥을 수령한 후 "황실과 관계가 깊은 배일주의 양반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정산(定山)으로 내려갔다.[59] 그곳에서 민종식은 인근 지역의 많은 사인들과 시사를 토론하였다.[60] 그는 1906년 3월 10일 이용규(李容珪) · 이칙(李伋) 등과 함께 거의한 다음 5월 하순 수천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홍주성을 점령하여 기세를 올렸다.[61] 민종식의병은 5월 31일 홍주성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여 60명이 전사했는데,[62] 이 전투는 이인영의진의 삼산(三山) · 마전麻田)전투와 함께 한말의병운동시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

다음으로 대한제국기에 세도가로 행세할 정도로 출세한 고종의 별입시 민경식 · 민병한과 민영휘의 양자로서 구한말의 민족운동에 깊숙이 간여한 민형식(閔衡植)이 전라도의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겠다. 민씨 척족의 민경식· 민병한 · 민형식(閔衡植) 등은 최익현의병을 비롯한 전라도의병의 창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민정중(閔鼎重)의 9세손이자 봉사손으로서 민씨척족 삼방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민병한은 홍주의병을 주도한 민유중계의 민종식과 함께 구한말 민씨척족의 의병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이들 3인은 1905년(음)11월 22일자 밀지를 최익현에게 전달하여 창의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해 주었다. 당시 최익현이 받은 밀지는 후기의병운동기에 고종과 그의 측근들이 각지에 배포한 밀지의 원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63] 이 밀지는 최익현을 도체찰사

---

58 『韓末義兵資料』III, 통발 제2588호 별지(1906. 12. 11), 47쪽.

59 『韓末義兵資料』III, 통발 제25888호 별지(1906. 12. 11), 47쪽; 李正奎, 「從義緣」『독립운동사자료집』1, 69쪽; 李震求, 「義士李容珪傳」『독립운동사자료집』2, 320쪽.

60 宋容緯 編, 『洪州義兵實錄』「李世永日記膽草」, 洪州義兵遺族會, 1986, 457쪽..

61 민종식의 의병운동에 대해서는, 柳漢喆, 「洪州義兵陣(1906)의 組織과 活動」『한국독립운동사연구』4, 1990.

62 『韓末義兵資料』III, 電信(1906.5.31, 6. 1), 65~66쪽. 이때 의병측은 전사 60명, 포로 127명, 다수 대포와 소총을 빼앗긴 반면, 일본군측은 경상 2명, 조선인 순검 1명이 전사하였다.

63 한말의병운동 당시 유포된 고종의 밀지 원문에 대해서는, 吳燮燮, 「韓末義兵運動의 勤王的 性格」, 87~93쪽.

로 삼고 그에게 전국의병통솔권 · 의병소모권 · 지방관임면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아아, 애통하다. 나의 죄악이 크고 가득하여 하늘도 돕지 않고 많은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이로 인해 강한 이웃이 틈을 노리고 역신(逆臣)이 정권을 농단하고 있다. 4천년 예의의 나라가 나의 대에 와서 하루아침에 견양(犬羊)의 지역이 되고 말았다. 내가 무슨 낯으로 聖廟를 봐옵는단 말이냐. 나의 실낱같은 목숨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오직 宗廟 · 사직(社稷)과 만백성을 생각하여 이에 哀痛의 密詔를 내려 전 參政 崔益鉉으로 都體察使를 삼아 7道에 보내노라.
>
> 湖西는 忠義軍으로, 湖南은 壯義軍으로, 嶺南은 奮義軍으로, 關西는 勇義軍으로, 關東은 强義軍으로, 海西는 扈義軍으로, 關北은 熊義軍으로 삼아 각기 의기를 세우고, 良家의 재주 있는 자제들을 모두 召幕官으로 삼으라. 각 軍中 印章은 모두 스스로 새겨서 사용하고 觀察使나 郡守로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보고에 앞서 먼저 파직 처분을 내려서 그들의 마음을 단일하게 만들라. 京畿 1도는 朕이 그 군사와 더불어 社稷을 위해 殉死할 것이다. 옥새를 찍은 편지를 비밀히 내리는 것이니 이를 참작하라.
>
> 乙巳 11월 22일 밤 畿輔에서 발급함
> 閔景植 · 閔丙漢 · 李正來 · 閔衡植[64]

밀지를 수령한 후에 최익현은 1906년 1월 노성 궐리사에서 대규모 유생대회를 개최하며 거의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그는 정재규 · 기우만 · 백락구(白樂九) · 기삼연(奇參衍) · 고광순(高光洵) · 곽한일(郭漢一) · 박봉양(朴鳳陽) 등을 만나 설득하거나 혹은 통문과 밀지 사본을 보내 거의를 촉구하였다. 이로써 그는 호남의 애국지사들에게 창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또한 그는 1906년 3월 순창에서 "황제폐하께서 국운(國運)의 그릇됨을 탄식하시어 각 도에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칙(密勅)을 내리셨다"는 취지의 통문을 밀지 사본과 함께 문하의 모든 제자들에게 보냈다.[65] 이후 최익현에게 직접 배웠거나 그를 사숙 · 숭모한 전해산(全海山) · 심남일(沈南一) · 이석용(李錫庸) · 양한규(梁漢奎) 등 이름난 의

64 吳駿善, 「沈南一實記」『독립운동사자료집』 2, 927쪽.
65 『韓國獨立運動史』 1, 『義兵將 姜士文 · 安桂洪 · · · 姜武景 取調書」, 789쪽.

병장들이 창의에 나섰다. 1907년 가을부터 전남지방을 무대로 의병활동을 전개한 심남일이 최익현에게 내려진 밀지의 권위에 기대어 활동한 것을 보면,[66] 여타 의병장들도 최익현으로부터 밀지 사본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하여튼 최익현과 그의 영향으로 봉기한 의병장들은 모두 중앙고관인 민경식 · 민병한 · 민형식 등이 부여한 밀지의 권위에 크게 기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67]

다음으로 고종의 내탕금 관리인 민영달의 4촌인 민영철과 호남의병장 안규홍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일제가 호남지방의 '폭도거괴' 가운데 전해산 · 심남일과 함께 첫째가는 인물로 꼽은 보성의 안규홍(안담살이)은 을사조약의 체결을 개탄하며 거의를 도모하다가 1908년 2월에 의병을 일으켰다.[68] 당시 안규홍의병의 결성과 활동은 보성의 유력자이자 우국지사인 복내면(福內面)의 참봉 안극(安極)과 미력면(彌力面)의 참판 박남현(朴南鉉)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69] 이들은 무용이 뛰어난 안규홍을 적극 후원하여 거의시키고 배후에서 군수품을 제공하였다. 특히, 안극은 평소 도적방비를 위해 양성하고 고용한 가병(家兵) 100여 명을 안규홍에게 주었고, 자가의 토지까지 팔아서 안규홍의병의 군수품에 충당하였다. 그래서 안극은 '숨은 의병' 이라는 평을 받았다.[70] 이때 안규홍은 후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극의 강학소인 일송정(一松亭)에 불을 지르고, 안극의 가택을 습격하여 그를 포박하고 군수전을 탈취하며 거짓 협박을 가했다고 한다.[71]

그런데 안규홍의병의 결성과 활동을 이면에서 적극 지원한 보성의 유력자 안극은 전남관찰사를 지낸 고종의 측근 별입시인 민영철과 절친한 사이였다. 부인이 여흥민씨 민주현(閔胄顯)의 손녀였던 관계로 평소 여흥민씨와 인연이 깊었던

---

66 吳駿善, 「沈南－實記」『독립운동사자료집』2, 927쪽.588 · 927쪽.

67 을사조약 이후 전국적인 의병운동은 일제에게 한국침략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일제는 민종식의병과 최익현의병 및 기타 의진을 후원한 중앙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당시 홍주의병과 기타 의병진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일본헌병대에 체포된 인사들이 무려 100여명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閔泳敦 · 閔衡植 · 민병한 · 閔炯植 · 민경식 · 강석호 · 李鳳來 · 趙南升 · 李敏和 · 洪在鳳 · 申상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짧게는 몇 개월을 길게는 1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24일, 12월 19일; 『만세보』 1906년 10월 25일.

68 洪英基 「大韓帝國時代 湖南義兵 硏究」,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129~132쪽.

69 洪性讚, 「韓末 · 日帝下의 地主制 硏究 －寶城 梁氏家의 地主經營과 그 變動」『東方學志』114, 2001, 60쪽.

70 全羅南道史編纂委員會 編, 『全羅南道史』1956, 812쪽.

71 『全羅南道史』, 812쪽; 『寶城群鄕土史』, 湖南文化, 1974, 278~283쪽.

안극은 원주의병장 민긍호와도 죽마고우의 사이였다.[72] 1905년 9월 안극이 상경하여 민영철을 만났을 때에 민영철은 자신의 보검을 내보이며 사용할 곳이 없음을 한탄했는데,[73] 사실상 이때 양인은 거의를 모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마 이때 양인간에는 민영철이 고종의 지시에 따라 대외청원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안극은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민영철의 국권수호외교를 성원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후에 부친 민두호와 함께 춘천에 안장된 민영휘와 춘천의병과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1907년 8월 유홍석(柳弘錫) · 박선명(朴善明) · 지홍민(池弘敏)[용기(龍起)] · 최영석(崔永錫) · 박화지(朴華之) 등이 춘천남부에서 봉기하였다. 이들은 600명의 군사로 일본군과 수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74] 이후 박선명과 지용기는 잔여군사를 수합하여 전신선을 절단하고 친일파를 공격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지용기가 11월에 전사하고, 박선명이 이듬해 5월 가평수비대에 자수함으로써 춘천지역의 정미의병운동은 종식되었다.[75] 이때 춘천의병은 춘천관찰부를 1개월간이나 포위할 정도로 성세를 떨치면서 서울진격전을 벌이고 있는 13도창의군이 후미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76] 이러한 춘천의병의 결성과 활동을 주도한 인물은 '총대장(總大將)'을 자칭했을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선명' 이었다.[77] 그런데 박선명은 1910년대 후반에 민영휘의 운전기사를 지내고 있던 민영휘의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78]

구한말 민씨척족의 최대 부호인 민영휘의 은밀한 의병활동은 계몽운동과 동시에 추진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영환이 교장을 지낸 흥화학교(興化學敎)에도 자금을 지원했던 민영휘는 고종의 교육입국론에 따라 1906년 5월 휘문

---

72 安極, 『晦隱集』 1, 「閔雲沙壽序」 및 권4, 「行狀」

73 安極, 『晦隱集』 1, 「哀閔松西泳喆台疾逝于中國」, 乙巳九月上京 見閔台 閔台出示寶劍 長可尺餘 謂出使中國而得之 顧無所用爲恨云已 而閔台入中國 欲得其願而未遂 遂客逝焉, 을미의병운동 때에 민영환은 문석봉에게 자신의 보검을 내주며 거의를 당부했는데, 문석봉은 1896년 임종 때에 자신의 관에 넣어달라고 유언하였다. 文永井, 「家狀」 『義山遺稿』 4.

74 柳弘錫, 『畏堂先生三世錄』 「年譜」 「恒齋實錄」, 江原日報社, 1995, 89~90, 220~222쪽.

75 『江原道狀況梗槪』, 춘천헌병대, 1911, 218~223쪽.

76 오영섭, 「韓末 13道倡義大將 李麟榮의 生涯와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2002, 제4장 제2절; 오영섭, 「한말 춘천지역 의병항쟁의 역사적 의의」 『江原文化史硏究』 7, 2002, 제5장.

77 『江原道狀況梗槪』, 221쪽.

78 『每日申報』 1919년 8월 28일자.

학교를 설립하여 계몽운동에 본격 가담하였다. 아울러 그는 일본육사 출신의 청년장교 이갑(李甲)에게 현금 2~3만원(일설에는 15만원)과 토지 20만평이란 막대한 자금을 주어서 구국계몽운동을 벌이게 하였다. 당시 민영휘는 이갑에게 ① 학교를 설립할 것 ② 지사(志士)의 생활비를 보조할 것 ③ 우수한 청년을 해외로 유학시킬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각서로 써주었다. 이후 이갑은 서우학회 · 서북학회 · 오성학교의 설립지금과 운영자금을 도맡아 기부하였고, 일본유학생이 설립한 태극학회를 지원하였고 그리고 기타 각양의 민족운동에 자신이 지닌 거액의 자금을 모두 쏟아 부었다.[79] 이갑의 사위 이응준(李應俊)이 이갑과 안창호(安昌浩)가 재야의 의병진에게 보내는 격려편지를 제중원(濟衆院)에 있는 김필순(김(金弼淳)의 집에서 직접 한지로 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갑은 민영휘처럼 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80]

그런데 이갑이 민영휘의 집에 난입하여 재산을 돌려받은 사건은 이갑의 주변인들에 의해 평양감사 시절의 민영휘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은 쾌거라고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반대였을 것이다.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던 민영휘가 남에게 빼앗은 금액은 소액일지라도 일체 돌려주지 않아서 세간의 비난과 소송을 많이 당한 민영휘가 젊은 청년장교의 위세에 눌려 막대한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기보호에 능한 민영휘가 애국성향이 강한 이갑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은밀하게 민족운동을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민영휘의 저택과 이갑의 서북학회 사무실이 지척지간에 있었고 민영휘가 휘문학교를 통해 교육운동을 전개하였고, 민영휘의 장남 민형식(閔衡植)이 계몽운동 · 의병운동에 참여했을 뿐더러 비밀결사운동에도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그리고 일제시대에 민영휘가 미국의 이승만에게 독립지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때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 하여튼 충실한 군권론자로서 고종퇴위 반대운동에도 참여했던 친러성향의 이갑이 한일병합 직전에 고종의 밀명을 받고 러시아 니콜라이 2세에게 청원서한을 전달하고 고종의 러시아 망명을 타진했을 정도로 고종의

[79] 주요한, 『秋汀 李甲』, 大成文化社, 1964, 11~12쪽, 李正熙, 『아버님 秋汀 李甲』, 人物研究所, 1981, 70~76쪽.

[80] 李應俊, 『回顧九十年』, 汕耘紀念事業會, 1982, 58~59쪽.

신임을 받았던 인물임을 감안하면,[81] 민영휘가 이갑에게 전달한 자금은 고종의 내탕금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민영휘는 안중근(安重根)의 의병활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안중근은 자진해서 의병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민영휘 부자와 서북학회 세력과 연계관계를 맺은 다음에 의병운동에 가담하였다. 아울러 민권주의자나 민중주의자라는 기왕의 주장과 달리 의병운동 당시 안중근은 일본세력과 매국노를 타도하고 대한제국의 국권과 고종의 전제군주제를 수호하고자 창의한 근왕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82] 실제로 안중근은 이범진(李範晉)이 러시아황제의 힘을 빌려 한국의 현 황제를 폐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일시 그를 '모반인' 이라고 불렀을 만큼 강렬한 근왕의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83] 하여튼 1906년 봄에 돈의(敦義)학교 · 삼흥(三興)학교 등 천주교계 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계몽운동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애국지사 안중근은 1907년 봄에 평양으로 자신을 찾아온 부친[안태훈(安泰勳)]의 친구 김진사[김달하(金達河)]의 권유로 상경한 다음부터 본격적인 민족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84]

그런데 안중근을 서울로 인도한 김달하는 니중에 친일파 밀정으로 전락하여 1925년 북경에서 다물단의 이규준(李圭駿)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지만, 1907년 당시까지만 해도 서우학회 · 서북학회의 주요 임원으로서 민영휘와 이갑의 연결을 주선한 민영휘의 문객 가인(家人)' 이었다.[85] 서울에서 안중근은 김달하의 집에서 몇 개월간을 유숙하며 민형식(閔衡植, 민영휘 양자) · 김종한(金宗漢) · 안창호 · 이동녕(李東寧) · 강영기(姜泳璣) 등과 두루 친교를 맺고 지사로 자임했다고 한다.[86] 이어 그는 김달하의 아들 김동억 (金東億)을 데리고 북간도 용정을 거쳐 연해주로 건너가 최재형 (崔才亨) · 엄인섭(嚴仁燮) 등 크라스키노(煙秋)의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87] 이를 보면 이갑을 통하여 민영휘의 재

81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이범진공사에 관한 러시아자료」, 외교통상부, 2003, 222~223쪽.
82 『韓國觸立運動史 資料』 6, 173쪽.
83 『不逞政團關系雜牛: 在西比利亞』 5, 「排日鮮人 李瑋鍾에 대하여」,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본.
84 安重根, 「安應七歷史」『安重根義士自敍傳』, 안중근의사숭모회, 1979, 110~112쪽.
85 주요한, 『秋汀 李甲』, 11쪽.
86 『韓國觸立運動史 資料』 7, 국사편찬위원회, 1968, 243~244쪽.
87 『韓國觸立運動史 資料』 6,173쪽; 오영섭,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30, 2002, 35쪽.

정지원을 받은 서북학회 세력은 무용이 뛰어난 호협지사 안중근을 의병장감으로 특별히 발탁하여 연해주로 보냈던 것이다. 따라서 안중근의 연해주행은 안중근 자신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애국지사로서의 풍모와 민영휘 · 민형식 부자와 김달하 · 이갑을 비롯한 서북학회 세력의 노력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범진 · 최재형 · 안중근 등이 주도한 연해주의 동의회가 서울의 이갑 · 김달하의 서북학회와 기맥을 통하고 있다고 보았던 일제측의 주장은 깊이 음미할 만하다.[88]

민영휘의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에의 참여는 넓게 보아 고종의 국권수호운동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민영휘 외에도 강석호 · 한규설 · 민영환 · 이봉래 · 민영달 · 이범진 · 이회영 등 명망 있는 고종의 측근들과 유신파 인사들이 을사조약 이후에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었다. 이 중 민종식의병 후원혐의로 체포된 고종의 내시 강석호는 투옥 중에 자신이 가진 현금자산의 절반을 수원 삼일학교(三一學敎)의 중흥자금으로 희사하였다.[89] 아울러 대한제국의 최고 명문가문 출신의 이회영은 성재구(成載九) · 이기영(李冀永)을 통하여 의병과 연락을 취하고 의병군자금을 마련하느라 온갖 고초를 겪어가면서[90] 동시에 비밀결사 신민회의 요람지인 상동청년회와 상동청년학원에 깊이 관계하고 있었다.[91] 이때 이상설(李相卨) · 이시영(李始榮) · 이관직(李觀稙) · 이준(李儁) · 여준(呂準)등과 상동교회의 전덕기(全德基) 목사 등 이른바 상동세력이 비밀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자금이 이회영 집안에서 흘러나왔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92] 따라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은 중앙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 기왕에 알려진 것처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며, 동시에 양자의 운동은 고종과 그 측근인사들이 추진하고 있던 국권수호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88 『要視察韓國人擧動』 3, 기밀 제78호, [朝鮮人狀況取調 · · · 件], 別紙 甲號, 國史編纂委員會, 2002, 360쪽.

89 金世漢, 『三一學校六十年史』, 54쪽; 『大韓每日新報』, 1907년 7월 7일자.

90 李丁奎 · 李觀稙, 『友堂李會榮略傳』, Z西文化社, 1985, 40쪽.

91 韓圭茂, 「尙同靑年會에 대한 연구, 1897~1914」 『歷史學報』 126, 1990, 79~85쪽.

92 이회영측 기록에는 이회영이 羅寅永과 奇山濤의 을사오적 암살거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李丁奎 · 李觀稙, 『友堂李會榮略傳』, 26쪽; 李恩淑,『民族運動家 아내의 手記』, 正音社, 1975, 148~149쪽.

다음으로 일제로부터 1907년 전국적 의병봉기에 간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민영달의 의병운동을 알아보겠다.[93] 일제의 작위를 물리친 민영달은 1910년대 초에 이희(李熹) · 이강(李堈)) · 민영휘(閔泳徽)) · 박영효(朴泳孝) · 이완용(李完用) . 이재완(李載完) · 송병준(宋秉畯) 등과 함께 한국의 거부로 알려졌다.[94] 그는 이봉래(李鳳來) · 이용익(李容翊)과 함께 고종의 내탕금 관리자로서 한규설(韓圭卨) · 유진태(兪鎭泰) · 이회영(李會榮) 등 근왕적 민족주의자들과 교분이 깊었다.[95] 젊어서 민영달을 옆에서 모셨던 정인보(鄭寅普)는 의병운동을 비롯한 여러 운동을 벌이느라 민영달이 "막대한 지금을 소모했다"고 하였다.[96] 실제로 민영달은 1910년대 내내 이회영의 고종망명운동을 적극 후원했으며, 1918년에는 망명자금으로 50만원이란 거액을 내놓기도 하였다.[97] 이런 사실로 보아 1908년 이후 경기북부에서 활동한 이은찬 · 윤인순 · 정용대부대가 소지한 수 백정의 최신식 서양무기 구입자금은 경기도 교하(交河, 파주)에 향제가 있는 민영달 같은 이들이 관리하던 고종의 내탕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명성황후의 총신인 민응식(閔應植)의 장자 민병승(閔丙承)과 경기남부 의병과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민병승은 여주에 300칸의 대저택을 가진 거만의 부호였다. 그런데 의병들이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자 일제는 민병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하였다. 민병승은 피신하여 화를 면했지만, 일제는 보화를 약탈하고 집을 불태워버렸다.[98] 이로 미루어 민병승이 경기남부의 의병을 은밀히 후원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내부대신 이용태(李容泰)는 나인영(羅寅永) · 오기호(吳基鎬)) 등의 을사오적 암살거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박제순 친일내각을 타도하기 위해 "문하의 유생들을 선동하여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키고자" 노력한 정치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99] 그런데 영조대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인 이건명(李健命)의 후손 이용태는 그 둘째아들이 민병승의 딸에게 장가들어 민

93 崔永禧, 「韓末官人의 經歷-般」『史學硏究』 21, 1969, 387쪽.

94 『每日新報』 1911년 7월 28일자.

95 鄭寅普, 「閔綾堂과 韓江石」『東亞日報』 1930년 12월 1~3일자.

96 鄭寅普, 「閔泳達傳」『薝園鄭寅普全集 5:薝園文錄』 上, 연세대 출판부,1983, 50~51쪽. 乙未以起義兵 者 多遙聯泳達 泳達所長 在足智慮敢爲 赴事機如驚 然世亟變 偷度或不中 用是 虛耗金錢無算.

97 李曾馥, 「高宗皇帝와 友堂先生」,李正奎 · 李觀稙, 『友堂李會榮略傳』, 187~193쪽.

98 黃玹 저, 金澮 역, 『梅泉野錄』, 748쪽.

99 『東學書』 「羅寅永事件」, 규장각도서, 奎 17295; 『統藍府文書』 3, 「統藍府第-回報告」(1906. 12. 1),1~2쪽.

병승과 사돈간이었다.[100] 따라서 이용태의 거의기도에 민씨척족이 일정하게 간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민병승과 이용태는 가문의 위세를 배경으로 향촌세력의 의병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영규(閔泳奎) 가문의 의병운동을 알아보겠다. 민영규의 아들 민봉식(閔鳳植)은 1907년 9월 '의병간연자(義兵干連者)'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진행될 때에 경무청에 체포되었다.[101] 사위 이범석(李範錫)은 근왕성 항일단체인 충의사(忠義社)의 회원이었고 을사조약 후 유인혁(柳麟赫) · 정순만(鄭淳萬)과 함께 고종의 밀지를 가지고 의병소모활동을 펼쳤으며, 이후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활동을 하다가 1910년 성명회(聲明會) 선언에도 참여하였다.[102] 또한 민영규의 5대조 이하로 항일운동에 가담한 대신급 인사로는 민영환 · 민영달 · 민영철이 있었으며, 민영규의 4촌인 민영만(閔泳晩)의 사돈은 유명한 항일대신 홍만식(洪萬植)[홍명희(洪命熹) 부친]이었고,[103] 민영규 자신도 1909년에 조직된 국민대연설회의 주요 인사로서 한일병합 찬성론자들을 통박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항일성향으로 굳게 뭉친 가문 내력을 감안할 때에 민영규는 의병운동을 비롯한 갖가지 항일운동을 적극 후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한제국의 국운이 결판난 1904~1905년간 육군부장 겸 시종무관장을 지낸 민영환(閔泳煥)은 다방면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그는 일제가 고종 측근들의 입궐을 전면 차단한 이른바 궁금숙청의 탄압 속에서 "대황제폐하를 항상 봉위하는" 시종무관장이란 직책을 활용하여 각종의 반일운동을 주도하였다.[104] 그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보다는 이준(李儁) · 김인식(金寅植 · 김동필(金東弼) 등 측근 인사들을 내세워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항일유림단체 설립운동, 대외청원운동, 헌정개혁 및 계몽단체 설립운동, 일제의 대한정책

---

100 『全州李氏密城君派世譜』 1, 1983, 85~87, 663~664쪽.

101 『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10일자.

102 呂中龍, 『南隱先生遺集』 2, 「忠義土署名錄」; 尹炳奭, 『李相卨傳』 「聲明會宣言書」, 一潮閣, 1984, 244쪽;韓圭茂, 「鄭淳萬論」 『韓國基督敎史硏究』 22, 1988, 24쪽.

103 『驪興閔氏世系譜』 4, 690~695쪽.

104 고종은 일제의 궁금숙청과 서울 관민들의 반일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9월 24일에 「侍武武官府官制」를 반포하여 육군대장이나 육군부장이 시종무관장을 겸하도록 하였다. 시종무관부관제 제2조에 의하면, 시종무관장은 "大皇帝陛下께 常侍 奉衛하여 軍事에 關한 上奏 奉答 及 命令 傳達에 任하며 又 觀兵演習 動駕時와 其他 祭儀 · 禮典 · 御宴 · 陛見 等에 常侍 扈從"하도록 되어 있었다. 『日省錄』,1904년 8월 18일. 『高宗實錄』 1904년 9월 24일.

탐지활동 등을 벌였다.[105] 이러한 구국운동의 여러 방략들은 국망기에 고종황제가 벌인 구국운동을 대행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민영환도 고종의 다른 측근들처럼 항일운동의 일환으로서 의병활동을 동시에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인영 · 오기호 등의 을사오적 암살거사는 호남 출신의 개신유림들과 민영환세력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106] 이때 민영환세력으로서 을사오적 암살거사에 가담했다가 다행히 체포를 면한 박대하(朴大夏, 의병장: 최익현 숭배자) · 이홍래(李鴻來, 총순, 의주부참서관) · 이용채(李容彩) 등은 민영환의 수하들이었다. 체포된 거사동지들의 공술에 의하면, 이들이 1907년 이전에 의병운동을 벌였다고 한다.[107] 따라서 민영환의 수하들이 을사조약 이전에 민영환의 지시에 따라 의병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4. 여흥민씨척족의 의병운동에 나타난 특징

한말의병운동사에서 특정 가문의 인사들이 대거 의병운동에 가담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씨척족의 일부 인사들이 의병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제 민씨척족의 의병운동에 나타난 특성이나 성격을 간략히 짚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첫째, 민씨척족의 의병운동은 한말의병운동이 재야세력만의 독자적 반일민족운동이 아니라 중앙세력과 재야세력의 합작품임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그간 필자는 구한말 국가와 민족의 위난기에 역사의 전면에 분출되기 시작한 중앙세력의 항일의지와 개항 이래 점차 높아가던 재야세력의 항일열기가 서로 맞물려 한말의병운동으로 승화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한말의병운동은 외침에 대항한 재야세력의 자발적 · 독자적인 반일민족운동이다"라는 기왕의 통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말의병운동은 중앙세력과 재야

105 『韓國獨立運動史』1, 國史編纂委員會, 1965, 90~92쪽; 『大韓季年史』 下, 226~227쪽; 金允植, 『續陰晴史』 下, 國史編纂委員會, 1960; 柳子厚, 『李儁先生傳』, 東方文化社, 1947, 106~107 · 162 ~ 172 · 212~213쪽; 이정식 역주, 「청년 이승만 자서전」 『新東亞』, 1965년 9월호, 441쪽.

106 나인영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오영섭, 「대종교 창시 이전 나인영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2004.

107 『大韓季年史』 下, 226~227쪽; 『統藍府文書』 9, 「政府顚覆과 大臣暗殺에 關한 件」 1, 432쪽.

세력이 외세구축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굳게 뭉쳐 조직적 · 체계적으로 전개한 항일민족운동이다"라는 새로운 의병관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민씨척족의 일부 인사들이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항일활동을 벌인 사실들은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증적 ·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108]

둘째, 민씨척족은 의진에 투신하여 직접 군사활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의진의 결성과 활동을 후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병운동에 참여하였다. 의병을 후원한 민씨척족의 대다수는 고위직을 역임했을 뿐더러 중년층 이상의 연령층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의진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보다는 측근의 문객이나 인척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창의를 원하는 민씨척족은 휘하의 문객이나 인척을 재야로 보내 재야세력과 연대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전기의병의 민용호 · 민의식, 후기의병의 민종식 · 민긍호의 경우를 예외로 치면 의병운동에 참여한 대다수의 민씨척족은 의병전략과 시국정보 및 인적 · 물적 자원을 재야세력에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애통조(哀痛詔)나 마패 등 국왕의 상징물들을 이용하여 재야세력의 무장활동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다. 이처럼 민씨척족은 원거리에서 의진의 결성과 활동을 지도하고 후원하였다.

셋째, 민씨척족의 의병운동은 일부 인사들에 의해 분산적 · 각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씨척족은 동고조(同高祖) 8촌 이내의 가계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의병활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개인 · 부자 · 사촌 · 사돈별로 의병활동에 나섰다. 전기의병기에 민용호의병을 후원한 민병성 가계만이 동고조 가계인사들의 전폭적 협력을 얻었을 뿐이며, 나머지 인사들은 대체로 친척이나 인척들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의병운동에 종사하였다. 이는 동고조의 후손들이 모두 척사운동과 의병운동에 종사한 유인석가문이나 1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안중근가문의 경우와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최익현의병과 여타 호남의병을 후원한 민경식 · 민병한 · 민형식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가계 인사들이 합심하여 활동한 것이지, 자기 가계 인사들의 협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여흥민씨 삼방파가 유난히 자손

108 이러한 새로운 의병관에 입각한 실증적인 연구성과로는 오영섭의 전기의병운동을 다룬 乙未義兵運動의 政治 · 社會的 背景」과 후기의병운동을 다룬 「한말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이 있다.

이 귀하여 가계간에 입적이 무시로 이루어졌고, 또 모친과 부인이 삼방파인 흥선대원군과 삼방파 중흥의 기수인 명성황후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인해 가계 간에 단합을 이루지 못했던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민씨척족의 의병운동은 구국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들의 거의 동기는 일제침략의 강도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였다. 전기의병기에는 일본세력과 친일개화파를 축출하고 황후시해를 복수함으로써 신내각의 수립과 왕권의 안정을 시도했던 반면, 후기의병기에는 매국대신들과 일본군을 몰아냄으로써 조선의 국권과 자주권을 수호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의병운동은 전기의병기에는 왕권수호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후기의병기에는 국권회복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씨척족은 자신들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권익의 보호와 유지에 관심이 많았던 권력지향적인 기득권 세력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거의 동기는 주자학적 사유구조와 문화체계를 수호하고자 봉기한 위정척사론자들의 거의 동기나, 일제구축과 친일파 제거라는 구국의 일념으로 창의한 해산군관이나 개신유림들의 거의 동기나, 목전에 당면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병에 가담한 전직관료나 일반민중들의 거의동기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민씨척족이 재야세력과 연대한 근본목적은 황제파천운동과 외교청원활동에 필요한 분위기를 지방에서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고종의 밀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구두상의 권유나 내락을 통하여 재야세력의 창의를 독려하였다. 이때 민씨척족은 전투력 · 조직력 · 군자금이 절대 부족한 재야세력이 일본군에게 패배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에 일본군의 강대한 무력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재야세력을 거의시켜 일본군에게 대항하게 만든 것은 재야의병의 전국적인 대일항전을 이용하여 고종의 외관(外館) 파천을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삼국간섭때와 마찬가지로 열강으로 하여금 일본의 대한침략정책을 좌절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는 민종식의 의병활동에 대해 일제가 "민종식은 1905년 11월 체결된 일한신협약에 반대하여 지방에서 폭도를 일으켜 한국 전토를 소요의 불바다로 만들어 열국의 간섭을 불러일으켜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획책했다"[109] 고 말한 데서 그

109 『독립운동사자료집』 3, 「朝鮮暴徒討伐誌」, 673~674쪽.

대로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민씨척족의 의병운동은 지방적 차원의 단순한 군사활동이 아니라 중앙정계에서 고종황제와 그 주변세력이 구상 · 추진하고 있던 황제파천운동과 국권수호외교와 동시에 추진된 표리일체의 관계를 가진 사건이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기의병운동기에 중앙세력을 대표하는 민씨척족과 재야세력을 대표하는 화서학파는 심한 갈등을 보였다. 민씨척족이 동도서기적 개화론을 수용했다면, 화서학파는 성리학적 위정척사론을 굳게 믿고 있었다. 양자는 일본군과 친일파를 물리치고 국왕을 구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대의명분에 공감하여 연대하였다. 그러나 전자가 고종의 군주권을 공고히 하고 신내각을 수립하고 동도서기정책을 실시하려 했던 반면 후자는 전통적인 성리학적 이상사회로의 회귀를 원하였다. 이러한 사상차이 외에도 양자는 군권장악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장 유인석이 민씨척족을 추종하는 선봉장 김백선을 양반모독죄로 적격 처형했던 것이다. 양자의 사상차이는 갑오경장 이후 재야세력이 만국공법에 입각한 근대적 국가관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점차 극복되어갔다. 그러나 의병진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앙세력과 재야세력간의 갈등은 한말연합의진에서 흔한 모습이었다.

일곱째, 국망기의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의 흐름을 상호 평행적 ·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시각은 수정 ·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망기에 의병운동에 가담한 일부 민씨척족이 포함된 고종세력은 군주중심의 절대황제체제를 지키려고 의병운동과 계몽운동과 청원외교를 동시에 펼쳤다. 그들이 전개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은 한국근대사 개설서에 각기 별개의 사건으로 기술되어 있는 의병운동과 계몽운동 부분과 상당 부분이 중첩되고 있다. 이때 1907년 7월 이전에 국한할 경우 의병운동에서는 활빈당과 농민항쟁계열의 일부 반봉건 의병들이, 계몽운동에서는 유신파와 일본유학생 등 극소수 민권주의자들만이 고종세력의 구국운동에서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한말 구국운동의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의병운동의 대부분과 그리고 계몽운동의 상당 부분과 중첩되는 고종세력의 구국운동을 민족운동사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고종세력의 구국운동을 한가운데에 위치시킨 다음에 활빈당과 농민항쟁계열의 반봉건 운동과 입헌주의자들의 계몽운동 등을 덧붙여 서술할 때에야 비로소 국망기의 구국운동의

흐름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4부 명성황후와 개화기의 인물들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

- 정치적 긴장관계의 구조와 과정 -

강 상 규*

1. 머리말
2. '기억' 속의 명성황후와 대원군 그리고 '무능한' 전제군주'
3. '구조' 속의 명성황후와 대원군
4. '과정' 속의 고종·명성황후 대 대원군
5. 맺음말

1. 머리말

왕실의 두 인물인 명성황후(1851~1895)와 흥선대원군(李昰應, 1820~1898)은 아마도 한국 정치사에서 대중적인 평가가 가장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인물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중 명성황후는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면서 외세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했던 인물이라거나 혹은 국왕인 고종을 대신하여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다 숨진 비범한 외교력을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겸비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 대원군은 일련의 과감한 '개혁' 정책과 철저한 '쇄국' 정책이라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상호 모순적인 이미지로 흥미로운 논쟁과 끊임없는 구설수의 대상으로 회자되어 오고 있다. 이 두 인물이 조선정계에 등장한 것은 조선이 '안과 밖'으로 심각한 위기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던 와중에서였고 이들의 정치적 비중이 심대한 것이었던 만큼,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관계'를 다루는 글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이 두 사람을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이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역사속의 숙명적인 라이벌로 파악하고 왕실을 포함한 조선정부를 '대원군정권' 아니면 '민씨(척족)정권' 과 같은 식으로 묘사해왔다. 그러나 정치인 개인에 대한 도식화된 이미지에 의해 정치사를 논하게 되면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두 인물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어려우며 역사적 맥락이나 구체적인 정치적 역학관계를 간과할 위험이 크다. 또한 조선정부를 하나로 뭉뚱그려 '대원군정권' 아니면 '민씨정권' 과 같은 식의 단일한 행위자로 파악히는 경향은 표현의 부적합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대내외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내의 권력을 둘러싼 복잡한 긴장관계와 아울러 정책주도의 근원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어렵게 한다는 점 또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관계' 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왕 '고종(1852~1919, 재위 1863. 12~1907. 7)'의 정치의식과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존연구들이 전제해온 것처럼 고종에 대한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암군(暗君)의 이미지 하에서는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관계는 성격적 결함과 스캔들의 연속으로만 묘사되거나 혹은 어느 한 편에 대한 일방적인 죽이기나 띄우기의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 고종의 청년기에 주목함으로써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정치적 관계에 다소 포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고자 한다.

우선 본고의 2장에서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조선 왕실의 두 인물과 무능한 전제군주' 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위를 우선 간략하게나마 음미해 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두 사람의 정치적 위상을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이라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짚어본 다음 고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정치가인지 청년기 고

종의 정치의식과 대외관을 중심으로 다루어보겠다. 그리고 조선의 유교적 정치 지형에서 고종과 대원군 명성황후 간의 정치적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해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마지막 4장에서는 당대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고종과 명성황후 대 대원군간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확대 심화되어기는 현실 정치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19세기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던 한국 정치사의 한 장면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기억' 속의 명성황후와 대원군 그리고 '무능한 전제군주'

1874년 파리에서 출간되어 이후 한국의 역사, 정치, 제도, 언어, 풍속 등에 걸친 서양인에 의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기념비적인 저서로서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사료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달레(Claude C.Dallet, 1829~1878)의 저술은 조선의 정치와 왕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이른바 정치생활이며 진보며 혁명이라는 것은 조선에 존재하지 않는다. 백성은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 것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양반만이 권력을 쥐고 있고, 백성을 짜서 한껏 많은 돈을 빼내기 위해서만 백성을 상대한다. 양반은 자기네끼리 철천지원을 품고 서로 잡아먹으려는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갈라진 원인이나 취지가 정치와 행정의 원리를 달리함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들은 관직과 사무상의 권력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근 3세기전부터 피비린내 나는 헛된 싸움의 따분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서에 의하면 왕은 오직 공익에만 마음을 쓴다. 그는 법률이 엄수되는가를 감시하고, 모든 신민에게 공평하고, 대관들의 착취에 대하여 백성을 보호한다 등등. 이 같은 왕은 조선에는 드물다. 대개의 경우 왕위에 오른 자는 게으름뱅이, 타락자, 방랑자, 早老者, 어리석은 자, 무능력자들이 많았다. 젊어서부터 왕위에 오른 이 불행한 임금들, 그들의 온갖 변덕은 숭배를 받고, 아무도 감히 충고 한 마디 못하며, 열 두 서너 살 때부터 궁궐 속에서, 후궁 속에서, 우스광스런 예절에 파묻혀 있게 되니, 어찌 그렇지 않

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1]

한편 조선의 개항에서부터 청일전쟁에 이르는 시기를 2천여 페이지에 걸쳐 근대적인 실증주의적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고 평가받아온 다보하시 키요시(田保橋潔)는 자신의 저서 첫 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조선인이 흔히 세도정치라고 말하는 다름 아닌 척족정치에 관한 연구는 근대조선의 정치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 본장(본 저서의 제1장)은 척족 세도정치의 기원과 발달을 서술하고, 고종대에 있어서 국왕의 생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명성황후 민씨를 중심으로 하는 척족 여흥민씨와의 대립을 다루려고 한다.[2]

'동양적 전제주의론' 과 '정체사회론' 을 주요한 두 개의 축으로 하고 있던 19세기 서구의 아시아인식, 그리고 근대일본의 실증적 근대사학에 의해 형성된 조선정치에 대한 타율적이고 정체된 이미지, 끊임없는 정쟁의 이미지는 이렇게 내밀

---

[1] Charles C. Dallet, ***Histoire de L'Englise de Coree,*** 1874, 19, 25~6쪽; 榎本武揚 역, 『朝鮮事情－원명 高麗史略』,동경, 1979, 50~51쪽. 달레가 지은 『조선교회사』 16세기 말 이후 1871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의 천주교 전래사를 다룬 천 페이지에 걸친 대작이다. 이 책의 〈서론〉은 독립된 형식으로 조선의 역사, 정치, 풍속 등을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달레는 "조선 역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을 모을 수 있었음은 주로 중국과 일본 책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1쪽) 2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의 〈서론〉은 에노모토 타케아키(榎本武揚, 1836~1908)에 의해 번역되어 1876년 도쿄에서 『조선사정(朝鮮事情)－원명 고려사략(原名高麗史略)』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카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후일 이 책의 일본어판 해제에서 '은둔의 나라' 라는 조선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달레의 일본어 번역판인 『조선사정』(동경: 동양문고,1979에 실려 있는 카지무라의 해제 346쪽), '은둔의 나라' 라는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또 하나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는 1882년 뉴욕에서 출간한 문제의 저작, 『은둔의 왕국 조선(***Corea The Hermit nation***)』의 서문에서 자신의 저작이 딜레의 저서로부터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달레와 그리피스의 두 저작은 1890년 런던에서 비교인류학의 기념비적 저서로 알려진 프레이져(J.G.Frazer,1854~1941)의 『황금가지(***The Golden,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1890년 판) 등에 '문명' 에 대비되는 '야만' 의 사례로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가 하면, 당시의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도 수록되는 등 광범위한 인기를 끌었다. 달레의 저작이 갖는 영향력은 후일 인도 총독과 옥스퍼드 대학총장 등을 역임한 조지 커즌(George N. Curzon,1859~1925)이 두 차례 동아시아 삼국을 여행하고 1894년 영국에서 발간한 저작 ***Problems of the Far East***(Westminster : Archibald Constable and Co. 나종일 역, 『100년 전의 여행 100년 후의 교훈』, 비봉출판사, 1996) 등에서도 수차례 확인된다. 이에 관해서는 강상규, 「조선시대 왕권의 공간과 유교적 정치지형의 탄생」 『애산학보』, 2003, 4~6쪽.

[2] 다보하시 키요시(田保橋潔), 『近代日朝關係の研究』, 조선총독부, 1940, 1쪽.

히 연결되어 있다.[3]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사실은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사학이나 내재적 발전론, 민중사학의 입장이 이러한 식민사학이나 서구의 아시아에 대한 문명적 편견' 에 대해서는 강렬한 거부감을 표명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내용의 전체적인 논리가 대체로 닮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고대-중세-근대라는 '직선' 적 시간관 , '세계사의 법칙으로서의 진보' 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근대인의 지식체계와 깊이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한편 한반도에서 근대사학의 출발 자체가 왕조사관을 극복하는 과제에서 시작된 만큼, 왕실을 비롯한 조선정부는 거의 시종일관 무기력하게 묘사되기 십상이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 조선근대사에서 왕실의 이미지란 '허수아비에 불과한 국왕을 사이에 두고 대원군정권과 민씨 척족정권 간의 각축이 고종의 친정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조선정부는 조선내부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를 몇 번이나 청국의 군사력을 요청하여 해결하는가 하면, 황후가 시해된 후 외국공관으로 왕이 도망(俄館播遷)하면서부터는 나라의 온갖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면서, 허울뿐인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행하면서 독립협회 등의 진보적 운동을 탄압한 존재' 에 다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근대로의 전환기에 '중세' 적인 기득권 세력인 왕실은 역사적 진보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고, 우유부단한 존재인 국왕 고종, 그리고 권력쟁탈에 광

---

[3] 강상중(姜尙中), 『オリェソタリズムの彼方へ-近代文化批判』, 동경 : 岩波書店, 1995, 88~89쪽. 근대 서구인의 아시아인식이 전개된 양상에 대해 흥미롭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지적해 둔다. Raymond Dawson, *The Chinese Chameleon:An Analysis of European Conceptions of Chinese Civilization*, Oxford Univ. Press, 1967; Paul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s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York:Columbia Univ. Press, 1984; Stefan Tanaka, *Japan's Orient:Rendering Pasts into Histor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3;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사카모토(板元ひろこ)외 『岩波講座:現代思想14= 近代 · 反近代』(동경 : 岩波書店), 1994. 한편 근대일본은 '일본형 오리엔탈리즘' 에 입각하여 자신의 자기정체성을 '서양' 으로부터 찾으면서, 랑케식의 실증주의라는 근대 학문의 방식을 빌어 '동양의 역사' 를 멸시와 극복의 대상으로서 구성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일본의 동양사 구축과정에 관해서는 위의 다나카의 저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수용, 섭취되어온 근대 학문에 대한 주체적이면서도 성숙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저작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의 저서가 중국역사의 停滯性에 관한 헤겔(Hegel,G.W. F., 1770~1831)의 언급을 책머리에 인용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話頭를 열어간 것은 아마도 근대인의 사유체계와 동양사 이해의 상관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정치사상사연구』, 동경 : 동경대학, 1952, 3~7쪽.

적으로 집착하는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이미지는 망국을 준비해온 존재로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사의 가장 극적인 시기에 활동했던 너무도 중요한 정치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와 대원군 그리고 고종과 같은 인물에 대한 깊고 진지한 성찰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이 이와 같은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견고하게 자리매김 되어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구조' 속의 명성황후와 대원군

우선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위상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5]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 그가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떠한 합법적 혹은 명분상의 근거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일 임오군란을 군사력으로 제압한 청에의해 납치된 대원군은 '내가 본국에 있을 때 재상의 윗자리에 있어 태공(太公)으로 자존(自尊)하였다'고 언급하게 되는데,[6] 그것은 대원군이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의 공식적인 직위나 제도적 보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즉 대원군은 국가권력의 실질적인 중심으로부상해 있었으나 공식 기구의 합법적인 참여자로서 간주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원군의 정치적 위상은 19세기 조선의 정치적 국면에서 나타나던 정치권력의 '사유화' 경향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이면서도, 조선 정치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가 국왕 고종의 '살아있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의 정치적 의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왕도정치의 이념을 살린 이상적인 왕위승계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선위[7]는 현실정치의 장에서 현실화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왕이 상왕(上王)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 이것은 왕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구심축이 부득불 이원화될 소지를 초래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7대 국왕 세조(재위 1455~1468)에 의해 형식적

[5] 대원군의 정치적 위상에 관해서는, 강상규, 「문명사적 전환기 대원군의 위기관리 및 왕권강화책의 패러독스」,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콜로키엄 발표논문, 2005.

[6] 성대경, 「대원군의 보정부담초」『향토서울』40, 1982, 132~133쪽.

[7] 선위라는 왕위승계방식은 선왕이 '적임자' 에게 왕위를 계승시킨다는 의미를 지니며 禪讓, 禪位, 讓位 등의 용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인 선위가 이루어진 이후 정치적 구심력을 분산시킨다는 이유로 인해 조선정치에서 선위는 강력히 회피되고 있었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국왕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현실정치에 있어서 대단히 민감한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8] 흥선대원군은 '살아있는' 대원군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정치사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였으며[9] 이러한 독특한 정치적 존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고종의 왕위승계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

이처럼 국가권력의 공식적인 주관자일 수 없는 대원군이 국왕이 아닌 몸으로 정치권력의 실질적인 핵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전통적인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국왕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여러가지 이념적, 제도적인 틀에 상대적으로 구애받지 않고서 그만큼 그의 정치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대원군이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그의 독특한 정치적 위상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대원군의 위상과 관련하여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대단히 견고하게 구축된 것처럼 보이는 대원군의 정치권력이 어떠한 제도적 합법성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말미암아 왕권에 대해서만은 취약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상 대원군의 실질적인 권력이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왕권을 훨

---

8 『매천야록』에 따르면,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고종이 왕이 되면 권력이 두 개로 분산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리라는 우려가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표출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종이 승하한 후 후사가 없었다. 철종은 일찍부터 지금의 국왕에게 뜻을 두고 있었으므로, (당시 대표적인 세도가문이던) 안동 김씨 세력들은 그를 옹립하려고 하였다. 이에 김흥근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흥선군이 있으니, 이것은 임금이 둘이 있는 셈입니다. 어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 두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흥선군을(왕으로)옹립하십시오.' 황현 저, 김준 역, 『매천야록』, 교문사. 1994, 2쪽. 황현의 기록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행간을 통해 적어도 당대의 일반적인 유자들에게 있어 국왕의 생부가 살아있다는 상황이 얼마만큼 특별한 사태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대원군이란 '傍系로서 大統을 이은 임금의 생부에게 주어지는 封爵' 을 의미하는데, 조선 정치사로서 대원군의 칭호를 얻은 사람은 흥선 이하응 이외에도 세 사람이 더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사후에 아들이 왕이 되어 대원군으로 추존된 경우라서 조선에서 살아서 대원군의 칭호를 받은 인물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하다. 『선조수정실록』 2년 11월 1일; 『인조실록』 원년 5월 7일; 『철종실록』 즉위년 6월 17일; 『고종실록』 즉위년 12월 9일자를 참조.

10 고종의 왕위승계 과정에 관해서는 홍순민, 「10세기 왕위의 승계과정과 정통성」『국사관논총』 40, 1992; 강상규, 「고종의 외교정책과 대외인식」『한국사 시민강좌』, 일조각, 1996.

씬 능가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원군이 행사한 권력의 정당성은 국왕의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동의에서만 견지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후일 대원군이 행사하던 '사실상의 섭정' 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분명히 표명한 국왕 고종의 공개적이면서도 강력한 전면적인 비판에 직면했을 때 의외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도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기본적으로 대원군이 갖는 정치적 위상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 정치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명성황후의 정치적 위상도 어느 면에서 대원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조선 왕조의 상징적인 '질서' 의 축으로서 정치권력의 정통성의 근거가 되는 '왕권'과의 원만한 관계가 견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국왕 고종의 정비(正妃)로서의 명성황후의 정치력은 지속 가능한 것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성황후와 국왕 고종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었으며 명성황후가 기본적으로 국왕 고종의 정치를 보좌하는 협력자였음은 고종이 지은 어제행록(御製行錄)에 다음과 같이 잘 드러나고있다.

> 집안이 대대로 의리를 강구하니 황후도 어려서부터 이를 본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마치 못이나 쇠를 쪼개듯이 날카로웠다. 예지가 타고난 천성이어서 귀신과 같았다. 어려운 때를 만나니 더욱 살뜰히 나를 도와서 내가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앉아 있었고, 근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풀어주었다. 특히 외국과 교섭하는 문제에서도 수원정책(綏遠政策; 먼 나라를 끌어들여 가까이 하는 정책)을 권하여 사신으로 각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두 감복한다고 했다. 황후가 일찍이 나에게 말한 것들이 지나고 보니 모두 그 말대로이니 황후의 통달한 지식과 멀리 내다보는 사고, 미래에 대한 헤아림이 고금에 견줄 바 없이 탁월하다. 흘륭한 공덕으로 나를 곁에서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정사를 돌볼 수 있었다.[11]

하지만 고종의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명성황후의 정치적 행적은 조선의 공식 관찬자료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명성황후가 실질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성황후의 정치적 위상이 조선의 정치지형에서 다름 아닌 제도적 합법성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

11 『고종실록』 광무 원년 11월 22일 대행황후지문 어제행록.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종은 어떠한 정치가였는지 청년시절 그의 정치의식과 대외관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12] 즉위 초년의 고종은 어느 누구보다 더 취약했던 자신의 왕위계승과정으로 말미암아 대왕대비 조씨(조대비, 1808~1890)의 수렴청정과 생부인 흥선대원군의 실질적인 권력 장악으로 현실 정치에 있어서 국왕의 역할은 사실상 미약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즉위 초기 고종의 공식적인 정치행위는 대체로 강학 곧 경연에 열중하는 것과 더불어 왕실 행사와 같은 국가의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 현실 정치의 표면에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위 초기의 고종은 왕자 수업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왕위를 계승한 이유 등으로 유교군주로서의 내적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경연수업이 특히 중시되었다. 즉위 후 10여 년간 행해진 1,300여회에 걸친 경연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고종은 당시 조선의 기강이 매우 쇠약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되어 국가의 근본인 백성의 생활이 극히 불안한 상태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의 관리가 모범적으로 '위민' 정치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군주인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적 책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종의 유교적 '위민' = '민본' 의식은 점차 대원군의 패도적 정치성향과는 다른 정치를 직접 실천하려는 의지가 구체화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고종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성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종이 청년기를 맞이하면서 경전류보다 상대적으로 역사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서를 통해서 자국의 역사를 비롯한 고금의 치란, 흥망성쇠의 궤적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요컨대 민본사상과 같은 이상주의적 신념과는 별도로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반추하게 함으로써 보다 신중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역사적이고 통시적으로 설정하는 근거가

[12] 고종 초기의 정치 의식과 대외관에 관해서는 강상규,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과 문명사적 전환기의 위기-전형기의 군주 고종을 중심으로-」, 동경대학 박사학위논문, 2005, 231~259쪽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기를 맞이한 고종의 역사서에 대한 관심은 고종이 이후 조선의 안과 밖의 상황변화에 '민감'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반응하게 되는 빼놓을 수 없는 사상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즉위초기 고종은 서양세계를 전통적인 화이관념에 근거해 문명세계와는 상극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고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갔던 조선유자들의 거의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자기에 대한 인식' 인 동시에 '타자(他者)로서의 서양에 대한 인식' 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종은 동아시아 질서의 거대한 전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의 각종 사건과 정보에 접하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외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고종에게서 전통적인 화이관념의 전환이 나타나는 과정을 당시의 정치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면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고종이 즉위 후 조선의 개화사상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박규수(1807~1876)와 인맥으로나 사상적으로 분리할 수없는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정보의 통로와 국왕과의 관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질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청국 이외의 정보망을 확보하게 되기까지 청국에 파견한 사절의 보고는 대외정세에 관한 실질적인 유일한 정보원이 되고 있었다.

고종은 여러 차례의 보고를 거치는 동안 다양하고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 서양제국과 서양화한 일본이 세력을 확산시켜가고 있음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고, 또한 중국이 조선으로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고종이 청국에 대해 갖고 있던 '제국으로서의 중화' 라는 '신화화' 된 이미지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종은 요컨대 조선의 배외정책이 시대적인 대세를 무시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조선이 점점 고립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불만을 동시에 갖게 되었고, 고종의 이러한 상황판단은 대외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과 아울러 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계기들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고종과 대원군 그리고 이른바 명성황후 간의 정치적 관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고종의 왕통상의 부모가 조대비와 익종(翼宗=효명세자,

1809~1830)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13] 따라서 왕실의 예법(五禮)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종이 효도해야할 대상은 생부인 대원군이 아니라, 조대비와 익종이었다. 당시의 관찬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실제로 고종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 공적으로 국왕에게 강조된 효도의 대상은 언제나 조대비였으며, 조대비는 자신이 고종의 어머니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연에서 고종이 최초로 읽은 텍스트가 조대비의 뜻을 반영하여 『효경』으로 결정된 것도 물론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종은 자신이 조대비에게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고자 함을 항시 강조하였고 이러한 고종의 태도는 대원군과 정치적 견해차가 노정되고 정치적 관계가 불편해짐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종은 정치적 정통성의 상징이라는 왕권의 특수한 위상을 이용하여 일단 친정을 선언할 수는 있었지만 '효'라는 유교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가치로 인해 자신의 생부인 대원군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예컨대 다음에 소개하는 상소문들은 이러한 정황을 드러내주는 몇 개의 시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며 모든 교화의 근본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오직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근심을 놓을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잘 꾸리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도는 효도와 우애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익현이 재차 상소문을 올린 뒤 모든 데서 和氣가 없어지고 말았으니…만일 효도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설사 백 가지 일들이 잘되어도 정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서 먼 훗날에 가서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14]

> (얼마전) 이휘림은 상소문을 통해 '전하께서 대원군을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전하는 대원군이 교외로 행차한 것은 전적으로 적당한 곳을 찾아서 몸조리를 하기 위한 것이니 앞

13 『고종실록』 즉위년 12월 8일.
14 『고종실록』 고종 10년(1873) 12월 12일, 「副司果朴遇賢疏略」

> 으로 머지않아 돌아올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달이 되어오지만 (대원군이 운현궁으로) 돌아왔다는 통보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따르지 않으면서 왕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말을 신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전하에게 진술하지 않으면 전하가 장차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말한 것으로 하여 거대한 사악함을 제거하고 조정이 청명해질 수 있다면 신은 죽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15]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유교적 예법에 근거할 경우, 부자간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인 반면 군신관계는 기본적으로 의리관계여서 효의 원리에 비해 충의 원리는 보다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원군과 고종은 '효' 의 원리와 '충' 의 원리가 부딪치는 미묘하고 불편한 정치적 관계에 놓여 있었고,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이러한 상황은 현실정치의 장에서 국왕 고종이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심각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이래 왕실의 특수성론 보다 사대부의 보편가치론을 강조하는 '가례적 예론'이 정착되고 중시되는 분위기여서, 일반 유자를 비롯한 백성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예법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국왕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고종은 대원군에 대한 불편한 관계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겨 가능한 회피하려 하였고, 대원군 역시 국왕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나 대립이 자신의 정치적 존립 근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명성황후나 여흥민씨 세력의 정치적 역할이 점차 부상하게 되는 것이나, 혹은 이후 본질적으로 국왕 고종과 대원군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정치적 대립이 현상적으로는 대개 명성황후와 대원군간의 대결 양상을 띠고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미묘한 사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15 『고종실록』 고종 11년(1874) 12월 29일, 「前掌令孫永老疏略」

4. '과정' 속의 고종 · 명성황후 대 대원군

친정을 선포한 후 고종의 대외관계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일본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 조선의 고립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의식 등이 지속, 확대되어 나갔음은 이후 계속되는 연행(燕行)사절과의 구두보고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의 배외정책과는 다른 대외적 입장을 취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가시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고종이 정치적 정통성의 현실적 근거가 되는 왕권의 위상을 이용하여 일단 친정을 선언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생부인 대원군의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히 대원군이라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여부를 떠나, 기왕에 대원군이 장악하고 있던 광범위한 인적 물리적 권력기반과 고종이 '동거'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대원군과 관련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국 운영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왕권에 대한 신권세력의 견제가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875년 5월, 일본의 서계를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상황에서, 고종은 지방에 은거하는 대원군을 운현궁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유쟁들의 상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국왕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의지를 천명하게 된다.

> 여러 대신들은 나의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물러가서 상소문을 주관한 유생을 불러다가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한 뒤에도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술하는 글을 올리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악의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니, 결단코 왕의 권위를 침해한 불순한 행동에 해당한다는 법조문을 적용할 것이다.[16]

그러나 얼마 후 자신의 효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의 상소가 다시 나타나자, 고종

16 『고종실록』 고종 12년(1875) 5월 17일.

은 '유생들의 상소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번에 분명히 지시한 바 있었는데 다시 상소를 올리니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17]고 하면서, '이들이 왕의 권위를 침범한 불순한 죄를 저지른 이상 이들을 처형하라' 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18] 그러자 이러한 고종의 지시가 내려진 다음날, 전 · 현직 대신들이 연합 상소를 통해 국왕의 처사가 '나라가 선비를 대우하는 예에 어긋난다.' 면서 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금부의 당상관들 역시 연합상소를 통해 '정당한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러한 지시가 수백 년 동안 견지되어오던 법 규정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리는 행동' 이라고 하면서 불가불 왕명에 따르기 어렵다고 저항하고 나서게 된다. 고종이 이러한 반대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전 · 현직 대신들이 다시 연합상소를 올려 '선비들의 기개가 오백년의 왕조를 지탱한 원기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특별히 용서할 것' 을 간청하고 나서게 된다.[19] 이에 대해 고종은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 도리에 맞지 않게 국왕을 범하였는데도 만일 선비라는 이름으로 인해 처단하지 않는다면 나리에 군주는 없고 오로지 선비만이 있게 될 것이다. 경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가. 대신들의 논의는 부당한 것 같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후 고종의 입장에 대한 반대의사는 대간업무를 맡은 홍문관 관리들의 연합상소와 의금부 관리들의 두 번째 연합상소로 이어졌으며, 고종은 이처럼 계속되는 연합상소가 '신하의 본분에 부적절한 태도' 라고 비판했다.[20] 그러자 다음날 전 · 현직 대신들이 자신의 불충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압력을 가하는가하면, 현직 대신들은 사임을 청하였고 홍문관에서는 다시 연합상소를 제출했다.[21] 이처럼 유생의 처벌을 둘러싸고 군신간의 대치가 수 일째 팽팽히 지속되자, 결국 고종은 '신하들의 계속되는 항명에 대해 탄식한다.' 고 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철회하게

17 『고종실록』 고종 12년(1875) 6월 17일.
18 『고종실록』 고종 12년(1875) 6월 18일.
19 『고종실록』 고종 12년(1875) 6월 19일.
20 『고종실록』 고종 12년(1875) 6월 20일.
21 『고종실록』 고종 12년(1875) 6월 21일.

된다.[22]

위에 소개한 케이스는 군주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신하들이 일종의 심의권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조선의 건국 이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보편적 '이념' 과 각종 '제도' 를 통한 왕권에 대한 신권의 견제구조가 고종이 친정을 선언한 이후에도 여전히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전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3] 더욱이 정상적인 왕위계승방식에서는 살아있는 대원군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왕 고종의 왕위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비정상성에서 파행된 정통성의 취약함이라는 문제가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현실적으로 고종의 정치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현실적으로 신하들과 유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고종에게 무엇보다 념기 어려운 정치적 딜레마였다. 유생이나 신하들의 상소가 철저히 유교적 레토릭에 의한 화이론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있었던 만큼, 이들의 논의를 무시하는 것은 나라의 공론(公論)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임은 물론, 조선왕조의 정치적, 사상적 존립근거를 국가의 중심인 국왕이 부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고종이 어떠한 의식 하에 현실적으로 대원군과 다른 대외적 입장을 취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현실적 제약과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는지를 무엇보다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74년과 1875년에 있었던 박규수와 대원군간의 일본과의 수교를 둘러싼 서신 논쟁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종과 대원군의 미묘하고 불편한 정치적 관계와 당대의 정서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서한을 통한 논쟁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박규수와 대원군 간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사실상 고종과 대원군의 대리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당대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던 대외정책을 둘러싼 양자간

---

[22] 『고종실록』 고종 12년(1875) 6월 22~23일.

[23]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왕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이념적, 제도적 장치가 탄생하는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졸고, 2003에서 다루었으므로 이를 참고할 것.

의 입장과 명분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24]

일본과의 조약체결과정에서 다양한 반대여론에 직면한 고종은 더 이상의 논의가 이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당시의 반대여론을 돌파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포함(砲艦)외교에 의한 조약체결의 국내정치적 여파는 심대한 것이었다. 예컨대 고종의 친정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최익현(1833~1906)이 이번에는 도끼를 지참하고 화이론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결사반대의 논리를 전개한 반대상소는 고종의 정치적 입지가 얼마만큼 협소해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과의 수호조규를 계기로 하여 최익현과 같이 대원군의 국내정책에 반대하던-그런 만큼 고종을 지지하던-세력마저도 고종에게 압박을 가한 형국으로 국내정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배외정책에 대한 고종의 변화 의지가 조선의 현실정치의 장에서 구체적인 일련의 개혁적인 정책의 형태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조선책

---

[24] 이때 박규수가 대원군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대원군을 설득함으로써 조정의 반대 분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일 朝日간에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 오경석(1831~1879)이 일본측의 미야모토 고이치 (宮本小一, 1836~1916)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1842~1919)에게 "현재 대원군은 물러나 있으나 거의 모든 대신들이 비밀리에 정사를 대원군에게 알리고 그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고 한 것이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대원군을 두려워하여 감히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일본외교문서』, 명치년간, 9권, 27~39쪽, 문서번호 6; 김정명,『일한외교자료집성』1, 동경 : 암남당서점, 1966, 102~119, 189쪽.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국학 권위자인 팔레는 박규수의 위의 서한에 대해 필자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박규수는 고종이 너무나도 용기가 모자라는 것에 대하여 타격을 받은 나머지 국왕을 향한 신뢰를 상실하고 자신의 政綱에 대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인 대원군에게로 돌아갔다. ··· 다시 말해서 박규수는 기존에는 자신이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늘 반대해 왔던 대원군이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를 간청한 것이다. 박규수는 고종의 영도력을 거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종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대원군에게 그의 견해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더 쉽다고 결정했다." James B.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260~261쪽. 이러한 팔레의 해석이 이루어진 데는 다음과 같은 팔레의 관점 때문이었다. 즉 팔레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유교가치를 함양하는 엄격한 聖王 교육을 받은 고지식한 학생'에 가까운 고종이 자신과는 달리 '활동적이며 결단력이 월등하고' '전통적이면서도 실용적인개혁가'인 그의 부친 대원군을 밀어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박규수가 지도력이 부족하고 유약한 고종을 포기하고 대원군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략(朝鮮策略)』이 전래된 직후인 1880년 9월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5] 1880년 12월 조선정부는 '사대, 교린, 군무, 변정(邊情) 등과 관련된 일을 전담할 새로운 아문' 을 마련하라는 고종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국가기관으로서 통리기무아문(이하 통리아문으로 약칭)을 설치한다. 이처럼 통리아문의 설치는 고종이 미국과의 수교를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외교 사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할 적절한 기구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이 기구의 관장업무는 외교, 국방, 통상 등을 비롯하여 각종 기계 병기 함선의 제조, 인재선발, 각국 언어의 학습 및 번역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담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따라서 방침을 전환하고 외국과의 교섭 및 통상, 무비강구에 관한 일을 전담토록 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기구인 동시에 고종의 정치적 구상이 깊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기구의 성격이 대단히 특이하다는 점이다. 당시 의정부가 고종에게 올린 보고에 의하면, 통리아문이 조선 건국 이래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어오던 의정부-육조체제의 하위기관이 아닌 '별도' 의 기구로서 의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 정일품 아문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의정부 대신이 총리의 직책을 갖고 이를 통제하게 한다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정부의 이원화에서 불가불 드러나게 될 정치적인 견제 갈등관계를 최소화하고 두 개의 기구가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통리아문의 이러한 절충적 성격은 국내적으로 기존의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주요한 정치세력의 정치적 지원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동시에 자강정책을 담당할만한 새로운 인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한 한 정치적인 마찰을 피해가면서 개혁을 추구하려는 고종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5] 1880년대 조선왕조의 문호개방정책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8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지배층의 개화정책은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외세의존적이고 몰주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182쪽)는 관점에서 폄하하거나, 혹은 '조정에 진출한 개화파들에 의해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를 비롯한 일본시찰단 및 영선사 등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신용하,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한국사』 38, 국사편찬위원회, 1999, 38~51쪽)는 측면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될 당시 오늘날 개화파로 지칭되는 인물 중에 조정의 핵심 관직에 올라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의정부와 동급에 해당하는 통리기무아문과 같은 국가기구를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개화파가 설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고종의 정치적 의도는 통리아문의 운영과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해 두고 싶은 사실은 통리아문이 지향하는 모델이 대단히 신중하게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통리아문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청국의 총리아문의 모델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채택하게 된 데는 다분히 전략적인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고립된 조선의 상황을 타개하고 자강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조선의 처지에서는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 제시한 '친중국' 이라는 청국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조선이 존중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청국측 관료나 국내의 정치적 저항세력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인 경계심이나 의구심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종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고려하지 않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후 고종의 행동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종은 자신의 밀사의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온 개화승 이동인(1849~1881. 3?)의 권유 등에 따라, 대규모 일본시찰단의 파견을 결정하게 된다.[26] 이후 시찰단의 파견은 국가적 기밀로 취급되면서 은밀하고도 신속히 추진되었는데, 이들을 파견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국왕의 개인자금인 내탕금에 의해 충당되었다. 이때 시찰단에 뽑힌 책임자들은 주로 흥문관이나 대간출신의 언관으로 학식과 문장이 뛰어나고, 고종을 가까이 모시던 신하들로서 국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대체로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물들이었다. 고종은 이들에게 일본의 내무성 문부성 사법성 공부성 외무성 육군성 대장성의 업무, 세관 사무, 기선 운항과 육군 조련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각자의 임무를 밀지(密旨)를 통해 상세히 지시하였고, 특히 어윤중(1848~1896)과 홍영식 (1855~1884)에게는 미국과의 수교에 대비하여 외교 사항을 조사하는 임무가 첨가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축적되어온 고종의 정치적 구상이

[26] 주일청국공사 허위장(何如璋, 1838~1891)에게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고종의 밀사로서 일본에 건너간 이동인은 1880년 12월 1일(陽) 어니스트 사토(Ernest M.Satow, 1843~1926) 에게 '가장 개명된 인물로 구성된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외국의 대표들과 (조약체결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싶다' 는 계획을 피력한 바 있다. 하기바라 노부토시(萩原延壽), 『遠い崖 : ア・:9ト・サトウ日記抄, 14卷=離日J』, 동경 : 岩波書店, 2001, 109~110쪽.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시찰단은 최초부터 국왕의 결단에서 나온 일로서 정부안에는 동의하는 자가 적지 않고, 금일에 이르러서도 아직 중론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7]
>
> (이들은 일본에) 비록 유람한다는 명목으로 가지만 실은 국왕으로부터 우리나라(일본)의 국정을 시찰하도록 특별히 지시받은 인물들로서 이들 일행이 조선의 개화의 기본을 다지게 될 것이다.[28]
>
> 오늘날 천하의 각국이 서로 간에 교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교류한 지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아직 저 나라의 속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들을 특별히 보내 각기 임무를 주어 탐지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 과연 얼마나 실정을 탐지하여 왔는가.[29]

일본시찰단은 귀국한 후 방대한 견문기록을 고종에게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주목해야할 사실은 이들 시찰단들이 개편 정비된 통리아문에 각자가 시찰한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로 모두 배치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도표 1]은 통리아문의 창설 당시 12사(司)의 책임인물과 7사(司)로 개편되어 일본시찰단 출신이 참여하게 된 상황을 도표화한 것이다. 고종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본시찰단의 파견, 그리고 당시 고종이 기존의 의정부체제에서와는 달리 통리아문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것은 시찰단의 일본 견문체험을 통리아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려는 국왕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27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花房公使朝鮮羊關系記錄』 4, 서울대규장각 도서. 주조선 일본공사 하나부사(1842~1917)가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5~1915)에게 보낸 보고 중에서.

28 『일본외교문서 : 명치년간』 14. 부산주재 일본영사 곤도 신스케(近藤眞鋤)가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보낸 보고 중에서.

29 박정양, 『박정양전집』 4, 아세아문화사, 1984. 박정양(1841~1904)의 복명시 고종의 발언.

표 1 통리기무아문의 개편과 책임인물

기구의 출범기 (1881년 1월 16일)		기구의 개편(1881년 11월 21일)	
12사 체제		7사 체제	
	당상		당상 및 주사
① 사대사/ ② 교린사/	◎조영하	① 동문사 정범조	正)이재면(종친), ◎조영하, 副)+● 심상학〈외무성〉 主事)박영교, 이병칠
③ 군무사/ ④ 변정사/ ⑤ 기연사	**민겸호**, 윤자덕	② 군무사	正)이재원(종친), 신정희, 민영익, 조희순, +● 이원회 〈육군조련〉副)+● 홍영식〈육군성〉 主事)이범진
⑥ 통상사	김보현, ◉김홍집	③ 통상사	正)김보현, ◉김홍집, 副)+● 조병직〈세관〉, +● 이헌영〈세관〉 +● 민종묵〈세관〉, 主事)+● 어윤중〈대장성〉, 신기선
⑦ 군물사/ ⑧ 기계사/ ⑨ 선함사/	◎심순택, 신정희	④ 감공사	正)민태호, 정범조, 副)+● 강문형〈공부성〉
⑩ 전선사/ ⑪ 어학사	이재긍(종친) **◎민치상**	⑤ 전선사	正)김병덕, 윤자덕, +● 조준영〈문부성〉
⑫ 이용사	김병덕, **민영익**	⑥ 이용사 ⑦ 율례사	正)민겸호, ◎이근필, +● 박정양〈내무성〉 ◎심순택, +◎● 엄세영〈사법성〉

* ◎청국체험 유, ◉일본체험 유, ● 는 1881년 일본시찰단(이른바 신사유람단)으로 참가한 인물, 〈〉 안은 일본시찰에서의 담당부서, +는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추가된 인물, 正)은 경리사(經理使), 副)는 부경리사 *『승정원일기』, 고종 18년(1881) 1월 16일조, 11월 21일조, 『일성록』 동일자, 허동현의 제연구 등을 참조.

한편 위의 표를 보면, 7사로 개편된 통리아문에서 기존의 사대사와 교린사를 동문사로 통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만국공법적 질서에 맞추어 재정립해 가려는 고종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통상사와 군무사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크며 이들 부서에 시찰단의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종이 대외정세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줄곧 대외적으로 고립된 조선의 형세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러시아와 일본을 경계할 것을 권고한 이홍장의 서한 등에 자극받아 조정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청국에 무기구입 등에 관한 의뢰를 한 사실 등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통상사와 군무사를 고종이 이

처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른바 '부국' 과 '강병' 의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며,[30] 아울러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현실적 장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연구를 통해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여흥 민씨 세력이 현실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종이 통리아문을 설립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31] 민태호(1834~1884)가 의정부 좌참찬(정2품)으로서 통리아문을 설립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가 하면,[32] 명성황후가 특히 총애하던 젊은 민영익(1860~1914)이 통리아문의 핵심인물 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이러한 상황전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외에도 앞서 살펴본 표 1<통리기무아문의 개편과 책임인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흥민씨는 새로 출범한 통리아문을 통해 민치상(1825~1888), 민종묵(1835~1916), 민겸호(1838~1882) 등이 당상관으로 등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통리아문의 설치를 계기로 여흥민씨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들의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사실과는 많이 거리가 있어 보인다. 1881년이라는 시점에서 독자적으로 여흥민씨들이 갑자기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만한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당대의 정치상황하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들은 강력한 정치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고종의 곁에서 국왕의 정국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예컨대 고종이 자신이 신뢰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본시찰단을 구성하여 비밀리에 파견하려고 추진할 무렵, 하나부사 일본공사가 본국의 외무경

---

30 일본시찰단의 귀국 보고가 이루어진 얼마 후, 고종은 무기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대로 청국에 영선사 일행(유학생 38명을 포함하여 69명)을 파견하였다. 이때도 고종은 떠나는 영선사 김윤식에게 "천하의 대세를 두고 볼 때 옛 도리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武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고종 18년(1881) 9월 26일.

31 "The T ongnigimu Amun became the stepping stone to power for some members of the Yohung Minclan," Deuchler, *Confucian Gentlemen and Barbarian .Envoys, The Opening of Korea*, 1875~1885, Seattle and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7, 96쪽.

32 고종은 수신사 김홍집이 귀국한 후 조정회의(1880년 9월 8일)를 열어 기존의 배외정책이 조선을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결론을 유도해 낸다. 그리고 고종은 조정회의가 끝난 후 민태호를 의정부 좌참찬에 임명하였는데(『일성록』 고종 17년(1880) 9월 8일) 이후 통리아문의 설치에 필요한 절목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린 후 이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인물이 바로 민태호를 비롯한 의정부 유사당상들이었다. 『비변사등록』 고종 17년(1880) 12월 7일.12월 20일; 殷丁泰, 「고종친정 이후 정치체제의 개혁과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사론』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180쪽.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 이들(=시찰단으로 떠나는 인물들)은 모두 민씨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 세력은 대체로 소장파이기 때문에 대원군의 노장파에 비해 힘이 부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동인 등의 생각은 이 거사(일본시찰단 파견)를 통해 그 세력을 완전히 민씨파로 옮기려 하는 것 같다. 민씨파의 우두머리는 올해 24세(실제로는 21세)의 민영익으로서 관직이 참판에 불과한데 따로 기치를 세워 정파를 결성하려는 것이 이상스럽긴 해도 그 조부의 후광과 중궁의 신뢰 덕분에 이 일이 가능했음이 틀림없다.[33]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통리아문이 설립되어 일본시찰단이 파견될 무렵 항간에 회자되던 '민씨파' 라고 하는 세력이, 흔히 오늘날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여흥민씨라는 국왕의 외척그룹'에 국한된 인물들이 아니라, 당시 노련하고 강력한 정치그룹이던 '대원군세력' 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며, 국왕을 보좌하던 소수세력을 총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민씨파라고 하는 세력의 실제가 사실상 '여흥민씨를 비롯하여 고종의 주변에서 국왕을 보좌하며 개화 및 자강정책을 추진하는 소장파그룹' 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원군계열의 정치세력으로 알려진 안기영(1819~1881)등이 주모가 되어 고종을 폐하고 대원군의 서자인 이재선을 왕으로 세우려다 미수로 끝난 사건이 발발한 것은 이러한 와중에서였다.[안기영의 쿠데타 미수사건, 1881년 8월 28일] 이 사건은 고종대에 들어와서 나타난 최초의 역모사건이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처리하여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인물들을 모두 처형하였고 이후 유생들의 척사상소도 일단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기존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대원군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으나 제거되지 않았고,[34] 얼마 후 미국과의 조약체결 직후 임오군란이 발생함으로써 그는 다시 권력을 쥐게 된다. 이

---

33 『일본외교문서 : 명치년간』 14권.

3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안급국안』 30, 『우포청등록』 30 책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에 의하면, 대원군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송병기, 『근대한중관계사연구 : 세기말의 연미론과 조청교섭』, 단국대학교출판부, 1985; 조성윤, 「개항직후 대원군파의 쿠데타 시도 : 이재선 사건을 중심으로』 양상현 편,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 1985, 177~187쪽.

과정에서 의정부 대신 가운데 고종의 입장을 지지해오던 이최응(1815~1882)을 비롯하여 통리아문에서 일하던 김보현(1826~1882), 민겸호 등이 살해되었고, 대원군은 서둘러 명성황후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35] 또한 대원군은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통리아문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고종의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야에 팽배한 뿌리 깊은 화이론적 명분론,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내려오던 강력한 왕권견제의 전통, 대원군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인해 조선의 개화자강정책은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태의 급격한 전개는 고종과 명성황후 대 대원군의 정치적 관계가 얼마나 착종되어 있는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후 청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일단 수습되자 고종은 '문벌숭상은 천리의 공평함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제부터 나라가 인재를 등용함에 귀천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겠다는 교서(1882년 7월 22일)를 반포하는가 하면, 만국병립의 상황이 바로 세계적 대세이며, 종래의 배외정책이나 양이 관념은 조선을 세계 속에서 고립시켜 위태롭게 할 뿐이므로, 국가평등 관념과 새로운 만국공법적 질서에 근거해 조선의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동도서기와 같은 절충적인 논리를 새로운 정책전환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살리는 동시에 이용후생의 원칙 등에 입각한 부강책을 절충하여 수용해갈 것' 임을 공개적으로 천명(1882년 8월 5일)하게 된다. 그리고 기무처(1882년 7월 25일), 감생청(1882년 10월 20일) 등의 임시기구를 만든 후 이어 외교 및 통상 사무를 담당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과 내정 일체를 담당하는 통리군국사무아문(=내아문)을 설치(1882년 12월 4일)하여 통리아문의 설립취지를 계승 · 발전시켜 가려 했다.

하지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년 10월)' 이 맺어지는 등 청국의 조선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흔히 '민씨세력' 으로 불리고 있던 국왕을 보좌하던 측근그룹 내부에서도 친청그룹

35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6월 10일, 11일, 12일, 14일; 이후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명성황후가 피난에서 궁궐로 돌아온 것은 임오군란이 청군에 의해 진압된 후인 8월 1일이었다.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7월 25일, 26일, 8월 1일.

과 반청 자주를 중시하는 그룹으로 정치적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청국의 실질적인 간섭과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친청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발굴된 당대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견해차이가 정치적 대결의 양상을 띠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종이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인 보빙사 일행이 돌아오면서부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36] 김옥균(1851~1894) 등 오늘날 이른바 급진개화세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이른바 '여흥민씨' 세력들을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적대적 감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보빙사가 귀국한 이후의 시점에서부터였다.

그러나 이처럼 국왕을 보좌하던 측근그룹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 요인을,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종주권 강화를 획책하는 청국의 정치적 외압의 증가나 혹은 일본의 이에 대한 견제와 같은 외부요인에서만 찾거나 혹은 이른바 '자기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씨세력의 친청수구적 음모' 에서 찾으려는 해석은 모두 충분한 설명력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데는 보다 근본적 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당시의 개화 자강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선 정치공간의 전통적인 요인과 아울러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전되지 않는데 대한 국왕 측근 그룹 내부에서의 초조함과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1884년 5월 하순부터 두 달 여 동안 진행된 '의복제도의 변통' 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는데, 당시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고종의 개혁정책을 견제하는 비판자들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었지 이른바 '민씨세력' 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시기까지 조선의 조정은 흔히 일컬어지는 것처럼 단순히 '민씨정권' 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집단 또한 아니었다. 오히려 의정부를 비롯한 조정의 전통적인 기구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인물들이 의연히 버티고 있었고 재야세력 역시 국정 운영에 간과할

[36] 예컨대 임오군란이 수습된 이후 1882년 10월에 박영효(1886~1939) 등의 수신사 일행과 함께 민영익과 김옥균이 국왕의 지시를 받고 일본의 국정을 살피러 갔던 사실이나, 고종에게 보빙사의 전권대신으로 민영익을 강력히 추천한 인물이 김옥균이라는 사실 등은 이들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신사기록』, 국사편찬위원회, 1958, 195, 236, 237쪽, 김도태, 『서재필박사자서전』 수선사, 1948, 68~69쪽.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 당시 국왕을 보좌하며 개화 및 자강정책을 추진하던 측근 그룹은 주로 앞서 언급한 통리아문을 계승한 기구에서 활약하면서 정치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통주의자들은 국왕 고종이 국가의 생기인 공론을 무시하고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 주된 원인이 '척족세력을 비롯한 측근세력' 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복개혁을 둘러싸고 두 달 이상 진행된 정치적 줄다리기의 내용만을 보면 분명 고종은 조선의 협소한 정치공간에서 개혁안을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써 힘겹게나마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종의 정치적 승리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의복개혁을 둘러싼 논란에서 나타난 고종에 대한 강렬한 견제와 비판은 국왕의 측근그룹 내부에 오히려 개혁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켰고, 이들을 열악한 정치현실 앞에서 무력감과 초조함에 빠져들게 했다. 구미각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민영익이 오히려 개화 자강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급속히 상실하고 친청의 자세로 경도된 것이나, 이러한 민영익 등의 태도에 억누를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반청 자주를 위해 불가불 일본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낀 김옥균, 박영효 등의 태도는 모두 이러한 조선의 협소한 정치공간에 대한 무력감과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고종과 명성황후의 견해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던 것[고종-김옥균지지, 명성황후-민영익지지]도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평균연령 26세의 젊은 개혁가 그룹은 결국 '루비콘 강' 을 건너고 말았고 결과는 '삼일천하' 로 끝나고 말았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파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나랏일을 생각하매 다시 남은 희망이 없고, 개화 독립 등에 이르러서는 다시 혀를 놀리는 자가 없다" [37]는 윤치호(1865~1946)의 기록은 결코 과장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갑신정변이 초래한 국내정치적 파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을 주도한 세력이 당시의 열악한 정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화 자강정책의 중심에 서 있었던 국왕을 보좌하던 최측근의 인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길게 언급해온 바와 같이, 개화세력을 열악한 정

37 『윤치호일기』 1, 탐구당, 1973, 1884년 10월 27일.

치적 악조건 속에서 중용하고 비호함으로써 현실정치의 장에서 활약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국왕 고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옥균 등이 내걸었던 반청자주와 내정개혁을 골자로 하는 혁신정강의 개혁프로그램은 사실상 고종의 정치적 구상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변이 끝난 이후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정변의 사실상의 원인은 모두 국왕인 고종의 잘못된 국정운영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38]

5. 맺음말

지금까지도 대원군이 '사실상의 섭정' 에서 물러난 1874년 이후의 조선 조정을 흔히 이른바 '민씨정권' 혹은 '민씨척족정권' 등으로 총칭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하지만 민씨척족, 혹은 민씨일족과 같은 용어는 1880년대를 지난 후에 회상시점에서 사용된 용어이며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적확한 용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방식이 정착하게 된 데는, 본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국왕의 정치의식이나 정치적 역할을 간과 혹은 무시한 채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을 기본 축으로 고종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서술의 저변에는 고대-중세-근대라는 직선적 시간관에 기초하여 19세기 후반의 조선정치사를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로의 필연적인 발전과정의 한 단계로서 선험적으로 규정하고, '근대적인 선각자로서의 이미지를 갖는 이른바 '개화파' 를 중심으로 이 시기의 정치사를 서술하려는 지적 성향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역사서술 방식에 따르면 개화파는 '진보세력' 그리고 이른바 '대원군정권' 및 '민씨정권' 은 '보수' 혹은 '수구세력' 이 됨으로써 그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 시기의 정치적 갈등관계가 명확하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대원군세력 대 민씨세력이라는 정치적 대립관계가 현실정치의 주요한 갈등의 축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여러 차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정치적 긴장구도는 본질적으로는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왕권의

38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11월 19일, 11월 30일.

특별한 구조적 위상과 아울러 고종의 왕위계승의 비정상적 승계과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왕조국가의 정통성을 상정하는 왕권 및 실제 국왕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과 견제' 는 조선의 유교적인 정치지형에서 대단히 폭넓게 용인되고 있었지만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은 자칫하면 바로 '국가에 대한 반역' 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종에 대한 비판세력은 국왕 고종을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국왕의 측근세력을 제압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필자는 19세기 후반의 '거대한 전환' 의 상황을 수구 대 진보 혹은 지배계급 대 민중세력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데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왕 고종에 대한 이해 위에서 두 인물의 관계가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청년 고종의 정치의식과 대외관의 형성, 그리고 고종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개혁이 표류하게 되는 경위에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당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여러 선생님들과 동학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

명성황후와 박영효

- 1895년 박영효의 不軌陰圖說을 중심으로 -

오 연 숙*

1. 머리말
2. 갈등의 뿌리 : 갑신정변
3. 갈등의 심화·이일직의 박영효 암살미수사건
4. 잠정적인 화해 : 1894~1895년간 명성황후의 박영효 포섭정책
5. 1895년 7월 박영효의 불궤음도
6. 맺음말

1. 머리말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와 박영효(朴泳孝, 1861~1939)는 1884년 12월 '3일천하' 로 끝난 갑신정변(甲申政變) 이후 상호간 정적(政敵)의 관계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1894년 여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자 명성황후는 일본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귀국한 박영효를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1894년 12월 제 2차 김홍집(金弘集) 내각에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 연구원

내무대신으로 입각하도록 돕고 을미개혁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그러나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끼조약(下關條約) 체결 직후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감퇴하자 명성황후는 친일적인 박영효에 대해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박영효는 1895년 5월 하순 고종을 설득하여 김홍집내각을 와해시키고 그 대신 박정양(朴定陽) 총리대신과 자기의 지지자로 구성된 새 내각('박영효내각')을 발족시킨 다음 군대와 경찰을 장악하여 명성황후측으로부터 예상되는 정치보복에 대비하였다.

명성황후와 박영효가 상호 불신하면서 정치적으로 대결하고 있던 7월 6일 명성황후측에서는 박영효가 궁궐을 침범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명성황후측은 7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비밀 궁정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한 끝에 박영효를 '불궤음도(不軌陰圖)'의 혐의로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은 박영효는 주한 일본공사관의 도움을 받아 7월 7일에 일본으로 다시 망명하였다.

이상이 현재까지 알려진 명성황후와 박영효가 1884년부터 1895년까지 유지한 관계의 대강이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박영효가 1895년 7월 6일경에 과연 명성황후를 '시해' 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었다면 박영효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10월 8일)에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명성황후시해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따라서 명성황후와 박영효의 관계를 살핌에 있어 1895년 7월 박영효가 기도했다는 '불궤음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글은 1884년부터 1895년까지 명성황후와 박영효간의 상호관계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박영효가 1895년 7월에 명성황후에 대해 과연 '불궤음도' 를 했는지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 '음도' 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박영효의 '불궤음도'[1]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서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궤음도' 에 초점

[1] 박영효의 '불궤음도(不軌陰圖)' 에 대해서는 『高宗實錄』, 『日本外交文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大韓季年史』, 『風雲韓末秘』, 『梅泉野錄』 등의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을 맞추어 명성황후와 박영효간의 관계를 다루되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맨 먼저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황후에 대한 박영효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양자간 갈등의 원인을 밝혀보겠다. 다음으로 명성황후측에서 1892년 동경(東京)에 밀파한 자객 이일직(李逸稙)에 의한 박영효 암살미수 사건을 검토함으로써 명성황후와 박영효간의 갈등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 다음에는 1894년 여름에 박영효가 망명지 일본에서 귀국하여 고종과 명성황후의 환심을 사서 탕척서용(蕩滌敍用)된 다음 명성황후와 박영효가 서로 어떻게 화해했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1895년 5월에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이 성공한 다음 명성황후와 박영효간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명성황후와 박영효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 특히 박영효가 관련된 1895년 7월의 '불궤음도' 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갈등의 뿌리 : 갑신정변[2]

박영효는 1882년 여름에 발발한 임오군란(壬午軍亂)의 여파로 한일간에 체결된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제6조에 따라 사죄명목의 수신사(修信使)로 발탁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 후 1883년 초에 귀국한 박영효는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자 곧 일련의 제도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는 이 때 근대적 경찰제도의 수립, 근대적 군대의 조직『한성순보(漢城旬報)』와 같은 근대적 신문 발간, 그리고 서울의 도로체계 정비 등을 서둘렀다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는 청의감호 하에 있던 민씨 척족계 인사들로부터 시기와 의심을 사 1883년 말 광주유수로 좌천되었다. 그 후에 가중된 정치적 시련 때문에 그는 친정 민씨척족정권에 반감을 품게 되고 이를 타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박영효는 김옥균(金玉均) 등 개화파 동지들과 함께 1884년 12월 4일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 직후에 개화당이 발포한 '개혁정강 14조' 가운데에는 '대원군(大院君)을 조속히 귀국케 하고 청국에 대한 조공허례를 폐지할 것' (제1

[2] 2장은 李光麟,「甲申政變에 대한一考察」『開化黨硏究』, 일조각, 1973.

조), '그 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가장 심한 자를 처벌할 것' (제5조), 그리고 '그 동안 유배 또는 금고된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제10조) 등 민씨척족을 직접·간접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것은 갑신정변이 명성황후의 척족정권을 타도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박영효등 개화당은 정변의 와중에 우선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閔泳翊)의 암살을 시도하고 이어서 민씨척족의 거물급 지도자 민태호(閔台鎬)와 민영목(閔泳穆)을 살해하고 또 민씨척족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조연(李祖淵), 한규직(韓圭稷), 조영하(趙寧夏) 등을 살해하였다.

비록 박영효 자신이 민씨척족정권의 거물급 인사들을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갑신정변을 주도한 제2인자로서 이러한 대량 살륙의 책임을 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명성황후와 박영효는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3. 갈등의 심화 : 이일직의 박영효 암살미수사건

박영효는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한 때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망명지를 옮겼지만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885년 12월에 도쿄로 돌아와 그곳에서 1894년 여름까지 명치학원(明治學院)에서 영어 공부를 하거나 친린의숙(親隣義塾)이라는 기숙학교를 운영하면서 귀국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 기간 고종과 명성황후는 김옥균과 박영효 등 망명자들을 제거할 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1892년에 민씨 척족의 거두 민영소(閔泳韶)가 이일직(李逸稙)을 자객(刺客)으로 고용하여 도쿄로 파견하여 김옥균, 박영효와 교제하면서 그들을 암살하도록 하였다.

이일직은 1892년 5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김옥균과 박영효 암살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1894년 3월 프랑스 유학생으로 도쿄에 와서 머물고 있던 홍종우(洪鍾宇)를 매수하여 그로 하여금 김옥균을 상해(上海)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1894년 3월 28일에 김옥균을 암살하는데 성공하였다.[3]

[3] 김영작, 「金玉均 暗殺事件과 韓淸日三國」『한국근대정치사의 쟁점』, 집문당,1995.

이와 거의 동시에 이일직은 일본인 가와쿠보 쯔네키치(川久保常吉)를 매수하여 그의 서화회(書畵會)를 개최하고 박영효를 그 자리에 초대할 계획을 세웠다. 박영효가 서화회에 참석하면 그곳에서 생포 · 암살하여 시체를 포대에 싸서 조선으로 보내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박영효의 추종자 정란교(鄭蘭敎), 이규완(李圭完), 유혁로(柳赫魯) 등에게 이 음모가 발각되어 박영효는 위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정란교와 이규완은 이 때 이일직을 체포하여 기둥에 묶어 놓고 그의 얼굴에 칼끝을 들이대면서 민씨가 보낸 자객임을 실토하게 하였다. 고문을 받은 이일직은 결국 자객임을 고백하였고 급보에 접한 일본경찰은 친린의숙을 찾아가 박영효 일파와 이일직을 모두 체포하여 도쿄재판소로 넘겼다. 그러나 체포된 일당은 결국 무죄 방면되었고 이일직은 본국으로 압송되었다.

1894년 3월 이일직의 박영효 암살미수사건으로 인하여 박영효는 민씨척족, 그 중에서도 특히 명성황후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양자는 서로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讐)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4. 잠정적인 화해 : 1894~1895간 명성황후의 박영효 포섭정책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점한 후 일본정부는 민씨정권을 몰아내고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궁중으로 모셔 들이면서 내정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조선인 지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그들이 표방하는 내정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정치세력을 물색했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조선의 새 정권에 부식할 친일지도자로서 국내에 있던 온건개화파 인사들 이외에 갑신정변 후 일본에 망명한 개화당 인사들을 포섭 ·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1894년 8월 도쿄에 망명중인 박영효를 서둘러 귀국시켰다.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는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공사에게 비밀훈령을 보내 7월 28일 박영효의 귀국알선을 지시했다.[4] 기왕에 조선정부 내에서 활약하고 있던 온건개화파 계열의 '일본당' 인사만으로는 조선을 맘대로

[4] 『日本外交文書』 27-1, 「朴泳孝召還二關7スル準備方訓令件」, 陸奧→大鳥, 1894년 7월 28일, 552쪽.

조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조선정계에서 거물급 인사로 대우받던 박영효를 이용하려 한 것이다.

박영효가 귀국한다는 소식에 조선의 정가는 술렁거렸다. 박영효가 일본에 망명하고 있는 동안 그와 밀서를 주고받은 경력이 있는 대원군은 박영효를 자기세력으로 만들고자 고종의 사면(赦免)이 이루어지기까지 박영효를 성 밖 공덕리(孔德里)에 있는 자기의 별장에 머물게 했다.[5]

8월 5일에 박영효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졌다.[6] 그러나 그는 곧바로 정계에 복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심순택(沈순(舜澤), 김홍집(金弘集), 김병시(金炳始), 조병세(趙秉世), 정범조(鄭範朝) 등 정부의 전 · 현직 대신들이 '역적죄인' 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연합상소를 올리면서[7] 그의 정계 복귀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당시의 국내 여론은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인사들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청일전쟁의 초반에 승리하고 있던 일본의 지원을 받아 귀국한 박영효는 조선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종과 명성황후의 환심을 사야만 했다. 그는 8월 31일 의금부를 통해 자기의 죄과를 용서해 달라는 사죄상소를 올렸다.[8] 그 후 그는 9월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고종을 알현하고 자기에게 내정개혁을 단행할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9] 그러나 여전히 박영효를 탄핵하는 상소문이 올라오고,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관들은 박영효를 비호하는 일본측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고종은 그의 청을 당분간 들어주지 않았다.[10]

이렇게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터에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李埈鎔)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포섭하려 하자 박영효는 공덕리 별장을 떠나 일본 경찰의 보호하에 인천으로 내려가 그곳의 일본인 거류지에 몸을 숨겼다. 이때부터 대원군과 박영효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

일본군이 9월 15일 평양전투에서 대승(大勝)을 거두자 일본정부는 10월 15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조선주차특명전권공사에 임명함으로써 조선에서의

---

5 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杉村濬), 1932『在韓苦心錄』,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149쪽

6 黃玹, 『梅泉野錄』, 159쪽.

7 『高宗實錄』 고종 31년(1894) 8월 5일.

8 『高宗實錄』 고종 31년(1894) 8월 31일.

9 『日本外交文書』 27-1, 「朝廷內幕ノ紛亂軌轢ノ情況報告件」, 大鳥→陸奧, 1894년 9월 12일, 450쪽.

10 『日本外交文書』 27-1, 「大關內朴謠言二付米露兩召公使談幷二朴泳孝任官二關シ報告ノ件」,大鳥→陸奧, 1894년 9월 8일, 446쪽.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11] 10월 27일에 서울에 도착한 이노우에 공사는 박영효를 조선 내각에 입각시킴으로써 일본이 원하는 조선의 내정개혁에 활용하려 하였다. 그 결과 이노우에 공사가 부임한 지 1개월 뒤에 박영효는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일본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왕의 등용을 기다렸다.

이노우에 공사의 이 같은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 고종과 명성황후는 7월 23일 이후 대원군과 친일내각이 자기들에게 가하고 있던 통제에서 벗어남은 물론 전승국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본이 밀어주고 있는 박영효를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박영효는 11월 13일에 고종으로부터 금릉위(錦陵尉)의 작위를 복원 받았다.[12]

고종과 명성황후는 박영효를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지만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영효와 일종의 정치적 '정략결혼' 을 하게 된 셈이다. 박영효를 포섭하기로 마음먹은 명성황후는 궁중에서 박영효의 관직 복구가 논의될 무렵에 박영효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안부를 묻는가 하면, 옷감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박영효의 작위 복원이 결정되자 명성황후는 그에게 저택[본래 민영주(閔泳柱) 집]을 하사하고, 갑신년에 몰수했던 땅도 되돌려 주었다. 11월 13일에 박영효는 드디어 고종과 명성황후를 알현하고 일본과 미국에서의 망명생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등 갑신년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 후 박영효는 수시로 궁중을 드나들면서 고종 및 명성황후로부터 표면상 '총애' 를 받았다.[13]

일본정부는 박영효가 고종과 명성황후로부터 금릉위 작위를 복원받자 그의 입각을 서둘렀다. 그 결과 박영효는 이노우에 공사의 지원 하에 11월 21일 제2차 김홍집내각('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의 내무대신에 임명되어 정계에 복귀하였다.[14] 이렇게 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박영효를 궁중과 일본 공사와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 활용하려 하였고, 일본공사는 그를 궁중의 상황을 내탐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조종하는 인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공사와 조선왕실 양쪽의 신임을 얻은 박영효가 왕족(금릉위)

---

11 『日本外交文書』 27, 「井上公使任命二關シ通報ノ件」, 大鳥→陸奥, 1894년 10월 31일, 3쪽.

12 黃玹, 『梅泉野錄』, 165쪽.

13 한상일 역, 앞의 책, 177~178쪽.

14 釋尾東邦, 『朝鮮併合史』(1985년 泰山文化社 影印), 1926, 112쪽.

이라는 신분을 활용하여 고종 및 명성황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여 일본의 조선침략정책에 협조하기를 기대하였다.[15] 반면에 국내에 특별한 정치적 기반이 없는 박영효는 일본공사와 왕실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의 권력기반을 확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박영효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뢰에다 일본공사의 두터운 신임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정계에서 누구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16] 제2차 김홍집내각은 겉으로는 '김홍집 · 박영효 연립내각' 이었지만 내무대신 박영효의 권력은 총리대신 김홍집의 권한을 압도하였다. 박영효는 이른바 을미개혁(1894.12.~1895.7)을 사실상 주도하게 되었다. 을미개혁기간 제정된 213개의 개혁안 가운데 박영효가 직접 서명한 개혁안이 68건이나 되었다. 그는 개혁을 통해 군대와 경찰 그리고 지방행정 기구 등에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는 자기의 라이벌격인 총리대신 김홍집이 '개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 이라고 비판하던 끝에 고종을 설득하여 1895년 6월 2일 그를 내각에서 축출하고 그 대신 박정양을 총리대신으로 받든 박정양내각을 발족시켰다. 박정양내각에는 박영효의 추종자들이 많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이 내각을 '박영효내각' 이라고 불렀다. 달리 말하자면, 박영효는 1895년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조선내각의 사실상의 총리대신이었다.

내무대신 박영효는 일본의 지원 하에 조선 정계에 복귀했지만 일단 집권하자 애국적 개혁가로서 본색을 드러내 일본공사 및 일본 관리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이노우에 공사가 조선의 철도와 전신선 건설에 관한 이권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는가 하면, 일본이 조선정부에 제공하려는 300만 엔 차관의 조건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등 일본측의 이권쟁탈 노력에 제동을 가하였다.[17] 이러한 박영효의 반일적인 태도는 이노우에 공사를 당황케 만들었다.

이 무렵 박영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반발하는 국내 정치인도 적지 않았다. 1895년 1월 박영효를 암살하려던 조용승(趙龍承)이란 자가 체포되고, 조용승을

[15] 柳永益, 「朴泳孝와 甲午更張」『甲午農民民峰起와 甲午更張』, 일조각, 1998, 81쪽.

[16] 黃玹, 『梅泉野錄』, 171쪽.

[17] 柳永益, 앞의 책, 81~82쪽.

배후에서 조종한 대원군의 심복들이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국왕을 폐위시키고 이준용을 왕으로, 그리고 대원군을 섭정으로 추대한다는 '이준용 음모사건' 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18] 명성황후는 이 기회에 박영효를 이용하여 대원군세력을 완전히 거세하려 하였다. 박영효는 10년의 죄과를 탕척蕩滌)해 준 고종과 명성황후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명성황후의 입장을 도왔다. 이리하여 종정경(宗正卿) 이준용의 체포를 위해 왕실에서는 고종과 명성황후가 왕실 밖에서는 경찰과 군사권을 가진 박영효, 서광범 등이 조력했다.

명성황후는 이춘용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박영효를 불러들여 사직의 대계(大計)가 박영효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 박영효는 곧바로 경무관 이규완을 시켜 순검을 데리고 밤중에 운현궁으로 가서 이준용을 잡아오게 하는 등 이준용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자기의 동지인 법무대신 서광범에게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이준용을 10년 귀양형에 처했다.[19]

이준용 사건을 계기로 박영효에 대한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뢰는 다시 한 번 굳어졌다. 즉, 이로 인해 박영효의 정치적 입지는 전보다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박영효는 대원군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김홍집 등과도 대립하게 되었다.

5. 1895년 7월 박영효의 불궤음도

1895년 6월 2일에 박영효의 의도대로 박정양을 총리대신으로 받든 새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 내각은 실제로 박영효가 전권을 장악한 '박영효내각'이었다.[20] 박영효가 조선정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한 다음 일본측의 이권쟁탈 노력에 반대하고 또 내각 경질을 하지 말라는 이노우에 공사의 협조요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일본측은 박영효의 독단적인 전권행사를 경계하게

18 『日本外交文書』, 28권 「大院君李俊鎔ノ陰謀二關スル顧末報告ノ件」, 井上→陸奥, 1895년 5월 10일, 403~408쪽.

19 鄭喬, 『大韓季年史』 上, 106쪽; 黃玹, 『梅泉野錄』, 175쪽.

20 『新聞集成明治編年史』「當年の朴泳孝一朝權を握つて覇氣悉く鎖磨す」, 1895년 8월 2일.

되었다.[21] 특히 박영효가 일본측이 요구한 남대문과 동대문 일대에 일본 상인의 조차지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자 주한 일본인들의 반감은 더욱 커졌다.[22] 조선 내에서 박영효와 일본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을 때 일본 내각은 삼국간섭 이후 조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급적 간섭을 그치고 조선으로 하여금 자립케 하는 방침을 따르기로 결의했다.[23] 이와 동시에 일본정부는 주한 일본공사의 교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에서 박영효와 같은 친일정치인을 앞세워 내정에 간섭하던 것을 중지함을 의미했다. 달리 말하자면 일본정부는 박영효를 적극 지원하던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이로써 박영효는 이노우에 공사와 일본정부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홀로 서는 신세가 된 것이다.

심국간섭으로 조선에서 일본의 권위가 추락하고 러시아와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하자, 친일파 인사들은 위축되고, 반면에 친러 · 친미적인 고종과 명성황후의 입장은 강화되었다. 이제 명성황후는 이용가치가 떨어진 박영효와의 정치적 유대를 단절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박영효는 자기가 다시 추방당하거나 달리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왕실(명성황후)과 러시아와의 동정을 예의 주시하였다.[24] 6월 7 일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돌아가자[25] 명성황후는 러시아공사와 접촉하는가 하면 민씨척족의 유력자들과 만나 자신과 척족의 입지를 1894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려 하였다.[26] 이 때 박영효는 왕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일본공사관에 제공하면서 그들의 신임을 유지하려 하였지만 이노우에의 서리인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 임시대리공사는 박영효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27]

---

21 『日本外交文書』, 28권, 「內閣分裂二關シ朴泳孝二忠告ノ件」, 井上→陸奧, 1895년 5월 30일. 438~440쪽.

22 鄭喬, 『大韓季年史』 上, 108쪽.

23 『日本外交文書』, 28권 「朝鮮問題二付イテノ政略閣議決定ノ件」, 1895년 5월 25일.434쪽.

24 한상일 역, 앞의 책, 194쪽.

25 『日本外交文書』, 28권 「井上公使歸朝ヲ秘內スベキ旨意見上申ノ件」, 陸奧→鎚島,1895년 5월 24일, 433쪽. 歸朝命令通達件」, 陸奧→井上, 1895년 5월 31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杉村書記官의公使職務 臨時 代理의 件」, 井上→金允植, 1896년 6월 6일.

26 『日本外交文書』, 28권 「王紀ト朴泳孝トノ關係離隔ノ兆侯ノ件」, 杉村→井上, 1895년 6월 22일, 443~444쪽, 「王妃露國公使ヲ利用シ閔氏勢力シ回復セントノスル模樣報告ノ件」, 杉村→西園寺, 1895년 7월 1일, 448쪽.

2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朴事件二關ノスル情報ノ件」, 杉村→西園寺, 1895년 7월 12일, 395쪽.

박영효는 일본공사관이 자기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신의 권력기반을 스스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는 왕궁경호를 담당하던 호위병을 자기가 조직한 훈련대(訓練隊)로 교체함으로써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이 목적으로 그는 고종에게 여러 차례 왕궁수비대의 교체를 상주하였다. 고종은 이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작년 (음)6월 이래의 칙령이나 재가사항은 짐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모두 취소하겠다"고 언명하였다.[28] 이 말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박영효가 추진해 온 개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왕궁호위병교체 논의가 중지된 뒤 박영효와 왕실간의 관계는 일변하였다. 명성황후는 박영효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양자간의 관계는 급랭하였다.[29] 이러한 상황에서 7월 6일 박영효의 '불궤음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측 사료에 의하면 박영효는 이 때 자기가 육성한 훈련대를 거느리고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고종을 폐위시키려 했다는 것이다.[30] 일본인 사사키 히데오(佐佐木日出雄)[31]가 일본공사관 주재 일본인 조선어 선생인 한재익(韓在益)을 만나 필담을 나누다가 어떤 일본인으로부터 얻어들은 기밀이라며 박영효 일파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누설했다고 한다.[32] 한재익은 바로 궁내부특진관 심상훈(沈相薰)과 유길준(兪吉濬)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서둘러 고종에게 이를 아뢰고 김홍집을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고종은 7월 6일 밤 경무사 이윤용(李允用)을 파변하고 안경수(安駉壽)로 교체한 다음 한재익을 경무관에 임명하고 그와 더불어 박영효 체포건에 대해 의논하였다. 박영효는 바로 면직되었고 음모를 꾀한 혐의('不軌陰圖')로 체포 결정이 내려졌다.[33] 고종은 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을 일본공사관에 보내 박영효 음모사건

---

28 『日本外交文書』, 28권 「王室護衛兵交替二關シ國王ト內閣ト衝突報告ノ件」, 杉村→西園寺,1895년 7년 6월 26일, 444쪽.

29 한상일 역, 앞의 책, 207~208쪽.

30 釋尾東邦 앞의 책, 115쪽.

31 『日本外交文書』, 28권 「朴泳孝關係報告ノ件」, 杉村→西園寺, 1895년 7월 10일, 462쪽. 사사키 히데오(佐佐木日出雄는 당시 駐京 「報知新聞」通信員 尾崎行雄의 부하라고 자칭하는 인물로 박영효에게 일자리를 구했다가 거절당한 자라 한다.

32 『日本外交文書』, 28권 「朴泳孝事件關係日本人二關情シ報告ノ件」, 內田→西園寺, 1895년 7월 10일, 460쪽.

33 『高宗寶錄』 고종 32년(1895) 윤5월 14일.

을 알리고, 안경수로 하여금 그를 신속히 체포하도록 명하였다.[34]

박영효는 전 경무사 이윤용으로부터 체포 정보를 통고 받고 7일 아침 일본공사관으로 피신했다.[35] 신임 경무사 안경수는 일부러 체포시기를 늦춰 박영효가 달아나기를 기다렸다가 체포령을 발동했다. 일본공사관측은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명성황후와 유길준 등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박영효를 국외로 추방하는데 그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외부대신 김윤식이 일본공사관을 찾아가 일본으로 망명하려는 박영효와 면담했는데 박영효는 그 자리에서 '불궤음도'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였다고 한다.[36] 특히 임시일본대리공사 스기무라는 박영효가 명성황후에 대해 모반을 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박영효의 모반혐의는 왕궁호위병을 축출하려고 했던 일로 말미암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국정부에 보고하였다.[37]

이에 반해 황현(황(黃炫)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영효가 러시아와 내통하고 있던 명성황후를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명성황후의 보복이 두려워 그녀를 시해하지 않고서는 그 화근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날짜까지 정해놓고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주장을 폈다.[38]

6. 맺음말

1895년 7월 박영효의 '불궤음도' 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다. 위에서 살핀 대로 박영효의 불궤음도에 관해서는 크게 스기무라의 주장과 황현의 주장이 병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개혁가였던 박영효가 삼국간섭 이후 1894년 이전의 현상을 회복하려던 친러적인 명성황후측으로부터 박해를 받자 자위 수단으로 부득이 명성황후에 대해 모종의 예방적 보복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박영효가 이때 기도한 보복

34 『日本外交文書』, 28권 「朴泳孝事件二關シ報告ノ件」, 杉村→西園寺, 1895년 7월 8일, 458쪽.
35 尹孝定, 『風雲韓末秘史』, 교문사, 1995, 142~143쪽.
36 鄭喬, 『大韓季年史』 上, 109쪽.
37 한상일 역, 위의 책 , 210쪽.
38 黃玹, 『梅泉野錄』,179쪽 : "泳孝患之 然畏后權略 非行弒 則無以絶禍根 逐指日定計 請兵於倭, 183쪽 : '梧樓習聞朴泳孝 思欲圖之'

조치가-일본외교문서에 나타난 대로-명성황후의 '시해(弑害)' 였는지 혹은 '폐서(廢庶)' 정도의 정치적 거세(去勢)에 불과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첫째, 명성황후와 박영효는 1884년 이후 10년간 불구대천의 숙적관계에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이 화해한 것은 명성황후가 궁지에 빠져있던 1894년 말부터 1895년 5월까지의 약 6개월간에 불과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기회만 있으면 상대방을 거세하려 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1895년 5월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이 성공한 다음 명성황후는 러시아의 힘을 빌어 자기와 민씨척족의 복권을 도모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자연히 박영효와 같은 친일파를 거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1895년 5월 이후 명성황후는 박영효에 대한 거세공작을 적극적으로 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1895년 5월 삼국간섭 전후의 박영효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는 표면상 고종과 명성황후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이용당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대원군 및 김홍집 등 비교적 보수적인 정치세력으로부터도 배척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그는 서울에 있는 일본공사관 직원들과 일본인 거류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1895년 5월 이후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따라서 궁지에 빠진 박영효가 자기방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먼저 고려한 대책이 자기를 배반한 정계의 실력자 명성황후를 거세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발굴 · 보도된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박영효는 1895년 8월 2일 도쿄에서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신임 주한 일본공사를 만나 그에게 "민비는 한국의 큰 여우' 로 만사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39] 이 새로운 정보는 박영효가 1895년 여름 일본에 재차 망명했을 때 명성황후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렇다고 그가 미우라 공사에게 명성황후의 시해를 사주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

39 『조선 일보』 2005년 10월 6일.

명성황후와 이범진

오 영 섭*

1. 머리말
2. 가문배경 및 인물성향
3. 반일·반청 의식의 형성·표출
4. 갑신정변 후 별입시(別入侍) 활동
5.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로정책 보좌
6. 갑오경장기 친로파 거두로의 부상과정
7. 맺음말

1. 머리말

한국근대사에서 이범진(李範晉)(1853. 9~1911. 1)은 '친로파의 거두' 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고위급 무관의 집 안에서 태어나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를 보호한 공으로 명성황후의 측근으로 부상하여 출세 가도를 달렸다. 1880년대중반 경에는 국권과 자주권의 수호를 위해 노력한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로정책을 충실히 보좌하였다, 1895년 3월 삼국간섭 후에는 친로파의 거두로 부상하여 궁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내부대신서리 · 농상공부대신을 거쳤다. 을미사변 후에는 구미세력의 지원하에 춘생문사건과 아관파천을 주도하며 고종의 항일운동을 적극 도왔다. 대한제국기에는 주미 · 주러공사로 나가 장기간 미국과 러시아에서 고종의 지시에 따라 반일 · 친로 외교활동을 벌였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전후에는 대한제국정부의 중립화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친러적 외교활동을 벌였고, 9월 이후에는 친일내각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러시아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계속 머물며 구국운동에 종사하였다. 그러다가 한일병합 후 진로를 고민하다가 국가와 국왕에 충성하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자결을 택하였다. 자결 직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가들과 민족단체에 기증함으로써 자신의 구국의 염원이 사후에라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한 마디로 이범진의 다채로운 생애는 평생을 통하여 반청 · 반일 · 친로의 정치노선을 걸었던 친로파 민족운동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1]

그간 이범진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는 한국인들의 한미관계 중시경향과 한러관계에 대한 이해부족, 뿌리깊은 공로(恐露)의식 및 반소 · 반공의식,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나타난 이범진의 파락호 내지 망나니 이미지, 이범진의 정치적 후원자인 고종과 명성황후 및 그 주변세력들에 대한 일본측과 개화파의 악의적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범진이 주도한 아관파천이 가져온 국권(군권)의 훼손과 이권 양여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이 복합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범진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물론 그가 한국 민족운동사에 끼친 일부 긍정적 측면까지 간과되거나 잊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인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로정책과 그러

[1] 이제까지 이범진의 생애와 활동을 다룬 연구로는 「李鉉淙, 俄館播遷」『韓露關係100年史』, 韓國史硏究協議會, 1984, 159~184쪽, 「方善柱, 徐光範과 李範」『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探求堂, 1987, 444~455쪽;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 · 社會的 背景」『國史館論叢』, 65, 1995, 238~251쪽; 辛承權, 「俄館播遷과 러시아의 東亞細亞 政策」『명성황후 시해사건과 아관파천기의 국제관계』, 東林社 1998, 175~203쪽; 박종수 『러시아와 한국』, 백의, 2001, 115~120, 130~136쪽; 강인구, 「러시아 자료로 본 주러한국공사관과 이범진」 『역사비평』 2001 겨울호, 346~361쪽 참조. 또한 한러관계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민족운동』, 외교통상부, 2003에 실린 尹炳喜의 「李範晉 · 璣鍾 · 瑋鍾 3부자의 가계 및 행적」, 3~12쪽; 삐스꿀로바, 「붉은 군대 사령관, 왕자 이위종」, 51~73쪽; 이민원, 「아관파천과 이범진」, 22~35쪽; 박보리스, 「러시아에서의 이범진의 외교활동」, 38~50쪽; 박환, 「이범진과 연해주 지역의 한인민족운동」, 74~86쪽 등도 참고할 만하다.

한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한 친로파의 형성과 활동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범진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와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생태에서 소수의 연구자들이 이범진의 정치활동과 민족운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기왕의 개척적이며 선구적인 연구성과들은 첫째, 이범진의 생애와 활동의 일부 시기나 특정 사건만을 다루고 있으며, 둘째, 을사조약 이전 이범진의 정치활동을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셋째, 이범진의 항일활동을 을미사변 후부터 한일병합 전까지 다각도로 전개된 고종의 항일전략과 분리시켜 이해함으로써 이범진의 근왕적 성격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범진의 정치활동과 민족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고종과의 관련문제가 고종의 아관파천을 다룬 연구에 다소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2] 그러나 그 연구조차도 이범진의 정치활동과 민족운동을 아관파천 시기에만 국한하여 다루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범진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개항 전후부터 을미사변 이전까지 이범진의 정치활동을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이범진의 인간적 면모와 가문 배경 , 반일 · 반청 · 친로 의식의 형성과정, 고종과 명성황후의 별입시(別入侍) 활동, 갑오경장 이전의 친로활동, 을미사변 이전 친로파 거두로의 부상과정 등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이범진의 정치활동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로정책과 긴밀한 연관하에 추진된 것임을 강조하려 한다. 나아가 대한제국기의 주미 · 주러공사 시절부터 한일병합 후 자결할 때까지 보여준 강렬한 근왕의식과 구국활동이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된 것인가를 구명하고자 한다.

2. 가문 배경 및 인물성향

이범진은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 여(璵)의 후예이다. 이범진이 속한 광평대군파는 노론계의 밀성군파(密城君派) · 경창군파(慶昌君

[2]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 · 社會的 背景」, 제13장 제1절 참조.

派), 소론계의 덕천군파(德泉君派)와 함께 전주이씨 가문내에서 조선후기부터 한말 시기까지 명망가를 다수 배출한 유명한 가문이었다. 이러한 광평대군파에서 문무관의 청직과 판서급 이상의 요직을 다수 배출한 벌열 가계는 선조대에 문과를 거쳐 사헌부장령을 지낸 이형(李逈)의 후손들이었다. 이들은 상당수가 사마시와 문과를 거쳐 고위급 청요직을 역임했는데, 그중에서도 이범진의 7대조이자 영조대에 영의정을 지낸 이유(李濡, 1645~1721)의 자손들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당시 이유의 자손들은 서인-노론계의 중추 인사인 송시열(宋時烈) · 민진원(閔鎭遠)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노론정권의 일익을 담당했다. 실제로 이유는 송시열의 제자로서 영조대에 좌의정을 지낸 권상히(權尙夏)와 처남-매부의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후 이유의 후손들은 순조 · 헌종 · 철종대에 풍양조씨 척족정권에서 일익을 담당한 우의정 이지연(李止淵, 1777~1841), 이조판서 이기연(李紀淵, 1783~1858)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위급 문관들과 무관들을 배출하였다.[3]

이범진은 이유의 후손들 가운데 이름난 무반가문 출신이었다. 조선후기에 양반이 증가하여 벼슬길이 급격히 좁아지자 이유의 후손들 중에서도 문과를 포기하고 무과를 거쳐 관직에 진출하는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이범진의 고조부 이의헌(李義獻)은 음직으로 부호군(종4품)을, 증조부 이복연(李復淵)은 정시(庭試)무과를 거쳐 훈련원도정(정 3품 당상관)을, 조부 이인달(李寅達)은 정시(庭試)무과를 거쳐 오위도총부경력(종4품)을, 부친 이경하(李景夏)는 무과를 거쳐 최고위급 무관직을 역임했다.[4] 이중 이의헌은 여흥민씨 삼방파(三房派)의 민백흥(閔百興)의 여식에게 장가들었는데, 민백흥의 가계에서는 순종비 민씨와 고종대 민씨세도의 집정자들인 민태호(閔台鎬) · 민규호(閔奎鎬) · 민영소(閔泳韶) · 민영익(閔泳翊) 등이 배출되었다.[5] 이로써 이범진은 여흥민씨와 일정한 혈연관계를 지니게 되었고, 이런 배경은 그가 서일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씨세도의 치하에서 크게 활약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이범진은 인물 · 성향 · 능력 등 여러 면에서 부친 이경하(1811~1891)를 그대로

3 이범진의 가계에 대한 설명은 『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 : 定安副正公派』, 1977, 1~55쪽.
4 『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 : 定安副正公派』, 12, 66~67쪽.
5 『驪興閔氏世譜』, 4, 1973, 659~660, 673~674쪽..

닮았다. 이경하는 철종~고종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무장으로 이름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진주(晋州)병사 · 한성판윤 · 형조판서 · 공조판서 등 내외직을 거쳤고, 또 훈련대장 · 포도대장 · 강화유수 · 어영대장 · 금위대장 · 판의금부사등 경찰-군사 방면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는 그가 세도정권기와 개항기에 국가안보와 정권안보의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나타내 준다. 실제로 그는 임오군란의 책임을 지고 10개월간 고금도 유배형에 처해진 것을 제외하면, 평생 무관으로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특히, 흥선대원군 치세기에 포도대장을 지내면서 천주교도를 혹독히 탄압하여 낙동염라(駱洞閻羅)' 라고 불렸을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부렸다.[6]

이범진은 이경하가 진주목사를 지낼 때에 진주기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진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범진' 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경하는 해주 오씨와 한양 조씨 사이에 각각 딸 한 명씩을 두었으나 적자가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범진보다 여섯 살 어린 이범승(李範升 1859년생)을 양자로 들였다. 그러나 이범진은 가문 내에서 서자라고 하여 차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 정실부인 소생인 4촌의 이범부(李範夫), 8촌의 이범조(李範祖, 문과, 승지)의 저택과 나란히 붙은 2채의 대저택을이범진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양모 사망 후 3년 상을 치른 다음에 올린 상소문에는 이범진이 서얼임에도 불구하고 친자나 다름없는 대우를받았으며, 자신을 사랑한 양모에게 극진한 효성을 올렸음이 잘 나타나 있다.

> 아! 양육해 주신 은혜로 말하고자 하니 가슴이 먼저 막히고 쓰기에 앞서 눈물이 흐릅니다. 신의 先母는 나이 오십이 가깝도록 한점 혈육이 없다가 마침 신이 태어나자 마치 자신이 출산한 듯이 여겼는데 신이 親母의 젖을 떼자마자 선모는 자신의 품으로 데려와 포대기에 쌓여 울적마다 신을 얼르고 길렀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어 미치지 않음이 없었으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신을 낳은 어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의 나이 7, 8세가 되도록 친모가 비록 옆에 있었으나 또한 친모가 신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극한 사랑과 깊은 은혜가 가슴 깊이 스며들고 뼛속 깊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처럼 혼연히 구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찌 신이 전생과 이승, 내생을 통해 온 몸이 가

[6] 黃玹 저, 金澬 역, 『梅泉野錄』, 24쪽; 尹炳喜, 「李範晉 · 機鍾 · 瑋鍾 3부자의 가계 및 행적」, 4~5쪽.

루가 되도록 갚는다 한들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7]

이범진은 단아한 문인이라기보다는 강건한 무인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는 "사람됨이 방탕(放蕩)' 하여 사물에 돈착(頓着)하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을 정도로 호방하고 방탕하여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활달한 성품의 소유자였다.[8] 1888년 6월 일본 체재 시 사방에 방뇨하고 함부로 코를 풀면서 다른 이들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미공사 시절에 유학생들과 공사관에서 투전판을 벌여 지탄을 받았던 사실은 이범진의 방약무인한 무례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9] 또한 그는 무예와 기상이 출중했던 부친의 신체와 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아 담장과 집을 뛰어넘을 정도로 용맹한 기상을 발휘하였다. 그가 청년기에 방탕한 무뢰배로 지낼 때에 민간을 횡행하며 약탈을 일삼던 '망나니' 민영주(閔泳柱) 일당을 정치하여 무뢰배들의 대명사로 불린 '범보(範보(甫)' 라는 별호를 얻었던 것은 당대에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10] 여하튼 이범진이 국내외에서 관료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여준 호협하고 방탕한 모습들은 모두 이러한 무반적인 자질과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1]

이범진은 약관의 나이에 생원시에 입격하여 진사에 올랐다. 이어 1877년 12월 27일 완화군 선(墡)의 관례를 기념하여 창경궁 춘당대(春塘臺)에서 실시된 감제시(柑製試)에서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은전을 입어 대과에 합격하였다.[12] 현재 규장각도서관에 소장된『주미거래안주미(駐美去來案)』·『주아거래안주미(駐俄去來案)』에 실린 그의 친필 보고서의 필체와 내용 수준으로 보아 이범진은 장기간 한학과 유학에 침잠한 선비지식인의 용모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13] 또한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초반까지 고종은 경연에서『자치통감강목(資治通鋼目)』을 가지고 역대 군왕과 신료들의 인물과 치적을 자주 토론했는데, 이

---

7 『承政院日記』 고종 29년(1892) 1월 28일.

8 『統監府文書』 8, 國史編纂委員會, 1999, [韓官人의 經歷一般], 212쪽.

9 『尹致昊日記』,1888년 8월 6일;『新韓民報』 1910년 5월 25일.

10 黃玹저, 金濬역, 『梅泉野錄』, 敎文社 1994, 182~184쪽.

11 이범진은 풍양조씨 趙秉鐸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2남을 두었다. 큰 아들 李機鍾(1873년생)은 진사를 거쳐 내각참서에까지 올랐고, 작은 아들 李瑋鍾(1886년생)은 헤이그밀사와 연해주의병에 참여하는 등 부친의 항일민족운동을 도왔다.

12 『高宗實錄』 고종 24년(1877) 12월 27일.

13 『駐美去來案』(奎18061) · 『駐俄去來案』(奎18062).

때 고종의 근시 중에서 문한능력을 갖춘 민영달(閔泳達) · 심상훈(沈相薰) 등이 자주 경연에 불려가서 강론을 맡았던 반면, 이범진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한 차례도 경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를 보면 이범진이 달성한 학문과 교양의 수준은 관료생활에 필요한 사직 상소문이나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동시대 개화파들이나 외교관들은 이범진을 "무식하고 타락한 무뢰배에 가까운 인물", "외교관측에 끼이지 못할 만큼 미미한 존재"라고 평하였다.[14] 따라서 그가 감제시를 거쳐 환로에 진출한 것은 자신의 문한능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화려한 가문배경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이범진은 과거 합격 후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는 등과 후에 2년 반 동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15] 드디어 1880년 7월 29일에 6품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신분장벽과 실무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만 1년 만에 사헌부 · 사간원의 대간직을 거쳐 1881년 8월 8일 통례원좌통례(종3품)에 임명되었다.[16] 이범진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환로로 진출한 서얼출신의 능력자 김가진이 이범진보다 4달 먼저 6품직에 오른 후 3년 동안 종6품직을 전전하다가 1883년 1월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정6품)에 임명된 것에 비하면, 이범진의 잦은 승진은 차라리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유수한 명문가의 후예이자 현직 고위 무관의 소생이요 집권세력인 민씨세도와 혈연관계라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인사였을 것이다.[17] 이어 이범진은 1882년 5월 23 일 군자감정(軍資監正, 종3품)으로서 개화정책 추진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의 군무사 주사(정6품)에 차하되었다.[18] 이때 고종은 종3품의 당하관 이범진에게 하위직이지만 실무상 요직인 군무사(軍務司)

---

14 李光麟, 「兪吉濬의 英文書翰」 『開化派와 開化思想 硏究』, 일조각, 1989, 234쪽; 金源模 역, 『알렌의 日記』, 단국대학교출판부, 1991, 253쪽.

15 黃玹 저, 金澍 역, 『梅泉野錄』, 183쪽.

16 이범진은 1880년 7월 28일 승정원가주서(정7품)를 거쳐 29일에 6품으로 승차한 후 성균관전적(정6품)에 임명되었고, 8월 7일 사헌부지평(정5품), 8월 26일 사간원정언(정6품), 10월 9일 사헌부장령(정4품)을 지냈다. 이어 1881년 8월 8일 통례원좌통례(종3품)에 임명되었다가 12월 25일 신병으로 개차되었다. 『承政院日記』 고종 17년(1880) 7월 28일, 7월 29일, 8월 7일, 8월 26일, 10월 9일, 고종 18년(1881) 8월 8일, 12월 25일.

17 오영섭, 「東農 金嘉鎭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韓國思想史學』 20, 2003, 255~256쪽.

18 『承政院日記』 1882년 5월 23일, 7월 4일.

의 주사직을 겸직하도록 명했는데, 이는 이범진의 문한관료로서의 능력보다는 남다른 무반기질을 감안한 인사였을 것이다.[19]

3. 반일 · 반청 의식의 형성 · 표출

제국주의 열강이 조선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던 1880년대에 이범진의 국제정세관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면 무엇보다 이범진이 고종과 명성황후의 근시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기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대체로 이범진은 국왕 부처와 마찬가지로 반일 · 반청 · 친로 · 친미의 외교노선을 걸었다. 이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측근에서 활동한 많은 근왕파 인사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외교노선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가까이에서 모시기 시작한 1883년 1월부터 자결로 생을 마감하는 1911년 1월까지 이범진이 일관되게 견지한 외교노선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범진의 반청의식은 임오군란 전후에 이미 싹텄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 이경하는 임오군란 때에 무위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성난 군졸들이 군기고를 파쇄하여 무장을 갖추고 파괴공작에 본격 돌입한 다음에야 뒤늦게 왕명에 따라 동별(東別宮)으로 나아가 효유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군란이 민란으로 변화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효유 · 진압책을 펼칠 수가 없었다.[20] 이로 인해 도성내의 난리가 진압된 다음 청나라 장수 오장경(吳長慶) · 마건충(馬建忠) 등은군란의 후속조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무위대장 이경하와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군법을 적용하려 하였다.[21] 이때 고종은 이경하와 신정희의 사형을 감면하고 각각 고금도와 임자도로 유배시키도록 하였다.[22]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범진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청국에 대해 반감을 가졌을 것이다.

---

[19] 종3품의 이범진이 6품직에 임명된 것은 다소 견책의 의미가 포함된 인사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견책 인사의 상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잘 알 수 없다.
[20] 李瑄根, 『韓國史 : 最近世篇』, 乙酉文化社, 1961, 474, 479쪽.
[21] 李瑄根, 『韓國史 : 最近世篇』, 524쪽.
[22] 黃玹 저, 金澬 역, 『梅泉野錄』, 133쪽.

이범진의 반청의식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반청정책에서 연유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인들에게 당한 개인적인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885년 5월에 청인들의 이범진 가옥 마당 통과건과 이범진 가옥 매매건으로 이범진과 청인간에 일대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앞서 4월 26일에 청상회관(淸商會館)은 청국의 공사관을 마련하고자 한성 남부 회현방(會賢坊) 낙동(駱洞)에 남북으로 늘어선 이범조(李範祖) · 이범진(李範晉) · 이범대(李範大, 8촌간임)의 집(현 중국대사관 자리) 4채 가운데 남쪽의 이범조 저택 80칸과 북쪽의 이범대의 저택 62칸, 도합 142칸의 가옥을 매입하였다.[23] 이때 청인들이 남북의 두 집을 왕래하려면 가운데에 있는 2채의 이범진가(李範晉家)의 마당으로 나있는 길을 지나야만 했다. 그래서 마당길의 통과권리를 주장하는 청인측과 이를 거부하는 이범진측간에 시비가 벌어졌다. 원래 이범조 · 이범대 저택을 매매할 때의 계약서에는 청인들에게 '공도(公道)' 의 시용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국인들은 이를 '인가내정지도(人家內庭之道)' 라는 구절이 마당길의 통과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범진을 공박하였다. 이에 이범진은 가노들을 동원하여 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판자로 단단히 막게 하였다.[24]

양측은 공도 사용문제로 시비를 거듭하다가 이범진이 청인들에게 자신의 가옥을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885년 5월 28일 이사할 때에 이범진이 집안물건 가운데 '운동산물(運動産物)'을 가져가려 하자 청인들이 이것을 반대하면서 다시금 상호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태는 조선의 관행을 인정치 않는 청국측의 억지와 반청감정을 품고 있는 이범진의 무례한 언동이 빚어낸 것이었다. 급기야 이날 밤 이범진은 청상(淸商) 동사(董事) 웅정한(熊廷漢) 등 수십 인에 의해 청국공사관에 끌려가 의관이 찢겨지고 무수히 난타당한 다음 청총판조선상무(淸總辦朝鮮商務) 진수당(陳樹棠)에게 치욕스런 심문을 받았다.[25]

이때 청국측이 조선의 국법을 무시하고 이범진을 임의로 잡아다가 구타 · 심문한 행위는 조선의 국체를 크게 훼손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

23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 8 : 淸案1』, 문서번호, 1970, 164, 108~126쪽.
24 『舊韓國外交文書 8 : 淸案1』, 문서번호, 170, 111쪽.
25 『舊韓國外交文書 8 : 淸案1』, 1970, 문서번호, 170~175, 108~117쪽; 『尹致昊日記』, (양)1884년 6월 21일.

인들의 무례에 대해 크게 진노하는 기색을 보이며 외부독판으로 하여금 조청수호통상조약에 근거하여 청국측의 부당한 처사를 따지게 하였다.[26] 그러나 결국에 가서 양측은 사건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즉, 청군을 거느린 원세개(袁世凱)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선 조정은 조관(朝官)의 체모를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조정에 수치를 끼친 죄를 물어 사간원정언 이범진을 삭직형(削職刑)에 처하였고,[27] 조선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타국 관리를 잡아다가 심문했다는 항의를 받은 청국측은 상무(商務)책임자 웅정한을 해임하였다.[28]

1884년 10월 17일에 발생한 갑신정변은 이범진의 출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당시 그는 궁중에서 당직하고 있다가 정변이 일어나자 명성황후를 업고 부친의 생활 기반과 선대들의 묘소가 있는 동대문 밖 노원(蘆原)의 각심사(刻心寺)로 피신하였다.[29] 이처럼 갑신정변의 와중에서 명성황후를 업고 노원으로 급히 피신한 것을 보면 이범진은 갑신개화파나 일본세력에 반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대체로 갑신개화파들이 서얼 신분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명문 양반가의 소생들이기 때문에 이범진은 갑신개화파들을 달갑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여하튼 그는 갑신정변으로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명성황후에게 종종의 물건을 진상하여 환심을 사는 한편 그녀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로 인해 명성황후가 환궁한 다음부터 을미사변으로 서거할 때까지 이범진은 서얼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30]

갑신정변이 진압된 직후인 1884년 10월 21일 고종은 갑신개화파가 발표한 모든 개혁안을 환수하였다. 이어 갑신개화파에 대한 체포령을 내림과 동시에 내각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날 고종은 전형을 거치지 않고 특지(特旨)로 이범

---

26 『尹致昊日記』 고종 21년(1884) (양)6월 23일.

27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윤5월 1일.

28 『舊韓國外交文書 8: 淸案1』, 문서번호 183, 126쪽.

29 黃玹 저, 金澹 역, 『梅泉野錄』, 183쪽. 러시아유학생 金賢土는 1911년 4월 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발간된 『달료카야 아크라이나』(遠方의 地域消息)이란 신문에 기고한 짧은 글에서 "조선의 낡은 구습을 타파할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이범진이 金玉均 · 朴泳孝와 함께 일본군을 동원하여 황궁을 습격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범진의 갑신정변 초기단계에의 참여는 불분명하다.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민족운동』, [이범진 공사 외교자료], 「한국의 황태자 이범진에 대한 회상」, 133쪽.

30 『統監府文書』 8, [韓官人의 經歷一般], 212쪽.

진을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정6품)에 임명했다.[31] 이는 이범진의 공로를 감안한 인사조치였다. 이어 12월에 홍문관 관원들이 집단 상소를 올릴 때에 그는 교리 이기조(李基조(肇) · 부교리 이건영(李建泳) · 부수찬 홍학주(洪學周) 등과 함께 반일토역(反日討逆)을 건의하였다. 여기에는 이범진의 반일성향과 급진개화파에 대한 증오감이 잘 나타나 있다.

> 저 흉악한 무리들은 실로 무리를 결성하여 패악을 준비해 오다 문득 음란한 기교를 부려 이역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오래 전부터 나리를 팔아먹을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문을 열고 外寇를 맞아들여 성상의 수레를 협박하여 잠깐 동안에 화란의 기미가 다급해졌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천지는 어둡고 귀신은 분노했으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치고 당황해 하며 분노에 겨워 곧바로 그들의 살점을 도려내어 먹고 그들의 살가죽을 벗겨 옷으로 입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아, 저 역적의 우두머리가 형체를 감추고 자취를 숨겨 아직도 천지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으니 신들은 간담이 떨리고 뼈가 흔들려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이번의 국청에서 복주된 여러 흉적들은 모두 그의 패거리로서 머리를 맞대고 역모했거나 팔뚝을 걷어붙이고 흉역을 행했거나 종의 신분으로 힘을 다했거나 형제간으로 계획을 알았던 경우이니, 모두 풀을 베듯 짐승을 잡듯이 죽여 근원을 통렬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신들은 생각건대, 이점돌 이하의 흉적들에게 모두 極律을 시행하여 하늘의 토벌을 엄하게 하고 사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金玉均 · 朴泳孝 · 徐光範· 徐載弼의 경우는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가두도록 하라는 명을 내리신 지 지금 이미 여러 달인데 아직껏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분하고 원통해함이 무엇이 이보다 심함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다시 엄한 신측을 덧붙여 기한을 정해 온 나라에 수소문해 잡도록 하는 한편 이웃 나라에 현상하여 붙잡아 국청을 설치해 심문하고 조사해서 전형을 통쾌하게 바로잡으소서.[32]

즉, 이범진은 항일상소문에서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을 품고 이역땅을 돌아다니다가 '외구(外寇)' 를 끌어들인 난신적자들이라고 갑신개화파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고종을 협박한 김옥균 · 박영효 · 서광범 · 서재필 등의 흉적들을 국내외에

31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10월 21일.
32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12월 14일.

현상하여 속히 잡아다가 처형하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정치하라고 건의했다. 이어 그는 10월 15일에도 홍문관 관료들과 함께 위의 내용과 유사한 반일, 반갑신정변 상소를 올렸으며, 20일에는 갑신역당(甲申逆黨)에 대한 노륙의 형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욱 강력한 형벌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33] 이러한 반일관 및 반갑신정변관은 1888년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완용과 함께 일본에 체재했을 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때 그는 윤치호와의 만남을 단호히 거부했을 뿐 아니라 윤치호를 만나면 왜 여기 있느냐고 꾸짖겠다고 말하였다.[34]

4. 갑신정변 후 별입시(別入待) 활동

갑신정변 이후 이범진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측근으로 부상하였다. 갑신정변이 종식된 다음 한달 여가 지난 1884년 12월 28일에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종6품)의 천망단자가 올라오자 고종은 직접 이범진의 이름을 추가로 써넣어 낙점하였다.[35] 이러한 특별인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종과 명성황후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규장각의 직각이란 직책은 열성조의 어제(御製)를 받들고 비부(秘府)의 도서를 관장하는 자리로서 경륜이 원대하고 의리에 정미하고 문장과 도덕이 출중한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비교적 문한에 어두운 편인 이범진으로서는 명성황후를 구했다는 공으로 분수에 넘치는 자리를 받은 셈 이었다.

1885년 1월 4일 이범진은 속된 선비가 감당할 자리가 아니라며 고종에게 규장각직각을 사직하는 상소 를올렸다. 여기에서 그는 중국과 조선에서 문벌을 따지지 않고 능력이 출중한 위청(衛淸) · 곽거병(霍去病) · 범중엄(范仲淹) · 한기(韓琦) · 이여매(李如梅) · 정도전(鄭道傳) 등 서얼계 인사들을 등용한 것은 칭송할 만한 일이라고 진언한 다음, “무인 집안의 천한 첩의 자식으로서 출신이 미천하고 성품이 용렬하여 한갓 부모의 보살핌만 받았을 뿐 사우(師友)의 훈계를 익히지 못하여 경술(徑術)이 조박함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고 공령(功令)의 작은 것

33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10월 15 · 21일.
34 『윤치호일기』, 1888년 (양)8월 4~28일.
35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10월 21, 12월 28일.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 같은 사람을 규장각직각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며 자신의 직임을 속히 교체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다.[36] 이러한 상소는 관료가 현직(顯職)이나 고위직을 받을 경우 당연히 사직상소를 올리는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서얼인 이범진이 왕실문서를 관장하는 직책을 맡은 데에 대한 송구함이 잘 드러나 있었다.

이범진의 사직상소에 대해 고종은 사직하지 말고 계속 근무할 것을 명하는 한편, 오히려 1885년 1월 15일에 명성황후와 함께 '천운(川雲)' 이라는 휘호를 직접 써서 내려주었다.[37] 이처럼 전례가 드문 시혜 조치는 이범진의 관료로서의 승진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범진은 내전 별입시(內殿 別入待)' 에 임명되어 무시로 중궁전을 드나들며 명성황후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특히, 명성황후의 혈속이 아닌 일반 관료로서 중궁전을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격외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은 명성황후가 이범진에게 얼마나 커다란 특혜를 내렸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그러나 이범진은 신분이 낮은 처지였기 때문에 내전에서 민씨척족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낮추며 기를 펴지 못하였다. 이에 명성황후는 자신이 총애하는 이범진을 위해 민영소(閔泳韶) · 민영준(閔泳駿) 등 친정 조카들에게 "이범진은 내가 매우 아끼는 바이니 너희들은 그를 까다롭게 대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내리기까지 하였다.[38]

그런데 이범진이 임명된 별입시라는 비공식적 관직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개화정책과 측근정치의 부산물이었다. 고종 친정 직후인 1873년 11월 국왕의 위세를 배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성황후를 견제하기 위해 별입시가 처음 등용되었다. 명성황후의 친정 오라비인 세도재상 민태호(閔台鎬)가 여망이 있는 대신들을 골라 그들을 차례로 입직시켜 시무에 참여토록 고종에게 건의했는데, 이를 별입시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때 별입시로 선발된 인사는 김병시(金炳始) · 김영수(金永壽) · 정범조(鄭範朝) · 윤자덕(尹滋德) · 조인희(趙寅熙) · 민규호(閔奎鎬) 등이었다.[39] 또한 다른 기록에 의하면 김병시 · 김보현(金輔鉉) · 윤자승(尹滋承) ·

---

36 『承政院日記』 고종 22년(1885) 1월 4일.

37 尹炳喜, 「李範晉 · 機鍾 · 瑋鍾 3부자의 가계 및 행적」, 6쪽. 이 휘호는 현재 명지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38 黃玹 저, 金澹 역, 『梅泉野錄』, 184쪽. 춘생문사건 때 일본인들은 이범진을 "명성황후의 3정부 중 1인" 이라고 비방하였다. 『中央新聞』, 제2면, 1895년 12월 3일.

39 황현 저, 김준 역, 『梅泉野錄』, 50~51쪽.

민태호 등이 사귀별입시(四貴別入侍))' 로서 고종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40] 이들은 국왕과 왕비의 내명에 따라 국왕의 집무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궁중을 드나들며 국왕 부처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개항 후 고종과 명성황후는 개화정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관직매매 · 광산개발 · 어염전매 · 홍삼매매 · 차관도입 등등 각양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때 궁궐 내외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관장하던 4~500여 명의 인사들을 별입시라고 불렀다. 서울과 지방 각지에 거주를 두고 있는 별입시들은 고관으로부터 노비나 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망라되어 있었다.[41] 이외에도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체결 후부터 고종 퇴위 직후까지 고종의 항일의지에 따라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의병활동을 벌였던 고종의 고위급 측근 인사들이 대부분 별입시들이었다. 그리고 고종이 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사절단과 외교관을 파견하는 등 대외개방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때에 동원한 외교밀사나 통역관들도 대부분 별입시의 성격을 지닌 인사들이었다.[42]

갑오경장 이전까지 별입시는 국왕과 왕비를 보좌한다는 명목 하에 무시로 궁중을 드나들며 정국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880년대 중반 고종의 개화정책과 친로정책을 보좌한 김가진(金嘉鎭) · 정병하(鄭秉夏) · 조존두(趙存斗) · 전양묵(全良默) · 민유용(閔有用) · 김학우(金鶴羽) · 김유원(金牖元) 등도 별입시로 입신한 인사들이었다. 심지어는 개화파인 서광범(徐光範) · 홍영식(洪英植) 등도 한때 고종의 부름을 받고 궁궐을 드나들면서 별입시로 불리기도 하였다.[43] 이 외에도 고종의 이종사촌이자 정치적 분신인 심상훈(沈相薰), 고종의 총애를 받은 한규설(韓圭卨) 등도 1880년대에 별입시 활동을 벌인 인사들이었다. 하여튼 벌열가의 후손이 고위직을 독점하던 폐쇄적 신분사회의 질곡 속에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측근에서 활동하던 별입시란 자리가 주변 신분층이나 하층민들에게 신분상승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통로였음이 주목된다. 이때 서얼인 이범진이

---

[40] 尹孝定, 『韓末秘史』, 敎文社, 1995, 34쪽.

[41] 황현 저, 김종익 옮김,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43쪽.

[42] 고종치세기 별입시들의 정치활동과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오영섭, 「한말 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東方學志』128, 2004, 82~84쪽.

[43] 1880년대 별입시들의 면면과 활동에 대해서는, 井上角五郎, 「漢城之殘夢」(東京: 春場堂, 1891, 『서울에 남겨둔 꿈』,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43, 69쪽. 『尹致昊日記』, 1886년 (양)8월 7일.

중궁전의 별입시로서 명성황후를 위해 갖가지 임무를 수행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885년 3월 25 일 이범진은 민병석(閔內奭)과 함께 왕명을 출납하는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고종에게 보고했으며, 또한 고종의 전교를 받아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어 4월 24일에 평안도 남부의 군사요충지인 성천부(成川府)의 부사(종3품)로 나갔다.[44] 그리고 1885년 11월 전남의 순천(順天)부사(종3품)로 전출되어 1887년 10월까지 2년 반을 외직에서 근무했다.[45] 이는 약 3년간을 지방 관직을 맡아야만 당상관에 오를 수 있는 조선의 관례에 따라 이범진에게 외직을 경험시킨 다음 중앙으로 전보시켜 측근에 배치하려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배려가 가미된 인사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목민관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이범진은 성천과 순천에서 포학과 음욕을 자행했을 뿐더러 부민(富民)에 대한 토색을 일삼아 '유호(乳虎)' 라는 악명을 얻었을 정도로 지방민의 지탄을 받았다.[46] 게다가 순천부사 재직시에는 변장(邊將)을 천거하는 단자를 중앙에 올릴 때에 격식에 어긋난것이 있다 하여 질책을 당했으며, 선혜청(宣惠廳)에 진상할 세곡의 납기일을 넘겨 일시 파출(罷黜)을 당하기까지 하였다.[47]

지방관 재직 시의 탐학과 태만에도 불구하고 이범진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비호 하에 중앙직으로 승차하였다. 그리하여 1887년 10월 25일 동지춘추관사를 거쳐 공조참판 · 호조참판 등 종2품직을 거친 다음 1887년 11월 29일 이원일(李源逸)과 함께 군국사무를 총괄하는 개화정책 추진기구인 내무부(內務府)의 협판에 올라 고종정부의 중견인사로 부상했다.[48] 이후부터 갑오경장 이전까지 이범진은 이조참판(1888. 10) · 경연청동지사 · 형조참판(1888. 11) · 돈녕부동지사(1891. 12.) · 한성부우윤(1892. 1) · 예조참판(1892. 1) · 형조참판(1894. 4) · 좌부승지(1894. 6) 등 종2품 관직을 두루 거쳤다. 이범진은 1888년 10월 판서자리가 예약된 영예로운 직책인 이조참판에 임명된 다음에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자신

44 『承政院日記』 고종 22년(1885) 3월 25일; 『高宗實錄』 고종 22년(1885) 4월 24일.
45 『昇平誌』 「先生案」, 1923.
46 黃玹 저, 金澯 역, 『梅泉野錄』, 183쪽; 『尹致昊日記』, (양)1888년 8월 4일.
47 『承政院日記』 고종 23년(1886) 2월 1일, 1887년 1월 12일.
48 『承政院日記』 고종 24년(1887) 10월 25일, 30일, 11월 3일; 『高宗實錄』 고종 24년(1887) 11월 29일.

의 처지와 고종과 명성황후의 배려를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 신의 집안은 대대로 이른바 영화로운 문벌이니 처음에는 왕실의 갈래였다가 이어 여러 대를 거쳐 운명을 함께 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한 가문 안에 將相과 높은 벼슬이 사람들의 이목을 눈부시게 비추어 신의 아비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으로 말하자면 수백 년 동안 벼슬길이 막혀 있는 서얼(庶孼)입니다. 일찍부터 학업을 닦지 못하여 학식이 변변하지 못하고 용렬하며 , 재주는 帝자와 虎자도 분변하지 못하며, 지혜는 고기나 음악을 담당하는 천한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시대의 버려진 물건을 자처하다가 우리 성상의 천년에 한 번 있을 만남과 자상하게 이루어주시는 교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와 달이 사사로이 비춰주는 일이 없고 비와 이슬이 내릴 곳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이 지명된 초기에 따뜻하게 길러주시고 감회를 젖게 하시어 玉堂과 奎章閣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백관의 반열에까지 옮겨 갔습니다. 지난번에 또 특별히 이조참판의 직함을 제수하셨으니, 신 같은 자가 신하를 논하는 것이 과연 현실이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자도 꿈이라고 할 것이니, 신이 어찌 감히 현실이라고 여기겠습니까.[49]

아관파천후에 이범진은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인 명성황후를 가리켜 "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왕후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50] 그러나 적어도 을미사변 이전까지 이범진은 명성황후의 후원에 힘입어 출세했을 뿐 아니라 명성황후의 주선으로 민씨척족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5.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로정책 보좌

이범진은 언제부터 친로파가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그는 언제 어떠한 계기를 거쳐 친로세력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그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수족 역할을 수행한 별입시로 입신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가 반청 · 반일 · 친로 · 친미 정책에 따라 국권과 군

49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11월 16일.

50 『尹致昊日記』, 1896년 3월 30일. "When Her Majesty was alive," said Yi Pom Chin with tear, "we thought she was the author of all national evils."

주권을 지키려고 애썼던 고종과 명성황후의 외교노선을 그대로 따랐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범진은 코드가 제대로 들어맞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충직한 신하였던 셈이다.

1880년대에 조선에서는 황준헌(黃遵憲)의『조선책략(朝鮮策略)』에 나타난 러시아의 야만적인 영토욕으로 말미암아 공로증(恐露症)이 한층 깊어진 상태였다.[51] 이처럼 러시아를 경계하는 상황속에서 친로세력이 형성된 계기는 1880년대 중반 경부터 강구된 고종의 인아거청정책(引俄拒淸政策)이었다. 갑신정변 전후 청국 주차관 원세개의 내정간섭이 심화되자 조선은 국가의 자주권과 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국공법의 균세론(이이제이정책)에 입각하여 구미 열강과 일련의 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52] 당시 조선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의도를 품고 있는 러시아와도 조로수호통상조약(1884. 윤5) 및 양차의 조로밀약(朝露密約)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교류관계로 접어들었다.[53]

특히, 고종은 1885년 봄 이 조로밀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통인 권동수(權東壽)와 김유(용)원(金牖(鏞)元) 등을 블라디보스톡에 밀파하여 청일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조선을 보호해 달라는 국왕의 친서를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하게 하였다.[54] 또한 1886년 7월 원세개의 국왕폐립음모에 반발하여 고종은 측근의 별입시인 김학우 · 전양묵 · 조존두 · 김가진 등과 로어 통역 채현식(蔡賢植) 등을 자주 러시아공사관에 보내 조선의 국권과 국왕의 군주권을 보장해 달라는 비밀서한을 전달하게 하였다.[55] 이어 1887년 4월 민씨척족의 모 관원이 북경으로 가서 청국이 대원군을 지원하여 고종을 퇴위시킬 경우 러시아가 제물포에 함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해 달라는 비밀요청을 북경주재 러시아공사에게 전하였다.[56] 이처럼 1880년대 중후반에 전개된 고종과 명성황후의 일관된 친로정책은 그러한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할 친로파의 형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

51 허동현,「1880년대 한국인들의 러시아 인식양태」『한국민족운동사연구』32, 30~44쪽.

52 오영섭,「개항후 만국공법 인식의 추이」『東方學志』124, 2004, 469~470쪽.

53 崔文衡,「韓露修交와 韓末의 정황」『제국주의 시대의 列强과 韓國』, 民音社, 1990, 89~103쪽.

54 伊藤博文 編,『秘書類纂 朝鮮交涉史料』, 下, 東京 : 秘書類纂刊行會, 1936, 124~126쪽; 井上角五郎,『漢城之殘夢』, 한상일 역,『서울에 남겨둔 꿈』, 63~64쪽.

55 伊藤博文 編,『秘書類纂 朝鮮交涉史料』, 下, 124~126쪽.

56『러시아 국립문서 보관소 소장 한국관련 문서 요약집』,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電文 : 북경공사꾸마니→외무성(1887, 5.18/음: 4. 26), 422쪽.

전제군주제 국가인 조선과 러시아가 조선 국왕의 군주권 보호문제를 가지고 유대관계를 강화해나가는 기운데 친로정책의 일선 실무자들이 점차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갑신정변 직전 조선에는 청국당 · 일본당 · 러시아당이 있었는데, 러시아당은 한규직(韓圭稷) · 이조연(李祖淵) · 조정희(趙定熙) 등이었고 김유원과 김학우도 러시아와 가까웠다"는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의 주장을 보면[57] 갑신정변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러시아당이 미약하나마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당이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1884년 5월 9일에 부임한 러시아공사 웨베르(Carl Waeber, 韋貝)는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58] 이들 러시아당은 국왕 부부의 친로정책, 능통한 로어실력, 웨베르공사와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느슨한 형태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것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 4) , 보빙사 파견(1883, 6), 특명전권공사 파견 및 상주공사관 개설(1887, 10) 등을 통해 미국공사관을 둘러싸고 친미세력이 서서히 형성되어 가던 시대상황과 맞물려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종정부의 친로정책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별입시인 이범진도 갖가지 공사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러시아공사관 및 친러인사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범진은 외무협판 뮐렌도르프(P.G. von Mollendorff, 穆麟德)와 친한 관계였다고 하는데,[59] 이는 이범진이 국왕 부처의 지시로 외교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뮐렌도르프와 친분을 쌓았음을 의미한다. 이때 이범진은 러시아공사 웨베르와 가까운 사이인 친러성향의 뮐렌도르프를 통하여 러시아세력과 인연을 맺었을 것이다. 나아가 1886년 7월 고종이 원세개의 반발에 밀려 김학우 · 김가진 등 조로밀약에 관련된 별입시에게 귀양형을 내렸는데, 이때 김학우는 순천부 유배형에 처해졌다.[60] 김학우 · 김가진 등은 귀양길에 오르기도 전에 고종의 배려로 풀려났지만, 김학우가 이범진이 다스리는 순천부로 부처된 것은 고종의 특별 배려가 가미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국왕이 총신을 부득이하게 귀양보낼 때에는 대체로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가 다

57 井上角五郎, 『漢城之殘夢』, 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 41쪽.

58 柵瀨軍之佐, 『見聞隨記 朝鮮時事』(東京 : 春陽堂, 1894), 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 381쪽.

59 黃玹 저, 金澯 역, 『梅泉野錄』, 133쪽.

60 『承政院日記』 고종 23년(1886) 7월 22일. 김학우는 慶興府 관리를 지내다가 러시아로 이주하여 조일수호조약 체결 때에 일본인들을 따라왔던 金麟昇의 조카였다. 李光麟, 「舊韓末 露領 移住民의 韓國政界 進出에 대하여」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169~170쪽.

스리는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상례였다. 물론 김학우가 순천부에 부처된 데에는 이범진이 김학우를 비롯한 친로성향의 인사들과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범진이 친로파 인사로서 보폭을 넓혀가는 시점은 외직에서 내직으로 승차한 1887년 11월 이후로 보인다.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가 친로정책을 기속화함에 따라 세도당상 민영준(閔泳駿) · 민영환(閔泳煥) 등 집권세력의 상당수가 친로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국권과 군주권을 보장받으려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로정책이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61] 그러나 조정내에 자신들의 친로정책을 수행할 전위부대인 친로집단을 부식한 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1894년 여름에 청일전쟁 취재특파원으로 조선을 답사한 일본「마이니치신문」의 사쿠세 군노스케(柵懶軍之佐)때는 1894년 조선 정계의 당파를 논급하는 가운데 친로파에 대한 주목할 만한 언급을 남겼다.

> 러시아당은 사대당(친청파)의 낙오자들의 집합소로서 중국의 간섭도 간섭이려니와 원세개의 참견이 더 싫어서 마음을 바꾼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 러시아공사 웨베르가 처음 이 당을 주도했고, 한때는 현명한 국왕도 이 당의 세력이 확대되기를 바랄 정도였다. 그래서 중국이 이만저만 낭패를 본 것이 아니었으나 웨베르가 귀국한 후로는 그다지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혜청당상 閔泳駿 일파는 변함없이 러시아를 숭배하며 일단 조선에 위기가 닥칠 때에는 반드시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 당은 무시 못할 집단이며 일본 조야의 식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62]

즉, 청국과 원세개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반청적 성향의 친로파는 웨베르공사와 고종의 후원 하에 세력을 키워 청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기도 했지만, 1894년 4월 30일 웨베르가 주청대리공사로 부임한 다음부터 세간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조선에서 가장 유력한 세도가인 민영준일파

---

61 당시 러시아 외무성은 "국내 사정이 불안한 고립무원의 조선을 구원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조선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려 깊은 충고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훈령을 주한 러시아공사에게 내렸다.『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민족운동』, [이범진 공사 외교자료], 서한 : 기르스 외무장관→주한 러시아공사(1890.5.9), 159~161쪽.

62 柵瀨軍之佐,『見聞隨記 朝鮮時事』(東京 : 春陽堂, 1894), 한상일 역,『서울에 남겨둔 꿈』, 381~382쪽.

만은 여전히 조선의 국권보호를 위해 러시아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친로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보면 갑오경장 직전에 친로세력이 일시 침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일세력에 버금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요컨대 1887년 11월 이후 민씨척족의 권력기관인 내무부로 진출한 이범진도 고종과 명성황후의 반청친로정책에 따라 러시아공사관 및 친로세력과 연대하여 활동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대관계는 갑오경장으로 민씨세도가 붕괴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범진은 1889년 9월부터 1894년 4월까지 6년 동안 생모 · 양모 · 부친상으로 연이어 상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63] 영어 · 러시아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전연 문외한이었기 때문에,[64] 그리고 문한능력과 실무능력에 다소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 부처의 친로정책을 전면에 나서서 수행하기보다는 이면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6. 갑오경장기 친로파 거두로의 부상과정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흥선대원군-친일개화파 연립정권이 들어섰다. 6월 22일 대원군은 민씨척족과 친민계 관료들을 적격 해임한 다음, 6월 29일 민씨세도에 의해 향리로 방축된 죄인들에 대한 특방(特放)을 명하고, 이어 7월 3 일 귀양에서 풀려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서용의 은전을 베풀었다. 이는 민씨세도 시절의 국사범 내지 정치범들을 대거 사면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조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던 한성부좌윤 이범진은 7월 4일에 평안도 남동부에 위치한 국방상의 요지인 영변부(寧

63 연이은 상을 마친 다음에 올린 상소에서 이범진은 "6년 동안의 상중에 슬퍼하느라 혼과 정기가 소멸되어 皮骨이 겨우 남았으니,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고, 문밖으로 나가려 해도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추한 몰골을 돌아보면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끙끙대는 일개 흙인형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범진이 장기간의 服喪으로 인해 대외활동을 일시 중단했음을 보여준다. 『承政院日記』 고종 31년(1894) 5월 11일.

64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민족운동』, [이범진 공사 외교자료], 「이범진 전한국공사의 자결」(1911. 1. 14), 246쪽 ; 同, 「이범진공사의 자결에 관하여」(1911. 1. 15), 249쪽.

邊府)의 부사로 강등 · 좌천되었다.[65]

갑오경장 직후 경복궁 동쪽 전각에 유폐된 고종과 명성황후는 1894년 7월부터 8월경까지 다각도로 왕권회복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청국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에게 민상호(閔商鎬)를 밀파하여 조선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청원밀서를 전달하게 하였고,[66] 평양감사 민병석(閔丙奭)에게 밀사와 밀서를 보내 평양에 진주한 청장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했으며,[67] 민응식(閔應植) · 민영달(閔泳達) · 민영소(閔泳韶) · 민형식(閔炯植) · 민영환(閔泳煥) · 이재순(李載純) 등 고위 관료를 지낸 측근들을 비밀리에 궁중으로 불러 그들로 하여금 항일운동을 벌이게 하였다.[68] 나아가 명성황후는 민응식 · 민형식 · 심상훈 등에게 양호(兩湖)지역에서 활동 중인 동학농민군과 연대하여 항일활동을 펼치도록 하였다.[69] 그러나 고종과 명성황후의 항일활동은 평양전투에서의 청군의 패배, 삼남에서의 동학농민군의 패퇴, 9월 28일에 새로 부임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일본공사의 효과적인 항일세력 견제활동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70]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영변부사 이범진이 이면에서 어떤 활약을 벌였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청일간의 평양대회전이 일본군의 승리로 결판난 다음 2주일이 지난 8월 26일에 신병을 이유로 영변부사직을 사임한 것을 보면,[71] 1894년 늦가을 이후 이범진은 서울에 머물며 모종의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범진이 친로파의 거두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1895년 3월 29일에 벌어진 삼국간섭이었다. 이미 1895년 1월 러시아의 압력에 밀려 일본세력과 친일개화세력이 위축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유리한 대내외 정세를 적극

65 『高宗實錄』 고종 31년(1894) 7월 4 일.

66 李毓澍 편저, 『淸季中日韓關係資料十三種綜合分類目錄』, 國學資料院, 1994, 355쪽; 黃玹 저, 李民樹 역, 『東匪紀略草藁』 乙酉文化社, 1985, 222~223쪽.

67 伊藤博文 編, 『秘書類纂 朝鮮交涉史料』 中, 633~637쪽, 下, 634쪽; 李毓澍 편저, 『淸季中日韓關係資料十三種綜合分類目錄』, 355쪽.

68 『日本外交文書』, 제27권 제2책, 문서번호 496, 『日公使參內謁見始末記』, 146~147쪽.

6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東學黨事件에 대한 會審顚末報告], 「東學黨 鎭撫를 위해 정부에서 파견한 具完喜의 日誌」 國史編纂委員會, 1993, 56~57쪽; 『大阪每日新聞』 1894년 12월 16일.

70 柳永益, 「淸日戰爭 中 日本의 對韓侵略政策」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强』,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제2장.

71 『承政院日記』 고종 31년(1894) 8월 26일.

활용하여 왕권회복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72] 그간 은밀히 소극적으로 추진되던 고종 부부의 왕권회복운동은 심국간섭으로 인해 강한 탄력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고종과 명성황후의 왕권회복운동은 대내적으로 궁내부와 내각을 장악하여 민씨척족과 그들의 협력자들을 재기용함으로써 친일개화파를 일소하는 것이었고, 대외적으로 친로 · 친미 성향의 정동파관료들을 앞세워 친구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대내적으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갑오경장 이후 내각이 왕권을 제약하고 공화제나 입헌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새로운 친위 정치기구로서 궁내부를 주목하였다.1895년 4월 2 일 고종은 「宮內府官制」를 반포하고, 4월 7일에 이재순(李載純) · 심상훈(沈相薰) · 이하영(李夏榮) · 이윤용(李允用) · 홍계훈(洪啓薰) · 이경직(李耕稙) · 민상호(閔商鎬) · 현흥택(玄興澤) 등 근왕적 정치성향을 지닌 수십 명의 인사들을 궁내부에 기용하였다.[73] 이때 이범진은 궁내부 제용원 상의사장(尙衣司長)을 맡아 다시 정계에 등장하였다. 5월 1일에 고종은 민씨척족과 노론계 의정들로 구성된 16인의 궁내부특진관을 설치하여 궁내부의 근왕성을 한층 강화하였다.[74] 고종은 궁내부의 측근들을 조만간 내각으로 전출시킴으로써 행정 · 경제 · 군사권을 궁내부로 이속시키는 왕권공고화작업을 단행하였다.[75]

대외적으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전제군주제 국가인 러시아만이 조선의 국권과 군주권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친로정책을 택하였다.[76] 동시에 그들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관의 거중조정〔居中調停〕 조항이 일본의 대한침략을 저지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친미정책을 취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대외청원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할 친위관료로서 친로 · 친미 성향의 정동파 관료를 기용하여 주한외국공사관과 연락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구미파' · '아미당(我美

---

72 일제의 경복궁점령부터 을미사변 이전까지 고종과 명성황후의 군주권회복운동에 대해서는, 吳瑛燮, 「甲午更張 中 高宗의 王權恢復運動」『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1~79쪽.

73 『承政院日記』 고종 32년(1895) 4월 7일.

74 『承政院日記』· 『日省錄』 고종 32년(1895) 5월 1일.

75 오영섭, 「갑오경장 중 고종의 왕권회복운동」, 56~72쪽.

76 金相洙, 「閔妃弑害事件의 國際的 背景」『明星皇后弑害事件』, 民音社 1992, 148~154쪽; 이민원, 『명성황후시해와 아관파천』, 國學資料院, 2002, 27~30쪽. 당시 權東壽는 블라디보스톡에 밀파되어 일본의 압제를 막고 조선을 보호해 달라는 밀서를 연해주총독 운뗄베르게르에게 전달하였다. 『재러시아 한국관련 문서요약집』, 電文: 아무르총독 두흡쓰키→육군상(1895. 7. 8/음: 윤5.15), 606쪽.

黨)' · '왕실파' · '친미파' 등으로 불린 정동파 관료들은 국왕 부처의 왕권회복운동을 외교 방변에서 적극 도왔다. 1895년 윤5월 중순경 고종과 러시아 짜르간에 조선의 국권과 군주권 보호, 내정 불간섭, 명성황후와 민씨척족의 안전보장등 4개항의 '은밀한 약속'이 성립되었는데,[77] 이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대외청원활동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비밀약속이 체결되는 데에는 이범진 같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로파 수족들이 이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1895년 윤5월 중하순경 고종과 명성황후의 군주권 강화정책과 그러한 과정에서 기용된 이범진을 비롯한 친로 · 친미 인사들의 활동장을 일본측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당시에 민씨들은 대부분 숨을 죽이며 아직 머리를 쳐들지 못했지만, 소위 閔派의 성격을 지닌 李允用· 安駉壽· 李完用· 李采淵 등의 무리는 모두 開化黨이라고 칭하면서 정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우리를 떠나 러시아와 미국으로 기울어져서(소위 貞洞派)왕비를 업고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왕비를 도와주는 사람 또한 점점 늘어갔다. 박영효가 떠난후 우선 宮內府의 사람들을 경질시켰다. 즉, 궁내부대신 李載冕과 동 협판 金宗漢을 파면시키고 대신 李耕稙과 李鎬晉을 임명했다. 또 왕비의 친척으로서 이미 총애를 받고 있던 閔商鎬(작년 7월 사변 후 중국으로 피신했는데 이 무렵 돌아왔다)를 궁내부 外事과장으로 임명하여 궁중과 각 공사관간의 관계를 장악하게 하였다. 또 왕과 왕비의 영어통역을 위해서 러시아공사 웨베르의 친한 친구인 미국인 르장드르를 불러서 宮內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그 외에도 경질한 사람이 많았다. 이제 궁내부는 순수한 閔黨 즉 러시아당과 미국당으로 단결하여 그 세력이 거의 내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7월 이후(음/윤5월 중하순)의 형세이다.[78]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종은 윤5월 20일에 "지금까지 칙임 · 칙명을 모두 아래에서 의논하여 바친 것은 체제가 아니었다"며 정무친재의사를 공식적으로 피력하였다. 통일에 "신제도 · 신법령 등에는 모순이 허다했으니 앞으로 재검토하겠

---

[77] 杉村濬, 『明治二十七八年在韓苦心錄』, 『韓相一 역, 『서울에 남겨둔 꿈』,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225~226쪽.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 문서 요약집』, 170, 606쪽.

[78] 杉村濬, 「在韓苦心錄」『서울에 남겨둔 꿈』, 221쪽.

다며 갑오경장의 성과를 취사선택하겠다는 취지의 조칙을 반포했다.[79]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의 왕권강화정책은 갑오경장의 개혁성과를 일부 계승하면서 안으로 친일개화파를 철저히 숙청하고 밖으로 배일친로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일본은 8월 20일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막고 조선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최대의 장애물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왕권강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범진은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윤5월 28일에 궁내부 제용원장(濟用院長)에, 6월 29일에 궁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궁내부협판(7월 8일 궁내부대신서리)에 임명되었다.[80] 이로써 그는 왕실과 러시아공사관 사이의 연락을 책임지며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로정책을 보좌하였다. 이어 7월 15일 개국 503년 기념식 때에 사무협판을 맡았고, 을미사변 3일전인 8월 17일에 농상공부대신에 올랐다. 이는 서얼의 승진 상한선인 종2품을 뛰어넘어 정2품의 대신 반열에 올라섰으며, 동시에 명성황후의 최측근 인사 겸 친로파의 거두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81] 이런 인연으로 이범진은 을미사변 당일 새벽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하자 "미국과 러시아 공사관에 긴급히 구원을 청하라"는 고종의 명령을 받고 궁성 서쪽담장을 넘어 러시아공사관으로 달려가 "일본군이 명성황후를 죽이려 함이 분명하다"고 알렸던 것이다.[82]

7. 맺음말

이범진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충신이었다. 대원군대에 포도대장으로 명성을 날린 최고위 무장 이경하의 서자로 태어난 이범진은 민태호 · 민규호 · 민영익 등 세도가를 배출한 여흥민씨 삼방파의 민백흥계와도 혈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화려한 가문 배경은 문한능력과 실무능력과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했

79 『高宗實錄』 고종 32년 (1895) 윤5월 20일; 『(舊韓國)官報』, 1895년 윤 5월 21일.
80 『承政院日記』 고종 32년(1895) 4월 7일, 6월 29일, 7월 7일.
81 『高宗實錄』 고종 32년(1895) 8월 17일.
82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민족운동』, [이범진 공사 외교자료], 「명성황후 시해사건 시 이범진의 활동과 아관파천」, 147~ 148쪽.

을 뿐 아니라 호기와 방탕을 일삼아 자주 문제를 일으킨 이범진의 관료로서의 약점을 크게 보완해 주었다. 게다가 갑신정변 때에 명성황후를 업고 노원으로 피신한 사건은 이범진의 근왕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서 그의 출세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써 이범진은 견고한 신분 장벽을극복하고 을미사변 직전에 판서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이범진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정치노선을 철저히 따랐다. 그는 개항 직후 특별과거를 거쳐 출사한 다음 1882년 통리기무아문 군무사 주사직을 거쳐 갑신정변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의 측근이 되었다. 특히 그는 명성황후의 내전 별입시로 임명되어 무시로 중궁전을 드나들며 왕비의 자문과 비밀임무를 도왔다. 이어 1880년대 후반부터 을미사변 전까지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로정책을 보좌하면서 친로파의 거두로 부상했다. 이는 을미사변 이전 그의 활동이 고종-명성황후-러시아를 축으로 펼쳐졌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고종과 명성황후의 수족 역할을 수행한 별입시로 입신한 이범진은 동도서기적 개혁론과 반청 · 반일 · 친로 · 친미 노선에 따라 국권과 군주권을 지키려고 애썼던 고종과 명성황후의 정치노선을 충실히 보좌하였다.

이범진은 1884년 윤5월 조로조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부터 친로적 정치활동을 벌였다. 개항기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전제군주제 국가인 러시아만이 조선의 국권과 군주권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강력한 친로정책을 취하였다. 이때 명성황후의 별입시이자 충실한 군권론자인 이범진은 러시아공사관을 자주 드나들며 고종 부처의 친로정책을 이면에서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웨베르 러시아공사와 친로성향의 뮐렌도르프 외무협판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가 친로활동을 전개한 데에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영향 외에도 1884년 5월 청국인에게 구타당한 개인적 경험과 11월 일본세력이 국왕의 안녕을 위협한 갑신정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여튼 이범진은 1880년대 중반경부터 친로활동을 벌인 결과 을미사변 직전에 이르러 명성황후의 친로정책을 대행하는 친로파의 거두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범진과 명성황후의 정치활동은 고종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살 차이가 나는 명성황후와 이범진은 갑신정변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명성황후가 세도가인 친정 조카들에게 이범진에 대한 각별한 대우를 부탁했을 정도로,

그리고 이범진이 중궁전을 무시로 드나들며 명성황후의 시중을 들었을 정도로 양인은 친밀한 관계였다. 그런데 아관파천 직후에 이범진이 윤치호를 찾아와 울면서 "왕후가 살아있을 때 우리들은 왕후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 생각했으나 이제 보니 단지 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해로운 일을 하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말한 것을 보면,[83] 이범진은 자신이 명성황후의 지시하게 처리한 갖가지 일들이 결국은 고종의 지시에서 나왔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자신이 정치의 전변에 나서지 않고 명성황후를 앞세워 통치를 하였던 고종의 독특한 통치행태가 빚어낸 것이었다.

을미사변 이전 이범진의 정치활동은 개화파와 달리 왕권과 국권을 통일시한 국왕 부부의 왕권 및 국권 수호운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 개항기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내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국권과 왕권의 자주성 확보에 필요한 열강 상대의 균세외교투쟁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대내적으로 동도서기노선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고, 대외적으로 열강간의 압력과 침략의 위협 속에서 국권과 군권의 수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다수의 인사들이 비공식적 직책인 별입시로 기용되어 고종과 명성황후의 국권수호와 왕권유지를 위한 비밀활동을 일선에서 수행했는데, 중궁전 별입시로 입신한 이범진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신뢰하는 충직한 신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대로교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요컨대 을미사변 후부터 경술국치 직후 자결할 때까지 이범진이 보여준 강렬한 근왕성과 자주성과 애국성은 개항기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측근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터득한 행동지침이자 사고방식이었다.

83 『尹致昊日記』, 1895년 12월 11일.

| 필자소개 |

□ 강 상 규

최종학력 : 서울대 외교학과, 동경대학 국제사회과학 박사

주요경력 및 현직 : 서울대 · 경남대 강사

현재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요 논저 : 「고종의 대내외 정세인식과 대한제국 외교의 배경」(『동양정치사상사』 4-2, 1995)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공저, 푸른역사, 2006)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사회와 역사』 71, 2006)

「중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동양철학』 25, 2006)

□ 구 선 희

최종학력 : 고려대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경력 및 현직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주요 논저 : 『한국근대 對淸政策史硏究』(혜안, 1999)

「청일전쟁의 의미-조 · 청 속방관계를 중심으로」(『한국근현대사연구』 37, 2006) 외 다수

□ 강 창 일

최종학력 : 서울대 국사학과 · 동경대학졸업(문학박사)

주요경력 및 현직 : 제주 4.3연구소장

배재대학교 교수

현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아시아평화의원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주요 논저 : 『친일파 99인』(공저, 반민족문제연구소, 돌베개출판사, 1993)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공저, 아세아문화사, 1995)

『한권으로 보는 일본사 101장면』(가람기획, 1998)

『근대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역사비평사, 2002) 외 다수

□ 박 민 영

최종학력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주요경력 및 현직 : 국민대 · 단국대 · 충남대 강사

현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주요 논저 :『대한제국기 의병연구』(한울, 1998)

「왕산 허위의 후기의병전쟁」(『왕산 허위의 나라사랑과 의병전쟁』, 구미시, 2005)

「장지연의 북방강역 인식」(『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외 다수

「한말 의병의 대마도 被因 경위에 관한 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 37, 2006)

□ 서 민 교

최종학력 : 고려대 사학과 · 일본 一橋大學(박사 수료)

주요경력 및 현직 : 고려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 연세대 등 강사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논저 :『위대한아시아』(공저, 황금가지, 2003)

『근대 동시아 역사인식 비교.』(공저, 선인, 2004)

「근대 일본의 조선주둔군에 대한 고찰 - 그 시원에서 1910년 한국병합까지-」

(『한일관계사 연구논집』 7, 2005) 외 다수.

□ 서 영 희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경력 및 현직 :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구원 , 서울대 · 가톨릭대 등 강사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학과 조교수

주요 논저 :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공저, 지식산업사, 1995)
『대한제국 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공저, 푸른역사, 2006) 외 다수

□ 연 갑 수

최종학력 :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경력 및 현직 :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 서울시청 문화재과 문화재관리팀장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주요 논저 :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서울대출판부, 2001)
「이필제연구」(『동학학보』 6, 2003)
「북한의 고중세 정치사 연구」(『북한의 역사만들기』, 푸른역사, 2003) 외 다수

□ 오 연 숙

최종학력 :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경력 및 현직 : 단국대 · 경희대 강사
현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요논저 : 「대한제국기 궁내부특진관의 운용」(『사학지』 31, 1998)
「대한제국기 고종의 인사정책과 관료층의 형성」(『국사관논총』 100, 2002)
『대한제국기 고위관료층 연구』(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3) 외 다수

□ 오 영 섭

최종학력 : 한림대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경력 및 현직 : 상명대 · 한림대 · 한신대강사
현재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논저 :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국학자료원, 1999)

「한말 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동방학지』 128, 2004)
「1940년대 후반 유물사가들의 동학농민운동 인식」(『동학학보』 10,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단군인식」(『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2006)
외 다수

□ 장 영 숙

최종학력 : 상명대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경력 및 현직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상명대 · 한국외대 강사
현재 상명대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요 논저 : 『장서각 소장 탁본자료 해제』(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연구」(상명대 박사학위 논문, 2005)
「동도서기론의 정치적 역할과 변화」(『역사와 현실』 60, 2006) 외 다수

다시 보는 명성황후

발행일 | 2025년 12월 30일
발행인 | 안용호
발행처 | 여주문화원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6-6
(031.883.3450)
편 자 | 오영섭 · 장영숙
편 집 | 남한강종합인쇄

©2025, 여주문화원
ISBN
이 책은 여주시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다시 보는 명성황후』는
여주문화원이 2002년 부터 2005년 까지 4년간 개최하였던
네 차례의 명성황후 재조명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학계의 연구성과를
새롭게 수정 · 보완하여 한 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비매품/무료
ISBN 979-11-983277-2-7

이 도서는 여주시의 지원으로 출간되었습니다.